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토대구축에 관한 연구

- October 2016 UN Academic Impact Korea



D

연구책임자

이종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연구원

심희정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이화진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전공 박사과정)

김민지 (Vanderbilt University 국제교육정책 석사과정)

허광영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토대 구축에 관한 연구

개요

- 국내 고등교육 세계시민교육 발전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 탐색
- 실제 교육 현장 내 추진을 위한 중요한 토대 구축 방안 제시

목차

제 1 장 서론: 목적과 개요

1. 연구의 목적

제 2 장 세계시민교육론

1.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접근
2. 고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3. 시사점

제 3 장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1.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추진현황
2.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제 4 장 세계 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유형

1. 서론
2. 서구 주요 대학
3. 아시아 주요 연구중심 대학

제 5 장 국내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토대

1. 세계시민교육의 유형 검토
2. 국내 대학에서의 주요 토대 분석
3. 국내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토대 분석

제 6 장 한국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1. 세계시민의 개념과 필요성
2. 한국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개념의 틀
3.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9 개 대학을 중심으로
4.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과제

참고 문헌

- Appendix A.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조사 결과
- Appendix B. 국내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유형과 토대
- Appendix C. 세계 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유형
- Appendix D.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영남대, 상명대

주제어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 국제화, 고등교육, 교육정책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고등교육 세계시민교육 발전 및 내실화를 위한 과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나아가 실제 교육 현장 내 추진을 위한 중요한 토대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2) 정부 및 주요 관련기관 내 세계시민교육 추진 현황, (3) 한국과 개발도상국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비교 및 분석, (4) 국내외 대학 내 세계시민교육 추진 현황을 사례 분석하여 정책 방안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을 ‘자신의 재능과 품성에 바탕하여 형성된 의식과 역량으로, 보다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의식과 행동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한편 세계시민의식 혹은 세계시민성을 ‘지적인 인식과 동의, 정의적인 공감 그리고 책임의식과 행동하려는 헌신적 의지의 요인을 통합하는 의식’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대학교육 상황에 대한 분석과 개념적 설계를 위해 4 개 영역 - (1) 지구적 인식과 (2) 지구적 보편가치에 대한 동의, (3) 지구적 책임의식, 그리고 (4)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 내 8 개 요인 - (1) 세계 주요 문제에 대한 인식, (2) 세계의 여러 문제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3) 국제적 원칙에 대한 동의, (4) 지속가능성, (5)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 (6) 공감과 이타, (7) 지구적 실천에 대한 관심과 (8) 지구적 실천에 대한 의지 -을 설정하여 세계시민의식의 개념구조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발 간 사

2010년 11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교육을 통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평화, 개발, 인권)를 해결하고자 유엔 아카데미믹팩트(UN Academic Impact, UNAI)를 창설하고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장려했습니다. 이에 2012년 8월 한국 또한 유엔 아카데미믹팩트 한국협의회(UN Academic Impact Korea, UNAI Korea)를 발족하여 유엔의 지구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발표하였고, 3가지 주요 교육목표 중 하나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기회의 보편화, 양질의 교육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중요한 교육의제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유엔이 설정한 새천년 개발목표가 전환하는 시기인 2015년 4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 때 합의된 인천선언문에서 양질의 교육과 함께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9월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했고, 17개 목표 중 교육은 4번째 목표 ‘양질의 교육’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세부 목표의 하나로 세계시민의식이 포함된 것입니다.

유엔 아카데미믹팩트 한국협의회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부터 <세계시민교육의 모형 탐색과 토대 구축>을 주제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대학의 현황분석, 외국대학의 사례분석, 국내외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조사 및 시사점과 실천과제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향후 한국과 개도국의 고등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 협조와 자문을 해주신 국내 9개 대학의 교수님들- 경인교육대학교 김왕준 교수님, 경희대학교 김병찬 교수님, 고려대학교 신현석 교수님, 상명대학교 최병욱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교수님, 영남대학교 김병주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교수님, 조선대학교 송경오 교수님,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님과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이종승 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를 해주신 연구팀-이종재 교수님을 비롯한 심희정 박사님, 이화진 선생님, 김민지 선생님, 허광영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연구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출발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유엔 아카데미믹팩트 한국협의회
회장 김영길

목 차

제 1 장 서론: 목적과 개요	3
1.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세계시민교육론	13
1.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접근	13
2. 고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19
3. 시사점	21
제 3 장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25
1.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추진현황	25
2.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50
제 4 장 세계 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유형	73
1. 서론	73
2. 서구 주요 대학	83
3. 아시아 주요 연구중심 대학	95
제 5 장 국내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토대	111
1. 세계시민교육의 유형 검토	111
2. 국내 대학에서의 주요 토대 분석	120
3. 국내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토대 분석	127

제 6 장 한국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151
1. 세계시민의 개념과 필요성	151
2. 한국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개념의 틀	159
3.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9 개 대학을 중심으로	169
4.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과제	207
 참고 문헌	 213
Appendix A.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조사 결과	221
Appendix B. 국내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유형과 토대	267
Appendix C. 세계 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유형	278
Appendix D.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영남대, 상명대	297

제 1 장

서론: 목적과 개요

제 1 장 서론: 목적과 개요

1. 연구의 목적

세계시민교육은 그 개념과 내용을 토대로 하는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에 대한 관점 또는 기관 및 단체의 사명 및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시행된다. 한편, 국내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명목상으로는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매우 부진한 상태로 봐도 무관하며 교육과정 개발 또한 탐색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세계시민교육교육과정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UN Academic Impact Korea)는 고등교육학술협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하며 모범사례를 발굴 제시하는 과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하여 향후 개발도상국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¹

¹ 세계시민교육 관련기관 협의회 회의결과 (2015.12.18)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교육분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실제 교육 현장 내 추진을 위한 중요한 토대 구축방안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둔다. 실제 좁은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의 개발은 대학 내 교육 관련자가 개발해야 하나 넓은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은 정부,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및 대학 차원에서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는 세계시민교육의 진흥을 위해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 및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과 틀, 협력과제를 함께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

가. 연구의 관점

의식의 존재로서 사람은 다양한 의식을 가진 “다중 의식의 존재”(multiple identities)이기도 하다. 사람은 다중 자원에서 그에 합당한 의식을 형성한다. 개인으로서의 의식, 국민으로서의 국민의식, 소속한 직장이나 일과 업의 의식,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는다. 이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거나 빈약한 사람도 있다.

세계시민교육이 제기된 배경과 맥락을 볼 때

세계시민의 핵심은 “의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의식을 consciousness 혹은 mindset 으로 볼 수 있다.

세계시민의 형성은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을 의식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에 흘러 들어 온 몇 가지 생각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윤리교육과 시민교육의 흐름이 있다. 국민윤리교육이 국민으로서의 “의식”에 관한 교육이라면, 시민교육은 “우리나라라는 공간”과 “오늘의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의식에 관한 교육이 된다. 국민윤리교육과 시민교육은 때로는 긴장과 갈등을 불러 올 소지를 안고 있다.

오늘의 시대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인식한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교통과 정보통신 그리고 ICT의 발달로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국경의 벽은 낮아지는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세계 환경은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맞게 되었다. 특히 기후변화와 지구의 환경문제와 개도국의 빈곤문제, 국제적 갈등과 세계평화문제, 청년실업문제, 다양한 형식의 불평등문제, 지속가능한 개발과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요구한다.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공동의 노력(collaboration)과 협력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전과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변혁적인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이 필요하게 되었다(Kim & Chang, 2015).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서 대학과 대학교육이 가야 할 길을 개척하여 온 선진국들과 선진대학들은 스스로 세계화되어 가는 세계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육을 모색하여 왔다.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주요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논의하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옥스팜(Oxfam)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도 독자적으로 단체의 사명에 비추어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흐름의 교육활동들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아래 모아지게 되었다. 교육의 지향과 활동양식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정리되지 않은 개념”(contested concept)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어윤일, 심희정, 2016).

발전(development)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발전의 성격과 그 핵심 내용을 규정하는 인간자본(human capital) 형성에 기반을 두는 고전적발전론과 종속이론 간의 차이가 있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의 관점과 민주적 공동체의 지향 간에 긴장이 있다(Chung, 2011). 여기에 지속가능발전론과 역량개발론이 제기되었다. 발전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맥락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삶의 실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세계화과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는 관점도 있다. 이 보고서의 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화를 보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세계시민의식”과 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성격과 그 중심을 다양하게 규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임하는 관점을 간단하게 구분하여 국제화 관점(internationalization)과 세계화 관점(globalization)으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제화관점은 인간자본론에 중심을 두고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세계화된 시장에 적응하는 관점이라면 세계화관점은 세계화된 세상의 변혁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지향하는 관점으로 규정한다. 세계적 차원의 빈곤문제와 불공정한 구조에 대한 비판적으로 변혁을 추구하는 “비판적 세계화관점”도 있고, 글로벌 역량개발을 통한 세계적 과제에 도전하는 “변혁적 세계화관점”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에 임하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진다. 이 두 관점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모여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안고 제기되었다.

나. 세계시민교육 의제화 과정

유엔(United Nations)은 세계화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과 그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엔은 전통적으로 유엔의 헌장 이념을 추구하는 세계평화, 인권, 평등,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데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여 왔다(한경구 외, 2015:1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설정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교육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제기하였다.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s, GEFI)”에서 세계시민교육을 3 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UNESCO)는 2015 년 1 월에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향후 8 년 동안의 포괄적인 중점과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설정하였다.

유엔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중요 추진과제로 설정한 이후에 유네스코와 아태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 결과를 “21 세기의 도전과제를 준비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틀”을 제시하였다. 아태교육원은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와 아태교육원은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주요한 방편으로 세계시민교육론을 제기하였다(한경구 외, 2015:11). 유네스코는 아태교육원과 우리나라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국제적 정책의제를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의제화되는 과정을 개관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정책 주제를 의제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 의제는 국제적 맥락에서 “외부 동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심희정, 전인선, 이화진, 2016). 외부 동인에 의한 정책의제가 “내부적 정책의제”로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1) 문제의 재규정, (2) 규범 가치 설정, (3) 정책으로서의 체계화, (4) 실제에 적용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으로서 그 틀을 갖추기 위한 토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제 3 장에서는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먼저 한국대학생들의 가치지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생의 가치지향은 자연훼손형 개발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내성적 성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시사를 준다. 시간차원에서 현재를 지향하는 가치지향을 보인다.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은 5 점 척도에서 3.58 수준으로서 낮은 편이다. 글로벌 이슈(global issues)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높으나 지구적 참여의식과 실천의 지면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에서 공공의식이 낮은 영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공공의식을 지향하는 교육과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학에서의 국제화 프로그램에 공공의식의 연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이종재, 김민지, 허광영, 2016).

한국 대학이 운영하여 온 넓은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세계시민교육”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대학생의 낮은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특히 많은 대학에서 세계시민의식에서 1 학년과 3 학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은 대학교육의 세계시민교육의 효과가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부 대학에서 학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오랜 세계평화교육의 전통을 유지해 온 K 대학, 독특한 특성을 지향하며 세계시민교육에 임하여 온 C 대학에서는 3 학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세계시민의식에서 계열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민교육의 차이가 의식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계열을 대표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이 표집이 된 교육계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교사역할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학생에게 문제의식을 전달하였다. 세계적 주요 주제에 대한 안내와 방향(orientation)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계시민의식과 관련 있는 가치관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간행동의 동기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요인으로 등장한다. 성취동기보다도 존재로서 성장 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세계시민의식과 관련이 있었다. 이 점은 전인교육의 목표로서 “왜 공부하는가?”라는 이유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빛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인성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의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김영길, 2016).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인재상에 대하여 앎과 삶을 통합하는 홍익인간형의 인재상에 대한 그 의미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김영길, 장순홍, 2015).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속성으로서 학생주도적인 활동프로그램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기주도성과 융합형 학습경험의 축적, 그리고 세계적 과제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부채꼴 모양으로 과제 영역을 확산하여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사형 프로그램의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라. 세계시민교육의 실제

세계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을 보였다. 국가와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에 임하는 동기와 목적은 달랐다. 서구의 유명대학들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민의식의 국제적 연장선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좁게 제한적으로 추진해 온데 반하여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대학에서는 국제적 존재감을 들어내고 국제적 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대학교육의 “국제화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에 대응하여 왔다. 세계시민교육의 실체는 폭 넓은 다양성을 보여 왔다.

이러한 다양성은 세계시민교육의 규범적 토대, 국제화를 포함한 대학의 발전전략,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규범적 토대와 대학발전전략과의 연계(coupling)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명시적인 강한 체계적 연계방식(tight coupling)도 있고 느슨한 연결방식(loose coupling)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은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좁은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이종재, 이화진, 2016).

대학의 비전과 사명(vision and mission statement), 인재상 등이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는 구성한다. 대학총장 등의 대학경영진의 비전과 의지, 대학의 발전계획, 국제화 전략 등이 이 토대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문제는 대학교육의 목표가치와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결 여부가 된다. 대학 내 프로그램 개발전략과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를 연결하는 방식에서 강한 체계적 연계방식도 있고 느슨한 연결방식도 있다. 이 연결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세계시민교육이 전개된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몇 가지 중요하게 제기되는 운영의 원칙이 드러나 보였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개념의 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 지·정·의를 통합하는 전인교육의 원리, (2) 학생주도성을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원리, (3) 융합학습경험을 제공하려는 초 학제적 접근(trans-disciplinary), (4) 다양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활용하는 활동프로그램의 구성 등의 교육원칙을 반영하고 있다(Kim, 2005:9).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유형과 운영원칙을 반영하는 개념 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

마. 국내대학의 여건

국내대학들은 세계시민교육을 의식과 역량 면에서 볼 때 국제적 역량의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국내 대학은, 주로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으로 포괄적, 규정한 규범적 토대위에서 운영하여 왔다.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에 대한 규범적 토대와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는 사실상 약하다. 또한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coupling)가 빈약하다.

특히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교양대학과 자유전공학부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반영이 미흡한 편이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양대학의 목적의식이 불명한 편이다.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의 차원을 높혀 국제적 경험의 확대를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화된 국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생들의 국제진출을 돕기 위해서도 의식의 수준을 세계적 시민의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자체가 세계시민의 의식과 역량을 구비하는 대학자체가 “세계시민화”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활동과 외부기관과의 연계활동도 빈약한 편이다. 세계시민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외부의 시민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와 연계가 부족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등의 개발협력기관과의 협력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바. 세 가지 핵심적 질문

왜 세계시민교육인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세계시민교육은 매우 필요한 의식교육임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시대, 즉 제 4 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세계시민교육은 남북한 통일과 통합을 위한 공통의식의 기초가 된다.

세계시민의식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할 때 갖춰야 할 공공의식의 토대가 된다(정범모, 2016). 이점에서 세계시민의식은 차원 높은 인성 교육이 된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높여 상층 의식²을 기르는 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려는 의식교육이다.

어떤 세계시민교육인가? 의식과 역량을 추구한다. 의식과 역량의 두 개의 축이 교차하는 4 개의 가능성 중에서 궁극적으로 양자 통합형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 방향이 글로벌 인재육성교육의 길이 될 것이다. 대학차원에서 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국제진출형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사람됨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의식면에서 나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보편적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수용하고, 남을 배려하는 공감의 마음에서 세계적 문제를 바라보고 책임을 느끼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글로벌 인재의 모습이 된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규범적 토대 구축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 대학교육 목적과 세계시민교육을 연결하는 체계화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는 느슨한 연계체제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자체가 세계시민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하버드대학교처럼 세계시민교육을 표방하지 않고 특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세계시민의식이 대학의 문화를 형성하고 교육의 실재를 주도할 때, 세계시민교육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지향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도 여기에 속하고, 이화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의 체계화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별로 창의적으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개념 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맥락 적합성이 필요하다. 조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이 연계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학의 시민교육도 발전적으로 나아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중국 안에서도 북경대학과 홍콩대학의

² 6 장 나. (2) 참조

접근이 다르다.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platforms)의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가 되는 대학의 비전과 사명/인재상과 총장을 포함하는 대학경영진의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 그 자체가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운영에서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사.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플랫폼

대학 안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 중요한 Platform은 대학교육의 규범을 규정하는 규범적 토대이다. 이 규범적 토대는 (1) 대학의 비전과 사명, (2) 대학의 교육목표, (3) 교육목표로서의 인재상, 그리고 (4) 총장 등의 대학경영진이 인식하는 대학의 인재교육의 목표와 대학의 발전전략 등이다.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위에 세계시민교육이 서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나름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세워져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대학교육의 한 유행이 될 수는 없다.

대학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대학의 두 번째 토대는 프로그램과 담당기관 차원에서의 토대이다.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토대는 교양과정의 구조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의 구조이다. 세계시민교육과 직결된 교과나 프로그램이 없다하더라도 관련 교과의 구조가 있을 경우에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구조를 세울 수 있다. 관련 교과를 인증하여 연결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혹은 활동 센터가 있을 경우에 강력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세 번째 토대는 학생활동 차원의 토대이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주도의 프로젝트 활동이나 콘테스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토대는 대학문화 차원으로서 대학 그 자체가 마치 세계시민이 된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관행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이 대학의 기풍(ethos)과 핵심가치로 이루어진 대학문화 속에 스며들었을 때, 눈에 띄지 않지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접근

거버넌스 접근법(governance approach)은 수평적 차원에서 의사소통과 협력, 그리고 수행기관의 역량개발과 내적책임성을 운영원리로 삼는다. 주요 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협력적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정책 형성 그리고 지원에 대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형성 해야 하며 또한 정책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대학은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한다. 세계시민교육을 사명문과 대학문화에 통합시키고, 관련된 프로그램과 학생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NGO와 관련된 연구소는 세계시민교육을 지지하며 전문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이종재, 심희정, 김민지, 2016).

각자의 역할과 함께 세 주체의 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다. 포럼, 컨퍼런스, 워크숍을 만들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할 책임이 있다. 세 주체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더 나은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세계시민대학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전략과제

첫 번째 전략과제는 세계시민 선도대학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세계시민 선도대학을 다섯 개 정도 선정하여 적어도 5년 동안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이러한 사업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충남대학교는 BK21(Brain Korea 21) 플러스 사업으로 “세계시민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세계시민교육은 더욱 더 견고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여 세계시민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중요한 학생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글로벌문화디자인단(Korean Global Culture Design Corps, 이하 K-GCDC)”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평화봉사단 Peace Corps와 비슷한 개념의 단체가 될 것이다. K-GCDC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활동 제안서를 만들어 융합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해외에서 자신들의 제안서를 직접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나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과제는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발표한 정부계획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사회와 더 많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과제는 관련 정부, 대학, 시민단체 등의 기관들이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 포럼”이다. 이 포럼은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일반의 인식과 관심을 확산시키고 그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고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세계적인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Global citizenship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를 세우는 것이다(김영길, 2016). 세계시민교육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에 이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세계시민대학교육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연구기회도 확장시키리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인터네셔널 센터’와 같은 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세계시민교육론

제 2 장 세계시민교육론

1.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접근

현재까지 연구된 세계시민교육 문헌은 ‘세계(global)’, ‘시민의식(citizenship)’, ‘교육(education)’의 요소로 조합된 복잡한 정의와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유네스코(2015)에 따르면 ‘시민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진화했고 여전히 진화 중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가. 세계시민의식

세계화의 개념은 세계시민의식 및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의의의 토대를 형성한다. 박순용(2013)에 따르면 세계와 세계화의 개념에 대한 접근은 ‘정적인 상태가 아닌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다(p. 20). 또한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의견이 분분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와 허상, 그리고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거쳐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화는 ‘타인의 삶과 여건을 본인의 것과 연결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는 과정이며, 상호연결성을 인지하는 것(박순용, 2013: 22)’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맥락의 인식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토레스(2015)는 다양한 유형의 세계화에 대한 담론이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러한 유형은 상향식/하향식 세계화, 인권, 융복합, 정보사회 및 지식사회, 네트워크 사회,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행위 등을 포괄한다. 토레스는 특히 하향식 세계화로 분류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를 세계화의 가장 지배적인 유형으로 꼽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는 표준화 검사와 같은 측정 가능한 기준, 그리고 기관의 비용효율성 및 민영화 등으로 구성된 ‘경쟁기반 개혁’이 이루어진다.

슐츠 (2007)는 세계화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식—신자유주의, 급진주의(비판주의), 변혁주의—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세계화는 시민의 정체성, 권리, 책임은 무엇인가 라는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의 방식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슐츠(Schultz, 2007)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은 세계시민이 자본주의와 기술을 통해 참여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자유 세계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다.

급진주의적 접근방식은 세계화를 서구 경제 제국주의로 간주하는 비판적인 관점으로 억압적인 세계체제에 맞서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변혁주의적 접근방식은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초국가적 패턴을 의식하는 관점이다.

세계시민, 또는 세계시민의식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는 훗날 국제연합(UN)의 전신이 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코스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이라고 불렸던 세계시민의식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모든 인간은 중요하며 서로를 돌봐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다만 다른 보편주의 철학과 차별되는 점은 인간의 타당한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다른 이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겸손을 관용하는 디오게네스의 철학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유교의 기여에 대해 다룬 이철승(2007)의 논문은 국가적 시민의식과 세계적 시민의식에 대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이철승의 유교적 공동체주의(Confucian communitarianism)는 흔히 자유개체주의(liberal individualism),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세계화 시대에 만연한 불평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유교사상과 전통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유교적 공동체주의는 결코 일반화될 수 없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성과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성을 실현한다는 유교적 공동체주의의 공통된 기반을 고려하면 개인의 이익을 최고의 선이라고 간주하는 경쟁기반 신자유주의 윤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교윤리는 개인, 소유, 자유의 결합에 기반하고 있다. 고대 유교사상에서는 사유재산을 이상적인 인간의 업적으로 보지 않고 공유재산보다 중요도가 덜하다고 여겼다. 자연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농경사회에서는 농부의 소유지를 물질적 부가 아닌 윤리적 관계의 차원에서 고려했다(p. 152). 이와 같은 세계관에서 특히 이상적인 인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군자(君子)를 ‘재물에 대한 개인의 소유보다 도덕성이 갖추어진 공동체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사람들(p. 152)’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자유란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 본성을 나타낸다. 사회 구성원의 내재된 도덕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p. 156).

유교적 공동체주의는 역사적 현실에 궁극적인 윤리적 이상을 두고 있는 선형적 보편주의 때문에 한계가 있다(이철승 2007:171). 이는 보편적인 이상에 대해 다른 시각을 허용하지 않고 민중을 단지 계몽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p. 172). 또한 어울림이라는 개념이 개체성을 상쇄하진 않지만, 모두의 평화를 강조함으로써 규정된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을 제외시키거나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권력자의 억압적인 이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서구의 자유개체주의가 개인소유의 종교적 자유라는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규정했다면, 어울림과 공공복지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유교적 공동체주의는 오늘날 국가와 세계의 공공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 시민의식은 한 민족국가 내에서 개인의 소속감과 권리 및 책무에 관한 행동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었다(Tawil, 2013). 그러나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은 국가나 나라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토착인구나 소수민족, 이민자, 난민 등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뿐 아니라 세계시민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세계시민이 속할만한 ‘세계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유엔과 국제기구도 국가주권을 기반으로 설립됐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은유적 표현일 뿐이다(Tawil, 2013:2).

그러나 세계시민의식은 기풍과 관행의 측면에서 소속감, 상호연결성, 상호의존성, 상호책임감이라는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개인이나 시민이 인류보편적 가치에 공감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공동체의 일원인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다(Tawil, 2013).

나.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상호연결과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이 전체론적, 초학문적, 변혁적, 그리고 평생학습의 시각을 수용하도록 요구되어 왔다. OECD의 DeSeCo 사업이 규정한 21 세기에 필수적인 기술과 역량을 넘어 넓고 다양한 세계 공동체에 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김진희 외 (2014)은 기술과 지식뿐 아니라 사회 및 ‘정신적인’ 측면에서 인권, 지속가능성, 관용, 평화, 정의 및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인간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시민은 지역사회와 글로벌사회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기본인권을 옹호하여 사회변화에 기여해야 한다(김진희 외., 2014). 학습자가 사회변화에 기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복잡한 글로벌 문제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변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UNESCO, 2014). 이러한 역량은 학습자가 단순 내용 전달을 넘어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적이고 문답적인 환경에서 전체적인 평가 전략으로써 펼쳐져야 한다.

또한 세계화에는 초학문적인 관점과 평생학습의 관점이 요구된다.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초학문적인 접근은 국내외 사회, 경제, 정치맥락과 관련된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폭넓은 학습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습자는 다양한 시각과 학문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Jorgenson & Shultz, 2012). 또한 학습자는 정규 및 비정규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뿐 아니라 평생 동안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접해야 한다(UNESCO, 2014).

아이들과 청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넓은 글로벌 맥락에서 변화하는 당대 삶의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박순용, 2013:47).

각 요소에 대해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세계시민교육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UNESCO, 2014: 15). 세계시민교육이 새로운 과정과 프로그램으로 분리되고 교육되더라도, 세계시민의식의 요소는 의학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과학 간의 국내외 연결고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초학문적 개념으로써 기존 교육의 근간이 된다.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네스코(2015)는 세계시민의식을 ‘더 넓은 공동체와 공통된 인간성에 대한 소속감’으로 정의하며, ‘지역, 국가,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p. 14).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측면을 다음 3 개로 분류할 수 있다. 1) 인지적 측면: 세계 및 지역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의미한다. 2) 사회정서적 측면: 소속감과 공통된 가치 및 책무,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연대감, 존중을 의미한다. 3) 행동적인 측면: 학습자들이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유네스코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는 세계시민교육(GCED)을 통하여:

-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 권리 및 책임, 글로벌 이슈와 글로벌, 국가, 지역의 제도와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 문화, 언어, 종교, 성별, 공통된 인간성 등의 차이와 다양한 정체성을 인지하고 인식하며, 다양화되는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
- 비판적 탐구, 정보기술, 미디어 문식성,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문제해결, 협상, 평화구축 및 개인과 사회의 책임 등의 ‘시민 문식성’을 계발하고 이에 관련된 중요한 기술을 적용한다;
- 신념 및 가치가 사회정치적 의사결정과 사회 정의 그리고 시민 참여에 대한 시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살펴본다;
-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키우고 환경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배운다;
- 공정성과 사회정의의 가치를 습득하고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 종교, 나이 등을 기반으로 불평등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 교육받고 참여하고 책임감 있고 대응적인 세계시민으로써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현대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고 기여한다.

출처: 유네스코(2015) 주제와 학습의 목적

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접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에 대한 시각을 기반으로 구상된다. 다수의 학자들이 세계화와 세계시민교육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비슷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숄츠(Shultz)가 제시한 접근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했다. 숄츠(Shultz, 2007)는 도워(Dower, 2003)가 제시한 규범적, 실존적, 열망적 개념을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세 종류로 분류하는데 이는 세계화에 대한 3 가지 접근방식—신자유주의, 급진주의(비판주의), 변혁주의—과 부합한다(McGrew, 2000).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의식에서는 세계시민을 대화를 위해 관계를 구축하고, 자유 시장 제도에 참여하고,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변화를 이끌고, 사회 불평등을 근절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여행자로 인식한다. 여기서 교육의 역할은 세계참여를 도모하고 자유민주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학생유치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환교사 프로그램 등 세계 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세계 경제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외국어 과정이나 문화체험 과정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안드레오티(Andreotti, 2006)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주된 역점은 글로벌 이슈를 인식하는 것과 선과 도덕적 행위를 위한 운동에서 시민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세계 윤리와 공통된 인간성을 기반으로 시작된다. 이와 유사하게 토레스(Torres, 2015)는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라고 하는, 세계화 내에 신자유주의 시민의식이 체화되어 있는 개념을 제시한다. 초세계화에서는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화를 통해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개념은 가우델리(Gaudelli, 2009)의 신자유주의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개념과 유사하다. 가우델리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시민은 국가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편 세계화의 힘이 글로벌 시장을 넘나드는 변혁적인 시민의 정체성을 융복합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세계시민은 세계 자본에 참여하며 교과과정은 경쟁과 유용성을 강조하게 된다.

2) 급진적 (비판적)

급진적 접근법에서 세계시민이란 헤게모니 체제를 방해하여 세계 경제 구조를 억압하는 자를 무너트리는 도전자로 세계에서 소외되는 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이뤄낸다. 이런 접근법 하의 교육의 목적은 세계 경제 구조에 맞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도덕적으로 싸우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사회 정의를 위한 세계 이동성, 즉 핼리팩스 이니셔티브(Halifax Initiative)를 정책적 예시로 들 수 있다. 안드레오티(Andreotti, 2011)와 타월(2013, Tawil)의 ‘비판적’ 세계시민의식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이보다는 덜 극단적이다. 비판적 접근법은 사회 정의와 인권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한다.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은 현존하는 규범과 가치의 역사와 구조의 평가를 통해 권력, 불평등, 도덕과 같은 이슈를 다룬다. 안드레오티는 교육자는 책임감 있는 교육학적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토레스(Torres, 2015) 또한 회의론자 및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모습을 가리키며 세계화로 인해 사회적 이슈와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가우델리(Gaudelli, 2009)는 이런 개념을 ‘마르크스주의적 세계시민의식’이라 칭한다. 가우델리가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시민의식이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며 상상 속의 사회주의를 향해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시민은 억압당하는 이를 뭉치게 하는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일부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교육과정은 계급, 성별, 인종, 자본, 식민지화와 같은 세계적 이슈를 비판적 교수법을 통해 다룬다.

3) 변혁적

신자유주의적 및 급진적 세계시민교육 접근법에 대한 탐구와 분류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변혁적 접근법이 남는다.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은 권력과 억압 이슈를 다루지 않고, 급진적 접근법은 정의에 대한 이중적인 견해를 지니나, 변혁적 접근법은 문제가 되는 구조뿐만 아니라 관계의 복잡한 여러 면을 인정한다. 변혁적 접근법에서의 세계시민이란 “불평등에 대해 정의롭고 동정 어린 대응을 하는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이다(Shultz, 2007: 256). 초국가적이며 서로 엮이는 새로운 국경과 위계질서를 인식하고, 대화와 지역-세계적 행동을 위한 민주적인 공간을 만들 때 변화가 생긴다. 교육의 목표는 지역의 권력관계를 협상할 수 있는 이런 대화와 세계적 연맹의 구축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 정책은 비판적 및 대화적 지식 축적 및 공유의 장을 열고, 이로부터 지역의 역량을 키워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비슷하게, 타월(2013)과 토레스(2015)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와 급진적 접근법의 중간 지점을 찾는다. 변혁적 접근법이 그 중간 지점으로 사회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적 시장, 권위주의적 자유주의, 지역적 국제주의자, 신민주주의자, 국제적 민주주의와 같은 다양하고 분열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들은 지역과 세계 간의 긴장 상태를 인식한다.

라. 세계시민교육의 중점

세계시민교육은 시민의식교육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흔히들 생각한다. 이 과정은 “기존의 국가 또는 지역의 시민의식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강화하기]”위해 세계화라는 맥락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Tawil, 2013:4).

하지만 단순히 기존의 시민의식교육에 세계적인 영역을 추가하기만 하면, 세계시민교육은 한 국가의 안녕만을 위해 세계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한정된다. Davies 외(2005)는 1988~2005 년 사이 영국의 중등교육 기관의 글로벌 교육과 시민의식 교육을 비교했는데 시민의식 교육이 주로 국가적 요구에 대한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통일성이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는 연관성이 없고 하향식인 반면, 글로벌 교육은 특정한 정치적 맥락 하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론과 적용에 있어 분열되어 있으나, 좀 더 상향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은 세계화를 다룰 때, “국제적인 맥락을 더하거나 글로벌 교육 활동을 시민의식 교육 활동에 형식적으로 더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 (Davis et al., 2005:85). 최소한 영국의 교육 체제에서는 기존의 시민의식 교육에 글로벌 교육 활동 및 창의적인 교수법, 또는 국제적 콘텐츠를 접목하면, 비판적이며 하향식인 이니셔티브와 국가 중심적인 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세계화의 맥락에서는 시민의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데이비스(Davis, 2006)는 글로벌 교육에 적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시민의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국제적 의식”을 넘어 적극적인 참여를 하려면 3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사회적 정의는 학습자가 타인에 대한 공감을 넘어 불평등한 체제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끔 동기를 부여한다 (Oxfam). 권리는 공통된 인간성에 기반을 둔 보편적 행동에의 촉구를 보장하며 상대론적 가치 판단은 피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분쟁 속의 지역-세계 연결고리에의 인식은 탄탄한 영향력의 사슬을 통해 지역의 개인과 지역사회 활동을 글로벌 현상 및 분쟁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가르침을 받고, 학교 민주주의 활동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에게도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타윌 (2013)도 비슷한 방향에서 좀 더 보수적인 시민교육과 진보적인 시민의식 교육의 차이점을 언급한다. 시민교육이 시민의식에 대한 “교훈적인 전파”를 하고, 순응을 요구하며 기존의 사회질서를 재탄생 시키는 것이라면, 시민의식 교육은 상호 교육으로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이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의 학습 과정은 학습자가 기본적인 원칙에 기초한 시민 참여를 하도록 장려한다 (Tawil, 2013:3). 시민의식 교육은 세계시민교육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인권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이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와 국가 정부 간의 상호교류 인식 및 국가 시민 이슈에 참여하는 역량과 책임감이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된다.

2. 고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토레스 (2015)는 대학교를 ‘민주주의적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적’ 대학, 두 종류로 구분한다.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 대학의 책임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세계 문명의 지식 보존, 기술을 통한 지식의 전파, 글로벌 노동 시장에 맞는 교육과 훈련 제공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계화 맥락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은 국제화를 통해 그 책임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토레스는 세계시민의식을 국가 시민의식에 가치가 더해진 것이라 보고 있다.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적 연결고리에 대한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결의가 특징이다”(Torres, 2015:268). Rhoads 와 Szelenyi (2011)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대학의 책임은 “개인의 권리와 책임 의식의 지리적 기준점이 확대되고, 또는 어떤 경우, 좀 더 포괄적인 공간적 시야와 세계에 대한 이해 때문에 더 복잡해진 시민의식 시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Torres, 2015:160, 269).

샤틀 (Schattle, 2008)은 교육 속에서 세계시민의식이 지닌 2 가지 목표를 도덕적 비전 증진 및 역량 강화로 본다. 도덕적 비전은 도덕적 세계주의와 자유로운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둘 다 보편적 인간 사회 속의 개인을 중요시한다. 도덕적 세계주의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도덕적 의무를 중요시하는 반면, 자유주의 다문화주의는 상호 존중과 권리의 보호를 위한 문화간 개입을 강조한다. 이런 도덕적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는 이니셔티브는 세계시민의식을 하나의 지역 사회 또는 국가로 제한된 지역이 아닌, “능통하며 윤리적인”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자발적 개인 이니셔티브로 여긴다(Schattle, 2008:76). 하지만, 개인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도덕적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담론은 정치적 및 사회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국가 및 제도적 변화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한편, 많은 세계시민의식 프로그램은 또 다른 목적인 시민 역량을 강조한다. 역량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샤틀은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에서는 시민 역량 그 자체가 도덕적 목표가 된다고 본다 (2008:82). 이런 역량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를 아우르나, 대부분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쟁하는 것을 강조한다. 역량의 목표는 종종 신자유주의 시장이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필수 조건이라는 견해에 기반을 둔다. 다수의 세계시민교육 이니셔티브는 현 시장 체제가 유효하다

여기며, 학생들이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샬튼은 미국의 교외 지역에 위치해 세계 경제 경쟁에서 밀려나는 소규모 대학의 세계시민의식 프로그램이 특히 인증제도와 함께 병행되어 학생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자격증을 제공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세계시민교육의 두 가지 주요 비전은 명확하지 않으며 종종 혼재되어 있다. 태생부터 역량을 중요시하는 대학 인증 프로그램은 세계시민의식을 도덕적 세계주의와 자유로운 다문화주의로 풀어 정의 내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도덕적 세계주의에 기반을 둔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도덕과 역량이라는 요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도덕적 또는 역량 중심 목표에 기반을 두는 다양한 주제가 주어질 수 있다. 두 가지 목표에 어울리는 세계화의 또 다른 분야가 바로 환경 결정론이다.

고등 교육 기관이 세계시민교육을 그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어떻게 심고 실행하는가?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의 세계적인 안목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고등 교육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세계시민의식은 세계 지식 경제와 연계해 자주 사용되는 국제화의 개념과는 다르다. 국제화는 세계 경제하에서 연구와 학습을 변화시킨다. 나이트 (Knight, 2004)는 국제화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활용하는 5 가지 주요 인적 자원 근거가 있다고 말한다. 세계시민교육은 기관의 국제적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세계 시장 환경에 맞게 발전할 수 있고, 학교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되며,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연구 및 지식 창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합당하며 필수적이나, 소수의 부유한 학생만이 유학과 같은 국제화 전략에 참여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비판적이지 않은 해외 유학 경험은 선진국의 학생들에게만 부와 지식이 전해져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을 더욱더 소외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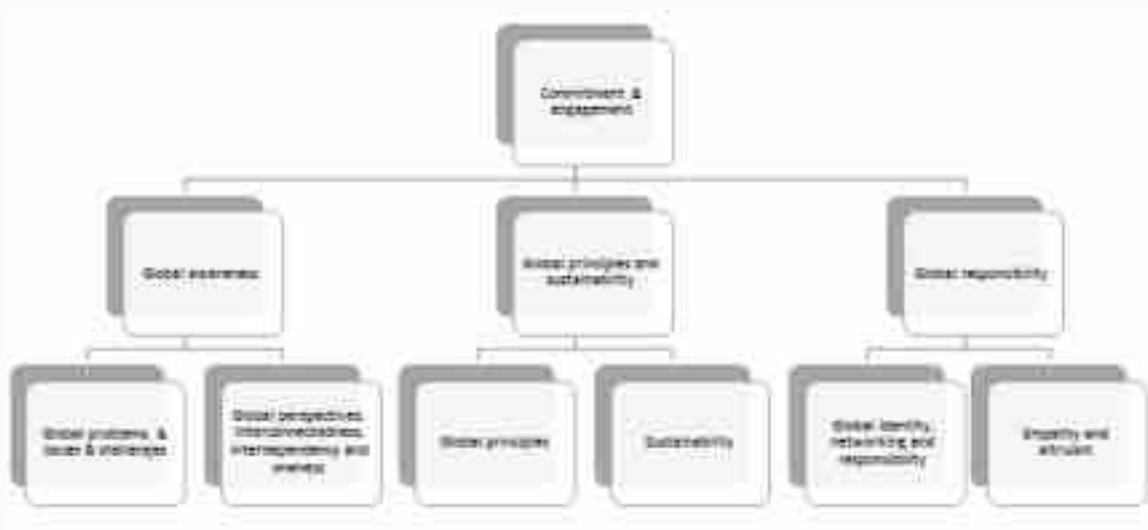
세계시민의식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동기부여 그 이상이다. 세계시민의식은 초학문적이어야 하고 시민과 기관의 참여에 전념해야 한다. 대학이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불평등과 부당함이라는 이슈를 인지해야 한다. 고등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의 비전과 전략에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과 윤리적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시사점

세계시민교육을 개념화하는 일은 복잡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몇몇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면 오늘날 고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의식교육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시민의식 교육이라 여겨질 수 있다. 세계의 시민이란 보편적 인권과 책임을 갖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세계 시민의 권리는 법적 차원까지는 못 미칠 수 있으나, 세계시민의식의 정신과 실행은 실질적이고 변혁적이다.

둘째, 세계시민의식의 개념은 아래에 도식화되어있듯, 4 개의 영역과 8 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 ‘의지와 참여’가 위에 있고, 나머지 ‘세계적 인식,’ ‘세계적 원칙과 지속가능성,’ ‘세계적 책임’이 아래 위치한다. 각 영역에는 2 가지 연관 요소가 있다. 예로, 의지와 참여 아래에는 세계적 실천에 대한 관심과 세계적 실천의 의도가 있다. 세계적 인식 영역에는 글로벌 문제, 이슈, 도전과제 확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각을 지니는 것이 필수다. 글로벌 원칙과 지속가능성 아래에는 보편적 원칙과 지속가능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책임은 소속감과 자아를 비롯해 지구촌에의 책임감과 공감, 이타심이 필요하다.



〈그림 2.1〉 세계시민의식의 영역과 요소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을 고등교육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학교는 세계화와 관련된 역량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식을 함께 고려하여 시민의식과 역량 강화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므로 세계시민교육은 초학문적이며, 전인적이고, 변혁적이며, 시민의식에 대한 평생교육이어야 하고, 세계적인 시민 사고방식과 세계화와 관련된 역량을 성장시켜야 한다.

제 3 장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제 3 장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1. 한국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추진현황

가. 세계시민교육의 국제적 정책의제화 과정

유엔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몇 단계에 걸쳐 그 관심의 대상을 달리하여왔다. 제 1 단계는 1948 년 유엔의 인권선언으로부터 시작한다(United Nations, n.d.). 인권존중과 교육의 역할에 관한 기본 틀을 제시한 이후, 유네스코는 1974 년 제 18 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를 유네스코 국제규범으로 제시하였다(김진희, 2015:70).

제 2 단계는 모두를 위한 교육론으로 교육의 의제를 설정하였다. 제 2 단계는 1990 년에 시작하여 2000 년 새천년개발목표로 정리되었다. 1990 년 3 월에 유네스코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회의(태국 줌티엔)에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 목표”를 출범하였다(한경구 외, 2015:15). 1994 년 10 월에 유네스코-IBE 국제 교육 컨퍼런스(스위스 제네바)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통합적 실천 요강을 채택하였다. 2000 년 4 월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세네갈, 다카르)에서 줌티엔 선언을 바탕으로 6 개의 세부 교육목표를 채택하였다. 다카르 실행계획이 만들어 졌다(한경구 외, 2015:15). 2000 년 9 월에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로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를 채택하였다(김진희, 2015:69).

제 3 단계는 2010 년부터 2014 년에 이르는 단기간의 기간이었으나 새로운 의제를 탐색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유엔이 설정한 세계개발목표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유엔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유네스코는 이에 부응하는 교육개발목표를 탐색하였다. 2010 년 11 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프로그램을 발족하고 2010 년에는 평화, 개발, 인권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과 연구기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 유엔 아카데미임팩트를 창설하였다(UNAI, n.d.).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는 10 개 핵심원칙의 하나로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 포함되었다. 2012 년 9 월에 반기문 사무총장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발표하였고, 3 가지 주요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제시하였다. 교육기회의 보편화, 양질의 교육기회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중요한 교육의제로 제시하였다(김진희, 2015:70).

유네스코는 2013 년과 2014 년에 걸쳐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전문 회의(대한민국 서울)와 제 1 차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태국 방콕)을 개최하였다(APCEIU, 2014:20). 2014 년 5 월 유네스코 모두를 위한 교육회의(오만 무스캇)에서 무스캇 합의문(2014 GEM Final Statement, the Muscat Agreement)을 만들었다. 2015 년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며 교육의제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무스캇 합의문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이 세부사항으로 언급되었다(김진희, 2015:73). 이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한 교육의제로 등장하였다. 제 2 회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포럼(프랑스 파리)에서 Post-2015 교육의제와 실행계획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논의하였다(APCEIU, 2014:6).

제 4 단계는 세계시민교육이 유엔의 교육의제로 설정되는 단계이다. 이 계기는 2015 년 4 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이었다. 인천선언문에서 양질의 교육에 관한 문단에 세계시민교육이 언급되었다(교육부, 2015). 2015 년 9 월 제 70 차 유엔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였다. 17 개 목표 중에 교육은 4 번째 목표(양질의 교육)로 제시되었고 이 목표의 세부 목표 4.7 에 세계시민의식이 포함되었다(지속가능발전포털, n.d.). 2015 년 11 월 유네스코 정상회의(프랑스 파리)에서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all”을 채택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4 번째 교육목표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에 세계시민의식 포함하였다(문도운 외, 2016). 유엔에서의 교육의제의 설정과정을 볼 때 세계시민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설정단계에서 강조되었다. 유엔에서의 의제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유엔의 의제화 과정(1948~2015)

	국제회의	공식 선언문 및 출판	내용과 세계시민교육 의제화
1948 년 12 월	유엔총회 (프랑스 파리)	세계인권선언	모두의 기본인권 존중과 교육의 역할에 대한 기본 틀
1974 년 10 월	제 18 회 유네스코 총회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유네스코 국제규범)	유네스코의 국제시민교육 접근의 규범적 바탕이 된 권고

1990 년 3 월	유네스코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회의 (태국 줌티엔)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선언(줌티엔 선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비전 제시(EFA 목표 출범)
1994 년 10 월	유네스코-IBE 국제 교육 컨퍼런스 (스위스 제네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통합적 실천 요강(1995 년 유네스코 회의에서 채택)	글로벌시민교육의 기본 테마가 포함된 유네스코의 기본 목표가 발견됨
2000 년 4 월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세네갈, 다카르)	다카르 실행계획	줌티엔 선언을 바탕으로 6 개의 세부 교육목표 채택(EFA 목표 개정)
2000 년 9 월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	새천년 개발목표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 채택
2010 년 11 월	유엔아카데미임팩트 (UN Academic Impact, UNAI)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프로그램 발족	평화, 개발, 인권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과 연구기관 참여 장려. 10 개 핵심원칙 중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양성 포함.
2012 년 9 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	글로벌교육우선구상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3 가지 주요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세계시민의식이 세계 교육의제로 떠오름
2013 년 9 월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전문 회의(대한민국 서울)	보고서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글로벌시민교육 개념을 정리한 보고서 출판
2013 년 12 월	제 1 회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태국 방콕)	포럼 주제: <글로벌인재교육: 21 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글로벌시민교육의 이해를 추진하고 학문적 지도와 기술적 지원을 위해 유네스코가 기반을 놓음
2014 년 5 월	유네스코 모두를 위한 교육 회의 (오만 무스캇)	무스캇 합의문(2014 GEM Final Statement, the Muscat Agreement)	2015 년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며 교육의제의 초안 마련. 무스캇 합의문에 글로벌시민교육이 세부사항으로 언급됨.

2015 년 1 월	제 2 회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포럼 (프랑스 파리)		Post-2015 교육의제와 실행계획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논의
2015 년 4 월	세계교육포럼 (대한민국 인천)	인천 선언문 초안(WEF Incheon Declaration)	인천 선언문 중 양질의 교육에 관한 문단에 세계시민교육 언급 (Post-EFA 의제 개정)
2015 년 9 월	제 70 차 유엔총회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	세부 목표 4.7 에 세계시민의식 포함
2015 년 11 월	유네스코 정상회의 (프랑스 파리)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all	SDGs 의 4 번째 교육목표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에 세계시민의식 포함
2016 년 5 월	제 66 차 유엔 NGO 컨퍼런스(유엔 DPI/NGO Conference) (대한민국 경주)	경주 Action Plan	‘세계시민교육: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이행을 위한 협력’(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gether) 라는 주제로 세계시민교육이 컨퍼런스의 주제로 논의됨

나. 국내에서의 정책의제화 과정

1) 외부동인에 의한 의제화 과정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정책 의제화 및 결정과정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성격 및 그 추진과정과 양태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Kingdon의 의제화 과정 모형을 적용, 국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정책의제화 과정에 관해 설명한 심희정, 전인선 & 이화진 (2016) 연구에 따르면 2015년 5월 한국에서의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이 주요 외부요인과 정책의 창으로써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4개의 요인 - 반기문 사무총장의 역할, 세계교육포럼 한국 개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및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역할 - 을 주요 외부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외부요인이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정책의제화에 있어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의제의 “내면화 과정”이 약했다는 평가도 있다. 주된 이유는 세계시민교육과 한국교육과의 약한 연결고리인데 먼저 “왜 한국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약했고 한국교육을 이끄는 규범가치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전략적 고려가 적었다. 한 마디로 한국 교육 내 정책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은 한국교육의 맥락에서 “외부요인주도형” 정책의제가 주로 설정되고 결정되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주요 외부요인

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임기 중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창설, 글로벌교육우선구상 선언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내에서는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국제적 존재감(global presence)에 대해 긍정적 인식 및 평가가 크게 작용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해석된다.

② 세계교육포럼 개최

세계교육포럼이 2015년 5월 송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 교육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단적 방법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는 정책 결정의 계기를 형성하였다.

③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 70 차 유엔 총회에서는 향후 2030년까지 유엔이 추진할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었다. 이 중 교육목표 추진을 위한 세부목표의 하나로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되었고 이에 한국 교육부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정책의 의제로 설정, 반영하게 되었다.

④ 주요 관련 기구 노력

그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 및 활동 제안에 있어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과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다. 이 두 기관은 2013년부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담론 및 실천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행해왔으며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있어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국내 세계시민교육 추진현황

현재 한국 내 세계시민교육은 정부관련기관,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및 일선 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 대표적 세계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를 소개하고 현황을 탐색함으로써 국내 세계시민교육 정책 방향 및 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1) 교육부

교육부는 국제협력 차원과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접근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시민교육 이전에도 이미 1990년대부터 세계화의 물꼬가 열리면서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특히 이중에서도 교육과정을 통한 실제 학교 교육 내 반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는데 일련의 예로, 5.31 교육개혁 이후 제 7 차 교육과정 내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지속가능개발교육 및 인권, 다문화 교육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의식 포함 등이 있다.

교육부 정책에 있어 세계시민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계기는 2015년 5월 유네스코가 주최하고 한국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이다. 이 포럼을 통해 한국 정부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 지원 방침을 표명하였고 이는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이후 교육부는 2016 년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정부의 업무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5 개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다.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 사회가 원하는 인재 육성
-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 한국 교육, 세계를 선도

세계시민교육은 위에서 언급된 5 개의 핵심전략 중 마지막 전략인 ‘한국 교육의 세계 선도’에 속한다. 교육부는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제안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2015 년 12 월 1 일 유네스코 총회 특별연설에서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의 확산과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정부와 교육부가 가져온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고 해석된다. 교육부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 추진에 있어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소속)을 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연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교육부 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정당성, 교육적 토대와 틀, 실제적 적용 모형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아직 찾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계시민교육의 규범적, 철학적, 실제적 토대에 기반한 정책 형성 및 집행은 앞으로 교육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적 틀은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교육’과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발전경험을 세계로 전파’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설정하였다.

- 한국발 국제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 한국의 교육 ODA 확산
- 우수교원 해외 진출 확대하기 위한 양자, 다자간 협력 강화
- 대학생 국제교류와 국제진출 활성화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 확산 거점으로서 역할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를 추진 중이다. 다음의 그림은 학교급별 세계시민 교육과정 예시안이다.



〈그림 3.1〉 학교급별 세계시민 교육과정 모델안 (예시) (교육부, 2015)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지침서를 발간하여 국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선도 전문가 육성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앙 선도교사 및 시도교육청 전달 연수를 통해 약 700 명의 선도교사가 양성되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4 개국 (몽골, 캄보디아, 우간다, 콜롬비아) 대상으로 국가별 경제, 교육 수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ODA 중점 협력국의 교사, 공무원 등을 연수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대상의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개도국 내 전문가 육성을 계획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추진기관 및 전세계 5 개 권역별 중점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여 세계시민교육을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지침서도 2016 년 말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위에서 열거된 계획의 실질적 집행을 위해 교육부는 2016 년 예산안 내 교육국제화의 명목으로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지원을 위한 총 22 억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많은 부분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통해 집행된다.

2) 시도교육청

한편, 시도 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책과 주요 추진계획은 교육부와 다른 입장과 접근을 보여오고 있다. 이성희 외(2015)의 연구 보고서에 정리된 각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운영 현황은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시도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운영현황

시	담당과	운영현황 및 세부내용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과	•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세계시민교육 업무담당 •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기본계획 (2015)을 통해 교육목표와 중점추진과제 제시 •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10 개교 (초 4, 중 3, 고 3) 운영 • 세계시민교육 교사 (20 팀) 및 학생 (44 팀) 동아리 지원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정책자문단, 지원단 및 교사네트워크 구성, 유관기관 MOU 체결 •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용 세계시민교육 워크북 제작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과	• 205 년 중점 추진과제 내 인성교육 및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에서 세계시민 자질 함양 내용 포함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NGO 와의 글로벌 인재 양성 MOU 체결 • 세계시민양성을 위한 개별 학교-NGO MOU 체결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관련 프로그램 실시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2015 업무계획 내 학생이 보유해야할 사회적 역량에 글로벌 시민의식 명시 • 글로벌시민교육 워크북 제작 • 인문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성과 역량 함양 강조 • 글로벌교육센터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제이해교육, 다문화 공동체교육, 글로벌창의모델 학교 등을 실시 • 지속가능발전교육 내 친환경 녹색생활교육 포함

		• 세계시민교육 소개 영상 게시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인천광역시	교육혁신과	• 교육지표에 민주시민 육성 명시 • 다문화 교육,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 내용 제시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광주광역시	미래인재교육과	• 교육 지표에 민주시민 육성 명시 • 세계시민교육의 하위개념으로 민주, 인권, 평화 제시 • 인권, 평화, 통일, 역사/민족의식 가치 강조 및 환경, 생태 교육 • 다문화 이해 증진 관련 문화 다양성 실시 • 영어교육, 제 2 외국어교육, 국제교류학습 지원 • 정의로운 세계시민육성을 위한 교육청-NGO 간 MOU 체결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세계시민육성을 위한 학교-NGO 간 MOU 체결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대전광역시	중등교육과	• 교육지표에 세계시민 육성 명시 • 5 대 중점추진과제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 제시, 세부내용으로 세계시민교육 포함 • 세계시민교육 강화 일환으로 해외 수업교류, 글로벌교육 교류, 세계시민교육 동아리 운영지원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세계시민육성과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교육청-대전시국제교류센터, 교육청-NGO 간의 MOU 체결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운영과	• 2015 업무계획의 중점과제 내 민주시민교육 강화 명시 •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국제이해교육 체험장 운영 • 환경분야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시 • 울산 국제학생포럼 실시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세계시민육성을 위한 개별 학교-NGO 간 MOU 체결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세종시	학교혁신과	• 평화교육, 인성교육, 통일, 다문화 이해교육, 국제이해교육 운영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과	• 민주시민교육과 별도 설치, 세계시민교육 업무 담당 • 2015 년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 내 세계시민교육성 목표 제시 •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된 평화통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운영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학생사회참여동아리 지원 등의 내용 포함 • ‘세계시민’교과서 2016 년 상반기 중 개발하여 2017 년 일선학교에 보급 예정 •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수업이야기 발간/배포 • 기타 인권, 생명존중, 통일, 독도사랑, 다문화 교육 등을 통해 지구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재육성을 지향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강원도	교육안전과	• 2015 업무계획에 민주시민교육 명시 • 민주시민교육의 세부내용으로 평화/생태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포함 •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내 국제문화 교육교류 포함 • 글로벌/다문화 시대 세계시민교육성을 위한 영어 및 제 2 외국어 교육 제시 •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포함한 교육청-NGO 간 MOU 체결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실시 • 개별 단위학교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충청북도	진로인성교육과	• 2015 업무계획 기본방향에 세계적 민주시민 육성 내용 제시 •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외국인문화교실, 반기문 글로벌리더십 캠프, 교포자녀초청, 유네스코 협력사업 운영 • 교사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내외 연수, 제 2 외국어, TEE 인증제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충청남도	학교교육과	• 교육지표에 민주시민 육성 명시 • 민주시민교육 내 세계 속 민주시민성 함양을 제시, 세부내용은 실용영어교육, 국제이해교육 및 국제교류, 제 2 외국어교육 등이 포함 • 세계시민교육에는 국제교류, 해외봉사활동, 다문화 교육 등이 포함 •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지도안 및 학교활동 우수사례집 제작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전라북도	교육혁신과	• 교육지표에 자치와 협력 중시하는 민주시민 육성 명시 • 인권, 다문화 교육 운영 •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의 일환으로 '글로벌 생활 에티켓' 자료 개발/보급, 지구촌 문화교실 운영 • 세계시민교육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청-NGO 간 MOU 협약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전라남도	교육진흥과	• 2015 업무계획에 인성/영어교육 포함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2015 세계교육포럼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015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유라시아 대장정: 공동체의식 함양, 통일 의식 고취, 미래 핵심 역량 함양, 소통능력신장 • 다문화가정 자녀 수 전국 최다 지역으로 다문화가정, 탈북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사업 중심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경상북도	기획조정관	• 2015 교육계획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 포함 • 글로벌교육은 영어교육 강조 • 세계시민교육 동영상 제작, 게시 • 세계유산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외국인 초청 세계이해교육, 국제이해동아리, 국제교류활동, 재외한국학교 도서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이 세계시민교육의 하위내용으로 제시 • 독도/국토, 통일교육 운영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경상남도	학교혁신과	• 교육지표로 민주시민 육성 명시 • 교육공동체 구성 하위 업무에 상호문화이해교육 (다문화/탈북학생 지원, 이중언어교육 등),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교육 (국제교류, 해외연수,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포함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포함한 교육청-NGO, 개별학교-NGO 간 MOU 체결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제주도	국제교류협력과	• 2015 업무계획에 민주교육, 다문화, 국제학교, 국제교류 내용 포함 •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일부 실시 • ‘들엄시민’의 주요내용은 외국어 교육 •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유,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존재. 다양한 인종, 민족,문화 체험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성 함양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 개별 단위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시

(출처: 이성희 외. (2015)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부서를 두지 않고 기존의 조직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관련 업무를 기획, 운영한 것이 최근 1-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이미 일전부터 세계시민교육 확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공감하고 민주시민교육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시의 경우 교육 정책을 다음과 같이 5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 (인재육성, 전인교육)
-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고교교육 다양화, 유아교육 공공성, 교육약자지원등)
-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의 참여교육(학생자치활동, 교사 반영, 학부모 시민 참여형 교육공동체 지향)
-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학교안전, 평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학교급식)
- 소통하고 지원하는 학교행정(업무정상화, 투명성,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

이 중, 세계시민교육은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창의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연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인 교육의 여러 활동 또한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을 바탕한 의식 교육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역량개발교육을 연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관련 업무를 민주시민교육과에 편성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2015 년 6 월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요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 서울시 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주요 사업

활동분야	특징	내용	
지원학교 운영	초,중,고	•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운영 • 목적: 학교급별 세계시민교육 내실화 방안 및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내용: 2015 년 3 월, 서울시내 총 10 개교 (초 4, 중 3, 고 3) 특별지원학교 선정,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아래 표 참조)	
		학교명	주제
		강신초	유엔 기념일을 활용한 세계시민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대동초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글로벌리더십 신장 프로그램
		염경초	유네스코 연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이태원초	다름을 재능으로 세계를 풀다
		신수중	실천적 인성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중학교 세계시민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자료 개발
		여의도중	글로벌 이슈로 배우는 세계시민교육과 실천적 봉사를 통한

			인성교육개발
		정원여중	창의적 체험활동과 영어교과를 활용, 세계시민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학습 자료 개발
		광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독산고	일반고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육 모델 개발 및 적용
		혜화여고	고등학교 수준 교과-비교과내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학습동아리 지원	초중고	• 세계시민교육 교사, 학생 학습 동아리 지원 • 목적: 교사와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 • 주제: 인권, 다문화, 국제이해, 평화, 봉사, 지속가능 발전 등 • 내용: 세계시민교육 교사동아리와 학생동아리 총 64 팀 선정 지원	
교사양성		• 세계시민교육 교원 직무연수 • 목적: 세계시민교육 일반화를 위한 교원의 지도역량 제고 • 내용: 특별 지원학교 교원, 선도교사 및 희망 초중등교원 160 여명 대상 세계시민교육 교원 직무연수 • 교육내용: (1) 기본: 세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2) 심화: 학교급별 구분,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과 적용 중심 교육	
네트워크		•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 목적: 세계시민교육 방향과 내용 체계 정립, 교육 공동체의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형성 • 내용: (1)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월드비전 등)과의 MOU 구축 (2) 유네스코 협동학교 (ASPnet) 확대 (2014 년 26 개교-> 2015 년 41 개교) (3) 세계시민교육 자문단 및 교사 네트워크 구성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 세계시민교육 학습 보조자료 및 교육과정 개발 • 목적: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재구성, 개발 및 활용 • 내용: 경기, 강원, 인천시교육청 공동개발, 보급계획	

온라인 아카이브	• 세계시민교육 아카이브 구축 • 목적: 세계시민교육 학습자료, 교육활동 정보 및 경험 공유 • 내용: 웹기반 자료실 (www.ssem.or.kr 서울교육포털 내) 구축

(출처: 서울시 교육청, 2016)

나) 경기도 교육청

한편 경기도교육청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연장선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목표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이며 매년 중점 추진과제에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 이들은 세계시민과 관련된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개발 포함) 및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운영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꼽는 한편 도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의 정책적 과제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 현황이다.

〈표 3.4〉 경기도 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주요 사업

활동분야	특징	내용
지원학교 운영	초,중,고	• 유네스코 학교 운영 및 지원 • 2011 년 초,중,고 전체 14 개교로 출발, 2016 년 기준 103 개의 학교 참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OU 체결, 평화와 인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유네스코학교와 교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 관련 교과 (사회,도덕, 역사,환경 등)에서 다룰 세계시민교육 핵심 주제 (평화,인권,환경,지속가능발전) 관련 콘텐츠 개발 • 2016 년 개발예정인 세계시민교육 교과서에 기초한 관련 교과통합 프로젝트 진행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연계한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학습 동아리 지원	초,중,고	• 세계시민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운영 • 목적: 학생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돕고 세계시민의식 고취 • 2015 년 3 월, ‘학생사회참여동아리’ 100 팀 선정 (사회참여동아리 70 팀, 청소년 세계시민프로젝트 30 팀)
교사양성	초,중,고	•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 의무 편성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확대 (교육봉사프로그램 운영) • 가칭 세계시민교육센터 설립 운영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초,중,고	• 세계시민교육 학습 보조자료 및 교육과정 개발 • 2016 년 상반기 중 개발 완료 및 인정도서 심의 거쳐 2017 년 일선학교 보급 예정 •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빈곤, 기술문명에 의한 부작용, 국제적 금융문제, 환경파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해 전세계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탐색
워크숍	업무담당자	• 민주시민교육 업무담당자 워크숍 • 민주시민교육의 협력과 민주시민, 평화시민, 세계시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 세계시민교육 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견 나눔

(출처: 경기도 교육청, 2016)

3) 주요 관련기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이외에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국내 많은 기관 및 시민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교육부의 세계시민교육 정책의제 형성 및 집행에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국제개발협력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및 유엔아카데미임팩트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기타 세계시민교육 주요 기관 및 단체의 활동도 포함한다.

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APCEIU³, 이하 아태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한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 (카테고리 2 기구⁴) 이다. 아태교육원 지난 2000 년 설립 이후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해 교육자 연수, 교사고료,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평화를 지향한 문화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세계화, 지속가능발전 등을 폭넓게 다루는 국제이해교육을 펼쳐왔다.

그러던 지난 2012 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포함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은 아태교육원의 핵심 사업 과제로 부상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구개발, 교류 협력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아태교육원은 2015 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데 있어 적극적인 기여를 했으며 현재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시민교육 핵심 추진기관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음의 표는 아태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활동 내용이다.

〈표 3.5〉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 활동 내용

활동분야	특징	내용
교육과정	교육과정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³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⁴ 법적으로 유네스코의 외부기관이나 유네스코 총회가 인준하는 공식절차에 따라 유네스코와 협력하는 기관. 특정한 분야의 정보교환, 연구, 교육 등 역량 개발 면에서 유네스코의 활동에 기여.

개발 및 학습자료 출판		- 연령대별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목표를 제시하는 커리큘럼 개발 - 온/오프라인으로 유네스코 회원국에 배포 예정	
	가이드라인	- 세계시민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및 번역, 편찬 - 글로벌시민교육: 21 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2014) -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방안 (한경구 외, 2015)	
강좌개설 지원	대학	-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 - 목적: (1)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의 제도화, 정례화 장려 (2) 국내외 대학(원)생들의 세계시민교육 이해 제고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범교과적 확산 기반 마련 (4) 세계시민교육 학술교류 활성화 촉진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학문적 세계화 추진 - 주요내용	
		내용	내용
		강좌 교육과정 개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 세계시민교육의 현황,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세계시민교육의 특성 (인지, 사회정서 영역, 실천 및 인성과 창의성 관련), 발전방향 등 시민성 논의에 기초한 세계시민성 이해와 세계화, 지속가능발전, 문화 간 이해, 인권, 평화 등 주제 포함 개설강좌는 반드시 ‘책임있는 세계시민’ 육성과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를 목표로 포함 유네스코 및 아태교육원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강의 포함
		대학 내 정규교과목 개설, 운영	해당 대학교육과정에 교양, 교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 등으로 편성 강좌명 (부제포함)에 세계시민 또는 세계시민교육 포함 최소 3 학점 이상 과목 개설 (영어강좌 개설 가능)
교원연수	국내/ 해외 (아태지역 대상)	- 교원연수 - 지난 2000 년부터 매년 실시 (국내/아태지역) - 세계시민교육 주요쟁점 이해를 위한 강의 및 워크숍, 세계시민교육 실천 및 방법론에 대한 토의, 실천 계획 수립 및 토론	

		교육내용	
		프로그램	내용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하다	[강의] 세계시민교육 개론 [워크숍] 주제영역별 탐구: 개론, 김화 (문화다양성 및 문화 간 이해, 지속가능발전, 평화적 갈등해결, 인권, 민주시민 등) [활동] 나눔 및 토의
		세계시민교육, 아이들과 만나다	[워크숍] 교육과정에 따른 실천방법론/ 세계시민교육 수업방법론 및 우수사례 발표 [액션플랜] 개별 학교현장 실천계획 수립 및 발표 [특강] 학생인권과 세계시민교육
		교사들이 만드는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연구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 현장연구기법/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 활용한 교사 간 협업
		마무리	[액션플랜] 향후 활동계획 수립 및 발표
체험관	중고등학생 대상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 총 3 시간, 한학급 참여 가능 -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참여형, 체험형 교육을 통한 진로탐색활동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 체험개요: 모의유엔/유네스코총회, 세계시민여권 제작, 세계시민 역량지수 측정, 국제기념일 알아보기	
교사교류	해외 교사교류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 한국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 대상 -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된 아태지역 국가 대상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상대국 교사 한국 초청 3-4 개월 파견 - 참가 교사들은 상대국 학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공교과, 자국어, 자국의	

		문화 소개 수업 진행 및 현지교사 교류; 향후 자료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 관련 교육 자료 개발 활용 • 선진 외국학교 교사교류 사업 •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목적 • 해외 학교 공동 수업 및 학교 교류 활동 연계
클리어링 하우스	온라인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 하우스 •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총체적 정보 및 자료를 집약한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
국제회의		•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 • 세계시민교육 상의 다양한 국제회의의 공동 주최 및 지원

(출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6 을 기반으로 수정)

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⁵)는 1991 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대외무상협력 공적개발원조를 주관해오고 있는 외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대부분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은 국내의 대국민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체적 ODA 교육원을 통한 개발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은 유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국제개발협력 특강’ 및 ‘ODA 리더 개발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개발협력 및

⁵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세계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글짓기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전국 30 여개 대학 및 대학원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학(원)생 대상의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초, 중, 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 및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수능력을 제고하고, 교원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사례 학습을 통한 현장 적용을 돕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은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 범분야, 섹터 전반을 아우르는 세계시민 정규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 내용이다.

〈표 3.6〉 한국국제협력단 세계시민교육 활동 내용

활동분야	특징	내용
교원연수	온라인	• 교원 대상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하는 세계시민교육” • 홈페이지: http://teacher.i-scream.co.kr • 시공미디어 제휴 • 2016 년 5 월 개설, 총 30 차시 구성 • 교육내용: (1) 세계시민교육 들어가기, 만나기, 실천하기, 현장이야기 (2) 지구촌 사회의 이해 (3) 지구촌 주요 이슈 다루기 (4) 교원과 해외 봉사 (5) 세계시민 토론 등 구성 • 전국 6 곳 국제개발협력센터 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활용 • 교육 이수 시, 진급 가산점 2 학점 부여
	오프라인	• 초,중,고 교원 국제개발협력 직무연수 • 3 일과정, 15 시간 • 매년 2 회 실시 (여름/겨울방학) • 교육내용: (1) 국제개발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 (2)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3) 개발교육과 세계시민교육 (4) 개발교육 NGO 사례 (5) 개발교육 교사

		사례 (6) WFK 프로그램 (7) WFK 해외봉사 사례 (8) 지구촌 체험관 방문 (9) 세계시민교육 교수법 I (9) 세계시민교육 교수법 II
교육	초중고 대상	• 차세대 국제개발협력 특강 • 연간 50 개 학교 대상 실시 • 목적: 교과서에 수록된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청소년 이해를 돕고 차세대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1 시간 특강 진행 • 한국국제협력단 강사양성교육 수료 귀국봉사단원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임직원 신청 학교나 교육장소 방문교육 • 교육내용: (1) 세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교육 (2) ODA 및 한국국제협력단 소개, 해외봉사 경험 공유 (3)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청소년의 자세 및 참여 방법 (4)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탐색
	대학(원) 생 대상	•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 2009 년부터 현재 (2016 년 2 월 기준), 총 73 개 대 약 2 만 2 천명 학생 참여 • 대상: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으로 사업기간 내 관련 정규 교과개설이 가능한 학교 • 목적: (1) 대학(원)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에 대한 이해증진 (2) 관련 진로탐색 (3) 세계시민의식 함양 • 대학교 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양 및 전공 교과목 개설/ 대,내외 현장 활동 실시
교재	초중고 대상	• 담장너머 지구촌 보기 • 우리는 세계시민 • 2013 년 10 월 발행
워크숍	-	• 세계시민교육 워크숍 • 2014 년, 2015 년 두 차례 실시 • 교원 및 교육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실무자, 세계시민교육 강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200 명 참석 • 세계시민교육 현황과 흐름을 살펴보는 강연과 그룹별 토의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6 을 기반으로 수정)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성격을 반영하듯 그간 한국국제협력단의 세계시민교육의 ‘세계시민’을 양성을 위한 ‘개발’교육이라는 특징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이는 교육을 주관하는 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이 영국의 정부원조기관인 DfID 내 ‘개발과 파트너십’ 팀이나 아일랜드의 Irish Aid 내 ‘개발교육과 시민사회’ 부서처럼 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의 올바른 이해제공과 기관 사업수행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우선 목적으로 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개발과 직결되는 사회정의, 인권, 지속가능개발, 다양성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차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국제협력단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교육 2030 의제 확정 이후 개발교육보다 좀 더 포괄적인 형태의 세계시민교육을 기획,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이 대부분인 여타 교육기관과 달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에 대한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교현장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현장 정착 및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

유엔 아카데미팩트(UN Academic Impact)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엔이 추구하는 개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에 유엔 기구 내 설립한 글로벌이니셔티브 조직이다. 유엔 아카데미팩트는 유엔헌장의 3대 기둥인 ‘평화’, ‘개발’, ‘인권보호’를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발족되었고, 유엔 아카데미팩트를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학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UN Academic Impact Korea)는 2012년 8월에 설립되었고, 2013년 11월에는 외교부 산하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 법인이 설립되었다. 유엔 아카데미팩트에 현재 전세계 100여 개국의 각 1000여 개의 기관과 국내의 67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회원대학으로는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 있다. 국내협력기관으로는 교육부, 유엔 아카데미팩트 어스파이어, 드림터치포올,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 회원대학 60개가 있고, 해외협력기관으로는 유엔본부, 유엔 아카데미팩트 허브기관 10개, 유엔 아카데미팩트 회원대학 1,000여개, 유엔협회세계연맹이 존재한다. 유엔 아카데미팩트 한국협의회는 이와 같은 회원대학과 국내외 협력기관을 기반으로 폭넓은 네트워크와 인적 인프라를 지니고 있다.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는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전인격적 교육,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연구, 평등한 평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거점 국제센터’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 ‘역량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전인교육 및 실천적인 융합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는 2013년 8월, 그리고 2014년 8월에 제 1회·2회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대학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경시대회와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서울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유엔 아카데미임팩트에는 어스파이어(Action by Students Promoting Innovation & Reformation through Education: ASPIRE)라는 대학생 중심인 자발적 학생 단체가 존재하는데, 이는 ‘10개 원칙의 실질적인 실천 기구’, ‘세계시민교육 실천의 대상이자 주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는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수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성대학교 포함 각 대학의 20-45여명의 학생들이 가입하고 있고, 미국의 시카고, 옥스퍼드, 미시간, 하버드, 버클리 대학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2016).

어스파이어는 ‘다음 세대에 세계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구체화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한다. 각 대학별 어스파이어 활동은 ▲ 빈곤, 에코, 물, 평화캠페인 ▲ 세계시민교육 특강 및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 봉사활동 ▲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ASPIRE 세계시민 포럼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라) 시민사회단체

- **월드비전**

지구촌 이웃을 위한 긴급구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제개발협력 기관인 월드비전은 2007년 기관 내 옹호팀을 신설 후 월드비전의 활동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중인지제고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2년 교육부와 MOU를 맺고 국제구호 활동가 한비야 교장을 필두로 한 세계시민학교를 시작한 이후 2013년 기준 참여학생 수가 유아, 초, 중, 고등학교 및 기타 수준에서 약 3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세계시민교육 효과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효과성 연구(성열관, 2014)도 진행하기도 했다.

다음은 월드비전의 주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표 3.7〉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활동분야	특징	내용
방문교육	초,중,고	•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 연령대별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목표를 제시하는 커리큘럼 운영 • 대상: 유아 (차시별 25 분) 초중저학년 (각 40 분) 초등고학년 (각 40 분) 중학교 (각 45 분) 고등학교 (각 50 분) • 교육과정 구성 〈표 3-4 참조〉 • 진행방법: 활동/참여학습/나눔활동 • 2014 년, 교육효과성 연구 (성열관 외)
체험관		•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체험관 •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소재 • 대상: 아동 청소년, 학교 및 단체 • 지구촌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체험
교원연수		•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 대상: 초, 중, 고등 교원 및 전문직 • 총 15 시간 (1 학점), 연 2 회 • 주요 프로그램: (1) 강의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의의; 인권의 눈으로 빈곤 바라보기) (2) 워크숍 (아동노동, 아동보건, 국제개발협력, 물의 소중함, 기후난민 등으로 구성) (3) 현장사례발표 (교원연수 참여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 적용사례 발표)
강사양성		•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 전국 19 개 지부, 복지관에 각각 소속되어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 및 각 교육기관 파견 • 대상: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지역강사로 최소 1 년 이상 활동이 반드시 가능한 자, 아동 청소년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자, 휴학생/대학생/대학원생, 학부모 • 총 24 시간, 연 2 회

(출처: 월드비전, 2016)

〈표 3.8〉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구성

주제	대상				
	유아	초등 (저)	초등 (고)	중학교	고등학교
총론	1. 나는야 세계시민 (4 차시) 2. 발루뽀가 들려주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2 차시)	세계시민의 눈으로 보는 세상 (1)	세계시민의 눈으로 보는 세상 (2)	세계가 100 명의 마을이라면...	
인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필요와 권리)	운동화 소녀 이야기 (아동노동)	인권에 대하여	Open your eyes (소년병)
				우리 함께 ACT 할까요?	
환경		하나뿐인 지구, 내가 지켜요 (환경파괴와 빈곤)	무지개 넘어 (기후난민)	물은 생명이다	배부른 세계, 식량의 미래 (식량위기)
아동 보건		5 살 생일을 지켜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MDGs 와 SDGs)	
평화	같지만 달라요. 다르지만 같아요 (차이)	모두가 함께해요 (협력)	나로부터 시작되는 정의 (인간존엄성과 배려)	교실에서 시작되는 정의 (협력)	

(출처: 월드비전, 2016)

2014 년 발간된 월드비전의 세계시민교육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교육프로그램 참가 전후 세계시민의식 평균 및 각 영역별 평균이 유의한 수치로 향상되었음을 나타냈다. 또한 교육내용 구성 또한 각 영역별 인지적 영역, 가치와 태도 영역, 기능적 영역을 적절하게 이루어 학습자들의 이해와 흥미, 관심을 끄는데 적절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자료와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보여지기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아직 월드비전이 발전적인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5 가지 제안 사항을 제시하였다.

- **원조중심 교육 탈피:**

동정심을 유발하여 원조로 이어지는 교육은 오히려 타 인종, 빈국에 대한 이중성을 가지며 차별주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비판적 시각에서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이나 부조리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

- **관련 교과와의 연계 수업 탐색:**

적게는 1 번에서 최대 4 회로 끝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배움의 폭이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내 교육과정과 연결시키거나 협력적 수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 **자유학기제 및 세계시민교육연계:**

자유학기제가 전면 확대 됨에 따라 진로탐색이나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국내문제연결:**

대부분의 세계시민교육이 글로벌과 연결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나와는 거리가 먼 문제라고 인식하게 하기 보다 우리 주변의 이슈와 상황과 연결하여 ‘어려운 나라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 글로벌 시민’이라는 소극적 개념화를 극복

- **수업방식의 다양화:**

좀 더 학생 중심의 경험학습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및 실천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적극 격려

- **코피온**

코피온은 1999 년 지구시민 육성을 통해 지구촌 불평등,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 국가와 종료, 이념을 뛰어넘어 전세계 47 개국 150 여개의 NGO 및 비영리 기관과 협력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 년부터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다음의 표는 코피온의 주요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

〈표 3.9〉 코피온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활동분야	특징	내용
지구시민 교육	초, 중, 고	• 세상을 바꾸는 지구시민교육 • 목표: 지구적 사안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배양하고, 지구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지구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역량을 함양 • 학급 단위 진행 • 프로그램: (1) 세계화 (100 명의 마을) (2) 빈곤 (무역게임) (3) 다문화 (지구의 식탁) (4) 환경 (지구의 검은 발자국) • 진행순서: (1) 지구시민의 이해 (2) 프로그램 중 택 1 (3) 실천 프로젝트
		• 전국 고교생 모의유엔 • 연 2 회 실시 • 유엔회의 간접적 경험을 통해 국제적 현안과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 증진 • 프로그램: 사전교육/모의유엔회의 (유엔총회 본회의, 위원회 공식/비공식 회의), 결의문 채택
		• 청소년 지구촌 캠프 ‘드림하이’ • 지구시민교육 심화학습 과정 • 총 2 박 3 일 합숙 • 공동체의식 및 지속가능교육 연결 • 참여형 학습

	일반인	• 지구시민아카데미 • 6 주 기본과정 • 국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 환기 및 문제 해결 적극적 참여 유도 • 토론 및 학습
교사양성		• 지구시민교육강사 • 교육과정 이수하여 강사 인증 후, 지역사회 교육기관 (학교, 지역 공부방 등)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세계시민교육강사 양성
		• 지구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가이드북 • 옥스팜 영국에서 발간한 “Getting started with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new teachers” (2008) 번역본 제작

(출처: 코피온, 2016)

위에서 소개된 월드비전, 코피온은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의 정규교과 시간을 이용한 세계시민교육 (파견형태)를 가장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교육주제는 세계화와 상호연결/의존성, 세계 빈곤현상, 인권, 다양성, 환경 등으로 다양하며 모두 4 회 이상의 교과과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1,2 회의 단회기 교육도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내용 전달자는 직원들이 직접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강사 활용등 다양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 파견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교사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교원 연수를 부차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더불어, 학교 내 교육형식을 벗어나 청소년, 청년들의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적/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및 청년 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해 오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정부와 연구기관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두기 이전부터 활발히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해온 만큼 여타 기관보다 다양하고 많은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의 특성상 많은 부분 내부 인력 및 한정된 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로 장기간 교육보다 단기간의 교육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기관을 포함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2015 년 세계교육포럼을 전후로 교육 분과 시민사회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라. 시사점

본 장은 현재 다양한 주체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지난 2015년 5월 열린 세계교육포럼을 기점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실천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주로 이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교육원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부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정당성, 교육적 토대와 틀, 실제적 적용 모형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별개로 시도교육청에서는 그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실천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중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별도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운영하여 지원학교 운영,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자료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들의 정책은 2015년 이후 급증한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관심 및 정책에 있어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둘째, 교육부와 관련된 기관 외에도 세계시민교육은 외교부 산하의 국제협력단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과 별개로 주로 국제개발협력단이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의 인식제고의 일환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정부가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교육형태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일련의 예로 월드비전이나 코피온 등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는 이들의 옹호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소개하였고 이를 확장해오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세계시민교육은 각 기관의 유형과 특징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주로 ‘한국의 교육 국제화’ 또는 ‘한국 ODA 세계선도’ 등 국제화 위상과 연결된 전략적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한편 시민단체기관의 경우 각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 및 홍보의 일환으로써 추진되어진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각각 따로 세계시민교육이 추진되게 될 경우 향후 정책 형성 및 집행에 있어 지속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공식 컨트롤타워를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를 필두로 각 주요 기관, 단체 간의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한국 대학생과 아시아 지역 국가의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한국행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의 제 6 장에서 설정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개념 모형을 토대로 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가. 세계시민의식의 영역과 요인

세계시민의식은 크게 보아 4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1) 지구적 인식(Global awareness)과 (2) 지구적 보편가치(Global principles)에 대한 동의, (3) 지구적 책임의식(Global responsibility), 그리고 (4)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Commitment to engage) 등이다. 이 4 개의 부분은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상의 중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영역이 된다.

지구적 인식(Global awareness)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세계화과정(globalization)에서 형성된 지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두 요인을 포함한다. 지구적 인식은 세계적 현상으로서 제기되는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Awareness-p)과 세계의 여러 문제를 보는 지구적 관점(Awareness-gp: Global perspectives)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을 알기 위하여,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고갈, 지구촌 빈곤과 경제적 양극화, 지구촌 난민 문제 등을 중요한 세계적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들 문제를 보는 지구적 관점으로서 사람과 지역 간에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그리고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일체(global membership as oneness)의식을 포함하였다.

지구적 보편가치에 대한 동의는 국제사회에서 규범으로 설정한 "국제적 원칙"에 대한 동의(P-principles)와 세계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한 발전"(P-sd)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였다. 국제적 보편적 원칙으로서 국제규범의 필요성,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이상, 국가주권의 존중,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원칙 등을 포함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대한 동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생태보전과 개발, 환경오염과 개인의 희생, 풍요로운 소비와 절약과 검소한 생활 간에서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구적 책임의식(Global responsibility)에는 (1)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단적 정체성과 연대감 그리고 책임의식(R-r)을 설정하였다. (2)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문제에 대한 공감(R-e)(Empathy)과 나를 넘어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포함하였다. 지구공동체의식은 나라는 정체성은 한 나라의 국민(Nation-State)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으나 나의 정체성이 내가 속한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지구공동체까지 생각하는 의식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역지사지하는 배려하는 역량을 포함한다.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는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실천에 대한 관심(C-p)과 (2)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천의지(C-c)를 포함한다. 실천에 대한 관심은 지구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실천의지는 구체적인 실천 지향적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를 의미한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분리수거, 소외된 사람이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활동에 대한 참여의지,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난민에 대한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포함한다.

나. 세계시민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의 구조와 조사시행

1) 조사척도

세계시민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4 개 영역·8 개 요인에 걸쳐서 총 4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시민의식과 가치관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Kluckhorn의 가치관조사문항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세계시민의식과 기본적 가치관의 지향과의 관계를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발에 관한 의식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지향,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지향, 인간관계지향,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 관점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동기에 관한 가치지향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가치지향과 세계시민의식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의 전략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가치관 지향은 5 개 차원에 걸쳐서 각 각 3 개의 지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3.10〉 가치관 지향 분포

1. 시간차원	①	과거

당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시간 차원’ 중에서 어느 차원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현재
	③	미래
2. 자연과의 관계차원 당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유형’ 중 어느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②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③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3. 인간관계차원 당신은 다음과 세 가지 ‘인간(대인)관계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②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③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 관계 유형
4. 인간의 본성 당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관점 중 어느 유형의 관점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②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③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5. 동기 요인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행동 동기’ 중 어느 유형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②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③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세계시민의식의 척도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3.11〉 세계시민의식 척도의 구조

영역	요인	문항개수
I . 지구적 인식 (Global Awareness) A domain	1. 세계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인식 (Global Problems, Issues, & Challenges) (A-I factor)	5
	2. 세계의 여러 문제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Global Perspectives: Inter-connectedness, Inter-dependency, One-ness) (A-P factor)	5
II . 지구적 보편 가치 (Global Principles & Sustainability) P domain	1. 보편적 원칙 (Global Principles) (P-P factor)	9
	2.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P-Sd factor)	3
III . 지구적 책임의식 (Global Responsibility) R domain	1.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Global Identity, Networking & Responsibility) (R-I factor)	5

영역	요인	문항개수
	2. 공감과 이타 (Empathy and Altruism) (R-E factor)	5
IV.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Global Engagement and Commitment)	1.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Concern for Global Practices) (C-C factor)	5
C domain	2.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Intention for Global Practices) (C-P factor)	5

2) 조사의 목적

이 조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였다.

① 우리나라 대학에서 향후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시민의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세계시민의식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검사척도는 계속하여 보완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Michael Thier(2016)의 연구 등 세계적으로 몇 개의 조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 국제적으로 상호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검사도구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이 연구는 검사도구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학교 학생용 “세계시민의식 조사 질문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의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조사는 예비적인 탐색적인 조사로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표집의 설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앞으로 체계적인 비교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조사를 통하여 대략적인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대학생과 아시아지역의 개도국가의 대학생과 간단한 단순비교를 시도하였다.

③ 이 조사를 통하여 향후 세계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참고가 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심아야 할 중요한 요인을 규정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지적영역, 정의적 영역, 그리고 역량 등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상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틀을 구성하는 관점으로 제기되는 전인교육적 접근, 초학제적 접근, 융합학습,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세계시민의식과 가치관지향,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간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국내의 9 개 대학의 교육계열과 비교육계열의 1 학년과 3 학년 각 50 명씩 200 명으로 하였다. 국내대학에서 1800 명을 대상으로 2016 년 9 월중에 시행하였다. 이외에 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의 대학 한곳씩을 선정하여 현지에서 교육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교육개발사업단의 책임자를 통하여 1 개 대학을 선정하여 1 학년과 3 학년 각 50 명씩 100 명에게 시행하였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시행한 결과만을 우선 처리하였다.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우에는 학기가 10 월에 시작하는 관계로 그 결과를 여기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국내대학의 경우도 대학의 사정상 6 개 대학의 결과만을 여기에 포함하였다.

참여대학은 다음과 같다.

〈표 3.12〉 국내 조사 참여대학

연번	참여대학	특징
1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교원양성)
2	경희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3	고려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4	상명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5	성균관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6	영남대학교	ACE 사업교
7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8	조선대학교	ACE 사업교
9	한동대학교	ACE 사업교

〈표 3.13〉 해외 조사 참여대학

연번	참여대학	나라
1	NGUYEN TAT THANH UNIVERSITY	베트남
2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캄보디아
3	University of Yangon	미얀마
4	Souphanouvong National University	라오스

4) 몇 가지 질문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의 전반적 수준과 영역별 요인별 수준

문항별로 5 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을 통하여 조사했을 때 한국학생들의 전반적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 전반적 수준뿐 만아니라 영역별로 지구적 인식, 보편적 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실천의지 면에서의 수준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단순비교의 난점이 있더라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대학생의 수준과과의 비교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영역별 요인별로 세계시민의식의 수준을 검토하는 문제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교육의 중점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제 5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에서 국제적 관심을 강조하는 “세계적 관점과 인식”을 강조하는 요인(g factor)와 공공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공공의식(c factor)간의 비중을 검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요인간의 수준의 차이를 검토하여 어느 요인에서 수준이 낮은지를 파악할 것이다. 세계시민의식에서는 다음의 4 개 영역별로 2 개의 요인을 비교한다. (세계시민의식 척도의 구조 참조)

② 한국대학생들의 가치관의 지향 분포양상

한국대학생들의 가치관 지향을 시간관, 자연관계관, 인간관계관, 인간의 본성관, 행위동기 요인관의 차원에서 그 분포를 파악하려 한다. 또한 가치관의 지향과 세계시민의식의 요인간의 수준과의 t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대학생과의 비교해 보려 한다. 특히 한국대학생의 발전과 관련된 가치관의 수준을 1960-70 년대의 우리나라의 경향과 비교해 보려 한다.

③ 한국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가치관에서의 1 학년과 3 학년간의 차이

1 학년과 3 학년의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형성에 작용하는 대학교 교육의 포괄적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대학은 대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이 점을 고려할 때 1 학년과 3 학년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성과를 검토하고 대학교육의 효과를 살펴보려 한다. 또한 대학간에 학년별 차이가 있다면 대학의 교육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세계시민의식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이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지행합일이 시사하는 “앎과 행위”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영역별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참고가 되는 시사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문항별 수준과 표준편차를 살펴봄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판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문항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주요 조사내용

1) 가치관 지향

가치관의 5 개 차원별로 국내대학과 베트남 및 캄보디아의 가치관 지향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3.14〉 국가별 가치관의 지향 분포

구분	가치관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전체	
		n	%	n	%	n	%	n	%
시간차원	과거	18	1.6	-	-	1	1.0	19	1.5
	현재	881	80.5	50	62.5	58	58.0	989	77.6
	미래	195	17.8	30	37.5	41	41.0	266	20.9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19	1.7	1	1.3	12	12.0	32	2.5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057	96.6	78	97.5	85	85.0	1220	95.8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17	1.6	1	1.3	3	3.0	21	1.6
인간(대 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14	1.3	3	3.8	7	7.0	24	1.9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686	62.7	74	92.5	71	71.0	831	65.2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391	35.7	3	3.8	22	22.0	416	32.7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178	16.3	17	21.3	8	8.0	203	15.9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813	74.3	63	78.8	82	82.0	958	75.2

구분	가치관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전체	
		n	%	n	%	n	%	n	%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02	9.3	-	-	10	10.0	112	8.8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160	14.6	6	7.5	5	5.0	171	13.4
행동 동기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566	51.7	48	60.0	31	31.0	645	50.6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368	33.6	24	30.0	64	64.0	456	35.8

① 한국대학생의 가치지향은 현재지향, 자연과의 조화, 수평적 인간관계, 능력의 존재보다는 성품의 존재가 되기 위한 동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1960-70년대와 비교하여 볼 때 내성적이고 성숙한 삶의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인다. 캄보디아, 베트남은 보다 미래지향성과 성취동기와 독립적 개인관계, 자연개발주의성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간관계에서 한국대학생은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② 시간차원은 한국은 현재지향이 80% 수준이다. 이에 비하여 캄보디아, 베트남은 보다 미래지향성(40% 수준)을 보였다.

③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한국대학생은 97%가 조화적 관계를 지향하는 반면에, 캄보디아는 85%가 조화를 지향하고 자연지배적인 성향이 약간(12%) 높았다.

④ 인간관계에서 한국대학생은 63%가 수평적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반면에 베트남(92%), 캄보디아(71%)는 더 높은 비율로 수평적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 개별독립성향이 36%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⑤ 세 국가 모두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선과 악이 혼재되어있다고 보는 경향이 높다.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성선설이, 캄보디아에서는 성악설의 비중이 높았다.

⑥ 인간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에 대하여, 한국 (50%)과 베트남(60%)은 사람의 인간다움으로의(being) 성장하려는 동기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캄보디아(64%)는 성취동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 국가별 영역별 요인별 세계시민의식 수준

〈표 3.15〉 국가별 영역·요인별 세계시민의식 점수 (총점, a: 한국, b: 베트남, c: 캄보디아)

영역	요인	한국 (n=1,096)		베트남 (n=80)		캄보디아 (n=100)		전체 (N=1276)		사후분석 (Scheffé)
		m	sd	m	sd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21.64	2.39	22.38	3.05	22.08	2.39	21.72	2.45	b>a
	지구적 관점	18.45	2.65	16.99	3.25	18.54	2.69	18.37	2.72	a, c>b
	전체	40.09	4.24	39.36	5.13	40.62	4.19	40.09	4.30	-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2.80	3.56	34.01	4.44	32.64	3.28	32.87	3.61	b>a,c
	지속 가능성	10.49	1.64	12.64	1.85	9.92	1.62	10.58	1.74	b>a>c
	전체	43.29	4.45	46.65	5.21	42.56	3.83	43.44	4.54	b>a,c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17.03	2.54	18.93	2.88	19.57	2.20	17.35	2.66	b,c>a
	공감과 이타	17.19	2.70	18.98	2.71	19.49	2.42	17.48	2.77	b,c>a
	전체	34.22	4.83	37.89	4.83	39.06	4.03	34.83	5.00	b,c>a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15.37	2.92	17.23	2.39	19.30	2.41	15.79	3.06	c>b>a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17.29	2.69	19.34	2.44	19.81	2.40	17.61	2.77	b,c>a
	전체	32.65	5.00	36.57	4.22	39.11	4.25	33.40	5.26	c>b>a

〈표 3.16〉 국가별 영역·요인별 세계시민의식 점수
(5 점 척도, a: 한국, b: 베트남, c: 캄보디아)

영역	요인	한국 (n=1,096)		베트남 (n=80)		캄보디아 (n=100)		전체 (N=1276)		사후분석 (Scheffé)
		m	sd	m	sd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3	0.48	4.48	0.61	4.42	0.48	4.34	0.49	b>a
	지구적 관점	3.69	0.53	3.40	0.65	3.71	0.54	3.67	0.54	a, c>b
	전체	4.01	0.42	3.94	0.51	4.06	0.42	4.01	0.43	-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4	0.40	3.78	0.49	3.63	0.36	3.65	0.40	b>a,c
	지속 가능성	3.50	0.55	4.21	0.62	3.31	0.54	3.53	0.58	b>a>c
	전체	3.61	0.37	3.89	0.43	3.55	0.32	3.62	0.38	b>a,c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1	0.51	3.79	0.58	3.91	0.44	3.47	0.53	b,c>a
	공감과 이타	3.44	0.54	3.80	0.54	3.90	0.48	3.50	0.55	b,c>a
	전체	3.42	0.48	3.79	0.48	3.91	0.40	3.48	0.50	b,c>a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7	0.58	3.45	0.48	3.86	0.48	3.16	0.61	c>b>a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6	0.54	3.87	0.49	3.96	0.48	3.52	0.55	b,c>a
	전체	3.27	0.50	3.66	0.42	3.91	0.42	3.34	0.53	c>b>a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8	0.37	3.82	0.39	3.84	0.30	3.61	0.37	b,c>a

① 국가 간의 차이가 거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② 한국대학생은 전반적으로 세계시민의식수준이 3.6 수준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LIKERT 5 단계척도에서 3.0 은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neither agree nor disagree”)의 수준이다. 의미적으로 세계시민의식의 존재를 말하지 않는다. 4.0 의 단계에서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4.0 수준부터 세계시민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규정한다. 한국의 경우 3.6 의 수준은 세계시민의식의 수준으로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③ 영역과 요인별로 볼 때, 한국대학생은 “지구적 책임의식”과 “실천의지”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지구적 인식과 보편가치에 대한 동의를 앞의 차원이란 하고, 책임의식과 실천의지를 삶의 영역이라고 할 때, 한국대학생은 실천측면으로 갈수록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비교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인식 요인”은 가장 높았다. 다른 나라에의 결과에서도 관심과 책임의식에서 정의적 요인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행동성향 차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베트남의 경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책임의식”과 “실천의지”는 캄보디아 학생들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3) 학년별 영역별 요인별 점수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p < .05$ 인 항목에 대해서는 음영처리하였다.

〈표 3.17〉 전체(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2 학년 (n=527)		3~4 학년 (n=731)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29	0.52	4.39	0.46	3.621	<.001
	지구적 관점	3.64	0.54	3.70	0.54	2.090	.037
	전체	3.96	0.45	4.04	0.41	3.388	.001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3	0.40	3.67	0.40	1.950	.051
	지속 가능성	3.52	0.56	3.52	0.60	-.011	.991
	전체	3.60	0.37	3.63	0.38	1.536	.125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5	0.53	3.48	0.53	1.065	.287
	공감과 이타	3.47	0.56	3.52	0.55	1.601	.110
	전체	3.46	0.50	3.50	0.50	1.471	.142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3	0.59	3.18	0.63	1.436	.151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50	0.56	3.54	0.55	1.096	.273
	전체	3.32	0.52	3.36	0.53	1.418	.156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9	0.38	3.63	0.37	2.317	.021

〈표 3.18〉 베트남 대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35)		3 학년 (n=45)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29	0.78	4.62	0.38	2.493	.015
	지구적 관점	3.21	0.62	3.55	0.64	2.398	.019
	전체	3.74	0.60	4.08	0.38	3.091	.003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1	0.50	3.91	0.45	2.843	.006
	지속 가능성	4.10	0.60	4.30	0.62	1.512	.135
	전체	3.73	0.44	4.01	0.40	2.982	.004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69	0.63	3.86	0.53	1.286	.202
	공감과 이타	3.70	0.63	3.87	0.45	1.334	.186
	전체	3.70	0.55	3.86	0.41	1.549	.126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43	0.41	3.46	0.53	.277	.783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71	0.53	3.99	0.42	2.668	.009
	전체	3.57	0.43	3.73	0.41	1.659	.101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69	0.44	3.92	0.32	2.823	.006

〈표 3.19〉 캄보디아 대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2 학년 (n=33)		3,4 학년 (n=67)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48	0.39	4.38	0.51	-1.013	.314
	지구적 관점	3.71	0.49	3.71	0.56	-.014	.989
	전체	4.10	0.33	4.04	0.46	-.584	.561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9	0.33	3.60	0.38	-1.228	.222
	지속 가능성	3.28	0.39	3.32	0.60	.309	.758
	전체	3.59	0.27	3.53	0.34	-.920	.360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4.06	0.28	3.84	0.49	-2.390	.019
	공감과 이타	3.99	0.45	3.85	0.50	-1.307	.194
	전체	4.02	0.29	3.85	0.44	-2.093	.039
지구적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91	0.38	3.84	0.52	-.713	.478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4.04	0.43	3.93	0.50	-1.087	.280
	전체	3.97	0.35	3.88	0.46	-1.020	.310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90	0.22	3.81	0.33	-1.484	.141

〈표 3.20〉 한국 대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2 학년 (n=459)		3~4 학년 (n=619)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27	0.50	4.37	0.46	3.367	.001
	지구적 관점	3.66	0.53	3.71	0.53	1.461	.144
	전체	3.97	0.44	4.04	0.41	2.809	.005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2	0.40	3.66	0.39	1.585	.113
	지속 가능성	3.50	0.54	3.49	0.56	-.254	.800
	전체	3.59	0.37	3.62	0.37	1.165	.244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9	0.50	3.42	0.51	.911	.363
	공감과 이타	3.41	0.54	3.46	0.54	1.342	.180
	전체	3.40	0.48	3.44	0.48	1.241	.215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5	0.57	3.09	0.60	1.052	.293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5	0.55	3.46	0.53	.420	.674
	전체	3.25	0.50	3.28	0.50	.845	.398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5	0.37	3.59	0.36	1.772	.077

〈표 3.21〉 K 대(1)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94)	3 학년 (n=79)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3	0.40	4.39	0.40	1.014	.312
	지구적 관점	3.75	0.48	3.78	0.55	.434	.665
	전체	4.04	0.36	4.09	0.36	.847	.398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8	0.44	3.63	0.41	-.747	.456
	지속 가능성	3.49	0.59	3.47	0.48	-.211	.833
	전체	3.63	0.39	3.59	0.38	-.693	.489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9	0.50	3.43	0.56	.613	.541
	공감과 이타	3.40	0.57	3.47	0.57	.818	.414
	전체	3.39	0.50	3.46	0.52	.792	.429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0	0.56	3.11	0.62	1.168	.245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4	0.53	3.42	0.49	-.171	.865
	전체	3.22	0.48	3.27	0.48	.626	.532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7	0.36	3.60	0.35	.474	.636

〈표 3.22〉 K 대(2)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50)		3,4 학년 (n=161)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22	0.49	4.42	0.48	2.645	.009
	지구적 관점	3.52	0.52	3.71	0.57	2.064	.040
	전체	3.87	0.44	4.06	0.46	2.683	.008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50	0.37	3.68	0.37	3.025	.003
	지속 가능성	3.35	0.61	3.52	0.58	1.802	.073

	전체	3.46	0.36	3.64	0.36	3.065	.002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2	0.54	3.42	0.50	.092	.927
	공감과 이타	3.40	0.51	3.48	0.51	1.041	.299
	전체	3.41	0.49	3.45	0.45	.624	.533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3	0.53	3.10	0.58	.777	.438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37	0.59	3.48	0.55	1.173	.242
	전체	3.20	0.51	3.29	0.49	1.099	.273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48	0.39	3.61	0.37	2.175	.031

〈표 3.23〉 S 대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78)		3 학년 (n=90)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3.98	0.65	4.24	0.47	2.927	.004
	지구적 관점	3.63	0.62	3.64	0.52	.163	.871
	전체	3.80	0.57	3.94	0.40	1.802	.073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52	0.41	3.56	0.45	.602	.548
	지속 가능성	3.48	0.51	3.46	0.61	-.264	.792
	전체	3.51	0.38	3.54	0.42	.388	.699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7	0.49	3.41	0.53	.462	.645
	공감과 이타	3.37	0.43	3.41	0.53	.585	.559
	전체	3.37	0.41	3.41	0.49	.584	.560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5	0.52	3.18	0.59	.348	.728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8	0.51	3.48	0.50	-.087	.931

전체	3.32	0.46	3.33	0.49	.155	.877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0	0.39	3.55	0.38	.867	.387

〈표 3.24〉 Y 대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2 학년 (n=79)		3,4 학년 (n=124)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1	0.48	4.37	0.43	.959	.339
	지구적 관점	3.59	0.50	3.67	0.51	1.111	.268
	전체	3.95	0.42	4.02	0.39	1.237	.218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0	0.36	3.67	0.38	1.331	.185
	지속 가능성	3.54	0.53	3.42	0.59	-1.375	.171
	전체	3.58	0.35	3.61	0.36	.499	.618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1	0.51	3.30	0.52	-.155	.877
	공감과 이타	3.32	0.56	3.35	0.58	.318	.751
	전체	3.32	0.50	3.32	0.51	.104	.917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2.88	0.62	2.89	0.60	.171	.865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36	0.58	3.34	0.57	-.258	.797
	전체	3.12	0.52	3.11	0.53	-.037	.971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0	0.35	3.52	0.36	.464	.643

〈표 3.25〉 E 대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2 학년 (n=59)		3,4 학년 (n=102)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43	0.33	4.37	0.45	-.801	.424
	지구적 관점	3.87	0.46	3.69	0.49	-2.294	.023
	전체	4.15	0.33	4.03	0.37	-2.033	.044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7	0.43	3.72	0.33	.783	.435
	지속 가능성	3.59	0.47	3.50	0.48	-1.125	.262
	전체	3.65	0.40	3.67	0.31	.240	.811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52	0.48	3.43	0.48	-1.184	.238
	공감과 이타	3.54	0.53	3.45	0.50	-1.027	.306
	전체	3.53	0.48	3.44	0.45	-1.183	.239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6	0.62	3.10	0.57	-.538	.591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63	0.48	3.52	0.50	-1.361	.175
	전체	3.39	0.51	3.31	0.47	-1.013	.313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68	0.35	3.61	0.32	-1.197	.233

〈표 3.26〉 C 대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99)		3 학년 (n=63)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6	0.46	4.42	0.51	.752	.453
	지구적 관점	3.62	0.50	3.84	0.48	2.792	.006
	전체	3.99	0.41	4.13	0.42	2.108	.037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70	0.36	3.67	0.41	-.472	.637
	지속 가능성	3.52	0.50	3.61	0.59	1.067	.287
	전체	3.65	0.34	3.65	0.39	-.001	.999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8	0.50	3.61	0.45	2.990	.003
	공감과 이타	3.46	0.56	3.66	0.54	2.181	.031
	전체	3.42	0.49	3.63	0.45	2.790	.006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9	0.53	3.24	0.60	1.640	.103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4	0.56	3.62	0.50	2.021	.045
	전체	3.27	0.49	3.43	0.50	2.012	.046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9	0.36	3.71	0.37	2.088	.038

대학의 포괄적인 교육이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1 학년과 3 학년의 점수 차이를 보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베트남의 경우, “지구적 인식” 영역과 “보편적 원칙”, “실천에의 의지” 요인, 그리고 4 개 영역의 평균점수에서 3 학년이 1 학년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세계시민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연대감, 책임감” 요인에서만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저학년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서 교육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국 대학들의 경우, K 대와 C 대에서 의미 있는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다. 그 밖에 국내 대학생 전체적으로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요인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지구적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데에 효과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K 대와 C 대의 경우 넓은 의미의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4) 계열별 영역별 요인별 점수차이

〈표 3.27〉 한국 대학생의 계열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교육계열 (n=582)		비교육계열 (n=514)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5	0.46	4.30	0.50	1.916	.056
	지구적 관점	3.76	0.50	3.62	0.55	4.358	<.001
	전체	4.05	0.40	3.96	0.45	3.790	<.001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5	0.40	3.64	0.39	.759	.448
	지속 가능성	3.52	0.53	3.47	0.57	1.537	.125
	전체	3.62	0.37	3.59	0.37	1.154	.249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4	0.51	3.37	0.50	2.059	.040
	공감과 이타	3.47	0.55	3.40	0.53	2.042	.041
	전체	3.45	0.49	3.39	0.47	2.219	.027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8	0.58	3.07	0.59	.255	.799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50	0.53	3.41	0.54	2.894	.004
	전체	3.29	0.50	3.24	0.50	1.704	.089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60	0.36	3.55	0.37	2.640	.008

계열별 차이 분석은 교사교육계열과 비교사교육계열을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교육계열은 비교육계열에 비하여 전체 점수의 평균점수뿐만 아니라 지구적 관점, 책임의식, 공감, 실천의지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갖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한국의 교사양성교육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가치관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요인과의 상관관계

〈표 3.28〉 전체(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1274)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19	3.837	3.390	3.300	3.268
	현재	988	4.019	3.641	3.470	3.324
	미래	266	3.981	3.561	3.541	3.405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32	3.694	3.258	3.359	3.366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220	4.016	3.633	3.488	3.341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21	4.000	3.397	3.352	3.243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24	3.896	3.517	3.525	3.600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831	4.020	3.655	3.544	3.376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416	3.990	3.559	3.357	3.257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203	4.020	3.673	3.546	3.363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958	4.007	3.620	3.480	3.345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12	4.001	3.530	3.391	3.259

구분	가치관	n (N=1274)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171	3.914	3.574	3.301	3.178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645	4.075	3.696	3.572	3.393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456	3.951	3.531	3.424	3.326

가치관지향과 세계시민의식 요인간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부분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지향과 인간의 행동동기였다.

- 시간차원에서 과거지향인 경우보다 현재나 미래 지향인 경우가 지구적 보편가치에 대한 수용과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았다.
-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연을 존중하는 지향에서 세계시민의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는 경우 보편가치와 책임의식 영역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 행동 동기는 모든 영역에 의미있게 관계되었다. 인간으로의 존재적 성장 동기에서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해석된다.

6) 주요 시사점

① 가치지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생의 가치지향은 자연훼손형 개발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내성적 성향으로 시간차원에서 현재를 지향하는 가치지향을 보인다. 1960-1970 년대의 개발지향적인 미래 지향, 성취동기, 개인주의, 자연훼손형 개발보다는 현재지향, 품성의 함양, 상호의존적 수평적 인간관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을 선호하고 있다.

②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은 3.6 수준으로서 낮은 편이다. “의식”이 있다는 수준을 4.0으로 규정할 때 3.6 수준은 세계시민의식 수준에는 미달한다고 평가된다. LIKERT 5 단계척도에서 3.0은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neither agree nor disagree”의 수준이다. 의미적으로 세계시민의식의 존재를 말하지 않는다. 4.0의 단계에서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4.0 수준부터 세계시민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규정한다.

③ 세계시민의식의 영역별 요인별 그 수준을 살펴볼 때, global issues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의식과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대한 이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지구적 참여의식과 실천의지면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참여의식과 의지면에서 한국학생들은 매우 낮은 시민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국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의 영역을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할 때, 공공의식이 낮은 제 2상한과 제 3상한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 세계시민의식의 영역

이 점은 공공의식을 지향하는 교육과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학에서의 국제화 프로그램에 공공의식의 연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참여와 공감 그리고 실천지향적 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자기주도적 활동형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대학의 국제화 전략이 국제적 이해와 경험의 확대에는 도움을 주었다고 이해된다. 국제적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적 이해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④ 한국대학이 운영하여 온 넓은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세계시민교육”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대학생의 낮은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특히 여러 대학에서 세계시민의식에서 1 학년과 3 학년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은 대학교육의 세계시민교육의 효과가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계열별 차이에 대하여, 대학간 차이가 별로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열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교육의 차이가 의식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대학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교사역할 문제로 고민하고 학생에게 문제의식을 전달하였다. 세계적 주요 주제에 대한 안내와 orientation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⑤ 세계시민의식과 관련있는 가치관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는 인과관계는 분석하지 못했으나 상관관계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인간행동의 동기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요인으로 등장한다. 성취동기보다도 존재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세계시민의식과 관련이 있었다.

⑥ 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앎과 삶의 통합이 필요함을 보였다. 한국대학생들은 앎의 영역에서는 강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감과 참여, 문제해결에 임하는 의지와 헌신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인재상에 대하여 앎과 삶을 통합하는 홍익인간형의 인재상에 대한 그 의미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

⑦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속성으로서 학생주도적인 활동프로그램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기주도성과 융합형 학습경험의 축적, 그리고 세계적 과제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부채꼴 모양으로 과제 영역을 확산하여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사형 프로그램의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4 장

세계 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유형

제 4 장 세계 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유형

1. 서론

본 섹션에서는 북미,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위치한 연구 대학의 세계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한다(이종재, 이화진, 2016). 방법론적 요소와 분석, 그리고 몇몇 초기 시사점을 살펴본 후 섹션 B 와 C 의 대학별 사례를 소개하겠다. 대학별 자세한 정보는 첨부된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를 참고한다.

가. 사례 선정 및 방법론

본 섹션에서는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검토했다. 세계시민의식 교육 및 한국의 고등교육과의 관련성에 따라 17 개 대학(일반 대학 13 개, 교육대학 4 개)을 선정하여 분석했다(한국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분석은 제 5 장 및 6 장을 참고). 선정된 대학 모두 세계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근거와 방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교육적 맥락에도 더 많은 연구와 응용을 시사한다.

17 개의 대학 중 캐나다, 미국, 영국의 7 개 대학은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기존 정책과 프로그램을 보유한 이유로 선정되었다. 모든 대학이 세계시민의식이나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경쟁력과 글로벌 관점에 관한 대학의 이념 및 프로그램을 세계시민의식 교육의 근본적인 요소와 연결할 수 있다. 서방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축적된 풍부한 세계시민교육 경험이 우수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럽과 북미 모델은 아시아 대학의 주안점과 전략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일본, 중국(홍콩 포함),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 9 개 대학을 선정하여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아시아 대학은 대체로 세계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오래 전부터 글로벌적인 면모를 다양한 학문에 접목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관심을 가져왔다.

참고로 17 개 대학 중 하나인 유엔대학교(United Nations University: UNU)는 전세계 고등교육기관, 연구센터, 행정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유엔 공식 기관이다. 그러나, 유엔대학 설립에 일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일본에 유엔대학 본부가 위치한 까닭에, 유엔대학은 아시아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되었다. 또한,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컬럼비아대학 교육대학원, 베이징 사범대학과 싱가포르 사범대학 등 4 개의 대학은 전문 교원교육 기관이다. 하버드교육대학원과 컬럼비아교육대학원에 관한 연구는 교육대학원에 한정하였다. 베이징사범대학은 교육학부 이외의 학부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합 대학으로 분류한다. 싱가포르 사범대의 경우 상위 기관인 난양공과대학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자 함께 소개한다.

대학에 대한 정보는 2016 년 3 월부터 9 월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에 엮어 놓았다. 세계시민의식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수집하였다: (1) 대학 비전, 설립 이념 및 전략 보고서; (2) 학부, 학과, 학술 프로그램, 교육과정, 관련 연구센터; (3) 국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국제 협력, 해외 연수 등)과 학생 서비스(사회봉사 및 학생주도 활동 등의 교외활동 기회) 관련한 부서 및 사무실,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기숙 대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특정 학과나 학자도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관련 학과와 연구 센터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교육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및 기타 관련 학부를 다룬다.

온라인 상에 제공되는 연구 기반 정보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포괄적인 기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현장에서 관찰이나 인터뷰, 기타 문서를 통해 수집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 프로그램 중 세계시민교육 정책의 부분적이지만 독특한 주요 특징을 보여주는 다량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누락이나 불균형의 리스크가 있지만, 본 섹션은 고등교육에서의 중요한 세계시민교육 모델을 보여주며, 여기서 초기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자료수집 방법에서의 또 다른 제한사항은 언어로, 특히 아시아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아시아와 비서구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구 지속 여부는 일본어 및 표준 중국어로 된 자료의 추가 연구에 달려있다.

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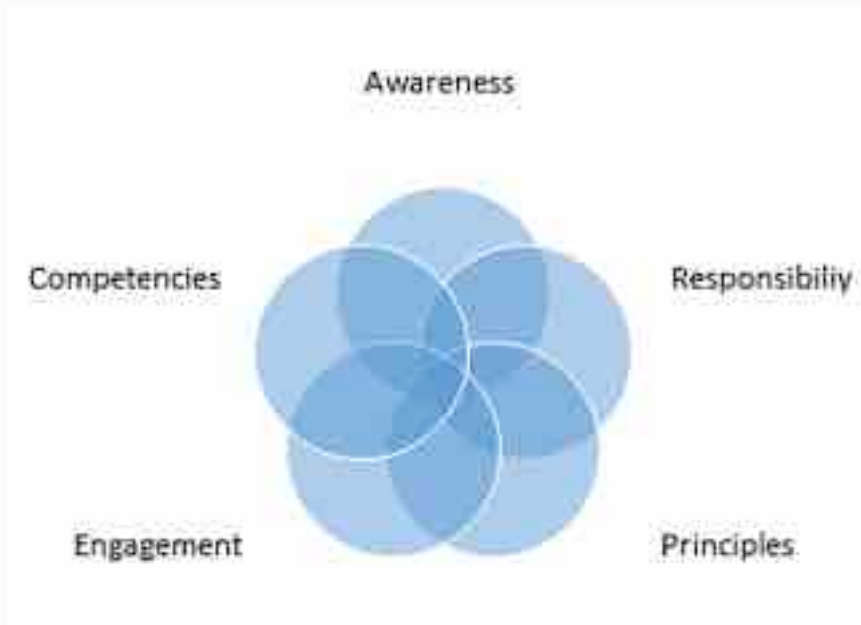
해외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세계시민의식 교육은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개념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위치하고 관리되는 기관적 플랫폼 및 명시된 목적과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에 따라 분석된다.

1) 세계시민교육의 범위: 넓은 의미 vs 좁은 의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되어야 할 과제는 연구 대상 대학이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제로 보유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대학 정책과 프로그램에 명시된 세계시민교육이 직접적(explicit)인가 암시적(implicit)인가? 및 2) 정책 프로그램이 핵심적인 세계시민의식 요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나? 대학은 세계시민의식의 목표와 전략을 기관이나 학과 차원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명시할 수도 있다. 혹은 세계시민의식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관련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등은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를 일부 또는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중간 영역에 있는 대학들은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을 간략하게 언급하지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해당 용어를 ‘국제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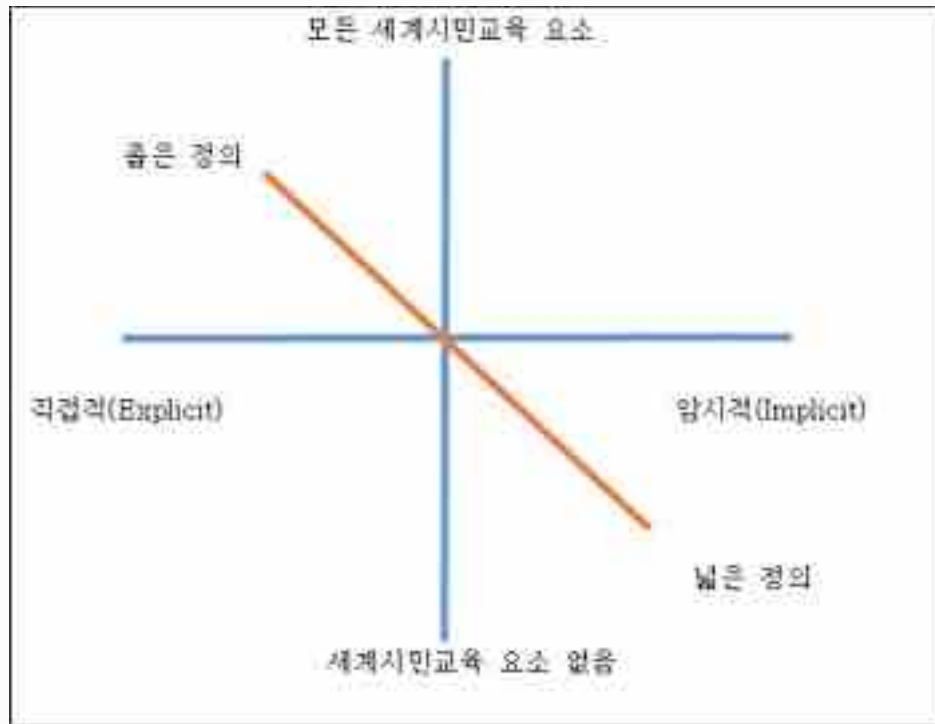
두 번째 측면은, 해당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의 핵심 요소를 포함하느냐의 여부이다. 유네스코는 태도(소속감), 글로벌 이슈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식, 비판적, 체계적,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인지력, 공감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등의 비인지적 기술, 협업이 가능한 행동적 역량을 세계시민의 능력으로 정의한다(유네스코, 2014). 옥스팜은 지식과 이해능력 (사회 정의, 다양성, 상호의존, 지속가능 개발 등), 기술 (비판적 사고,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능력, 존중, 협력 등), 그리고 가치와 태도 (정체성, 공감능력,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 다양성의 존중 등)를 세계시민의 주요 요소로 정의한다(옥스팜, 2015). 이러한 세계시민교육 요소 중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시민교육에 필요한 핵심 요소는 아래 5 개의 요소로 간추려진다.



〈그림 4.1〉 고등교육에서의 5 가지 세계시민교육의 요소의 연관 관계

- 글로벌 인지: 전지구적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 인식
- 글로벌 책임감: 공감을 기반으로 세계 다른 이들을 위한 의무
- 글로벌 원칙: 인권, 평화, 지속가능성 등 보편적 원칙의 수용
- 참여의 의지: 글로벌 및 로컬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지하는 행동
- 글로벌 역량: 세계와 현지 간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지식, 다문화간 소통능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는 능력

북미, 유럽 및 아시아 대학은 상기 5 개의 요소를 모두 또는 일부 포함할 수 있다. 5 개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대학은 원이 모두 맞물려 있는 교집합 부분에 위치하고, 5 개 중 일부만 포함하는 대학은 세계시민교육 원 안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2 에서 보듯이 5 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세계시민교육 관련한 목표와 설명을 직접적으로 한 대학은 세계시민교육의 좁은 정의에 해당한다. 소수의 유럽과 북미 대학들에는 세계시민교육 용어와 개념의 역사가 더 깊어 좁은 세계시민교육 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향이 있다.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일부 및 암시적 세계시민의식 요소를 가진 대학정책과 프로그램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그림 4.2〉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범위

세계시민교육의 좁은 정의는 인지력, 비인지 기술, 행동, 국제적 정의, 지속가능성, 역량 등에 대해서 옥스팜, 유네스코 및 기타 기관이 규정한 여러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만을 고려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자체적 정의나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목적을 가진 소수의 대학에만 해당된다. 그 예로, 앨버타 대학의 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Global Citizenship Curriculum Development: GCCD)이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세계시민의식 프로그램에 명시된 “세계시민의 자질(Global Citizenship Attributes)”을 들 수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자신의 글로벌 교육의 목표를 세계시민 양성이라고 정의하며, 개념과 관련 전략 또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의식)”이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의 시민의식 등의 용어로 표현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이에 대한 정의를 단정짓지 않는다. 사회 정의, 문화간 기량, 또는 언어 학습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와 세계시민교육을 연결한다. 예로, 토론토 대학 총장 발표문(Three Priorities: a Discussion Paper, 2015)에서는 세계시민의 양성이라는 기관 목표를 글로벌 능숙도 (global fluency)

와 서로 연결하였다. 이 목표는 학생 이동성 증진이라는 국제화 전략을 통해 달성된다. 홍콩 대학의 추진사항 역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의 없이 “학생들을 세계시민화 하는 것(2009-2014 년도 전략 개발)”이라고 한다. 이는 학술 프로그램에 국제적 관점과 글로벌 연관성을 가미하도록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세계시민의식”이나 “세계시민의식 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대학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 분명한 개념화보다 앞서있다. 하버드교육대학원이나 컬럼비아교육대학원은 글로벌 교육과 글로벌 역량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세계시민의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글로벌 과제 해결, 다문화 인식 증진,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통해 개개인과 모두가 세계의 번성과 지속을 위해 힘쓴다는 등의 프로그램 설명에서 세계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유엔대학도 세계시민의식이라는 용어를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합하는 유엔대학의 정신과 중심은 글로벌 인식을 가지고 유능하며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 양성에 기여한다.

다수의 대학, 특히 세계시민의식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보유한 아시아 대학 중 세계시민교육 관련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각 대학마다 세계시민의식을 정의하는 조직 강령과 세계시민교육 과제를 담당을 위한 초학문적 프로그램과 연구 센터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세계시민교육을 모든 대학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대학들은 자신의 상황과 제한사항에 맞는 방법과 플랫폼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적용하고 함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표현되고 적용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더욱 강력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것이다.

2)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공공의식 vs 글로벌 역량

제 2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는 글로벌 공공 의식(global civic mindset)을 기르고 글로벌 역량(globally relevant capacities)을 개발한다는 두 개의 중요한 목표가 있다. 많은 대학에서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 타인에 대한 공감 및 책임감 등에 연관된 글로벌 의식 함양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강조한다. 글로벌적 역량이란 글로벌 시장 제도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부문에서 행동할 수 있는 기량, 지식, 역량을 뜻한다. 대학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요소를 모두 목표시킬 수도 있고, 둘 중 더 강조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개의 요소는 서로 구별하기 어려워, 함께 섞어 사용되거나 혼합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두 개의 목표를 함께 지향하며 세계시민교육을 이행하는 것이다.

앨버타대학의 GCCD 는 학생이 로컬-글로벌 연결성을 인지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글로벌 변혁을 위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 인식 함양을 지향한다. 한편 컬럼비아교육대학원의 글로벌 역량 인증 프로그램(Global Competence Certificate Program)은 능력 기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기 위한 능력과 같은 경제적 의미의 역량개발 보다는 기후변화나 세계 갈등 등의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히로시마 대학의 기본적인 비전은 평화로운 공존의 추구로, 일본 국제 협력 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연구, 파트너십을 맺어 학생들의 글로벌 과제 해결역량과 공공의식을 장려한다. 그와 동시에 히로시마 대학은 능력 있는 21 세기형 학생의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목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츠쿠바대학의 글로벌 전략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의 양성을 위한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국제화 전략과 글로벌 우수 대학 프로젝트(International Strategy and the Top Global University Project) 에 따르면 실제로 적용된 전략은 해외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글로벌 경험이 어떻게 공공의식과 역량개발을 도모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 두 개의 목표는 학생의 교육과 개발을 넘어 대학 자체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이나 앨버타대학 와 같은 대학은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할 뿐 아니라 대학 자체를 세계시민으로 간주하여, 글로벌 도시에 위치한 점이나 공정하고 다양한 고용 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등 기관 차원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러한 실천은 대학의 로컬 및 글로벌 역할과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인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다른 대학들도 글로벌 시장 제도에서의 글로벌 역량과 경쟁력을 목표로 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한다. Jorgenson & Shultz (2012)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있어 Knight (2004)의 다섯 가지 인적 자본적 이유를 인용했다: 1) 대학의 국제적 평판을 확립, 2) 글로벌 시장을 위한 인재 개발, 3) 대학 수입 창출, 4) 전략적 글로벌 동맹 구축, 및 5) 연구와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목표는 대학의 국제적 위상이나(리하이 대학) 글로벌 존재감에 대한 포부(도쿄대학, 베이징사범대학, 히로시마대학, 상하이대학)를 강조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아시아 대학에서 전략적 글로벌 동맹을 강조하는데, 쓰쿠바대학의 캠퍼스 인 캠퍼스(Campus in Campus) 프로그램이나 범아세안(Trans-ASEAN)프로그램, 북경대학-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프로그램,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예일대학이 합작한 Yale-NUS College 등 공동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대학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식, 학생, 교수의 교류 증진으로 글로벌 시장의 원칙과 부합하게 된다.

3) 세계시민교육의 실제: 느슨한 연계 vs 강한 체계적 연계

Jorgenson & Shultz 가 2012 년에 유럽 및 북미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정책/프로그램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는 여러 추진과제를 다양한 레벨에서 분류 하는데, 그 범위가 국가적 추진에서부터 기관의 약속, 글로벌 시민의식 프로그램, 자격증 및 과정에까지 이른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 대학에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관련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의 우수 대학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히로시마 대학이 “21 세기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의 양성을 목표로, 국제적 경험을 제공하는 학제간 커리큘럼인 대학원 리더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싱가포르 사범대는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교원교육과 자격제도를 운영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인식”을 포함한 교사를 양성한다.

대학 비전, 설립 이념, 전략 계획 등 기관의 약속을 보면, 모든 대학은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언급 유무와 상관 없이 글로벌 차원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비전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가장 좋은 예는 유엔대학이다.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유엔대학의 가장 중대한 연구 및 교육의 주제는 지속가능성이다. 북미와 유럽의 일부 대학은 서비스 차원에서의 글로벌 관계를 언급하는 한편(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등), 다른 대학은 국제적 염원이나(리하이 대학) 글로벌 역량 개발(토론토대학) 등의 차원에서 언급한다.

중국 본토 대학의 이념은 민족주의적인데, 북경대 같은 경우 “애국심, 진보, 민주주의 그리고 과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고 소개하며, 베이징사범대학도 “애국심, 진보, 정직성, 진실성, 진리탐구 및 혁신”의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학들은 서구 대학의 경우 국제적 측면을 언급하긴 하지만 대부분 세계적으로 유능한 학생의 배출이나 유학생 모집의 차원에서 언급한다. 기관의 이러한 약속은 해외에서의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국제화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특히 베이징사범대학과 연계하는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예로 들 수 있다.

앨버타대학과 같이 대학의 제도적 계획과 세부 부문간에 강조하는 점이 다른 경우도 있다. 앨버타대학의 대학 종합 계획(Comprehensive Institutional Plan, 2015)에서는 세계시민을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식, 기량, 이해능력을 가진 자”로 정의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자격증, 증명서, 언어학습 프로그램, 해외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한다. 한편 GCCD 프로젝트와 교육학부의 세계시민교육 연구센터는 세계시민의식을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세상에 기여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도덕적인 의미로 정의한다(GCCD 포지션 선언(Position Statement)).

몇몇 대학은 세계시민교육과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술, 연구, 또는 행정 센터를 보유한다. 국제실은 글로벌 파트너십, 해외 경험 프로그램(global exposure), 학생들의 국제/문화간 문제 등을 담당한다.

다른 대학들은 단순히 교외 수업을 넘어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한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공학, 의학, 정보통신기술뿐 아니라 교육, 국제관계 및 사회과학 대학에서 별도로 구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종종 해외 인턴십이나 연구의 기회를 제공한다(리하이 대학의 지속가능개발 프로그램,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과 토론토대학이 발행한 세계시민교육 교사 핸드북 등). 특히 홍콩대학의 사회과학부는 한국, 일본, 홍콩에서 지내고 공부하고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다른 학문이나 일반적인 학습의 기반을 위해 받는 세계시민교육은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공동 교양 과정(Coordinated Arts Program)과 같은 기초 및 초학문적 학사 과정, 앨버타대학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의 세계시민의식 프로그램과 같은 자격증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개별적 수업에 제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양성한 후 초학문적 분야나 전공과목 등 방사형 모형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홍콩대학의 기숙 대학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직접적 및 암시적으로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하는 곳이다. 기숙대학은 글로벌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화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세미나와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통해 일상적인 교류로 경험에 기반한 교육을 촉진한다.

세계시민의식 교육의 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학생 주도 프로그램이다. 세계시민교육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리하이 대학의 글로벌 연합(Global Union), 토론토대학의 글로벌 라운지(Global Lounge) 등은 학생 단체들이 모여 국제 및 문화간 이슈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의 글로벌 라운지 및 자료 센터(Global Lounge and Resource Centre)는 소수의 학생들이 설립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관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화의 장으로 현실화될 뿐 아니라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 지원금도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책과 프로그램은 <표 4.1>에서 보듯 1) 연결 정도와 2) 추진 방향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역동적/대응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4.1> 연결 정도와 추진 방향

	체계적 연계 (Tightly Coupled)	느슨한 연계 (Loosely Coupled)

상부(Top Level)에서 시작	하향식(Top-down) 추진	연결되어 있지만 자율적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하부단위(Subunits)에서 시작	상향식(Bottom-up) 추진	분리되고 단절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느슨한(loose) 또는 체계적인(tight) 연계(coupling)이라는 구조 유형 분류 체계는 고려할만한 유용한 프레임워크이다(Weick, 1976). 연계(coupling)은 상호 대응성과 개별 정체성의 유지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linkage)이나 관련성(connection)과는 상이하다. Weick 은 연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느슨한 연계는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사건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분리의 증거를 보유하는 것이다. 또한 느슨한 연계는 일시성, 해산 가능성, 암묵 등을 함축하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조직을 한 데 결합하기 위한 “접착제(glue)”의 중요한 성질이다 (Weick, 1976:3).

느슨한 연계는 서로 다른 조직의 일부를 결합하게끔 해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창의적인 추진, 참신한 해결책, 견제와 균형은 체계적 연계 체제보다는 느슨한 연계 체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느슨한 연계 체제는 하부단위의 조직(subunit)이 엄격한 계층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 느슨한 연계 체제를 가진 기관이 더 분열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반면 더욱 창의적인 도입의 가능성도 열어준다.

또 다른 면은 고등교육기관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추진되고 방향성을 가지는지의 여부이다. 체계적 연계 체제의 조직에서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추진의 시작점(상부/하부)에 따라 반대편의 방향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느슨한 연계 체제의 조직에서는 상향식 추진이 별개의 하부단위 내에 머물러 있지만, 하향식 추진은 각 하부단위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초학문적 프로그램의 활발한 공동 작업을 후원하고 촉진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와 상호작용은 해당 대학의 규모와 역량, 그리고 각국의 교육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싱가포르의 세계시민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이 체계적 연계체제에 하향식 구조를 따른다. 국가의 교사양성 기관으로써 싱가포르 사범대는 국가의 교육체제와 밀접하게 따른다. 한편 싱가포르 사범대는 자율적이지만 협동적 기관으로써 난양공과대학과 느슨하게 연계 되어있다. 또한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하향식 추진형태로써 외국

대학과의 연계를 확장하여 지식과 인력 교환을 한다. 이러한 추진은 다양한 학문의 대학원 과정에 영어 수업 설립과 홍보와 맞물린다. 도쿄 대학에 글로벌 관점 양성을 위한 총장실의 적극적 추진에서 다양한 영어와 다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과 대학원 과정들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대학교,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런던도 느슨한 연계 안에 세계시민성 연구와 교육을 후원한다. 특히 앨버타대학의 2007 년 총장 추진으로 시작한 GCCD 프로젝트는 대학 내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제도적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는 하향식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런던은 수용적이고 세계적 지향성을 2034 발전계획에 포함한다. 특히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Grand Challenges 는 보건, 도시 지속가능성, 다문화간 소통 과 인간복지에 관한 세계적 이슈를 연구테마로 삼고 해당 학습과 연구과정에 전반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하향식 구조로 운영된다.

교육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상향식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토론토 대학 OISE 에 CIDECE 은 상당한 기간 세계시민성에 관한 초문학적 수업을 제공해왔으며 지역과 세계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교사들을 위한 자료집도 2004 년에 발간하였다. 반면에 느슨한 연계 속에 최근 토론토 대학 발전계획은 대학 내 수업보다 학습자의 유동성을 높여서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대학제도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제도정책과 프로그램을 관찰하며 조직 내부적 움직임과 변화 관찰이 필요하다.

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섹션은 세계시민교육을 대학 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는 해외 고등교육기관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직접적-암시적 표현과 세계시민교육 요소의 부분적-전체적 내포로 볼 수 있는 넓은 또는 좁은 범위의 세계시민교육 정의의 측면에서 연구 대학을 살펴보았다. 또 다른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의식 함양과 글로벌 역량 개발이라는 세계시민교육 정책/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를 지향하는지 둘 다를 지향하는지 구별할 수 있게 했다.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은 기관의 다양한 차원에서 배치될 수 있고, 여러 부서 간의 관계를 느슨한 연결 또는 긴밀한 연결로 분석할 수 있다.

상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아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초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기관이 세계시민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특정한 국가적 또는 기관적 맥락과 역량으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하나의 모델을 모든 기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의 이행은 개발 과정이다. 철저한 대화와 적극적 참여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세계시민교육의 5 개 주요 요소를 포함하거나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역량 개발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모두

포함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서서히 세계시민으로 성숙하듯이, 대학 차원에서의 개념화와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또한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량과 플랫폼을 구비한 연구대학은 초문학적이고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을 방사형 모델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복합적 세계와 지역적 이슈들은 인지하고 소수자와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식을 기르고 세계이슈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와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초문학적 접근이 결정적이다. 세계시민의식은 선택된 극소수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글로벌 원칙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학업 초기 기초 수업으로 견고한 기본을 마련 할 때 학습자 개인이 방사형식으로 각기 전문 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또한 내제적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도록 도모한다. 학문과 전문분야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인적으로 선택 설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 기여한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대학 사례를 소개한다. 각 섹션은 개요, 요약 소개, 특징 등 3 개의 부문으로 나뉜다. 개요는 대학 비전, 설립 이념, 그리고 세계시민의식 및 관련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전략 문서 등을 살펴본다. 대학의 역사적 유산과 각국의 교육적 맥락도 검토한다. 요약 소개에서는 우수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학술 프로그램, 연구 센터 및 기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서구 주요 대학

앨버타대학교 (University of Alberta)

1. 개요

캐나다 에드먼턴에 위치한 앨버타대학교는 다양한 수준에서 세계시민을 접목한다. 그 수준에 따라 세계시민교육 또한 다르게 접목된다. 예로, 역량 강화 및 세계 경쟁력은 학교의 전략적 차원에서 강조되며, 세계시민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센터는 그 설립 이념에 정의와 인권을 강조한다. 학교 정책이 모든 학부의 교수 프로그램마다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은 아니나, 앨버타대는 특히 세계시민교육에 특성화된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앨버타대의 비전과 설립이념에서 “세계시민대학”이라 정의 짓고 “국내외 이슈, 질문, 우려 사항을 배우고, 발견하는 창의적 활동을” 제공 및 추진한다. 창립 이념 속에는 학생들에 불어넣으려는 “지역/세계 참여” 및 “서비스/시민의식”과 같은 기능적 측면도 있다.

앨버타 대학의 대학 종합 계획 (Comprehensive Institutional Plan, 2015)은 세계시민을 특수 프로그램 소속으로 명시했다. 여기서 세계시민이란 “세계 시장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 역량, 이해도”를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에 대한 학교의 개념은 거버넌스, 국제 교육, 국제 경영, 언어 과정, 해외 연수, 해외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된다.

대학 종합 계획 (Comprehensive Institutional Plan, 2015) 발췌

세계시민: 졸업생들이 국내외 일자리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당 지식, 역량, 이해도가 필요하며, 학생들은 해외 일자리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대학이 이들을 잘 성장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앨버타대학은 우수한 역사, 사회학, 경영, 교육, 세계화의 경제학 분야의 학부/대학원 과정을 만들 수 있는 전문 교수를 지속해서 채용할 계획이다. 이런 이슈에 대한 학생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와 거버넌스 자격증, 국제 교육 자격증을 비롯, 국제경영학전공 무역학사, 국제경영 MBA 및 다양한 언어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교환학생 및 교내 해외 유학생과의 학과/특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앨버타대학교 인터내셔널 (U of A International): 앨버타대학이 해외 경험을 중시한다는 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앨버타대학교 인터내셔널의 학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해외 학생 및 해외에서 공부할 국내 학생을 모집하고, 대학 네트워킹을 도모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캠퍼스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앨버타대 인터내셔널의 한 부서인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Global Education Program)은 글로벌 수업, 다문화 경험, 공동교육과정 활동, 개강/종강 워크숍을 이수한 학부생들에 인증 (국제 교육 인증,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Learning)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학부의 국제사무소 (Faculty of Education's International Office)는 해외 강의 기회도 제공한다 (중국, 버뮤다, 한국- 경인 교대).

2. 중점사항

- 앨버타대학교 인터내셔널 (U of A International):

앨버타대학이 해외 경험을 중시한다는 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앨버타대학교 인터내셔널의 학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해외 학생 및 해외에서 공부할 국내 학생을 모집하고, 대학 네트워킹을 도모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캠퍼스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앨버타대 인터내셔널의 한 부서인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Global Education Program)은 글로벌 수업, 다문화 경험, 공동교육과정 활동, 개강/중강 워크숍을 이수한 학부생들에 인증 (국제 교육 인증, Certificate in International Learning)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학부의 국제사무소 (Faculty of Education's International Office)는 해외 강의 기회도 제공한다 (중국, 버뮤다, 한국- 경인 교대).

- **세계시민 교육과정 개발 (Global Citizenship Curriculum Development, GCCD):**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 앨버타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강점이 바로 GCCD 프로젝트다. GCCD 는 2007 년 교육학부 내 신설된 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로 당시 사마라세케라 (Samarasekera) 전 총장의 주도로 “협동적인 교내 소통”을 통해 학부생을 위한 세계시민 수업을 만들고자 시작했다. 세계시민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의가 담긴 GCCD 의 포지션 선언 (Position Statement)는 학교의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3 년간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지션 선언에서는 세계시민의식을 “국제 인식 차원을 넘어”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며,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 GCCD 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론 수업(세계시민 수업: Int D 404)을 만들고 다학제간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개론 수업에 교수진이 지정한 9 개의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계시민 과정은 이론과 실제, 세계화, 세계시민주의, 사회 정의, 성별, 생태학,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 내용을 기존의 수업에 추가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에게 다양한 자료, 논문 및 일반적 지원을 제공해 세계시민이 다뤄지는 범위를 특별 활동과 인증 과정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주요 학업 과정에도 포함하고 있다.

- **세계시민교육 및 연구 센터 (The Centre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Research, CGCER):**

2010 년 교육 정책 연구 부서 (Department of Educational Policy Studies)의 이니셔티브로 설립되었다. 센터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이슈화하고 널리 퍼트리기 위해 다양한 강의,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국제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면서 CGCER는 지식 창출 및 정책 추천의 주요 허브의 역할을 맡았다. 앨버타대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소속 교수는 알리 압디 (Ali A. Abdi, CGCER 공동 창립자,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교육학부장)와 리넷 쉘츠 (Lynette Shultz, CGCER 센터장, 교육정책학부 소속)로 현 세계시민교육 분야에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3. 특징

앨버타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대학 수준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성공사례다. 대학 비전과 설립 이념에 세계시민의식 배양이라는 목표가 담겨있다. 앨버타대학교의 대학 종합 계획(2015)은 세계시민의 의미를 세계 시장에 어울리는 관련 역량 개발이라 말한다. 세계화 속에서 시장이 대학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고려해, 학생들이 도덕적인 방식으로 세계적 이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교육을 강화한다.

세계시민교육 활동은 교수진 및 학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관리되나, 구조적으로는 대학 관할 아래 느슨한 관리 체계 속에 있다. 앨버타대학교의 주요 특징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GCCD와 CGCER 및 기타 학부의 교육과정 및 연구 지원이 명확히 분리돼 전문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시민교육 학습 과정은 기본적인 입문 수업으로 시작한 뒤, 학생의 흥미에 따라 방사형 모양의 구조로 다양한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인증 제도는 폭넓은 내용과 세계시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끔 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 개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비전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캐나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발전시키며,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UBC의 비전은 지속가능성과 봉사를 중시하며 세계시민을 첫 번째 주요 개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시민을 대학 전체 차원에서 도입할 때도 봉사 중심적인 면을 보인다. 학생 교육, 다문화 이해, 국제 관계와 관련한 UBC의 전략적 우선순위 또한 포괄적 소통과 도덕적 배려를 통한 지역사회와 세계에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한다. 특히, 국제 관계 포트폴리오 하에는 해외 경험 프로그램 및 교내 글로벌 프로그램과 같은 학생 이니셔티브가 담겨있다.

세계시민으로의 길: 교육자의 지침서 (2008) 발췌

세계시민에 대한 UBC의 정의는 인류를 비롯해 모든 생물이 사는 세계인 지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내리고 있다. 복잡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깊이 담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계시민이라 할 수 있다. 세계시민이란 인류를 비롯해 모든 생물에게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의지와 역량을 지닌 사람이다.

세계시민의식 개발의 주요 요소:

- 지식과 이해
- 인지적, 사회적, 실질적 역량
- 성향 (가치관과 태도)

2. 중점사항

- 교육학부 (Faculty of Education):

교육학부 내에서 바네사 안드레오티 (Vanessa Andreotti)는 교육 정책과 글로벌 학습을 주제로 비교교육학: 세계시민의식 (Comparative Education: Global Citizenship)이라는 겨울 온라인 수업을 석사 또는 교육학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위해 가르친다. 또한, 초학문적 집중 과정 (교육학의 사회, 문화 및 정치)이나 성인 교육 및 세계 변화 (Adult Learning and Global Change, ALGC)라는 온라인, 다기관 교육 석사 과정에서도 세계시민 이슈가 다뤄진다.

- **교양학부 내 공동 교양 과정 (Coordinated Arts Program):**

학부생을 위한 1 년 학습 과정으로 4 가지 주제 중 하나가 “세계시민”이다. CAP 로 선발된 학생 100 명은 학술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대한 학기별 기본 수업을 포함해 인류학 및 사회과학 수업과 마무리 프로젝트로 18 학점을 이수한다. 세계시민 주제 (Global Citizens Stream)는 세계화와 현대화, 시민의식과 책임, 지역과 세계의 관계, 기존의 시각과 구조에의 비판적 문제제기를 다루는 수업을 듣는다. 정치과학, 사회학, 지리학과 관련된 수업도 듣는다.

- **교육 학습 및 기술 센터 (Centre for Teaching Learning and Technology):**

센터는 “활동 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라는 그룹을 세계시민의 교육과 학습 과정에서 진행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해 2008 년 세계시민으로의 길: 교육자의 지침서 (Road to global citizenship: An educator’s toolkit)를 발간해 수업 자료로 제공한다. 본 자료는 유니세프 캐나다의 지원으로 개발됐으며, 개념 정리, 주제 선정, 교육학적 접근법, 평가 방법을 비롯해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수업을 준비할 때 교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습 방안 및 질문이 담겨있다.

- **지역사회 참여 학습 센터 (Centre for Community Engaged Learning):**

지역사회 참여 학습 센터는 UBC 주변 지역 사회와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국제 서비스 학습 과정 (International Service Learning program)과 학생을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파트너와 함께 일을 하고 해외 서비스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영어 어학 기관 (English Language Institute):**

평생교육 수업 중 영어 어학 기관에서는 “세계시민을 위한 영어 (English for Global Citizens)”라는 수업을 제공한다. 이는 말하기에 집중하는 영어 어학 수업으로 토론 주제가 문화 다양성, 정치, 기후 변화, 세계시민을 아우른다.

- **글로벌 라운지 및 자료 센터 (Global Lounge and Resource Centre):**

2009 년 개관한 사이먼 K. Y. 리 글로벌 라운지 및 자료 센터는 학생들을 위해 해외 자료 및 기회를 교내에서 제공한다. 센터는 학생 주도의 이니셔티브로 탄생했는데, UBC 학생 3 명이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학 회의 (Clinton Global Initiative University conference) 참가 후 캠퍼스에서 “글로벌 이슈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 학생 단체들이 모여 공동 자료 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대학의 지원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에 센터가 설립되었다. 라운지에서는 국제 관계, 다문화 이해, 지속가능성, 협업과 관련된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네트워킹, 작업 공간 등의 방식으로 학생 단체를 지원한다.

글로벌 라운지 및 자료 센터의 목표와 가치

좌우명, 가치, 이념은 UBC 국제 비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길 바라는 대학의 공식적 목표와 학생들이 바라는 비전, 생각, 가치가 일치하는 내용을 담아 라운지의 설립 멤버가 만든 것이다.

좌우명: Civis Mundus Sum -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가치: “대화, 협업, 영향력”

태그 라인: ‘나는 이곳에서 세계시민으로 다시 태어난다’

(“글로벌 라운지 스토리: 나는 이곳에서 세계시민으로 다시 태어난다” 발췌)

3. 특징

UBC 는 비전과 설립 이념에서도 볼 수 있듯, 대학 차원에서 세계시민의식을 추구하는 것이 명확히 보인다. 더 나아가, 세계시민의 정의가 지속가능 개발과 타인을 위한 봉사라는 틀 속에서 형성돼 세계적 차원에서의 공공복지를 강조하여 글로벌 공공의식을 기른다.

학교의 비전에 기반을 둔 하위 학부는 자유롭게 다양한 세계시민교육관련 일을 진행하며 세계시민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에서 기본적인 바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공동 교양 과정 (Coordinated Arts Program)이 작문, 인문학, 세계적 시각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세계시민 주제에서도 특별히 다룬다. UBC 는 세계시민교육을 기타 전공에서도 기본적인 역량이자 밑바탕으로 여기고 있다. 기본 영어 수업에서도 세계 이슈를 다루도록 하는 것만 보더라도, 세계시민의식을 단순히 소수를 위한 특수한 지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 바탕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학술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학제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초학제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라운지에서 볼 수 있듯 UBC 학생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학의 지원도 눈여겨 볼만 하다. 학생과의 대화에 열려 있고, 청년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학의 방침이 엿보인다.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 개요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설립이념은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형성과 초학제적 교수 및 학습을 위한 교수진 훈련을 선도하는 것이다. 학부, 인증제도, 수업은 정책 중심적이고 초학제적인 성격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컬럼비아 교육대학원은 미국 내 “최초이자 가장 큰” 교육대학원이며, 다양한 학생, 교수진을 한데 모으며 다양성과 공동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은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대학의 역사 속에서 비교 및 국제 교육 분야는 1898 년 이미 설립돼 해외 학교 체계에 대한 수업을 제공했다.

세계시민의식은 글로벌 역량 인증 프로그램 (Global Competence Certificate Program)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글로벌 역량 사유 (The Case for Global Competence)”는 세계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생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글로벌 역량 사유 (The Case for Global Competence)

(글로벌 역량 인증 프로그램 홈페이지 발췌)

지난 수십 년간 세계와 학습 배경은 극단적인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미국의 교육 체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글로벌 학습은 소수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방식은 수십 년 전 양극화된 세상에서는 타당했을지 모르나, 기후변화, 글로벌 실업, 테러리즘, 식량안보와 같은 긴급한 글로벌 이슈는 글로벌 학습이 소수의 인구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종종 글로벌 학습은 소중한 지구에서 협업하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게 사는 인문학적인 경향보다 “벌기 위한 교육 (learn-to-earn)” 커리큘럼으로 한정되어 세계 경제 경쟁만 다뤘었다. 21 세기 시민의식과 리더십의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K-12 교육 체계로의 진정한 변화를 꾀하려면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글로벌 역량을 위한 교수법 및 학습법의 정의와 이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한다.

2. 중점사항

- **인문학부 (Arts & Humanities Department):**

윌리엄 가우델리 (William Gaudelli)가 학장을 맡은 인문학부는 초학제적 과정인 철학과 교육 (Philosophy and Education)과 사회학 교육 (Teaching of Social Studies)를 담고 있다. 사회학 교육은 서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 속에서의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의식 이슈를 다룬다. 프로그램은 세계 속에서 상호 연결된 개인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현장인 특정 지역 사회에 위치한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시민교육과 경제적 의사결정, 여성인권, 다양성 이슈 및 사회학 과목이 서로 섞인 수업을 제공한다.

사회학 교육: 소개

적극적인 민주적 시민의식은 시민의 사적인 관심 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에 얻기 굉장히 어렵다. 적극적인 시민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사람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불의를 바로잡고, 모두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곳곳에서 평생교육을 실천한다. 한정된 자원, 심각한 불의, 만연한 불평등으로 가득한 지구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민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또 다른 적극적인 시민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나아간다.

시민성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시각의 잠재 위험은 개념이 생경하고 먼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일상을 세계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관심과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지역사회를 성찰하고 도우며 일한다. 타지에서 타인과 일하는 진정한 가치는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새롭게 보이는 고향의 정경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 컬럼비아대학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 (Margaret Mead)의 말이 적절한 듯하다.

- **교육 정책 및 사회 분석 (Education Policy and Social Analysis, EPSA):**

EPSA 는 경제 정책수립, 정치, 사회학과 관련된 4 가지 교육 전공으로 구성됐다.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초학제적이다.

- **국제 및 횡문화학부 (International & Transnational Studies Department):**

국제 및 횡문화학부는 경제, 사회, 문화적 자원과 인간의 관계 속 세계와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는 국제학 지역 민족지학 교육학 석사(Ed.M. in Global Studies in Regional Ethnographies) 과정이 포함된 인류학 과정을 제공한다. 같은 학부 내 국제 및 비교 교육 과정(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Education Program)은 세계적 차원에서 비교교육과 교육 개발과 관련된 수업을 제공한다.

- **글로벌 역량 인증 (Global Competence Certificate, GCC):**

TC 의 핵심 세계시민교육 과정이 바로 이 GCC 과정이다. World Savvy 와 Asia Society 가 함께 개발했으며, K-12 교사를 위한 15 개월짜리 글로벌 역량 온라인 대학원 과정으로, 대학원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과정에서 글로벌 역량이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경향과 역량”이라 정의 짓고 있다. GCC 의 글로벌 역량은 교사가 학생을 세계화된 시장 속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이상을 뜻한다. 세계시민의식과 비슷한 핵심 개념, 역량, 태도, 가치, 행동이 나열된 GCC 만의 글로벌 역량 매트릭스 (Global Competence Matrix)에 따라 GCC 프로그램은 온라인 강의, 현장학습, 협업 훈련 그룹 3 가지 요소로 개발되었다. 강의는 3 개의 분야로 나뉘어 있다. (상호 연결된 세계 체계에 대해) 생각하기, (세계적 주제에 대해) 학습하기, (수업 중 실습) 이행하기이다. 현장학습에서 참가자들은 국내외에서 2~3 주간 실질적 경험을 쌓아야 한다. 협업 훈련 그룹은 취직 후 일자리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 개발해야 한다.

3. 특징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교육정책 연구에 글로벌 리더십을 접목시켰다. 세계시민이 자주 강조되지는 않으나 세계적인 맥락에서 필요한 공공의식과 역량을 학생들에 배양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교육대학원의 학업 과정은 다음의 특징이 있다. 우선,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이슈를 다룸으로써 단순히 먼 발치에 떨어져서 학교라는 틀 안에서 세계적인 이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을 따른다. 둘째, 사고하기, 학습하기, 이행하기가 세계시민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공자의 知行合一, 즉 지식과 행동의 일치와 일맥상통한다. 셋째, 15 개월짜리 GCC 과정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특히 두드러진다. 교사와 전문가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문학부의 사회학 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시민교육을 다루는 센터지만, 세계시민 교육 및 학습이 깊이 있는 전문가 역량 개발을 위한 특수화된 초학제적 과정에도 포함되고, 참가자의 학업 및 커리어를 위한 인증제도에서도 제공된다.

런던대학교 UCL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1. 개요

런던대학교 UCL(이하 UCL)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강점을 지녔다. 포용성과 다양성의 오랜 역사에 기반을 둔 학교로, 20년 비전인 UCL 2034는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6개의 주제로 이뤄졌다. UCL은 연구와 교육의 글로벌 리더로 “문화적 다양성, 세계시민의식, 리더십, 그리고 현대의 외국어 교육을 통해 (UCL 2034 제 2 주제)” 세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킨다. 제 3 주제는 학문 분야의 우수성 및 학제간 학문 접근법에 따라 글로벌 과제를 다룬다.

제 6 주제는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글로벌 남부와 동부”지역을 비롯한 정부, 기업, 해외 NCO와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대학연구 전략의 일부인 UCL 그랜드 챌린지 (UCL Grand Challenges)는 협업 연구를 장려하는 학제간 이니셔티브로서 이 주제와 일치한다.

UCL 그랜드 챌린지

다음은 통해 기회 제공

- 원탁회의
- 주민 회의
- 소규모 자금 지원
- 연구상 워크숍
- 연구 여름학기
- 학제간 그룹 형성 지원

연구 분야

- 글로벌 보건
- 지속가능 도시
- 문화간 교류
- 인간 복지

UCL은 제도적으로 세계시민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1828년 런던 내 최초의 대학이자 영국에서는 3번째로 설립된 당시 모든 인종과 종교에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선도적 비전을 선포했다. 1878년 처음으로 남성과 동등한 기준으로 여성 학생을 뽑았다. 모두에게 차별 없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포용적인 설립 전통에 따라 UCL은 교육, 연구, 지역사회 연계,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이룰 것을 선언한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현대 세계의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며, 교육을 통해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킨다.” 아래는 세계시민의 특징에 대한 UCL의 설명이다.

세계시민의 특징

(UCL 세계시민 프로그램 홈페이지 - 세계시민이란? 에서 발췌)

UCL은 학생들이 전공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개인과 지역 사회의 이해를 넘어서 상호연결된 세계의 복잡성을 직시하는 사람 :

- 세계가 직면한 과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
-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인지하는 사람
- 리더십을 발휘하고, 더 나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사람
-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 UCL 에서 제공하는 역량의 가치를 인정하는 세계 일자리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

2. 중점사항

- **인문과학부 (Arts & Sciences (BASc) Department):**

UCL 의 학문간 교육과 연구는 11 개 학부의 다양한 과정에 적용돼있다. UCL 인문학부 소속인 인문과학부 (BASc)는 학부생에게 스스로 인문학과 과학 수업을 섞어 구성을 마련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 **다학제간 단체 (Cross-disciplinary institutes):**

여러 학문이 함께 협업하는 예로는 글로벌 번영회 (UCL Institute for Global Prosperity), 인권회 (UCL Institute for Human Rights), 및 글로벌 보건회 (UCL Institute for Global Health)로 연구 및 교육 요소가 UCL 그랜드 챌린지와 일치한다.

- **교육학부 (Institute of Education):**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 민주주의, 시민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특수 학위를 제공하며, 대개 석사 학위이다. 대부분의 1 년 과정은 온라인 및 원격 학습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특히 “개발교육과 글로벌 교육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Learning)”은 개발 교육에서의 세계시민과 글로벌 관점으로 모듈이 나뉘어 있다. IOE 의 개발교육연구센터는 더글라스 본 (Douglas Bourne)이 이끌고 있으며 개발 교육, 글로벌 교육,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 **세계시민 프로그램 (Global Citizenship Programme):**

UCL의 세계시민 프로그램은 2013년 UCL 그랜드 챌린지 연구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얻는 학생들을 위한 인증 제도로 시작됐다. GCP는 글로벌 교육이지만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학 매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2주간 캠퍼스 내에서 과정을 이수한다. 2종류의 과정은 각각 여러 학문이 섞인 소과정이며 글로벌한 질문에 대한 비판을 협업 연구 및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한다. 1~2학년 학생은 여러 그랜드 챌린지 주제 (Grand Challenge Strands) 중 하나를 골라 소규모 그룹 연구를 진행한다. 2~3학년 학생 및 대학원생은 실질적 직업훈련 학습과 기업 설립, 지역 내 자원봉사 참여, 고용 조건 검토, 및 민간단체에 캠페인 진행과 같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패스웨이 과정 (Pathway Strands)을 선택할 수 있다.

3. 특징

UCL은 세계 선도적 연구 대학으로 20년 전략 계획인 UCL 2034는 글로벌 차원의 이슈를 포함한다. UCL 그랜드 챌린지는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전략으로, 초학문적 학술 및 연구 프로그램의 기본이다. 전략 추진과제는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우수한 세계시민을 양성해 지속적인 존재감과 효과적인 리더십을 추구한다.

UCL은 세계시민에 특화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경영, 보건, 정치, 교육과 같은 분야의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학문적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특히 교육학부와 산하 개발교육 연구 센터는 세계시민에 대한 프로그램과 연구를 진행한다.

학부생을 위한 세계시민 프로그램은 2주 동안 이어지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2개의 다른 분야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교육을 연구와 직업교육과 연계한다. 여타 세계시민 관련 프로그램과는 달리 UCL의 프로그램에는 해외 경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캠퍼스 내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첫 번째 분야는 연구 중심적이며 세계시민에 대한 지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두 번째 분야는 실질적인 개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세계시민과 관련된 점은 글로벌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개인의 역량과 (제도적 동기부여), 정의와 관련된 시민 단체에서의 경험 (비판적 변혁 동기부여) 등이 있어 글로벌 공공의식과 글로벌 역량을 고루 추구한다.

3. 아시아 주요 연구중심 대학

동경대학교 (Tokyo University)

1. 개요

동경대학교는 연구, 교육, 사회 협력 분야에서 “지식 협업의 글로벌 기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 현장에는 동경대학교를 “편견 없는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미래지향적, 글로벌 목표를 지닌 지성인”의 양성기관이라 말한다. 마코토 고노카미 (Makoto Gonokami) 총장이 제시한 비전 2020 은 교육 비전에 세계적인 시각을 덧붙여 “전 세계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살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초학문적 영어 프로그램이 글로벌 이슈를 다루고 있고 2010 년 이래로 그 수가 공격적으로 증가해왔다. 코마바 영어 프로그램, 3 언어 프로그램, WINGS (World-leading Innovative Graduate Study, 세계 선도적, 혁신적 대학원 연구)와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나,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이다. 비록 세계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학교의 문서에는 없으나, 세계적인 안목, 세계적 협업 배양 및 미래를 위한 지식과 역량 함양이 세계화와 시민의식을 다룬다고 본다.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실천 계획으로는 국제 학생 증대, 학생주도 다문화 활동 지원이 있다.

비전 2020 에 포함된 대학교 비전은 대학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동경대가 국가와 세계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동경대학의 더욱 자세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은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 컨퍼런스에서 (2016 년 10 월 13 일) 동경 교육대학원 고다마 시게오가 발표한 “Citizenship Education in Japanese Universities”에 더욱 자세히 기술되어있다.

비전 2020 (2015)에서 발췌

비전 2: 교육 - 기본 역량 함양 및 지식 전문인의 훈련

동경대가 앞으로도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을 (동경대 현장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안목을 지닌 지적 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근본적 교육 원칙을 고수할 것이나,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식 전문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부 과정에서 문제 해결 시 기본 원칙을 잊지 않는 능력, 집요하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파고드는 능력, 독창적인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는 능력, 이 3 가지 주요 역량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안목을 지니도록 장려함으로써, 동경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비전 3: 사회와의 협력 - 21 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대학의 공적 역할 형성

21 세기의 글로벌 사회 속에서, 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사회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동경대 또한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줄 다양한 진보에 기여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학술적 자유도 지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임은 일본과 세계에서 동경대가 지닌 진정한 “공적인 역할”을 형성하고 강화해가는 노력과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2. 중점사항

- **인문과학부/대학원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인문과학부/대학원에는 우수한 과정이 여러 개 있다. 3 언어 프로그램(Trilingual Program)은 일본어, 영어 외에 학생들에게 제 2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세계적인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코마바 영어 프로그램 (Programs in English at Komaba, PEAK)는 특화된 학제간, 국제 교과목 프로그램으로 비일본어권 초중고등 학교를 다닌 학생들을 위해 2010 년 설립됐다. 글로벌 인문 대학원 프로그램(Graduate Program on Global Humanities)은 국제학 석박사 학위를 제공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원적인 글로벌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런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각을 키우겠다는 전략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국가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시민의식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 **대학원 프로그램:**

동경대는 교육 사회과학부 (교육대학원 소속),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의과대학원 소속, 2010 년 설립)과 같은 글로벌한 내용을 다루는 대학원 과정을 다수 제공하며 국제학생도 지원한다. 2010 년 설립된 고급 국제학부 (Institute for Advanced Global Studies, IAGS)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관련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변화는 동경대가 글로벌 지식 창출 연구 기관으로 거듭나려는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글로벌 사회 대학원 과정 (Graduate Program on Global Society, GSP):**

GHP 와 HSP 와 더불어 GSP 는 인문과학의 4 개 학부를 아우르는 교과목을 선보인다. GSP 프로그램은 2012 년 “글로벌화된 시민 사회의 위험성과 가능성에 대한 창의적이고, 적절하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형태의 거버넌스와 법을 개발해 오늘날 예상할 수 없는 글로벌 과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됐다. 영어 석/박사 과정은 HSP 와 GHP 과정의 학생도 등록 가능하며 4 가지 주제 1) 글로벌 사회의 규범적 기반, 2) 국제적 상호의존성, 3) 사회문화적 다양성, 4) 초국가적 시장과 시민 사회를 연구할 수 있다. 국제학부를 비롯해 인문학과 사회과학 교수가 초학문적 GSP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전 세계를 큰 틀로 잡고 있긴 하나, 대부분의 수업이 일본과 아시아의 다양성과 상호의존성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3. 특징

동경대가 글로벌 역량과 시각을 중시하고 배양하긴 하나,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전 2020 에 제시된 학교 비전과 목표에서 글로벌 시각은 교육적 비전으로 리더십의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보여준다. 글로벌 시각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고 글로벌 공공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교육은 세계화라는 맥락 속에서 개인의 역량 개발과 기관의 발전에 훨씬 더 큰 강점을 두고 있는듯하다. 대학의 국제화 정책과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구성됐으며, 다양한 학부의 교사가 관련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PEAK, TLP, GLP 와 같은 영어 초학문적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도입됐다. 글로벌 사회 프로그램은 여러 학부와 연구 역량을 한데 모아 새로운 학위 과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초학문적인 프로그램이다.

히로시마대학교 (Hiroshima University)

1. 개요

역사적인 위치를 봤을 때 히로시마대학교의 기본 설립 원칙은 평화의 추구이다. 이에, 글로벌 분야는 설립이념에도 깊게 뿌리 박혀 있다. 5 개 원칙 중 사회와 세계의 문제에 평화적인 해결책 모색하기가 포함돼 있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히로시마대 또한 “글로벌 시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 “교육과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타 글로벌 전략에는 “국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히로시마대의 강점을 지역과 세계에 기여한다”가 포함됐다. 이런 프로그램은 국제학생 및 타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지식 공유를 하는 히로시마 평화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센터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for Hiroshima Peace Building)를 설립했다.

2. 중점사항

- **통합인문과학부/대학원 (Faculty and Graduate School of Integrated Arts and Sciences):**

통합인문과학부/대학원은 “박학다식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며 “21 세기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다재다능한 인재” 교육을 위한 학제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1 세기 과학 프로젝트(21st Century Science Projects)는 대학원 연구 프로젝트로 교내 3 개 학부를 아우른다. 이중 평화학 연구 프로젝트 (Research Project of Peace Studies)는 공존, 평화 및 평화 이슈에 대한 히로시마의 중요성을 연구한다.

- **교육과 국제협력 연구 센터 (Center for the Stud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ducation, CICE):**

CICE 는 지속가능 개발목표 4.7(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 4.7)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속가능개발과 교육개발 연구에 몰두하며, CICE 는 유네스코, UNU,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공동 설립한 교육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아시아 대학 회의 (Network of the Africa-Asia University Dialogue for Education Development, A-A Dialogue)의 사무국이다.

- **국제 개발 및 협력 대학원 (Graduate Schoo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DEC):**

IDEC 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 지속개발가능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학원은 개발정책, 개발기술, 평화 및 공존 전공을 아우르는 개발과학부, 교육개발, 문화, 지역 연구 학부가 있다. 후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 개발에 참여하며 JICA 와 긴밀한 공조를 진행한다. 또한, 탄소 배출, 국제기구 리더쉽, 잠비아의 대규모 교육 개발과 같은 특정 글로벌 이슈에 집중하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제간 인증 과정도 제공한다.

-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과의 협력:**

UN 및 JICA 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수의 국제 개발, 연구, 훈련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히로시마대학교 리더교육 대학원 과정(Hiroshima University Graduate School Leader Education Program):**

11 개 대학원 외에도 본 과정은 일본 문부과학성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의 우수 대학원 프로그램 (Program for Leading Graduate Schools, 2011 년 출범)의 목적으로 설립됐다. 방사능 참사로부터의 재기를 위한 피닉스 리더 교육 프로그램 (Phoenix Leader Education Program for Renaissance from Radiation, 히로시마 이니셔티브, 2011 년 시작)과 타오야카 프로그램(Taoyaka Program, 2013 년 수립)은 학제간 연구를 통해 21 세기의 글로벌 리더를 훈련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타오야카 프로그램은 학제간 연구 및 다양한 빌트인(Built-in) 현장 교육을 자랑한다. 5 년 석사 및 박사 과정의 학생은 1 학년 때 문화 창조, 기술 창조, 사회적 도입 3 가지 주제 중 하나에 속하며 평화와 공존에 대한 기본 교양 수업을 듣고, 전문 분야에 대한 수업을 캠퍼스에서 듣는다. 교내 학부 교환 및 일본 내 주제현장학습을 떠나며, 5 일간 일본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 현장훈련도 참여한다. 3~4 학년 학생들은 주제별 학생이 한 명씩 모인 한 팀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과정 중 연계된 기관에서의 개별 인턴십 또한 이수해야 한다.

- **국제학생 모집:**

대학 전략에서도 볼 수 있듯, 히로시마대학교는 (다양한 학제간 프로그램을 영어로 제공하며) 해외 학생을 유치하고 해외로 학생을 보내기 위해 국제 협력을 쌓아왔다. 단기 및 1 학기 프로그램 외에도, JASSO 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JASSO Student Exchange Support Program)은 2~3 년간 대학원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한, 히로시마대학교와 해외 대학교 (현재 호주의 플린더대학교 (Flinder University), 한국의 경희대학교)와의 국제 대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중학위를 받을 기회도 있다.

3. 특징

히로시마대학은 5 원칙에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강조한다. 히로시마대학교의 설립 이념은 평화이며 글로벌 시각을 함양하는 것이 주목표다. 하지만 지속가능개발을 더 강조하며 세계시민은 자주 언급되지 않는다. 대학 전략에 따라 히로시마대학교는 국제학생을 위한 영어 수업을 추진해왔으며, 본교 학생들에게는 교환학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영어 수업 중 일부는 대학원 과정에서 진행되며 글로벌 이슈를 연구하는 초학문적 과정을 담고 있어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과 연구 과목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글로벌 역량, 글로벌 인식 함양이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지녔으며, 21 세기 과학 프로젝트와 같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교육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도 접목 돼 있어 서로 다른 학부/대학원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원은 서로 다른 학부와 기관이 서로 나뉜 학부의 교과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 JICA 와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학생들은 글로벌 개발과 교육 분야에 현장 연구 및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학제간 프로그램은 일본 문무과학성의 우수 대학원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

북경대학교 (Peking University)

1. 개요

북경대학(Peking University)은 “중국 현대사 최초의 국립대학”이다. “국가의 사회주의 동원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애국심, 진보, 민주주의, 그리고 과학”이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세계시민의식이 대학 설명에는 나오지 않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교육이나 유학생 유치라는 맥락에서 국제적인 면이 종종 언급된다. 북경대는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의학 및 정보와 엔지니어링이라는 다섯 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온라인 홈페이지에 나오는 영문 정보는 대부분 잠재 유학생을 겨냥했다. 따라서, 영문 프로그램과 강좌 설명서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는 석사과정에 관련된 것이다.

2. 중점사항

- **사회과학부:**

사회과학부 내 국제학부(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는 국제학, 정치경제 및 외교 부문의 리더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교육대학원(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은 유네스코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 하에 타 대학과의 국제적 학술 및 연구 교류를 제공한다.

- **영어 석사 과정:**

북경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11 개의 석사 과정 중에서도 유명한 프로그램으로는 행정학 석사(Master Degree Program in Public Administration)와 공공정책학 석사(Master Program in Public Policy)가 있다. 두 과정 모두 중국 내 이슈와 국가의 행정 및 정책입안 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석사과정 또한 가능하다.

- **공동 과정:**

시앙스포-북경대 석사과정 (Science Po-Peking University Master's Degree)는 2 년 과정으로, 첫째는 파리에 위치한 시앙스포에서 국제정세학 석사학위를 받고 다음해에는 북경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는다. LSE(런던정치경제대학교)-PKU(북경대학교) 행정 및 정부 석사과정 역시 2 년 과정으로, 1 학년을 북경대학교, 2 학년을 LSE 에서 보내며 공공정책과 행정 부문에서 복수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이 과정의 장점은 두 개의 다른 학문체계와 사회정치학 구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비학위 과정:**

북경대학교는 단기 협력 과정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비학위 과정을 제공한다. 중국으로 가는 길: 영어과정 프로그램 (On the Road to China English Taught Program)은 1 학기 동안 중국어와 중국역사 및 경제를 배우는 과정이다. 세계화와 중국의 도시(Globalization and the Chinese City)라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비추어 본다. 런던정경대-북경대 여름학교(LSE-PKU Summer School)는 런던정경대 및 북경대 교수진이 2 주 동안 북경대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EH302: 역사 속의 세계 성장과 세계화(Global Growth and Globalisation in History), LPS-SA202: 복잡한 사회: 중국 내 사회적 문제와 사회정책 (A Complex Society: Social Issues and Social Policy in China)과 같은 과목은 세계화와 중국의 성장이라는 이슈에 중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LPS-SA301: NGO 에서 사회적 기업까지: 지방 및 글로벌 정부에서 활동 중인 중국의 사회단체(From NGOs to Social Enterprises: Chinese Social Organisations in Local and Global Governance) 강의에서는 글로벌 맥락에서 중국 NGO 를 살펴본다.

3. 특징

북경대학교는 1898 년에 설립된 중국 내 최고의 대학이다. 북경대의 주요 목적은 사회주의국가의 현대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가진 애국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국경을 넘은 시민의식, 또는 세계시민의식은 영문 웹사이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국제정세 및 정책 관련 학과와 강좌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시앳스로나 런던정경대 등 해외 대학과의 공동 및 복수학위라는 국제 교류에 있어서 차별화된다. 영문 웹사이트상의 정보에 따르면, 영어로 수업하는 중국문화, 정치, 경제 및 언어는 신규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되고 있다.

홍콩 대학교 (University of Hong Kong)

1. 개요

홍콩 대학(The University of Hong Kong: HKU)이 지향하는 글로벌적 방향은 대학 전반에 걸쳐 분명히 드러난다. HKU의 비전은 세계적인 존재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한 HKU의 이념 중 하나는 아시아 학계의 중심이 되고 전세계와의 학문적 상호작용의 “관문”이 되는 것이다. 2009-2014 년도 전략개발(Strategic Development)에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언급이 있다.

2009-2014 년도 전략개발 발췌

전략 구상 1: 학생 집단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특출한 인재의 모집에 힘쓴다

세계 명문 대학으로써, 우리 대학은 학생 모집에 있어 학문적 우수성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엄격한 학생 모집을 통하여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학생을 모집하고,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학생의 기질과 잠재성을 강조하여 우리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세계시민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대학 모든 커리큘럼에 국제적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 프로그램이 글로벌 관련성을 가지도록 명백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수업에서의 교수진 및 학생의 영어 사용과 커리큘럼의 글로벌 관련성을 통해 한층 강화된다. 2012 년도 신규 커리큘럼 및 필수 과목(2012 New Curriculum and Common Core)의 6 가지 교육목적 중에는 학부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역량 중 하나로 “문화간 이해와 세계시민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홍콩대학교의 최신화된 2016-2025 년도 전략은 단순히 중국에 있는 영어 사용 대학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해 학문적 우수성을 더욱 강조한다. 홍콩대학교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국제화, 혁신 및 학제간 전략을 통해 중국, 아시아 그리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2. 중점사항

- **비교교육 연구센터(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Centre: CERC):**

Mark Bray(유네스코 비교교육 석좌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교육학부의 비교교육연구센터는 견실한 연구 커뮤니티로 세계화와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포럼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2012 년에 Tina Besley 와 Michael A. Peters 가 함께 진행한 “세계시민이 되는 법: 개방성, 상호문화주의 그리고 대화(Becoming Global Citizens: Openness, Interculturalism and Dialogue)”라는 강의에서 세계시민과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정의하는 중요한 이슈를 다룬 바 있다. CERC 는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풍부한 대화의 장이 되어왔다.

- **기숙학교제도:**

HKU 는 기숙학교이며 세미나, 사회봉사활동 및 기타 경험적 학습활동을 진행한다. 그 중 뉴 컬리지(New College)는 지속가능성과 전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2012 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친환경농업이나 노인방문과 같은 봉사활동은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과학부:**

사회과학부에는 사회혁신과 세계시민의식 과정(Social Innovation and Global Citizenship program)이 있다. 이 학부 과정은 2 개의 주제에 대한 교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0 년에 시작되었다. 언론학이나 사회과학(정부&법) 학생은 지역단체에서 사회혁신 인턴십을 하거나 세계시민의식 인턴십 또는 해외 연수를 가는 등의 졸업요건을 선택하게 된다. 그 중 하나인 세계시민의식 하계연구소(Global Citizenship Summer Institute)는 4 주 동안 대만과 한국에서 공부하며 각국의 사회, 문화, 정치적 발전에 대해 공부하고 최종 발표를 한다. “3 개 캠퍼스 비교 동아시아학 과정(3 Campus Comparative East Asia Studies Programme)”은 1 년 또는 반년 과정으로 일본과 한국의 자매대학에서 수학한 후 HKU 에서 강의와 인턴십으로 마무리한다.

- **글로벌 공공정책 석사과정:**

학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부의 글로벌 공공정책 석사과정은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기숙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세계개발, 정의 및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를 다룬다. 학생들은 15 개월 동안 LA, 중국 본토, 중국에서 지내게 된다. 수업의 40%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홍콩대학교와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동으로 학위를 받는 과정이다.

- **지속가능성 연구소에 대한 정책:**

사회과학부 산하 “지속가능성 연구소에 대한 정책(Policy for Sustainability Lab)”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HKU 교수단의 허브로서 혁신적인 학제간 해결책을 위해 연구, 교수, 지식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연구소의 비전은 국제 파트너십(international partnership)에 관한 UN 지속가능개발목표 17 과 맞닿아 있다.

3. 특징

홍콩대학교는 세계 최고 연구 대학으로 전세계적인 존재감과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한다. 2009-2014 년도의 전략 선언문에 따르면, 대학은 국제적인 학생모집 및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글로벌적인 커리큘럼 제공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이라는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 최근 10 개년 전략 선언문은 2015 년 시행된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지속가능 개발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연구소에 대한 정책”은 대학의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세계시민의식에 관한 HKU 의 설립 이념은 문화간 이해와 교육과정에서의 글로벌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CERC 강의나 사회과학부의 세계시민의식 과정에서 보듯 각 부서의 과정과 프로그램은 문화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계시민의식 과정은 해외 자매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세계시민의식 가치는 기숙 프로그램에 언급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 보다는 봉사활동의 맥락에서이고 세계시민교육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듯하다.

본 대학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국제화와 글로벌 관점의 가치에 관한 HKU의 설립 이념이 부서별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식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 개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의 국제적인 면은 설립 이념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NUS 는 교육, 연구, 사회 참여에서의 국제적 측면을 강조한다. NUS 의 국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글로벌하고 다양한 문화의 내용을 포함, 전세계에 영향을 주는 연구의 실시, 학생들에게 전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다양한 학생과 교수의 모집, 그리고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리더십을 달성하는 것” 등이 있다. 글로벌 교육에 관한 이념은 해외뿐 아니라 캠퍼스 내에서의 기회를 통해 세계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NUS 의 글로벌 교육(Global Education):

NUS 의 교육은 엄격함과 학생들을 이 세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타인과 타인의 삶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다양성과 차이의 혜택을 인지하고 즐기는 세계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차별화된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세계시민의식은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함양되고 있다. 첫째, “자국에서 경험하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at-home)”를 위한 국내 커리큘럼 및 공동 커리큘럼을 통해 국제적, 문화간 및 비교적 관점을 기르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해외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등 공식 및 비공식 학습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NUS 는 세계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에는 학사 및 석사를 대상으로 해외의 우수 대학과 진행하는 다양한 이중학위, 복수학위, 공동학위 과정 등이 있다. 예를 들어, 2005 년에 설립된 듀크대-NUS 의학전문대학원(Duke-NUS Graduate Medical School)과 2011 년에 설립된 예일-NUS 인문학교육부(Yale-NUS College on liberal arts education)가 있다.

2. 중점사항

- **UTown:**

NUS 는 2011 년에 싱가포르 최초의 기숙대학인 UTown 을 만들었다. 시나몬 학부와 함께하는 대학교수 프로그램(University Scholars Programme with Cinnamon College)은 NUS 의 자체 인문학 프로그램이며, 3 개의 기숙대학으로 분류된 UTown 학부 프로그램(UTOWN College Programme: UTCP)은 다학제 과정이다. UTCP 학생은 4 학기에 걸쳐 모든 커리큘럼 모듈을 이수해야 하고, 세미나 및 학습이나 경험 활동을 해야 졸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학문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한다. 앨리스와 피터팬 학부(College of Alice & Peter Tan)의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시민의식(Citizenship in a Changing World)”이라는 세미나는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을 탐구한다.

- **유학의 기회:**

NUS 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및 장기로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예일-NUS 학부:**

NUS 의 여타 학부와는 달리, 예일-NUS 학부 는 2011 년에 공동 구상된 자주적 인문학부이다. 예일-NUS 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4 년제 기숙학교로, “봉사라는 윤리”로 “세계시민을 교육하자”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매년 입학하는 250 여명의 학생 중 40%가 유학생이며, 14 개의 인문학 전공을 제공한다. 학생 선발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글로벌 마인드의 여부이다. 학생들은 예일-NUS 학부의 BA(문학사) Honours 나 BS(공학사) Honours 를 획득한다. 예일-NUS 는 NUS 와 별개지만 NUS 캠퍼스 내에 위치한다. 예일대와의 별개이지만, 예일대 교수진과 리더들이 커리큘럼 개발, 교수 모집 및 교육, 그리고 초청강연 등을 통해 참여했다. NUS 학생은 예일대의 유학/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예일-NUS 는 첫 2 년 동안 공통 커리큘럼으로 여러 학문 분야의 학술 및 글쓰기 기반을 다진다. 그 후 졸업까지의 2 년은 해당 전공 또는 학생이 독자적으로 만든 전공 수업에 전념한다.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을 위한 예일-NUS 센터(Yale-NUS' Centre for International and Professional Experience)의 역할은 학문적 교류와 인턴십을 통한 글로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3. 특징

NUS의 대학 비전과 설립 이념에 반복적으로 명시한 글로벌 측면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적인 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지키고 있다. NUS의 명백한 목표는 세계시민의 양성이다. NUS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다양성을 인지하고 즐기는 것을 세계시민으로 정의한다. 글로벌 커리큘럼과 해외 경험 프로그램 등 국내외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한다.

따라서, 기숙학교제도, 해외연수 프로그램, 협력 대학과의 공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이 실시되고 있다. UTown 기숙대학은 세계시민의식 관련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합 학술 프로그램과 경험활동을 제공한다. 다양한 해외 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보유하며, 우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도 있다. 특히 예일-NUS 학부는 예일대와 NUS와는 독립적이지만 14개 인문학 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유일무이한 합작이다.

제 5 장

국내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토대

제 5 장 국내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토대

1. 세계시민교육의 유형 검토

가. 세계시민교육의 유형구분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실재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외의 17 개 대학과 국내대학 15 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대학의 home page 를 중심으로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다. 해외대학은 Jorgenson 등이 검토한 결과를 (Jorgenson & Shultz, 2012) 고려하여 캐나다, 영국 그리고 미국에 소재하는 7 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아시아의 대학으로는 일본,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의 주요연구중심 대학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학부교육선도대학(ACE), 국제화지수가 높은 대학, 국제개발협력선도대학, 교사교육 전문대학 등 특징을 지닌 대학들 중에서 11 개 대학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이들 대학의 개요는 해외대학의 경우에 7 개 대학을, 국내대학의 경우에 6 개 대학의 실제만을 이 보고서의 제 4 장과 제 5 장에서 제시하였고 나머지 대학은 이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대학의 구체적 상황은 별책부록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실재를 검토한 결과 세계시민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제 4 장에서 그 유형을 검토한 바 있으나, 5 장에서는 한국대학에서의 여건, 토대 분석을 하기 위해 그 유형 구분의 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하여 여기에 적용해본다.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실재를 유형으로 구분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국내대학들이 세계시민교육의 실재를 개념적으로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제 6 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설계를 위한 “개념모형의 틀”을 탐색하기 위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유형을 모형화하여 검토한다.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유형과 형식은 대학의 교육방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대학의 교육방침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토대(Platforms)가 있다. 이러한 토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세계시민교육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토대는 대학의 교육의 중점을 형성하는 규범적 토대이다. 여기에는 대학교육의 목표, 대학의 비전과 사명, 대학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 대학의 발전전략 그리고 총장 등의 대학경영진(Senior managers)의 정책의지 등이 포함된다. 이들 규범적 토대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에 명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또 이들이 세계시민교육을 규정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정하게 된다. 관련된 요인과 예상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세계시민교육의 규범적 토대의 존재와 표현방식(존재여부, 명시적 접근/포괄적 접근)과 목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유형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목표의 중심을 의식중심형과 역량중심(전문역량 중심), 그리고 양자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식중심 중에서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전반적통합형, 관(觀)과 원칙중심형(a, p factor), 책임과 의지중심형(r, c factor)/공(共)과 의(意)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세계적 이해에 둘 수도 있고 공공의식의 함양에 둘 수도 있다. 이 양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경우도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범위와 교육의 목표로서 세계시민의식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넓은 의미의 세계시민교육”과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좁은 그러나 세계시민의식에 목표를 두는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 국제진출형 세계시민교육과 시민의식기반형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이 양자를 통합하는 통합적 세계시민역량개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진방식에 따라서 “하향식의 강한 체계적 연계”와 “상향식의 느슨한 연계형”을 생각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집행형태에 따라서 그 “운영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추진 동인 혹은 주체를 정부 혹은 대학 단위로 구분할 수 있고, 대학 내에서도 대학의 본부 혹은 운영진의 대학상충부가 주도하는지 혹은 단위교육기관 혹은 개인이 주도하는가에 따라서 추진동인을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요인은 대학단위 조직의 각 부분들이 상호 연계되는 양상에 따라 강한 체계적 연계(tight coupling)와 느슨한 연계(loose coupling)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축의 연계방식에 따라서 대학 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추진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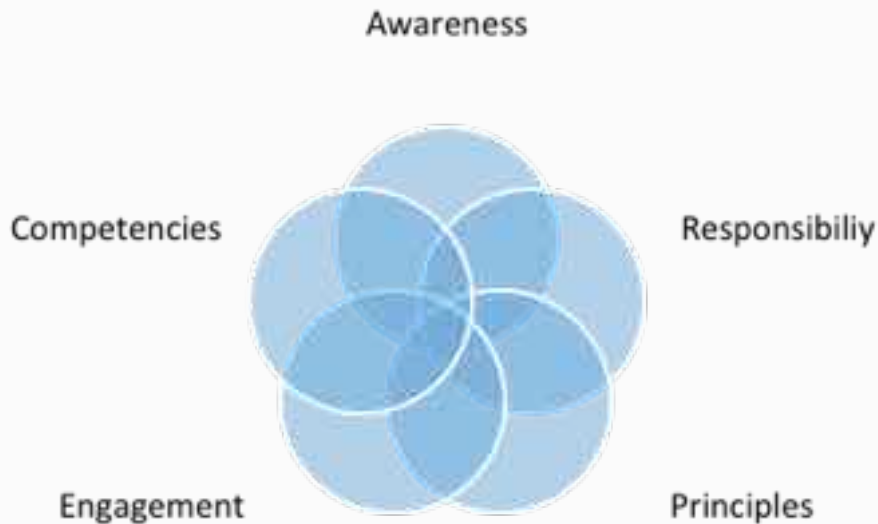
교육과정의 구조를 넓은 의미의 세계시민교육과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과정제공 형식에 따라서 교과목개설, 프로그램형 교육과정운영, 관련교과목 연계체제 등을 볼 수 있다. 대학원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 전공과정을 볼 수 있다. 이외에 Residential college 형태의 운영과 학생주도형 활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세계시민교육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에서 구별 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에서의 범위와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과 국제화 프로그램과 세계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이다.

①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에서의 범위의 문제이다. 제 4 장의 세계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실재를 개관하는 분석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측면을 “의식”의 측면과 “역량”의 측면으로 구분하여볼 수 있다. 의식중심형 세계시민교육, 역량중심형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이 양자를 통합하는 의식-역량중심형 세계시민교육을 설정할 수 있다.

의식의 차원에서도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구분할 수 있다. 제 3 장의 세계시민의식의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요인을 4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인류사회의 보편적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용하는 ① 지구적 관점(global perspectives and awareness: a factor), ② 지구적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동의(global principles, p factor), ③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의식을 포함하는 공적책임감(empath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r factor), ④ 지구적인 공적인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문제의 해결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global concerns and commitment to engagement, c factor)를 세계시민교육이 성취해야 할 의식의 속성으로 포함한다. 여기에 역량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창의적으로 해결능력을 보이는 “전문적 역량”을 포함하여 세계시민의식과 역량을 구성하는 “4+1 의 요인”(four factors plus competency) 모형을 제시한다. 이상의 요인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1〉 고등교육에서의 5 가지 세계시민교육의 요소의 연관 관계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범위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세계시민성의 의식에 관련된 4 개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나 그 범위는 교집합적으로 통합된 좁은 범위에 집중하는 “좁은”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 있다. 주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려는 “세계시민의식” 전문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접근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이 4 개의 요인이 “합집합적”으로 그리는 “넓은 범위”의 세계시민성과 역량의 범위 안에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역량”의 요소와 교육과 학습의 목적과 지향이 비록 부분적으로 연결됐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세계시민의식과 역량에 연결되었다면 세계시민교육에 포함하는 관점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규정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상당수의 국내 대학은 세계시민교육에 나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게 된다.

②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토대는 대학의 교육적 규범을 구성하는 토대이다. 대학이 추구하는 이상으로서 대학의 비전과 사명, 대학교육의 목표로서 인재상(人材像), 그리고 대학의 발전을 추구하는 대학경영진의 기본정책 등이 대학의 교육의 규범을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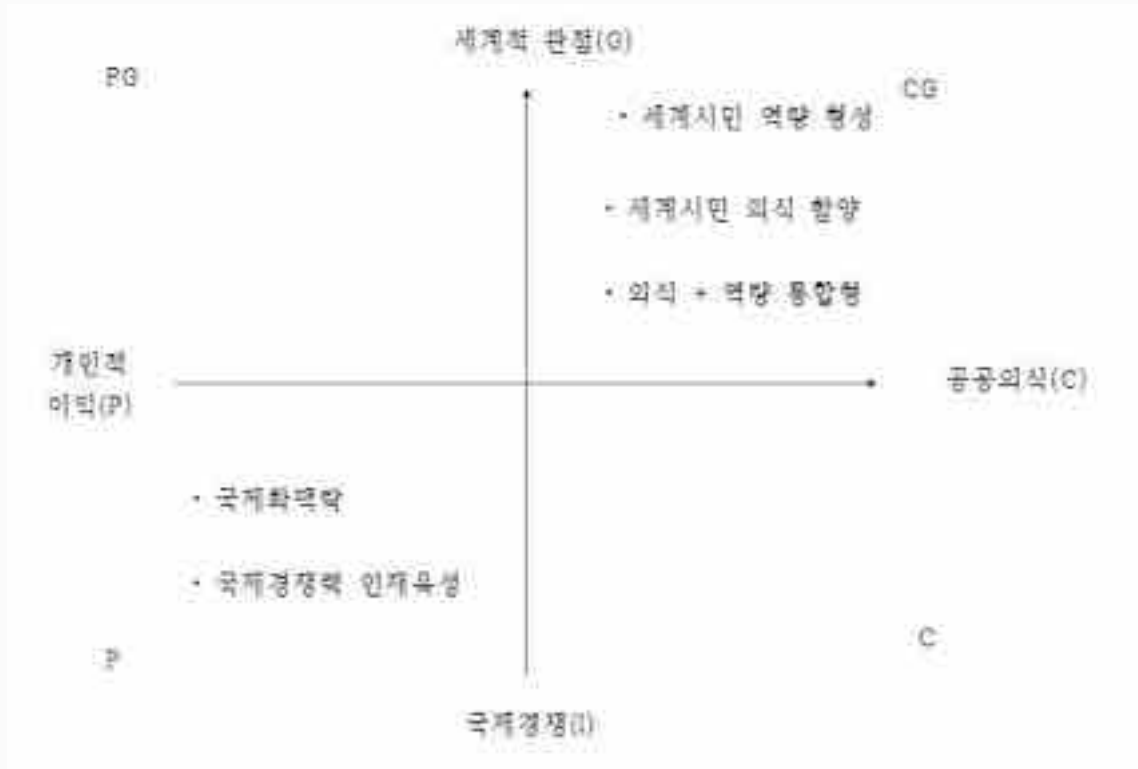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분명하지 않지만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를 함축적으로 분명하지 않게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목표가 되는 세계시민성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대학의 비전과 사명, 대학교육의 목표로서 인재상(人材像), 그리고 대학의 발전을 추구하는 대학경영진의 기본정책 등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함축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제시한다. 제 4 장의 그림 2 가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유형은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목표의 범위와 목표 제시방법으로 구분한다.

③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실체는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과 세계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은 대학의 세계적 존재감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서 국제적 연대(global alliance)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국제적 경험을 확장하는 역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좁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대학은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관점의 형성과 책임의식과 변화의 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의 국제화전략과 대학의 교육에 대한 규범적 토대는 세계시민교육에 임하는 대학의 동기와 이유를 시사한다.

다. 세계시민교육의 중점 : 공공의식 vs 국제적 역량

세계시민의식의 동기와 지향을 세계시민교육이 강조하는 의식의 지향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다. 의식의 지향을 살피는 한 축을 “사적의식지향”과 “공공의식지향”으로 구분하고 다른 한 축을 국제경쟁적 관심(International competition orientation)과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s)으로 대비할 때 4 개의 상한을 구분할 수 있다. 제 1 분면이 공공의식(C factor: citizenship)과 세계적 관점(G factor: global perspectives)을 지닌 의식수준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수준을 CG 라고 구분한다. 이 수준은 세계시민교육의 지향하는 성취수준의 단계가 된다.



〈그림 5.2〉 관심의 지향에 따른 세계시민의식의 지향

제 2 분면은 세계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식보다는 사적이익의 관점에서 세계적 문제와 과제를 의식하는 수준이라고 구분한다. 이 상황을 PG(self-interest oriented global perspectives)라고 구분한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되는 수준이다. 제 3 분면은 사적이익에 따라 국제적 활동을 추구하는 수준이라고 구분한다. 이 상황을 P(P factor: private interest) 라고 구분한다. 제 4 분면은 공공의식은 있으나 세계적 관점이 필요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준을 C(Citizenship oriented without global perspectives) 라고 구분한다.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에 대한 이번 연구의 조사결과는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분포의 양상을 고려하여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중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 2 상한의 경우에는 공공의식을 지향하는 “시민의식”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제 4 상한의 경우에는 세계적 관점과 경험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3 상한의 경우에는 공공의식을 지향하는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점과 경험의 확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의식에 관한 조사결과는 한국대학생들이 주로 3 상한에

분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대학에서 세계시민의식교육의 유형을 고려할 때 세계시민의식의 함양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역량의 개발에도 중점을 주어야 할 것이다.

라. 강한 체계적 연계 vs 느슨한 연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대학의 조직적 대응에 따라 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형성된다. 대학의 조직적 대응은 대학의 조직적 연결양태(linkage)와 관련이 된다. 대학조직론에서는 대학의 조직적 연결양태를 “느슨한 연계”(loosely coupled)와 “강한 체계적 연계”(tightly coupled)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용하는 중요한 조직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발전전략
- 대학교육과정의 구조
- 대학의 조직(학사조직, 연구조직, 학생활동조직)
- 대학의 사업단(학생의 대외 협력사업단)
- 대학의 학생자치활동 등이다.

“강한 체계적 연계양태”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방침과 단위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일사분란한 연계작용을 시사한다. 교육목표, 대학의 발전전략, 교육과정의 구조, 조직의 배열, 대학의 주요 사업과 학생활동의 양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느슨한 연계방식”은 상호간에 연관은 있으나 단위기관마다 독자적인 자율성을 발휘하고 책임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학조직론에서는 느슨한 연계방식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단위기관의 창의적 주도성, 다양성 그리고 실제에 보다 적합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학의 역량을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강력한 체계적 연계체제를 동원한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의 경우에는 아직 비록 대학교육의 목표에 세계시민교육 관련성을 연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체계적 연계체제를 동원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주도의 주체가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대학의 내부에서는 최고경영진 일수도 있고, 대학의 단위 학과나 교수 집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획, 조직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주도형에서도 연계의 양태에 따라서 접근방식은 다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경우에 정부의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에서 교육부 외부요인의 작용으로 내적으로 강한 연계보다는 느슨한 연계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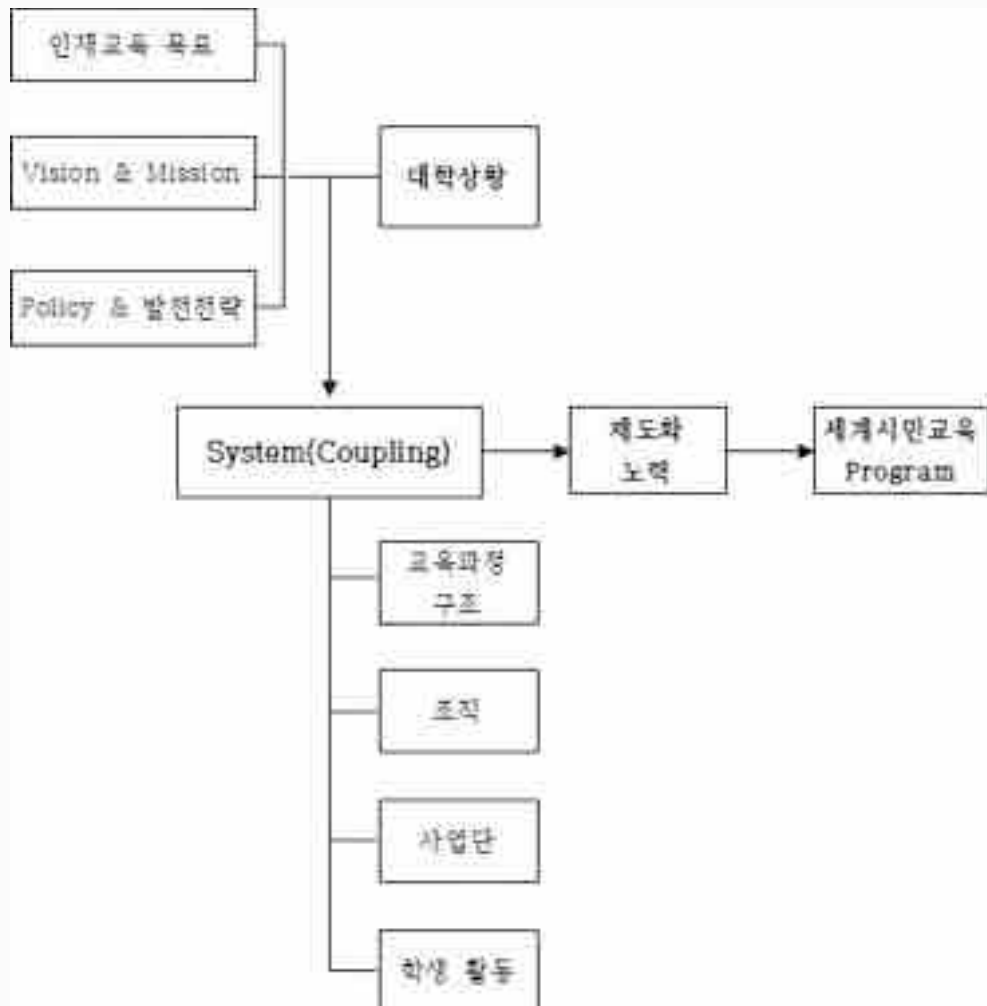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강력한 연결체로 운영될 수도 있고 느슨한 운영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다. 추진동인의 위치와 학내의 활동의 결합상태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가지 기본적인 운영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강한 체계적 연계형”과 “느슨한 연계형”이다.

〈표 5.1〉 세계시민교육 추진모형

추진 동인 \ 연결 정도	강한 체계적 연계형	느슨한 연계형
정부주도적	정부주도 하향식	정부지원 상향식
대학정책에 의한 주도	체계적 연계, 대학 내 하향식	느슨한 연계, 자율성 부여함
대학의 기관/개인주도	하향식 (Top-Down)	분산형, 약한 연계, 개인주도, 상향식 (Bottom-Up)

강한 체계적 연계형 유형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사명, 교육목표 그리고 인재육성의 목표에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반영한다. 이 토대위에서 대학의 정책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의 학사구조와 발전전략등과 상호 긴밀하게 연결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향식(top down)접근을 따르는 경향이 높다. 이에 반하여 대학의 느슨한 연계체제에서 학과단위 혹은 교수가 중심이 되어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경우는 대학의 학사운영과는 연결이 안 된 채 교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적 자율성과 책무성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의 다양성과 혁신적 접근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다음 그림은 대학의 교육에 대한 규범적 토대위에서 대학 내의 연계작용(coupling)을 통하여 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의 체제가 형성됨을 시사한다. 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의 체제가 목표와 내용, 교육과정, 관련 조직, 사업단 그리고 학생활동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3〉 주요 토대(Platforms)

마. 세계시민교육 과정의 개발 (Global Citizenship Courses, program and Certificates)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과정의 개발에 대한 국가지원과 연계된 세계시민교육과 대학의 독자적 추진에 의한 세계시민교육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시작한 대학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Jorgenson & Shultz, 2012).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대학의 참여 동기에 따라서 대학의 세계시민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대학의 반응이 결정된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의하여 선도적으로 추진된 세계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을 미국의 경우와 싱가포르의 경우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AAC&U⁶ 중심으로 3년 지원프로그램으로 Liberal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The Arts of Democracy를 운영하였고, Federal Department of Education's Fund for the Improvement of Post-Secondary Education가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세계적 관점과 인식, 이해를 토대로 하여 세계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관여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학별 활동내용으로 세미나와 포럼 등을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상에 규제는 없었다. 10개 대학이 이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추구하였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세계문제에 대한 연구와 지식 창출
-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적 공공의식의 고양
-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심층적 이해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역량 증진(Jorgenson & Shultz, 2012:8) 등이다.

제 4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외국의 주요 대학을 살펴볼 때 세계시민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일부 대학은 세계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일부 대학은 그 과정을 “세계시민교육이수 자격증” 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대상이 학부학생인 경우도 있다. 대학의 교양과정에 속하는 교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의

⁶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

교과를 연계하여 자격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대학원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전공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다.

교양과정 운영의 실제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게 된다. (1) 단설교과형의 경우에도 필수, 선택 혹은 자기주도적 전공설계를 위한 핵심교과로 선택할 수 있다. (2) 자격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도 “독립된 자격과정”으로 일련의 교과목 체계를 연결하여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와는 달리 “세계시민교육 전공인증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일정수의 교과목을 구성하여 전공인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교과목의 체계를 연계형, 융합형, 그리고 심화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을 연결하여 부채꼴 모양의 “방사형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방사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교과와 주요 영역별로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글로벌 역량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실체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구조적 틀을 다음 표와 같이 시사한다.

〈표 5.2〉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구조

	(단설)교과형	교육과정 구조	전공과정
정부주도형	교과개설지원	프로그램지원형	
학부과정	(1)대학의 교과개설 (직접관련 간접관련)	(1) 교양과정 (2) 자격인증프로그램 (3) 연계융합프로그램	
대학원과정			세계시민교육 전공과정

몇 가지 중요한 예와 동향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단설 교과형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를 단설형으로 개설하는 형태이다. 교양입문교과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대학에 이러한 교과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 프로그램형태의 교육과정으로 교양과정의 형식을 택할 수도 있고, 자격인증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학습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자격증 과정의 개설은 특정의 지식, 기술, 태도(certification of special knowledge, skills, and attributes: KSAs)등의 학습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3) 또 다른 형식은 연계융합형으로 세계시민의식과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정을 융합적으로 학습하여 의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도 있다. 제 4 장에서 외국의 대학에서의 다양한 실재를 검토하였다. 한국대학은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유형과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University of Alberta INTD 404 course 의 내용은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이론적 실제적 논의의 지평을 개관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두 개의 과목을 연결하여 자격취득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초학제적 접근의 유형을 보여준다(Jorgenson & Shultz, 2012:13).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Global Citizenship Curriculum Development project”를 운영하였다.

- UBC 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online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⁷. Perspectives on Global citizenship online coursework 프로그램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offline 의 강의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고 국제적으로 UBC’s Hong Kong,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K 에 있는 협력대학에서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희대학교가 MOOK 프로그램에 세계시민교육과목을 개설하였다.

- University of Delaware 는 “방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입문형 과목에서 출발하여 다수의 전문영역별로 방사형으로 관련과목과 공통학습경험을 토대로 하여 “global citizen tracks” 교과를 개발하는 유형도 있다(Jorgenson & Shultz, 2012:8).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의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중심대학에서는 대학의 방대한 전공영역을 활용하여 방사형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입문단계의 과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세계시민교육을 주요 교사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교사자격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세계적 맥락과 공익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관련된 문제와 과제를 검토하는 학습경험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세계의 주요 교사교육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⁷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의 Interdisciplinary online course with international platform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학생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교과활동을 통하여 구성된 문제의식이나 활동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활동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NGO와의 협동프로그램이나 해외개발협력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육대학에서 다문화교육차원에서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국내 대학에서의 주요 토대 분석

가. 교육 목표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대학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전개할 토대가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설계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토대가 된다. 위에서 제시한 그림 “세계시민교육의 주요토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가 되는 대학의 비전과 사명, 인재교육목표, 대학의 발전전략 등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됨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대학교육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인재육성의 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서구의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도 “글로벌 인재”육성을 대학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전문적 역량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학의 비전과 사명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목표로서 “인재육성”에 대한 개념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맥락에서 대학의 독특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내용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프로그램, 융합학습전공, 기숙사 교육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대학의 비전과 사명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지어 살펴볼 때, 크게 ① 대학 비전과 사명에 세계시민교육을 명시한 학교, ② 세계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비전과 사명이 세계시민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학교, ③ 대학 비전과 사명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이 없는 학교 등 3 가지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대학의 비전과 사명에 세계시민교육을 명시한 학교로는 서울대학교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대학 현장 내에 행복한 배움의 터전이라는 비전을 위해 ① 공공성으로 무장한 선한 인재, ②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면화한 세계시민, ③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후속세대를 강조하였는데, 서울대학교는 세계시민을 주요한 인재상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과 같은 대학들은 대학의 비전이나 목표에 세계시민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학교들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들은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방향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 예컨대, 가천대학교는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비전으로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박애, 봉사, 애국을 중심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어렵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인류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즉, 가천대학교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인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세계시민교육이 표방하는 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사업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개발협력사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학생들이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교육적 의미와 의의가 매우 크다.

나. 교육과정

학부와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양교육과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교양교육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의 개설 여부를 검토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이수를 인증하는 자격증과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대학들의 단과대학은 대부분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가천대학교 등 상당수의 대학들은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융합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 세계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곳은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국제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미네르바교양대학’이었고, 세계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가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는 서울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와 서강대학교의 ‘지식융합학부’가 있었다.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단과대학 프로그램으로 ①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성, ②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 ③ 세계시민사회의 리더십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시민사회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세계시민사회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국제 이슈에 대한 해박하고 균형 잡힌 시선을 갖추도록 교육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해 수고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특별히 한국과 동아시아, 한국과 세계 간 연대 구축 능력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미네르바교양대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과대학의 교육목적이 “올바른 인성과 조화로운 감성을 지닌 세계시민의식”이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과 구분되게, 이 단과 대학은 ‘세계시민’을 기관의 교육 목적으로 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학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다움=德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센터의 세계시민윤리 분과에서 ① 세계시민을 위한 윤리(International Ethics) 교육, ② 미네르바인문강좌의 철학 제공 및 환류, ③ 인성(윤리) 관련 상담, 멘토링, 세미나, 캠프 개최 등을 운영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는 폭넓고 깊이 있는 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적성에 맞추어 설계되는 교과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포괄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 인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자유로운 전공 선택이 가능하며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서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자유전공학부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이 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자유전공학부의 주된 활동은 학문 간 연계, 문제해결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함양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1 학년 2 학기와 4 학년 1 학기 사이에 진행되는 해외현장학습은 국제기관의 인턴십 및 해외 자원 활동 등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고 리더십 소양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일부 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서강대학교의 지식융합학부는 서강의 교육이념인 전인교육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 학문적 특성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사회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도 융합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강대학교의 지식융합학부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방향이 세계시민교육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식융합학부는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인,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지식융합학부는 국제한국학, 아트&테크놀로지 2 개의 전공으로 구성되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추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지식융합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교육 내용은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다. 국제화 전략

대학의 발전전략으로서 많은 대학들이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화 전략은 대학의 국제적 존재감을 높이고, 국제경험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학의 국제화 전략과 세계시민교육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대학에서도 대학의 국제화 전략은 세계적 공익을 추구하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보다는 국제적으로 실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 추진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동기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학교들이 운영하는 국제화 전략은 대동소이하였다. 모든 대학들이 교환학생, 방문학생, 단기해외수업, 하계 및 동계 대학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이런 국제화 사업들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의 주된 목적이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일부 대학들의 경우 국제하계대학 혹은 국제동계대학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국제하계대학을 개최하고 해외 4 년제 대학 재학생 및 서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중 6 주간 진행한다. 이 강좌는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여 최고 수준의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확대 기회를 부여한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도 국제하계/동계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하계대학은 여름방학 중 해외대학 재학생들에게 한국관련 분야 과목을 비롯한 다양한 과목 수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세대학교에서의 수학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교 학생들에게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해외 대학 재학생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교육 환경에서 수학 할 수 있다. 개설과목으로 한국학, 동아시아학 외 총 7 개 분야

전공 및 교양과목 100 여개를 개설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교과도 개설하였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6 월말~8 월초 중 6 주간 이루어진다. 국제동계대학은 국제하계대학과 같은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중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개설과목은 한국학, 경영학, 경제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 및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12 월 말부터 2 월초까지 진행된다. 국제하계/동계대학과 같은 국제화전략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구할 경우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부속 운영 기관

조사 대상 대학들은 다양한 부속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부속기관들 중에 일부 기관들은 세계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름인성교육원’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기관 교육활동의 주된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름인성교육원’은 ① 바름인성교육 1, ② 바름인성교육 2, ③ 바름인성교육 3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이 중 바름인성교육 3 은 ‘세계를 깨우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①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인식 ②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세계상호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함양 ③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찾기 ④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 ⑤ 글로벌 시민 소양 함양 등을 제시하였다. 바름인성교육 3 은 글로벌시민소양과 관련하여 ① 사회적 책임 ② 세계화와 상호연계성 ③ 창발적 문제해결 ④ 함께하는데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름인성교육활동은 비록 ‘글로벌 시민 소양’으로 명명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바름인성교육활동을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동아리활동 중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국제활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은 그 대학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조사대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속기관들 중 일부 프로그램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관련성을 맺고 있다. 예컨대, 연세대학교의 ‘Residential College’ 및 ‘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직접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활동의 주된 목적과 내용이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맺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Residential College 은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Residential College 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Residential College Creative Platform 프로그램은 문제기반(Problem-Based), 공동체 기반(Community-Based), 경험기반(Experience-Based) 통합 학습을 통해서 캠퍼스, 지역사회, 더 나아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다. Residential College Creative Platform 활동은 협력적 문제해결 과제를 통해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 및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 중심 활동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중시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개선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세대학교의 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실천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섬김을 위한 연세공동체의 참여 극대화,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로 사회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기관과 MOU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연간 1 억 정도의 기금을 유치하고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에 한국형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런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해외봉사활동은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시하는 참여(participation)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런 참여과정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에,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국내대학들의 세계시민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교육목적 및 목표로 세계시민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대학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추진 전략을 명확하게 설정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경우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대학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의식을 갖춘 인재를 갖추기 위한 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세계시민교육을 명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국내 주요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여건 비교

구분	학교	교육목표	교육과정	국제화전략	부속기관

1	가천대학교 (ACE 사업,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	○ 포괄적, 국제경쟁력	X 넓은 의미, 사회봉사활동	X 국제진출형	△ 가천인터내셔널센터
2	가톨릭대학교 (ACE 사업)	△ 포괄적	△ 교육과정의 체계적 연계성	X	X
3	서강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ACE 사업,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	○ 포괄적, 비명시적	△ (지식융합학부)	X 국제적 경험확대	△ (전인교육원, 이나시오인재센터)
4	서울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 구체적명시	△ (자유전공학부) 넓은 의미, 다양한 전공자원	X 소극적, 국제진출형, 경험확대	○ (기초교육원)
5	서울여자대학교 (ACE 사업)	○ 명시적, 포괄적 전인교육토대	X 느슨한 관련성,	△ 다양한 국제경험확대	○ 바름인성교육원, 국제협력단
6	안산대학교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	X 전문대학의 한계 속에서 포괄적 연계가능성,	X 연계 교육과정체제 미흡	X 해외취업지원, 의식차원의 인재육성 필요성제기	X
7	연세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 분명한 포괄적 목표의식	○ 느슨한 연계체제, 넓은 의미, 초학제적접근	△ 국제경험차원, 해외진출형 (언더우드국제 대학)	○ 전인적 통합교육 글로벌 교육원, (RC, 자원봉사 센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 명시적, 글로벌경쟁력차원중 심, 인성교육토대	△ 초학제적접근, 체계적연계, (글로벌융복합체제)	X 국제진출형	X (미네르바교양대학과 다움덕 센터)

9	한국폴리텍대학교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	X 전문직업교육차원의 차별화된 시민교육가능성을 보임	X 직무능력중심, 공공의식과의 연계 필요성 제기함	X 해외취업진출형	X ODA 활동과 연계가능성
10	한양대학교 (ACE 사업,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	○ 명시적 제시	△ 넓은 의미, 느슨한 관계성, 초학제적 접근	○ 글로벌리더십지향, (Global fronteer Program)	△ (사회봉사단)
11	서울교육대학교 (교원양성(교육대학 교))	비명시적 포괄적으로 제시함	△ 학부과정은 약함, 대학원에서의 GC 전문과정	△ 국제경험 확대형	△ 다문화교육원, 평생교육원

주: ○는 '관련성 높음'을, △는 '관련성 있음'을, X는 직접적 '관련성 약함'을 각각 의미함.

RC: Residential College, GC: 세계시민의식

둘째, 국내 대학 중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국제대학'와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교양대학, 자유전공학부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이들 단과대학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는 못했다.

셋째, 국내 대학들이 추진하는 국제화 전략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의가 될 뿐,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넷째, 국내 대학들은 부속기관을 활용하여 단과대학별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전인성을 갖춘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였지만, 세계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면서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롬인성교육원과 같이 일부 기관의 경우 부속기관을 활용하여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대학들의 세계시민교육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들이 국제화 전략의 주요 콘텐츠를 세계시민교육으로

가지고 갈 경우 교양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국제화 전략, 사회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과 관련한 제반 여건들은
고등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토대 분석⁸

서강대학교

가. 현황

1)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서강대학교는 지난 460 여 년에 걸쳐 전 세계 예수회 대학에서 이루어 온 굳건한 전통에 따라 하느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가톨릭 신앙과 예수회 교육 이념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교육 정신에 따라 예수회가 설립한 교육 기관이다. 서강대학교는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통하여 인류 문화와 인류 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참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서강대학교의 ‘참된 세계인 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목표는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인성교육의 토대위에서 남과 함께, 남을 위하여, 남을 통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공의식을 지닌 시대적 사명을 지닌 인재를 목표로 한다. 외국어와 국제 예절을 배우도록 하고 문화적 소양위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포용하고 국제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계화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서강대학교의 교육목표는 차원 높은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⁸ 국내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토대 분석결과는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강대학교는 비록 세계시민교육을 전방위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이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강대학교는 세계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비판적 판단력을 갖추어 민족의 번영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세계인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런 교육목적은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2) 교육과정: 국제한국학전공과정

서강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육성을 강조한다. 주요 학부인 지식융합학부는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지식인, 인문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 대학은 지식융합학부 소속으로 국제한국학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한국학 전공은 한국과 세계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과정을 두고 있다. 한국에 대한 융합적 지식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공과정과 특정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 이 과정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융합형 초학제적 접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서강대학교의 4 대 추진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덕·체 교육과 연결되어 세계시민교육에 통합적 접근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3) 국제화 전략

서강대학교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국제적 경험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 다른 대학들과 비슷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4) 부속기관: 전인교육원과 이나시오인재센터

서강대학교는 전인교육원, 이나시오인재센터 등과 같은 부속기관들을 활용하여 전인교육과 봉사활동을 강조해 왔다.

특히 이나시오인재센터는 ① 서강봉사단 기획 및 지원 ② 봉사지원기금 확보 및 운영 ③ 각종 사회봉사 프로그램 기획 ④ 해외봉사 프로그램 기획 ⑤ 사회봉사프로그램 컨설팅 ⑥ 사회봉사 인증제 운영 ⑦ 봉사자 및 봉사 수요기관 상담 ⑧ 기초사회봉사 학과목 운영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해외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해외봉사단체로는 태평양아시아협회(PAS),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한국해비타트, 국제워크캠프기구(International Workcamp Organization),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orean University Council for Social Service), 대한적십자사 해외봉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Youth Unesco Korea), 코피온(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Overseas NGOs), 국제아동돕기연합(United Help for International Children), 국제시민봉사회(Service Civil International) 등이 있다.

나. 특징과 시사점

서강대학교는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에서 인류 문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강조하며 세계시민의식 및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비명시적이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대학 차원에서 참된 세계인 양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간의 연계는 불분명하나, 지식융합학부 소속의 국제한국학 전공은 초학제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세계시민교육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운영할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국제한국학 전공을 통해 서강대학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서강대학교의 사례는 전인교육의 토대위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강대학교가 세계시민교육을 대학 내 확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인교육원이나 이나시오 인재센터 등과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울대학교

가. 현황

1) 교육목표, 인재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개교 이래의 전통을 계승하고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도약과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노력한다. 서울대학교는 학문적 가치 창조의 중심축으로서 세계를 선도할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를 축적하여 인류문명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울대학교 교육에서 인류의 번영에 공헌할 창의력과 지도력을 가진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는 대학 현장 내에 행복한 배움의 터전이라는 비전을 위해 ① 공공성으로 무장한 선한 인재 ②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면화한 세계시민 ③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후속세대를 강조하였다. 즉, 서울대학교는 세계시민을 주요한 인재상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교육목표로서 세계시민과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도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면화’라고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된 비전과 인재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과정

가) 자유전공학부

서울대학교는 교육과정의 운영에서 교양과정의 운영과 자유전공학부의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유전공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대학들과 대동소이한 상황이나, 자유전공학부를 통하여 세계시민 관련 주제 탐구가 가능한 접근이다.

자유전공학부는 폭넓고 깊이 있는 기초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적성에 맞추어 설계되는 교과과정의 이수를 통하여 포괄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 인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자유전공학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로운 전공 선택이 가능하며, 모든 전공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서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유전공학부의 교육과정은 크게 ① 전공설계 ② 주제탐구세미나 ③ 국내외 현장학습 ④ 자율연구 ⑤ 고전탐구세미나 ⑥ 창의융합세미나 ⑦ 종합설계 등으로 구분된다.

나) 기초교육원

서울대학교는 기초교육원을 별도로 두어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기초교육원은 지성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전공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율 교육, 봉사 활동과 같은 실천 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기초교육원은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규교양교과목과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문의 경계를 넘어 융화와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봉사과목은 제한된 의미에서의 캠퍼스 중심 교육을 탈피하여 사회구조 개선 교육 등의 차원으로 확대·재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봉사> 교과목이 2006 학년도 1 학기에 신설되었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초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양교육활동은 인간의 삶과 사회 및 자연의 주요 문제들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참여능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교양교육프로그램은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국제화 전략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관련 사업들은 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을 뿐,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직접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이런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들은 서울대학교가 세계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구할 경우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는 국제적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서울대학교는 다양한 국제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환학생, SAF (Study Abroad Foundation)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해외연수지원사업, 국제하계강좌 등이 있다. ① SNU In World 프로그램 ②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③ Volunteer Social Service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활동이 대학전체의 차원에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 교육활동으로 보는 것은 어려웠지만, 지식교육을 넘어서 사회적 응용능력을 갖춘 실천적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글로벌 인턴십은 학생들의 전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성이 있는 교육활동이다. 재학 중 직업 세계의 실무 경험을 쌓고 직업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NGO 등에서 현장학습을 하는 글로벌 인턴십 교과목을 2007 년 2 학기부터 개설하였다. 글로벌 인턴십 교과목은 글로벌인턴십 1 과 글로벌인턴십 2 로 이루어져 있다. 글로벌인턴십 1 은 국내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현장학습을 하는 경우이고, 글로벌인턴십 2 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제기구, 해외 NGO, 글로벌 기업 등에서 관련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60 시간 이상의 현장학습을 하는 경우에 교양 3 학점을 부여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동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관련 사업들은 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만, 이런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들은 서울대학교가 세계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구할 경우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특징과 시사점

서울대학교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에서 세계시민을 주요 인재상 중 하나로 제시하여, 명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교양교육의 토대위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기초교육원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교육원은 글로벌 이슈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참여능력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교과목들을 운영한다. 이러한 교양 교육과정을 토대로, 전공심화교육에서 세계적 관점과 과제를 어느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 지에 따라서 교육과정 속의 세계시민교육의 깊이와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자유로운 세계시민 관련 주제 탐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띈다. 또한, 교양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가 방사형 교육과정의 운영구조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는 기초교육원과 자유전공학부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교육목표에서 세계시민을 직접적으로 주요 인재상으로 제시하므로, 대학의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국제화 활동 등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과제가 남아있다.

서울여자대학교

가. 현황

1)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서울여자대학교의 대학이념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를 둔 지식교육’이며, 서울여자대학교는 ① 전문인의 양성 ② 기독교 정신의 함양 ③ 실천인의 육성 등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대학의 교육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PLUS 형 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①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② 인성과 소양을 지닌 인재, ③ 봉사과 실천을 하는 인재 등을 인재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서울여자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대학 교육의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여자대학교가 제시한 대학의 비전은 ‘PLUS 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 중심 대학’이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이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략방향으로 ① 수요자 중심 교육 강화 ② 경영 인프라 혁신 ③ 공동체 가치 극대화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서울여자대학교의 발전전략은 세계시민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대학의 성장 전략으로 교양교육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할 경우 연계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과정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세계시민교육 간의 관계는 “느슨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자율전공학부가 ‘전공진로탐색 세미나’와 ‘듀얼학사지도시스템’ 등을 운영하고는 있었지만, 이런 활동들이 세계시민교육과 크게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제도적인 연계는 명시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 국제화 전략: 국제협력단

서울여자대학교의 주요 국제화 활동은 국제협력단에서 운영 및 추진 중에 있다. 대학차원의 해외대학과 교류 및 협정, 교환학생 파견 선발 및 운영, 외국인 교환학생 유치, 지원 및 관리, 바롬국제프로그램(BIP) 기획 및 운영, 바롬단기문화연수(BSA) 기획 및 운영, 복수학위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한다. 교환학생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복수학위 프로그램(Dual Degree Program)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국제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부속 기관: 바롬인성교육원과 기초교육원

서울여자대학교의 주요 부속기관으로 바롬인성교육원과 기초교육원을 들 수 있다. 바롬인성교육원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고, 기초교육원은 바롬인성교육원과 함께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가) 바롬인성교육원

바롬인성교육원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글로벌 시민소양을 갖추고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실천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바롬인성교육원은 ① 글로벌 시민소양교육 ② 열정적 비전 교육 ③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 교육 ④ 공감적 의사소통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바롬인성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① 바롬인성교육 1, ② 바롬인성교육 2, ③ 바롬인성교육 3 으로 구분되고, 3 단계 과정을 통해 총 20 주 동안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 중 바롬인성교육 3 은 3 학년 때 이루어지는 총 15 주간의 TPBL(Team 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의 수업을 통해 바롬인성교육 1,2 에서 배운 능력과 소양을 기본으로 세계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실천과 참여를 통해 창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특히 바롬인성교육 3 은 ‘세계를 깨우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①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인식 ②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세계상호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함양 ③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찾기 ④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 ⑤ 글로벌 시민 소양 함양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바롬인성교육 3 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시민소양과 관련하여 ① 사회적 책임 ② 세계화와 상호연계성 ③ 창발적 문제해결 ④ 함께하는데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둘째, 이론 수업으로 주제별 현황, 주제별 원인 분석,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대안 논의 등을 함께 공부한다. 셋째,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를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활동 및 피드백에 관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롬인성교육원은 ‘글로벌 시민 소양’으로 명명된 수업을 운영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들까지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바롬인성교육원은 사회적 책임성, 문화적 감수성, 지구공동체성, 준법정신, 창의적 사회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하여 바로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토대로 볼 수 있다.



〈그림 5.4〉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의 목표

나)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의 주요 목적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지적 통찰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지니고, 지혜를 나누며 실천하는 행복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초교육은 ①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통합하고 새로운 관점을 도출하여 시대 변화를 이끌어 내는 문제해결능력 함양 ② 세계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바른 인성 함양 ③ 지식의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 내는 실천력 함양 등을 교육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기초교육원은 바름인성교육원과 병행하여 교양교육부분을 운영한다. 특히 기초교육원에서 운영하는 Honor Program은 탄탄한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지적 통찰력과 문화적 감수성, 뛰어난 의사소통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국제적 감각을 가진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로서의 고급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5개 핵심과목인 「독서와 토론」(사고력과 통찰력), 「영어프레젠테이션」(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디어프레젠테이션 활용」(미디어활용기술과 실무능력), 「세계문화체험과 봉사」(국제감각과 사회봉사), 「Honors 프로젝트」(창의적인 기획능력)를 수강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개방적인 자기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세계시민교육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세계시민교육과 맞닿아 있다. 이런 점에서 기초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해 가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미칠 것이다.

나. 특징과 시사점

서울여자대학교는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에서 비명시적이며 포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다루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전문인·기독교인·실천인 양성을 목표로 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PLUS형 인재’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창의적 전문성, 인성과 소양, 봉사와 실천이 핵심이 되는 인재를 말한다. 이러한 인재상은 세계시민 의식과 역량과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육목표에서 세계시민교육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바름인성교육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명시적, 체계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바름인성교육원은 목표와 프로그램 내용 속에서 세계시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요소를 전부 다루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자율전공학부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속에 체계화의 과제가 있다. 국제협력단은 또한 현재 학생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서울여자대학교는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교육과정과 국제화활동에서 바롬인성교육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의식과 역량에 중점을 둔다면,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인성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안산대학교

가. 현황

1)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안산대학교는 미국 감리교 선교부 재단으로부터 인천기독병원과 그 재산 일체를 이양 받아 설립된 대한감리회 계통 학원이다. 안산대학교는 기독교 교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에 의하여 전문교육을 시켜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할 수 있는 중견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대학교는 대학의 교육목표로 제시한 ‘기독교적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최고 전문 지식인을 양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① 혁신적 교육환경 구축 ② 혁신적 직업교육 실현 ③ 특성화 교육 구현 ④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 실천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안산대학교 총장은 ‘최고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현장중심 대학’으로 안산대학교를 차별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안산대학교는 ‘교육기반 강화,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 역량 강화,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 강화’라는 4 대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각 학과 및 부서별로 세부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안산대학교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포괄적으로 지향하고, 사랑과 섬김 등과 같은 관련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안산대학교의 교육목표 및 전략과제 등을 통해 볼 때, 안산대학교는 현장중심의 혁신적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인 것이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그 이념과 목표 면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연결되어 있으나, 대학에서 추구하는 전략 목표들은 세계시민교육과 직접적으로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대학교는 교육시설 선진화를 위해 글로벌 존 설치 및 외국 유학생과의 자유로운 교육의 장 마련 등 글로벌 시설을 확충하여 해외취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안산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전략과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안산대학교가 추구하는 전략 목표 중 일부는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할 경우 일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국제화 전략

안산대학교의 국제화사업들은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로 프로젝트, 하계국제영어캠프, 해외어학연수,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기 등 해외교류활동을 강화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의 내용들도 외국 학생들을 만나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면서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안산대학교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외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전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따라서 안산대학교는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방향은 세계시민의식이 아니라, 해외 취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

가) 세계로 프로젝트

세계로 프로젝트는 전문대학의 국제 경쟁력과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이다. 총 5 개년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해외 취업 경쟁력이 탁월한 14 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한 대학당 연간 2 억원 이상 총 10 억이 배정된다. 안산대학교는 세계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간 약 35 명 이상이 해외에 취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대학교는 ① 국내·외 외국어 강화 교육, ② 국내·외 전공 직무 외국어 회화 교육, ③ 국내·외 전공 직무 심화 교육, ④ 해외 산업체 인사 인터뷰 및 취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국제하계영어캠프, 해외어학연수, 해외자매대학 교환학기제 등을 운영한다.

안산대학교의 국제교류문화원은 안산대학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제교류문화원은 ① 국제교류, ② 해외인턴십 ③ 해외취업 ④ 해외유학생 ⑤ 한국어학당 및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대학교의 국제교류문화원은 안산대학교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확대함을 목표로 하여 해외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지만, 안산대학교가 세계시민교육을 정책적으로 도입할 경우 이를 확산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과 ‘글로벌 기반의 웰니스 창의인재 양성’

안산대학교는 2014 년부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현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여 5 년 동안 약 1 조 5 천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전문대학 최대 규모 사업이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이하 NCS)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안산대학교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은 ‘글로벌 기반의 웰니스 창의인재 양성’이다. 안산대학교는 ① 교육기반 강화 ② 취업역량 강화 ③ 특성화 역량 강화 ④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 강화 등을 4 대 전략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안산대학교는 이런 4 대 전략 방향을 근거하여 ① 고등직업교육체제 확립으로 창의역량을 갖춘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특성화 계열 취업률 80% 이상, ② NCS 교육과정 운영으로 웰니스 직무능력 중심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계열 재학률 95% 이상, ③ 지역 사회(산업체)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발전 등을 추진 목표로 제시하였다.

안산대학교 특성화 방향은 NCS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산업체) 연계 강화에 맞춰져 있다. 실제 주요 추진 사항들도 세계시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직업교육에서 “의식의 탄생”을 지향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포함하여 의식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나. 특징과 시사점

안산대학교는 현장중심의 혁신적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이며, 기독교적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최고 전문 지식인이라는 인재상을 설정하여,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안산대학교가 전문대학으로서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분명하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들은 바로 안산대학교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과 국제화 프로그램이다. 안산대학교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현재 전문적 직무능력의 향상과 지역 사회(산업체)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화 프로그램은 해외취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안산대학교는 전문적인 전문역량 교육과 의식 차원의 교육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면, 국제협력연계형 전문대학교로서 세계진출의 양태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연세대학교

가. 현황

1) 교육목표와 인재상

연세대학교는 건학이념에 교육목표에서 세계시민의식을 비명시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라고 대학을 규정한다. 연세대학교는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정신과 관련하여 ① 섬김과 봉사의 문화, ② 공감과 나눔의 교육, ③ 대학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연세대학교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 그리고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이 직접적으로 세계시민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한 인재의 육성과 비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교육과정: 언더우드국제대학과 글로벌 인재학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언더우드국제대학과 글로벌 인재학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내 세계시민교육의 현황 혹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가)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단과대학 프로그램이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은 ①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성, ②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 ③ 세계시민사회의 리더십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즉,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시민사회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세계시민사회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국제 이슈에 대한 해박하고 균형 잡힌 시선을

갖추도록 교육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해 수고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특별히 한국과 동아시아, 한국과 세계 간 연대 구축 능력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한다.

나) 글로벌인재학부

글로벌인재학부는 언더우드국제대학과 같이 세계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글로벌인재학부의 교육 목표는 한국의 언어, 문화, 사회 등 한국적인 것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적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승화시킬 글로벌 인재, 집단 간 소통 활성화 및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실천할 전인적 인재, 전통적 학문분야의 경계를 넘어 연계와 융합을 통하여 미래사회 핵심가치 창출에 기여할 융복합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형태의 교육기관이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이해, 관심, 태도, 의식 등을 함양하는 것을 세계시민교육으로 바라보고 그런 안목을 키우는데 교육의 방점을 두어 왔다면, 글로벌인재학부의 접근은 한국적 가치를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승화시켜 한국적 가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운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다) 영어인증프로그램

연세대학교의 영어인증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인증프로그램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영어인증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기초핵심이 될 수 있다.

3) 국제화 전략

연세대학교는 국제화 사업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 방문학생 프로그램, Study Abroad Program, 3-캠퍼스 비교동아시아학 프로그램, 국제동계대학, 국제하계대학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대학의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그런 활동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세계시민교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4) 부속 기관

가) 글로벌교육원

글로벌교육원은 세계인의 자기계발과 글로벌 조직의 발전을 위해 실용적 지식을 전파하고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문화 아카데미, 영재 아카데미, 커리어 아카데미 비즈니스 아카데미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로벌교육원의 목적이 세계시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을 대학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하였을 때, 글로벌교육원의 인프라는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Residential College

Residential College 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거주공간인 Residence Hall 을 생활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주간의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통합형 교육체제로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섬김의 리더를 양육하는 세계 명문형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연세대학교는 Residential College 를 통해 ① 연세 교육 모델 구현, ② 학습과 생활의 통합, ③ 문화공동체, ④ 학생 자치활동, ⑤ 글로벌 리더십 교육, ⑥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배움의 장(場)인 교실에서의 전공학습을 생활의 장(場)인 기숙사 내의 다채로운 외국어,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들과 접목시킴으로써 교육의 개념을 확장한다.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Residential Master, English Residential Fellow 등의 교수진과 함께 기숙사에 상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 환경을 구축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위와 같이 Residential College 은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Residential College 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강조하는데, 특히 Residential College Creative

Platform 가 Residential College 의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이 Residential College Creative Platform 은 협력적 문제해결 과제를 통해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 및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과제 중심 활동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중시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개선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보인다.

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는 사랑의 실천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섬김을 위한 연세공동체의 참여 극대화,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로 사회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기관과 MOU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연간 1 억 정도의 기금을 유치하고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에 한국형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런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해외봉사활동은 세계시민교육에서 중시하는 참여(participation)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런 참여과정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에,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나. 특징과 시사점

연세대학교는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비명시적으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목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섬김과 나눔 그리고 봉사가 핵심내용으로, 의식과 역량 차원에서의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대학 전체에 걸쳐 느슨한 연계관계에서 각 부분이 각자 자율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대학의 방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인재학부는 국제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적 관점과 역량의 계발을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들의 글로벌 관련 학부와 다르게 한국적 가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운다는 목표설정이 있다. Residential College 또한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강조하며, 의식과 역량 두 가지를 다루는 전인적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 간의 연계체계가 강화된다면, 연세대학교는 초학제적 접근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가. 현황

1)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재상은 자주적 탐구인, 국제적 한국인, 독창적 전문인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적 한국인(國際的 韓國人)이란 창학 정신의 두 번째 덕목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민주적 의식이 투철하고, 지도자적 인격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평화의 사절로서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다. 명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에서는 포괄적으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지향한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학내에 있는 교육기관, 연구기관들은 주로 글로벌 어학 능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해 왔다. 대학의 발전전략으로서 외대 VISION 2020은 대학의 비전으로 “미래지향적 글로벌 융복합 전문가 양성”을 설정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제진출형 인재육성의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교육과정: 미네르바교양대학

가) 미네르바교양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대학의 교육이념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양대학의 교육목적을 수립하여 2015년 3월부터 교양교육전문기관인 미네르바 교양대학 설립,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단과대학의 교육목적은 “올바른 인성과 조화로운 감성을 지닌 세계시민육성”을 추구한다고 표명한다. 또한 이 단과대학의 주요 교육목표로 ① 세계시민 의식 함양, ② 도덕적 인성 함양, ③ 비판적 사고력 함양, ④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⑤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함양, ⑥ 융합적 사고력 배양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네르바 인문강좌의 목표는 ① 고전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양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적인 소양 배양 ②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 ③ 인간의 순수한 감성을 고양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체화시켜, 열린 마음과 배려심을 통해 소통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두고 있다.

미네르바교양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주로 세계시민성, 문화적 다양성 이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모의유엔총회, 세계민속문화축제, 글로벌에티켓특강 등과 같은 비교과교육과, 인권과 인간존엄성, 인간의 가치 탐색과 같은 교양교육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밖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활동은 미네르바 인문강좌에서 운영하는 ‘인간과 문명’, ‘글로벌 소통과 배려’ 등과 같은 수업이나 ‘다움=德센터’에서 운영하는 세계시민 관련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미네르바교양대학은 ‘세계시민’을 기관의 교육 목적으로 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대학은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이 대학의 교양교육을 주도한다. 미네르바교양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은 ‘전공’ 및 ‘융합영역’에 있어서 심화학습의 토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글로벌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으로까지 느슨하게 연계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미네르바교양대학의 다움=德 센터

미네르바교양대학의 “다움=德 센터”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다움=德센터 (Center for Writing & International Ethics)의 덕의 의미는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다움’이나 그 존재다움의 발현능력을 의미하는 ‘덕’(德) 또는 ‘정체성(Identity)’과 동의어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덕목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책임지며, 꿈과 목표를 향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사려 깊고 인간다움을 이루는 덕을 의미한다.

다움=德센터는 ① 글쓰기교육분과와 ② 세계시민윤리분과로 구분된다. 이 센터에서는 세계시민윤리 분과에서 ① 세계시민을 위한 윤리(International Ethics) 교육 ② 미네르바인문강좌의 철학 제공 및 환류 ③ 인성(윤리) 관련 상담, 멘토링, 세미나, 캠프 개최 등을 운영한다.

다움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핵심 덕목으로 인지적 덕목(문제인식 및 지혜), 시민성 덕목(인권 및 사회적 정의), 도덕적 덕목(공감, 존중, 정직, 성실)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로 인지적 인성, 시민적 인성,

도덕적 인성을 명시하였다. 이중 시민적 인성은 핵심역량 중 글로벌 역량, 자원정보활용역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글로벌 역량과 관련하여 ① 세계시민성, ② 문화적 다양성 이해를 중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양교육으로는 미네르바 핵심교양, 한예중 공통교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육으로는 글로벌시민성교육과 디지털시민성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글로벌시민성교육과 관련해서 ① 모의유엔총회, ② 세계민속문화축제 ③ 글로벌에티켓특강 등의 활동이 존재한다.

핵심역량	인성교육 요소	HUFS인재 핵심역량	교육과정	
			교양교육	비교과교육
인지적 덕목 문제인식 및 지혜	인지적 인성	종합적사고역량 (도덕적 추론, 도덕적 문제해결)	미네르바 기초교양 * 미네르바 인성교육	도덕적 판단력교육 * HUFS 인문학 보편내용 * CAAS 국제학술보급
시민성 덕목 인권 및 사회적 참여	시민적 인성	글로벌역량 (세계시민성, 문화적 다양성 이해) 자원정보활용역량 (디지털시민성)	미네르바 핵심교양 한예중 공통교양 * 인권과 정보소통능력 * 인권의 가치함양 * 디지털에티켓교육	글로벌시민성교육 디지털시민성교육 * 모의유엔총회 * 세계민속문화축제 * 글로벌에티켓특강
도덕적 덕목 공경, 존중, 정직, 성실	도덕적 인성	대인관계역량 (도덕적 대인관계) 의사소통역량 (공감적 의사소통) 자기관리역량 (도덕적 자기관리, 긍정적 태도)	미네르바 선택교양 * 대인관계의 긍정관계 * 의사소통 능력개발 * 진로설계수업	대인관계교육 의사소통교육 자기관리교육 * HUFS(교) 학생을 위하여 * 동양대학교 교육특화 * HUFS Dream 21대학 * 배서
			운영지침 : 미네르바교양대학 다움+센터	

〈그림 5.5〉 미네르바 교양대학의 다움 인성교육프로그램

3) 국제화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복수학위제도, 교환학생제도, 7+1 파견학생제도, 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Fellowship,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해외계절학기, 국제여름학기(International Summer School, ISS) 등을 운영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학생교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화 전략에 맞춰 학생 간의 교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특징과 시사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교육목표와 인재상 그리고 발전계획에 세계시민 육성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로 세계시민 의식, 도덕적 인성 함양,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함양, 융합적 사고력 배양 등 세계시민교육의 주요요소를 전부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의식 차원보다는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미네르바교양대학교와 다움=德센터를 기반으로 의식과 역량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미네르바교양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은 세계시민성, 문화적 다양성 이해 중심의 교양교과목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미네르바교양대학의 다움=德센터는 세계시민윤리분과와 글로벌시민성교육이라는 비교과교육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대학의 목표 설정과 전공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에 초점을 둔다면,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 의식과 역량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할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교육대학교

가. 현황

1) 교육목표 및 비전

서울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교육자적 자질을 갖추고 교직 전문성을 지닌 전인적 인격을 구비한 교육자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다. 대학의 교육목적을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 아래 국가와 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인격과 자질을 지닌 유능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으로 설정하고, 교육목표로 거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인간 양성, 민주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 배양, 교사로서의 건전한 인격을 도야하고 교육애가 높은 헌신적 생활 태도 확립, 교수학습능력 습득, 교직의 사명과 신념 확립 등을 명시해 초등교사로서 가져야 하는 핵심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울교육대학교는 포괄적인 형태의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한다. 서울교육대학교는 교육목표 및 비전에서 전인교육, 민주적인 교육, 인격, 거래의 행복과 번영 등에 초점을 두어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교육과정

가) 학부 교육과정

서울교육대학교의 학부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대별되며, 교양 및 전공과정은 다시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된다. 필수교양과목은 인·어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육, 영어, 컴퓨터, 사회봉사 영역으로 나뉘고, 선택교양과목은 인·어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활과학·예술, 제 2 외국어 영역을 포함한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로는 필수 교양에서 세계의 역사와 문화, 현대 사회와 글로벌 세계가 있고, 선택 교양에는 다문화 교육의 이해, 문화인류학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전공과정은 교육학교육, 교육실습, 교과교육 및 특별활동, 실기·실험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하는데, 심화과정은 13 개 학과별로 따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심화과정에 배당되는 졸업이수학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학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총 140 학점이며, 교양과정에 40 학점, 전공과정에 100 학점(교육학교육(18), 교육실습(4), 교과교육과 특별활동(50), 실기·실험(8), 심화과정(20)을 이수해야 한다.

나) 대학원 교육과정



〈그림 5.6〉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의 비전, 목표, 인재상

서울교육대학교의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전문대학원 하나로 운영되어, 석사과정은 크게 초등교과교육학, 초등교육학, 초등융합교육학으로 나뉘며, 박사과정은 초등교과교육학과 초등교육학으로 나뉘며 그 아래 세부전공이 존재한다.

• 국제사회문화교육 전공

석사과정의 초등융합교육학 분야에 국제사회문화교육이라는 전공이 존재하는데, 이는 세계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문화교육은 국제사회문화교육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하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이 세계시민교육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목이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1 학기 강좌는 '글로벌교육의 이해' 교과목을 필수로 하면서 '글로벌문화와 국제교류' 등 관련 내용학을 선택하도록 하고, 2 학기 강좌는 '글로벌 인권교육론'을 필수로 하면서, 평화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과 같은 세부 접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3 학기

강좌는 ‘글로벌정의와 거버넌스’를 필수로 하면서 이전 학기보다 심층적인 주제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며, 마지막 4 학기 강좌는 ‘글로벌역사와 현대사론’을 필수로 하고, 해외 현지 지역연구 등 응용 분야로의 이행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 전공에서 현장 밀착형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로서의 교사상을 정립하도록 하는 등 교과 외에 연구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고 있다.

• 다문화교육 전공

초등융합교육학의 또 다른 전공인 다문화교육 전공은 초등 현장의 다문화 현상과 그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된다. 필수과목은 총 3 가지 교과목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이 있고, 선택과목은 10 개 과목으로 문화간 이해교육 연구,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등이 존재한다. 또한, 다문화교육 전공의 교육 과정은 다양한 접근을 위해 전공교수 4 인(도덕 및 인성교육, 국어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실생활교육)을 전공교수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라) 평생 교육과정

서울교육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은 1995 년에 사회교육원으로 출발하여, 세계화 시대 특성에 맞추어 지역사회 주민, 직장인, 노인, 대학생, 교원들의 자기발전과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그 하위 기관으로 독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독학사칼리지, 서울교대-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공동 TESOL 과정을 운영하는 테솔교육원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로 일반과정, 상담사 과정, 전문가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세계시민교육 관련 강좌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대학이 재학생 뿐 아니라 지역시민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 국제화 전략

국제어학원과 국제교육협력센터는 국내 다른 대학들과 대동소이한 부분이다. 국제어학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이해를 지향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언어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관이다. 국제교육협력센터는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핵심부서로서 국외대학과의 협력추진, 학생 간 국제상호교류 증진, 외국유학생의 유치 및 관리

등을 중심 업무로 하고 있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환학생프로그램,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대만 단기문화연수, 해외자율문화체험 등이 있다.

4) 부속 기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활동은 바로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초등교원 양성대학 중 최초로 설립된 다문화교육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해결과 능력개발, 이중언어강사의 양성과 연수, 다문화 학급을 운영하는 초등교사들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이중언어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글로벌브릿지 등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는 법무부 ABT (Active Brain Tower) 대학 사업 연구, 교육부 및 시교육청 정책 과제 연구, 대학 자체 연구 등의 다문화교육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다문화교육 연구총서 등을 발간하며,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등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 특징과 시사점

서울교육대학교의 교육목표와 비전은 글로벌 핵심 초등교사 역량 개발에 초점이 가있어 비명시적, 포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교육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프로그램인 국제사회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 전공과정이다.

서울교육대학교는 초등 교원 양성 대학으로서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이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관련해서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미래의 초등 교사들의 세계시민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 양성 졸업과정으로 끝내는 것으로 아니라 세계시민교육 전공을 가르치고 전문적인 역량을 인증해주는 인증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세계시민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서울교육대학교는 현재 다문화교육원과 평생교육원 등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세계시민교육 인증 과정을 운영한다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 6 장

한국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제 6 장 한국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1. 세계시민의 개념과 필요성

가. 세계시민의 개념

1) 세계시민의 개념

‘국민(nation)’은 근대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가(state)의 구성원을 뜻한다. 국민은 국가의 소속원(member)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에 반해 ‘시민(citizen)’은 사회의 주체인 동시에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추구하는 공동가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과 협력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를 의미한다”(한경구 외, 2015:27). 시민성(citizenship)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별 시민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행동 성향을 뜻한다. 주로 의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시민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민주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적인 이해와 정의적인 의지와 행동성향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은 “세계적인 정치단위”의 구성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국민으로서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시민은 세계적 관점과 원칙에 따라, 보다 더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시민을 지칭한다(Lee & Fouts, 2005; Lee, 2012). 세계시민은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을 의미한다. 세계적 관점과 원칙에 따라, 보다 더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의식을 세계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 주체로서 세계시민은 존재하지 않아도 의식의 주체로서 세계시민은 존재한다(Tawil, 2013).

세계시민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적인 시민이 아닌, 인류공동체 혹은 인류 보편적인 이상과 가치에 동조하는 소속의식으로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지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지와 동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다(교육부).

2) 유네스코의 세계시민의식 요인

유네스코의 세계시민 개념은 크게 3 부분으로 구성된다(Skirbekk et al., 2013:14). 세계시민의 핵심요소로서 정체성, 이해와 인식(책임감),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자세이다. 인지적 측면의 인식과 정의적 측면의 공감 그리고 행동측면의 책임감과 헌신의지(psychosocial framework)의 심리구조로 구성된다. 세계시민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영역에서 의식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식과 동의

인식의 차원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문제와 과제를 보는 관점을 공유하고, 문제와 과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보편적 원칙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함을 의미한다. 첫째로, 세계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세계적 관점은 오늘의 세계는 지역과 지역이, 사람과 사람들이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깊이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국제무역과 교통과 의사소통기술의 발달과 긴밀한 인구인동으로 이 세상은 지역간에 그리고 사람간에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은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협력해야 함을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계인들은 비록 소속한 국가는 다르다 하더라도 더 큰 인류공영의 공동체에 소속한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너와 내가 분리된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 속에서 하나가 되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로, 세계적 문제와 과제(issues and problems)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지구환경, 지속가능한 개발과제, 개도국의 빈곤문제, 세계평화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와 과제는 우리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과 상호협력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로, 유엔이 추구하는 보편적 원칙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 원칙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원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의하는 것이다. 인간존중, 세계 모든 사람의 기본 인권과 자유, 기회의 균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사회정의,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틀과 정신등과 같은 세계적 가치에 대하여 이해와 동의를 하는 것이다.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나)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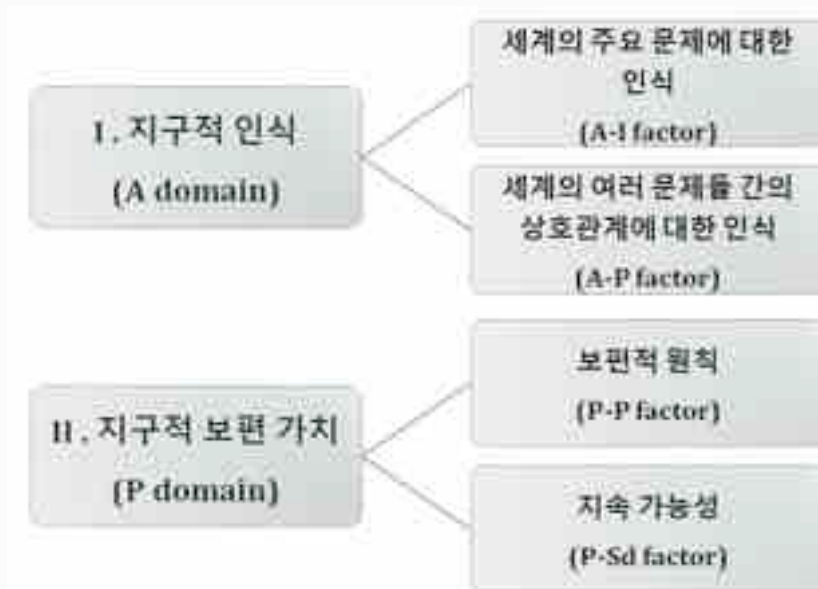
공감은 타인의 상황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가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표현된다. 가치공동체의 소속하는 사람과의 연대감도 관련된다. 타인에 대한 공감은 내가 아닌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같이 느끼는 정의적 능력이자 태도이다. 상대의 처지와 상황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 태도나 측은지심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책임감과 헌신의지(psychosocial framework)

행동측면에서 세계적 인식에 터하여 보편적 원칙을 지켜나가고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대응하는 과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동기, 그리고 행동성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은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관련성을 갖는 과제에 대하여 행동을 지향한다.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고,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집단적 책임감을 갖는다, 이 토대위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책임감과 헌신의지는 인간존중, 세계 모든 사람의 기본 인권과 자유, 기회의 균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사회정의,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틀과 정신등과 같은 세계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행동화하는 것이다. 즉, 삶과 삶을 통합하는 성향이다.

3) 세계시민의식의 개념적 틀

세계시민은 자신의 재능과 품성에 바탕하여 형성된 의식과 역량으로, 보다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의식과 행동의지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세계시민의식 혹은 세계시민성은 지적인 인식과 동의, 정의적인 공감 그리고 책임의식과 행동하려는 헌신적 의지의 요인을 통합하는 의식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의 개념적 틀을 약간 변형하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상황에 대한 분석과 개념적 설계를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4개 영역에서 8개 요인으로 구성된 세계시민의식의 개념구조를 세웠다. 이 개념구조에 따라서 제 3장의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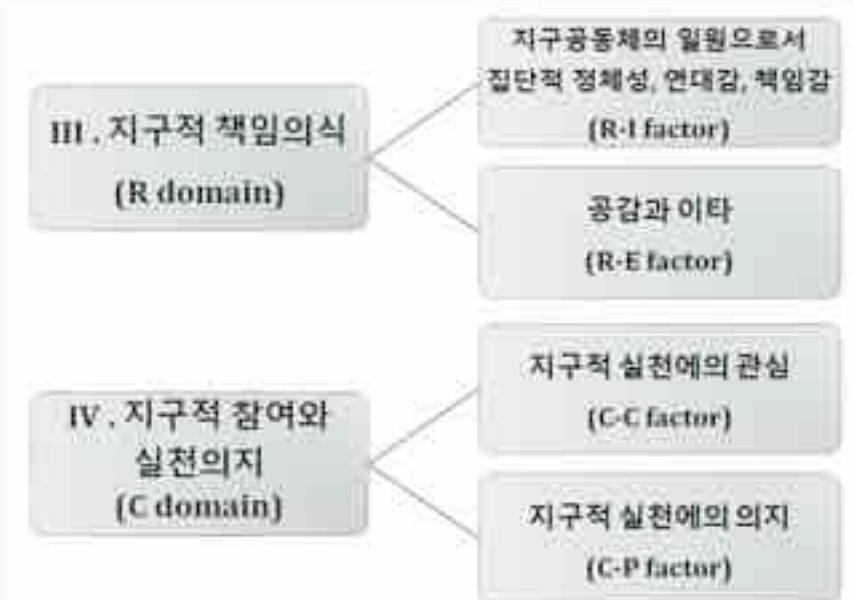


〈그림 6.1〉 세계시민의식의 개념구조 (I)

세계시민의식은 크게 보아 4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1) 지구적 인식(Global awareness)과 (2) 지구적 보편가치(Global principles)에 대한 동의, (3) 지구적 책임의식, 그리고 (4)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Commitment to engage) 등이다. 이 4 개의 부분은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상의 중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영역이 된다(이종재 외, 2016).

지구적 인식(global awareness)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세계화과정(globalization)에서 형성된 지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두 요인을 포함한다. 지구적 인식은 세계적 현상으로서 제기되는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Awareness-I: issues, problems, challenges)과 세계의 여러 문제를 보는 지구적 관점(Awareness-p: Global perspectives)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지구적 문제를 보는 지구적 관점으로서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그리고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의 동일체(global membership as oneness)의식을 포함하였다.

지구적 보편가치에 대한 동의 영역은 국제사회에서 규범으로 설정한 "국제적 원칙"에 대한 동의(P-p: principles)와 세계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P-sd)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였다. 국제적 보편적 원칙으로서 국제규범의 필요성,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이상, 국가주권의 존중,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원칙도 포함된다.



〈그림 6.2〉 세계시민의식의 개념구조 (II)

지구적 책임의식(Global responsibility) 영역에는 (1)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집단적 정체성과 연대감 그리고 책임의식(R-i)을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문제에 대한 공감(R-e)(Empathy)과 나를 넘어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포함하였다. 지구공동체의식은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한 나라의 국민(nation-State)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으나 나의 정체성이 내가 속한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지구공동체까지 생각하는 의식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역지사지하는 배려하는 역량을 포함한다.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는 (1) 지구적 문제에 대한 실천에 대한 관심(C-p)과 (2)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천의지(C-c)를 포함한다. 실천에 대한 관심은 지구적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실천의지는 구체적인 실천 지향적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를 의미한다.

세계시민의식은 은 지구적 의식은 전인교육의 특성을 지닌다. 인식과 원칙에 대한 동의, 그리고 타인의 문제, 처지, 상황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통합하는 성향을 계발할 것을 지향한다.

나.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1) 세계화 맥락

가) 교육기회의 확대로부터 역량의 개발로:

유네스코(2013)는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교육의 적합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였다. 교육에 대한 유엔에서의 관심과 기대가 변하여 왔다.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의 관계에서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공생과 상생을 추구하는 교육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육에 대한 정책 담론이 교육기회의 확대에서 세계문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이동하여왔다.

유엔이 개발목표를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로 전환하면서 정책의 중심이 교육의 기회확대로부터 학습의 성취로서 역량의 계발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이 핵심교육기능으로 인식되었다.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의 틀을 변화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제시되었다.

- 지식교육으로부터 지적, 정의적, 의지적 통합적인 지행합일의 전인교육으로,
- 단순 지식교육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적 교육으로,
- 경쟁에서 상생과 공생을 지향하는 학습으로 (learning together, living together)
- 사적이익에서 공적 의식을 함양하는 공교육으로
- 세계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현실문제에서부터 대응하는 교육의 틀로 제시되었다.

세계평화, 인권, 평등,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과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세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인적 소양과 가치관, 지식, 태도, 전문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시민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유엔은 2015 년에 세계시민교육을 정책 의제화하였고, 유네스코는 향후 8 년 동안의 세계시민교육을 포괄적 교육주제로 선정하였다.

나)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토대구축:

세계적 과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요구한다.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문제, 빈곤의 극복, 불법이민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다. 국가와 개인 간에,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한다. 최근 영국에서 유럽공동체(EU)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Brexit) 대두도 이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한경구 외, 2015:29).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를 위한 대화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은 이 토대를 구축한다.

2) 한국교육과의 관련성

한국대학교육의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필요한가? 제 3 장의 세계시민교육의 정책의제화과정은 세계시민교육과 한국대학교육의 과제를 연결하는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왜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규범적, 실증적, 실제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에서 공의식(公意識)을 형성해야 한다. 공 의식을 공공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정범모 교수(2016)는 지적한다. 공공의식은 사적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와 과제를 인식하는 의식이다. 국내적으로는 시민의식이고 세계적으로는 세계시민의식이 된다. 공의식이 시민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토대가 된다. 공의식은 새로운 의식의 탄생을 의미한다. 가진 자, 혜택을 받은 자의 도덕적 의무가 되기도 한다. 나를 넘어 남을 생각하고, 넓은 정신의 윤곽을 그린다. 송복 교수(2016)는 이것을 “한국 상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표현하였다. 김명훈(2016)은 “상류의 탄생”이라고 말했으며, 김영길(2016)은 “공부해서 남 주자”고 표현한다.

한국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선진화 과제를 이룩해야 하고,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이 교육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사의식(私意識)과 공의식의 조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 의식의 선진화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다(정용교, 2015).

한국교육은 그동안 사교육의 영향과 도전을 받아왔다. 공교육에 연계된 사교육의 영향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에서 사적이익의 동기를 넘어서는 공적기여에 대한 공의식이 자리 잡기 어려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공의식의 토대위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벌 인재를 구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전문적 역량 뿐만 아니라 성품, 창의성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이 필요하다(김영길, 장순홍, 2015).

한국의 고등교육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대학의 교육목표로 제시하여 왔다. 청년취업을 돕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직업교육의 목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전문역량의 개발을 강조한다. 글로벌 인재는 전문적 역량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인성의 내면에 세워지는 품격위에 전문역량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여기에 “공의식”의 계발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개방화 노선을 걸어왔다. 세계적으로 우리를 개방하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윤곽과 토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적문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향으로 특성화와 국제화 전략을 추구하여 왔다.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대학의 존재감(global presence) 세우고 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프로그램에서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왔다(이중재, 2015).

국제화 전략에 대한 대학의 관심과 학생의 동기는 국제적 경험을 확대하고 외국학생을 유치하는 수준에 있다. 많은 한국 대학들이 대학의 사명문에 글로벌 인재육성과 세계시민육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글로벌 인재육성은 전문적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국제화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대학의 국제활동을 확장하거나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 대학들은 세계시민의 육성을 실질적으로 아직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도 국제경험을 쌓고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동기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 과제에 창의적으로 전문적으로 공헌을 하기 위한 동기는 부족한 편이다.

대학의 관심		
	국제적 활동 확대	국제화 확산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학생의 동기	국제적 경험	(1) 세계에 대한 지식 확대와 외국언어로 의사
	세계시장 진출	(2) 글로벌 및 전문적 역량 개발
	국제적인 기여	(3) 세계대학시민 (Globally responsible and advanced citizen(GRACE)) 양성

〈그림 6.3〉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대학의 관심과 학생의 동기

Howard Gardner 는 현대인은 물질위주의 시장에서 평가받는 현대사회에서 지나친 “자기중심”(Me-ism)의 사의식을 추구하는 성향을 공의식과 개성 있는 수월성으로 그리고 공적 책임의식과의 균형과 조화를 취할 필요를 역설한 바 있다. Howard Gardner 는 현대사회는 3M(Market, Money and Me)을 추구한다고 진단한다. 이것은 개인차원에서의 이익을 지향하는 관점을 표현하는 핵심단어가 된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3E(Excellence, Engagement and Ethics)를 제시한다.⁹

가드너 교수는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무언가에 몰두(engage)할 환경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몰두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고, 미래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탐구합니다. 그게 없다면, 아이들은 휴대폰이나 만지작거리며 남들이 뭐하고 놀고 있나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행위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제는 바르고, 선하며 윤리적으로 사회에 실현하는 행동력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몰입(Flow)' 이론으로 유명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와 발달심리학 권위자인 윌리엄 데이먼 교수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굿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과 사회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중시되는 3M(Market, Money, Me) 대신 3E(Excellence, Engagement, Ethics·뛰어남, 사회적 참여, 윤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좋은 리더란 나와 다른 지능과 성향을 갖춘 이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장을 만들어준다"며 "자신이 무얼 알고 모르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를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자만하기 때문이죠. 세상엔 그런 사람 천지이긴 해요. 도로만 나가봐도 알잖아요! 하지만 나라를 운전하는 건 다른 문제죠. 독선과 권력이 맞물리면 무서워집니다."

⁹ 조선닷컴(2016.4.26). "많이 질문하세요, 아이가 당신의 선생님 되도록"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6/2016042600157.html 에서 2016.10.23 인출.

셋째, 우리나라는 통일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국가로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우리도 창의적으로 난제를 풀어가는 실력과 담대함과 전략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통일로 가는 과정과 통일이후에 남북한 통합을 위하여 그 의식의 기반은 홍익인간의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홍익인간의 연장선에서 세계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한 서로가 근접할 수 있는 의식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할 이유와 통일의 과업을 연결하여 생각한다.

2. 한국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개념의 틀

가. 기본 개념

1) 세계시민교육의 성격

세계시민의 개념은 다중적 관점에 따른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세계시민교육도 다중적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확장하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 개념과 세계시민교육에 논쟁의 소지가 있게 되었다 (어윤일, 심희정, 2016). 그러나 제 5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 그 핵심은 두 개의 축에서 발달적 이동을 의미한다. 한 축은 “사적이익의 관점”으로부터 “공공의식”으로의 “의식의 확장”이고, 다른 한 축은 “국제화 지향”으로 부터 “세계화 지향”으로의 “관심의 전환”이다. 이 의식의 확장을 위하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공적의식(public consciousness), 공간적 정체성의 확산이 요구된다. 관심의 전환을 위하여 국제적 경험과 국제시장에서의 역량 발휘를 지향하는 인간자본적 접근(human capital approach)을 넘어서 세계적 연대와 공동노력을 추구하고 공감하고 책임을 공감하는 사회적 자본적 접근(social capital approach)이 요구된다. 세계시민교육의 성격은 “의식의 확장”과 “관심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성격을 검토한다.

A. 의식공동체에 참여하는 의식교육(Sense of belonging)

세계시민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시민자격(membership of Nation-State)으로부터, 관점, 가치, 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소속하는 “소속의식”(sense of belonging)의 탄생이 세계시민개념의 핵심을 이룬다(Davies, 2006). 세계시민은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적 주체는 아니다(Lagos, 2002).

오히려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에 동조하여 참여하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적 관점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을 지향하여 이에 합당한 원칙과 가치를 추구하는 인류공동체의식에 대한 소속의식과 글로벌 관점(global gaze or global perspectives)을 공유함을 그 핵심으로 한다(Marshall, 2005).

세계시민은 세계적 관점에서 문제를 규정하고 검토하고 논의하되, 현재의 자기 상황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행동한다. 이 점에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부터 행동한다”(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는 세계시민의 특성 규정은 의미가 있다.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참여가 시민의식이 그 근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B. 나를 넘어서 남을 배려하는 의식의 지평, 정신의 윤곽을 넓히는 고차원적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은 나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남을 배려하는 교육으로 이동한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와 인식 그리고 책임의식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한다.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의지와 행동성향을 추구한다. 세계시민의식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까지 생각하는 공적의식이다. 세계시민의식은 공적의식의 차원이다. 공적의식의 근본은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 “남 생각”이 공적의식의 핵심이 된다. 이 ‘남 생각’은 “감정이입, 공감, 동정 등을 바탕으로 하는 원활한 인간관계, 가족애, 애향심, 애국심, 인류애 등의 각종의 공동체의식, 각종 사회집단의 사정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사명감, 책임감, 사회생활에서의 협동심, 사회신뢰 등을 넓게 함축한다”(정범모, 2016:81). 이 점에서 세계시민의식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다(Jeffrey, 2013).¹⁰

¹⁰ 중앙일보경제연구소(2016.7.28). 한국 경제, ‘사회적 자본’의 고갈이 더 큰 문제.
http://jforum.join.com/viewissues/view_view.asp?Idx=321&c_id=&cate_id=&list_page=에서
 2016.10.23 인출.

공의식은 인간의 정서적 감수성과 도덕적 의지를 종합하는 정의적 개념으로서, 공의식 함양교육은 도덕성 함양교육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공은 내 사적인 욕심을 추구하되, 주변 사정을 배려하면서 공정한 길을 통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공의식을 성숙한 개인주의(individualism)이라고 표현한다. “individualism”을 “in-divide-able” 즉, 분리할 수 없는 것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공의식은 나의 관심이 나를 넘어서 남들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넓어진 정신의 윤곽을 의미한다(정범모, 2016:85).

세계시민의식은 그 의식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으로, 출신학교와 고향으로, 고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국가로 그리고 국가에서 세계의 인류로 확대된다. 공의식의 관심의 대상이 지역적 관점에서 세계적 관점으로 확대되고, 동일시하는 그 정체성이 확대되어 사람과 사람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긴밀한 연결성과 상호의존적 관계위에서 너와 내가 커다란 하나 안에 있다는不二의 인식의 공유에 이를 수 있다. 긴밀한 연결성, 상호의존성, 확장된 공동체 不二觀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적 관점이 된다. 세계시민은 시민의 공간적 확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유교의 “대학”(大學)에서 논하는 “격물치지”와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라는 공간적 관심의 전환은 세계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의 공동체성의 목적을 규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교육의 새로운 틀을 세우는 개념이 된다. 사심(私心)의 교육론에서 공심(公心)¹¹의 교육론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의 “사적” 패러다임에서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을 통하여 동일시하는 그 정체성이 개인으로부터 시민으로, 그리고 세계시민으로 고양된다.

의식의 지평과 정신의 윤곽을 넓히지 못할 때, 학벌주의, 지역주의, 국수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사회의 상층을 위한 교육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교육이 부족할 때 그 나라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강대국이 패권국이 될 수는 있더라도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고차원적 상층 의식교육 및 인성교육이 된다.

¹¹ 다산 정약용이 주장한 개념이다.

C. 지역을 넘어 세계적 관점으로

세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국가, 세계간의 경계는 낮아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 경계의 구분은 모호해 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적 관심과 세계적 관심 간에 긴장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관심의 지평을 넓히고 쟁점과 문제, 과제에 대하여 폭 넓게 조망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동인이 “세계적 공공의식 고양인가 혹은 21 세기 기량과 같은 국제 경쟁력의 추구인가?”에 따라서 이 양자 간에 긴장이 있을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이 추구하는 국제화 전략은 세계적 공공의식보다는 국제 경쟁력의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D. 한국의 맥락과 세계시민교육

‘바람직한 세계시민’의 모습에 대한 해석에는 다양성이 있다. 그 배경에는 사회마다 독특한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시민성과 시민교육은 한국 특유의 독특한 사회적·역사적 환경(예: 유교 문화적 전통, 식민통치의 경험, 남북분단 상황, 교육문화)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세계시민교육의 의미는 이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한경구 외, 2015:36). 한국대학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한국의 맥락에서 지정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하여, 홍익인간의 우리 교육이념을 세계적으로 들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공공외교의 주역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할 때 남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의식의 공통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은 우리나라 외부에서 외부동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국제적 맥락에서 제기된 정책의제가 국내의 교육정책의제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면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부차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국제협력차원의 의제에 머물고 있다. 한국교육을 이끌고 가는 주요의제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Sim, Jeon & Lee, 2016). 한국의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개념, 필요성과 교육의 틀에 대한 구상을 검토함으로써 한국교육의 한 틀로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 세계시민교육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교육인가?

세계시민 교육은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세계시민교육은 새로운 교과목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그동안 국제교육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생각하게 된다. 세계평화교육, 인구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증가 억제차원에서의 인구교육도 있었다. 국제이해교육, 환경교육, 다문화교육이 뒤를 이어왔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그때 그때 국제적 국내적 필요를 반영하는 교육으로 인하여 번잡스럽게 되었다. 교육과정은 누더기교육과정(crowded curriculum)이 되었다.

세계시민교육도 또 다른 형태의 교과교육으로 등장해야 하는가? 세계시민교육은 지역과 국가차원에서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세계화 맥락에 적응하고 심화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바탕에는 시민교육이 있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을 세계화 맥락에 까지 연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독립된 교과교육영역이라기 보다는 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포함하는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Tawil의 제안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제안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의 맥락과 추세에 적응하고 시민교육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한다(Tawil, 2013). 단지 그는 전통적 시민교육과는 그 특징을 달리하는 학습중심, 변혁적, 문제해결과과정중심, 실천지향적, 평생학습과정을 통하여 시민의식의 형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핵심적 특징을 시사한다.

〈표 6.1〉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접근

보수적 접근: 윤리교육	진보적 접근: 시민교육
시민의식에 관한 교육	시민의식의 형성과 구현에 관한 교육
사회질서의 재생산	변혁과 변화에 대한 적응 추진
규제와 순응적 접근	행동지향성과 시민활동 참여형(관여)
교과내용중심, 수동형	과정중심, 학생의 학습능동형, 자기주도성
지식 기반형	원칙 기반형
교수 모형	상호작용과 비판적 해석모형 (Tawil, S, 2013)

세계시민교육은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문화간 이해교육 및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모두 포괄하면서 보다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변혁적 교육을 가리킨다.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논쟁적인 특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지지받아 온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전통적 윤리교육형 보다는 시민교육형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시민교육은 변혁지향적이고, 학습자 참여형이며, 교과내용이해형 보다는 문제해결과정형이며 원칙에 기반한 비판적 해석모형이다. 그 중요한 특징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세계시민교육의 변혁지향성: 홍익인간 교육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동시에 추구한다. 교육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강조한다.¹² 이러한 의식은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에 내포되어 있다. 한동대학교는 “Why not change the world”를 강조한다.¹³ 이를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적극성과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학습동기와 학습가치관을 강조한다. 교육을 통한 사회변화 추구, 이를 위하여 변혁적 교수(transformative pedagogy)를 활용한다. 변혁적 교수는 다음사항을 강조하여 반영한다(유네스코, 2013).

-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개방적 토의
- 실제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기본관점과 가정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검토,
-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
-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행동
- 다양한 관여자와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추진
- 자기주도적 학습을 조장함. 교사는 학습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연구노력과 지원을 받음.

¹² 중앙일보의 문화시민 캠페인도 이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다.

¹³ 한동대학교 사례를 인용함.

3) 세계시민교육의 전인적 접근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역량을 길러주려는 교육이다. 세계시민의 관점과 성품을 통하여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추구한다. 학습자에게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화롭고 보다 포용적이고 관용하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헌하는 성품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네스코, 2013:19).

핵심역량을 영역별로 4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2 개의 의식 요인을 설정하였다. (1)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2)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식과 존중을 중요한 인식의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보편적 가치로는 세계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함한다. (3) 비인간적 사회적 역량으로 타인과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배려와 관용과 포용적 태도, 그리고 의사소통과 협력적 관계를 수립하는 능력과 연대능력과 책임의식을 포함하였다. (4)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행동하려는 동기와 의지를 갖는 것을 포함하였다. 역량의 영역에서는 세계적 문제와 과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설계하는 능력을 포함하였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통합형 접근은 지·정·의의 영역을 통합하는 전인교육의 접근이다. 앎과 삶의 통합을 추구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단순히 지식교육에 그치지 않고 앎의 실천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동양의 유교에서 강조하는 학습모형을 반영하고 있다. 지행합일형(知行合一型) 교육이다.

성취목표로서의 “글로벌 역량 발달 모델”은 성품(character)과 창의력 그리고 전문적 문제해결능력에 세계시민의식을 포함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글로벌의 의미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이 시대는 글로벌화된 사회이다. 공감능력, 사회적 자본등과 같이 세계시민의식에 포함된 요인이 이 시대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 된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4) 세계시민교육의 초학제적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

세계의 문제와 과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어느 한 학문적 관점으로 이해와 분석이 쉽지 않다. 또한 지식의 생성이 한 학문에서 선형적으로 발전해 가기 보다는 여러 학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질적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어 초학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현실의 문제는 실증적 분석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많은 실제적

문제들은 철학적 논의, 규범적 타당성의 검토, 실증적 효과분석, 실제적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초학제적 경험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Shultz, 2013; Kim, 2005).

이러한 이유로 시민의식은 단기간에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간의 학습과정을 거쳐, 자기주도 학습을 통하여 자기 나름의 관점을 형성하고 구성학습을 통하여 융합적 학습경험을 요구한다. 시민의식은 한 교과나 교과영역을 넘어서 계발되는 속성이 있다. 이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초학제적 학습의 속성을 활용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초·중등교육에서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교육과정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존 교과의 학습경험에 융합형으로 학습경험을 구성하는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단위의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의 틀”을 구성하는 일이다.



〈그림 6.4〉 글로벌 역량 개발과 세계시민의식

② 자기주도적 융합형 학습경험(convergence learning)

융합형 학습경험을 통하여 스포츠활동과 예술활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 예술활동을 통하여 정의, 관용, 다양성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학습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한 상호이해와 존중, 인내와 결속, 다양성과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공정성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활동, 국제교환 프로그램, 실생활 경험을 학습, 자기표현과 타문화와의 대화를 위하여 문화적 활동을 활용할 수 있고, 더 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밥 딜런(Bob Dylan)이 2016 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를 음영시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의 노래는 “귀로 듣는 시”라고도 한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4 년 전 그에게 훈장을 주며 “대학시절 이 나라를 위해 중요한 영감을 주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내 세계관이 열렸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16). 그의 대표곡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in' in the Wind")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Blowin' in the wind (바람만이 아는 대답)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Before you call him a man?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 까?

Yes, 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모래밭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다네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속에 있다네

5) 세계시민교육의 평생학습 관점

세계시민교육은 그 전개와 대상에서 평생학습의 관점을 활용한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부터 성인까지 학교교육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교육과 비형식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새로운 교과를 신설할 수도 있으나 기존 관련교과에서의 학습과 연결하여 통합형 학습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교교육, 학교외 교육, 비형식교육을 통합하는 접근을 시도한다. 세계시민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밖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학습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시민의식은 전 생애에 걸쳐 계발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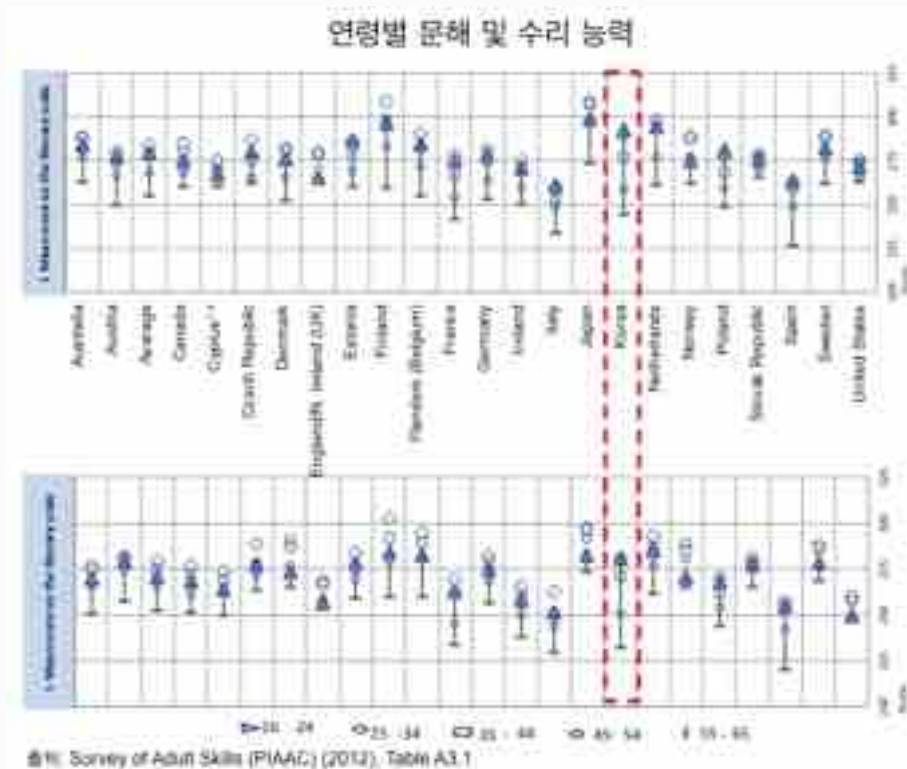
성인의 학습역량을 비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성인학습역량검사계획(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에 의하면 한국의 성인의 학습역량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세계시민의식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평생학습차원에서 대학교육의 서비스가 성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대학의 세계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

국내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탐구하기 위하여 세계주요대학과 국내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대학과 베트남과 캄보디아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탐색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1) 세계주요대학의 실체가 주는 시사점

세계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을 보였다. 국가와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에 임하는 동기와 목적은 달랐다. 서구의 유명대학들에서는 전통적으로 시민의식의 국제적 연장선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좁게 제한적으로 추진하여 온데 반하여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대학에서는 국제적 존재감을 들어내고 국제적 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대학교육의 “국제화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에 대응하여 왔다. 세계시민교육의 실체는 폭 넓은 다양성을 보여 왔다.



〈그림 6.5〉 연령별 문해 및 수리 능력 [출처: PIAAC, 2012]

이러한 다양성은 세계시민교육의 규범적 토대, 국제화를 포함한 대학의 발전전략,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규범적 토대와 대학발전전략과의 연결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체계적인 명시적인 강한 체계적 연계방식도 있고 느슨한 연결방식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은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좁은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대학의 비전과 사명, 인재상등이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를 구성한다. 대학총장 등의 대학경영진의 비전과 의지, 대학의 발전계획, 국제화 전략 등이 이 토대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에 세계시민교육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대학도 있다. 문제는 대학교육의 목표가치와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결 여부가 된다. 대학 내 프로그램 개발전략과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를 연결하는 방식에서 강한 체계적 연계방식도 있고 느슨한 연결방식도 있다. 이 연결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세계시민교육이 전개된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몇 가지 중요하게 제기되는 운영의 원칙이 들어나 보였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개념의 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 지·정·의를 통합하는 전인교육의 원리, (2) 학생주도성을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원리, (3) 융합학습경험을 제공하려는 초학제적 접근(trans-disciplinary), (4) 다양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활용하는 활동프로그램의 구성 등의 교육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유형과 운영원칙을 반영하는 개념 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

2) 국내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이 주는 시사점

국내대학들은 세계시민교육을 의식과 역량 면에서 볼 때 국제적 역량의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국내 대학은, 주로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으로 포괄적, 규정한 규범적 토대위에서 운영하여 왔다. 이 맥락에서 인재육성을 규정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에 대한 규범적 토대와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가 약하다. 또한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가 빈약하다.

특히 프로그램차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교양대학과 자유전공학부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반영이 미흡한 편이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양대학의 목적의식이 불명한 편이다.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의 차원을 높혀 국제적 경험의 확대를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화된 국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의 자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생들의 국제진출을 돕기 위해서도 의식의 수준을 세계적 시민의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자체가 세계시민의 의식과 역량을 구비하는 대학자체가 “세계시민화”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지원활동과 외부기관과의 연계활동도 빈약한 편이다. 세계시민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외부의 시민단체와 연계가 부족하고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개발협력기관과의 협력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3) 조사 결과가 주는 시사점

① 가치관 지향에 관한 조사결과는 한국대학생들의 가치지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생의 가치지향은 자연훼손형 개발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내성적 성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시간차원에서 현재를 지향하는 가치지향을 보인다. 1960-1970 년대의

개발지향적인 미래 지향, 성취동기, 개인주의, 자연훼손형 개발보다는 현재지향, 품성의 함양, 상호의존적 수평적 인간관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지향을 선호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관”과 궤도를 같이 한다는 시사를 준다.

② 한국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은 3.5 수준으로서 낮은 편이다. “의식”이 있다는 수준을 4.0으로 규정할 때, 3.5 수준은 세계시민의식 수준에는 미달한다고 평가된다. 세계시민의식의 영역별 요인별 그 수준을 살펴볼 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의식과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대한 이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지구적 참여의식과 실천의지 면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참여의식과 의지 면에서 한국학생들은 매우 낮은 시민의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국학생들이 세계시민의식에서 공공의식이 낮은 영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공공의식을 지향하는 교육과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학에서의 국제화 프로그램에 공공의식의 연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참여와 공감 그리고 실천지향적 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자기주도적 활동형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대학의 국제화 전략이 국제적 이해와 경험의 확대에는 도움을 주었다고 이해된다. 국제적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적 이해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③ 한국대학이 운영하여 온 넓은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세계시민교육”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대학생의 낮은 세계시민의식 수준과 특히 세계시민의식에서 1학년과 3학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은 대학교육의 세계시민교육의 효과가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부 대학에서 학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오랜 세계평화교육의 전통을 유지하여 온 K 대학, 독특한 특성을 지향하며 세계시민교육에 임하여 온 C 대학에서는 3학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세계시민의식에서 계열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민교육의 차이가 의식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계열을 대표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이 표집이 된 교육계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교사역할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학생에게 문제의식을 전달하였다. 세계적 주요 주제에 대한 안내와 방향(orientation)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④ 세계시민의식과 관련있는 가치관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는 인과관계는 분석하지 못했으나 상관관계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인간행동의 동기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요인으로 등장한다.

성취동기보다도 존재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세계시민의식과 관련이 있었다. 이 점은 전인교육의 목표로서 “왜 공부하는가?”라는 이유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빛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인성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의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김영길, 2016).

⑤ 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앎과 삶이 통합이 필요함을 보였다. 한국대학생들은 앎의 영역에서는 강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감과 참여, 문제해결에 임하는 의지와 헌신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인재상에 대하여 앎과 삶을 통합하는 홍익인간형의 인재상에 대한 그 의미의 중요성을 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

⑥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속성으로서 학생주도적인 활동프로그램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기주도성과 융합형 학습경험의 축적, 그리고 세계적 과제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부채꼴 모양으로 과제 영역을 확산하여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사형 프로그램의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9 개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 9 개 대학을 중심으로 탐구한 결과,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¹⁴

경희대학교 :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1. 개요

경희대학교(n.d.-a)는 창학 이래 ‘학술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왔다. 특히 개인과 사회 그리고 지구사회의 평화를 위해 국내, 해외 활동을 해왔다. 1950~60 년대의 농촌봉사와 사회운동에 이어 1970 년대 이후에는 평화운동과 세계시민운동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 2009 년 개교 60 주년을 맞아 세계시민포럼과 세계시민청년포럼을 창설하고 이후 유엔과 유네스코, 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경희대학교, n.d.-b). 이와 같이 경희대학교의 사회운동과 평화운동은 21 세기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될 것이다. 경희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으나, 특히 후마니타스 칼리지(Humanitas College)의 교양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인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중점사항

¹⁴ 6 장에는 6 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 개 대학의 사례는 Appendix 3 에서 볼 수 있다. 9 개 대학의 사례는 각 대학 교수들이 집필한 원고(Technical report II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접근방안의 탐구”)를 근거로 정리되었다.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경희대학교는 창학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에 기여하는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을 육성하고자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교육목표로 설정한다. 인재상 중 하나인 ‘세계인’을 ‘교육의 글로벌화와 실천적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타인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실천적 세계시민’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인재가 갖춰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세계시민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제시한다. 이는 세계시민교육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또 대학의 발전계획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을 통해 시대적, 전 지구적 과제에 책임을 다하는 학술기관의 공공성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희대학교의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나. 학부 교육과정

1) 교양 교육과정

경희대학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통해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을 목표로 지향’, ‘비판적 과학적 사고력, 봉사정신, 세계시민 역량, 소통 및 문화적 능력의 함양’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대학의 교육목표와 같이 세계시민 역량을 언급하고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과목 대부분은 세계시민교육을 간접적으로 다루며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요소는 전부 포함하고 있다. 또 세계시민교육의 중심인 의식과 행함에 알맞게 교양 교과목에서 이론과 실천 방안을 둘 다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양 교육과정은 세 가지로 ① 기초교과, ② 배분이수교과, ③ 중핵교과, ④ 자유이수교과로 나뉜다. 경희대학교는 기초교과로서 ‘시민교과’과목을 국내 최초로 필수교양교과목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와 함께 대학생과 관련된 해당교과 주제나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고 지역사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생 위주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그 다음 배분이수교과영역으로 ‘자연, 우주, 물질, 기술 영역’, ‘의미, 상징, 공감 영역’,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 영역’, ‘평화, 비폭력, 윤리 영역’, ‘역사, 문화, 소통 영역’이라는 5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한다. 관련 교과목으로는 ‘불편한진실: 기후변화’, ‘공동체윤리의 빛과그늘’, ‘열린사회의가치지향: 다양성, 관용, 공존’,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어젠다’, ‘사회적의식과 문화다양성’ 등이 있다. 또 교양 교육과정 속에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해 1 학년 학생들을 선발하여 근현대 문명의 세계사적 주요 사건,

문명 간 충돌과 갈등, 문화 접변과 수용이 집행된 지역 등을 탐방한다. 학생들은 국제화 경험과 문명탐구 뿐만 아니라 이론 및 현장학습을 통해 다양한 다매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볼 수도 있다. 경희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전공 심화과정과의 연결고리는 분명하지 않다.

〈표 6.2〉 교양교육과정의 교양영역 과목 및 특징

교양영역		과목명/영역명	이수학점	특징
중핵교과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I : 인간의 가치 탐색	3	중심주제 : 인간의 이해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II : 우리가 사는 세계	3	중심주제 : 세계의 이해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III : 빅뱅에서 문명까지	3	중심주제 : 과학의 이해
배분이수 교과		생명, 몸, 공생체계 영역	최소 4개 영역, 12 학점	학제적 교육 강조 주제 영역에 맞는 주요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과 글쓰기 훈련 강화 가능한 한 모든 과목에서 강의와 현장을 적절히 연결하기 위한 사회참여학습, 현장 관찰, 실습, 연구조사활동 등이 권장됨
		자연, 우주, 물질, 기술 영역		
		의미, 상징, 공감 영역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 영역		
		평화, 비폭력, 윤리 영역		
		역사, 문화, 소통 영역		
		논리, 분석, 수량세계 영역		
기초 교과	기초 필수	글쓰기 1 : 나를 위한 글쓰기	2	강좌당 학생수 20 명(글쓰기 1), 30 명(글쓰기 2)
		글쓰기 2 : 세계를 위한 글쓰기	2	
		대학영어	2	읽기와 토론능력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시민 교과	시민교육	3	교육과 봉사의 통합 사회봉사 프로젝트 3 학점 인정

2) 전공 교육과정

국제화 지수가 높은 대학교 인만큼 경희대학교의 전공교육과정은 국제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전공교육과정은 ① 국제화 전공교육 과정, ② 글로벌 교육과정, ③ 기타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④ 융합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3) 국제화 전공교육 과정과 글로벌 교육과정

국제화 전공교육 과정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특성화분야 영어전용트랙인 ‘전공 영어교육’, 해외 대학과의 ‘Inbound & Outbound 전공교육 프로그램’, ‘MOOC 과정’이 있다. 글로벌 교육과정은 해외대학과 협약-연계해 복수학위제도, 어학 및 문화연수, 자율 해외연수, 교환학생 및 특별교환학생 파견을 운영하고 있다.

4) 기타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기타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① Global Issue 프로그램, ②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 ③ 외국인 학생 학습장려 프로그램이 있다. Global Issue 프로그램은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평화학술회의, 우리사회와 인류문명의 새로운 안목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데 기여하기 위해 출범한 세계적인 석학 특강, 미래문명에 관한 포럼 등을 운영한다.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펜실베니아대, 베이징대, 모스크바대, 리츠메이칸대, 프린스턴대, 유엔 경제사회국(UN Department for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세계 NGO 협의체 CoNGO(The Conference of NGO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와 함께 하는 국제적 협동과정으로, 인류, 문명과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 특화된 강의와 Civic Service 인턴십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 학습장려 프로그램으로는 다국적 학생을 위한 학습환경 조성, 문화교류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학습커뮤니티, Global Buddy, KHU: Learning Global 6+ 등을 운영하고 있다.

5) 융합 교육 프로그램

경희대학교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은 2009 년에 새로 설치된 학과로, 종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정 전공에 소속되지 않고 입학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학과 학생들은 인문학, 경영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 학과의 해당 전공은 ‘글로벌리더 전공’과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희대의 학문 간 존재하는 융합 트랙(학과)은 더 많이 존재한다. 융합트랙으로는 철학-문학트랙, 생활과학융합트랙, 무용-한의학트랙, 글로벌비즈니스트랙, 문화콘텐츠트랙, 사회환경시스템융합설계트랙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비록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들이 확대하고자 하는 언어 역량, 국제 협력 네트워크, 융합 교육의 기반은 앞으로 경희대학교가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 대학원의 교육과정

국제대학원 과정은 석박사 과정으로 구분되고, 국제통상&경제협력전공, 국제개발협력전공, 국제경영전공, 국제관계전공 등을 운영 중이다. 국제대학원의 대표적인 특별 프로그램인 국제개발컨설팅 석사과정(MIDAC) 프로그램에서는 ① 국제 컨설팅 역량개발, ② 국제개발 협력, ③ 국제개발 사업 실무, 프로젝트의 모듈로 구분하여 세계시민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이 진행된다. 이외에 세계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교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화와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전공들이므로 충분히 다루고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 보인다.

라. 주요 조직

경희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요 조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II) 국제화 사업단과 국제개발협력 관련 부설 연구소 및 연구센터다.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국제화 사업단은 융합형 글로벌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여, 공간 빅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단(지리학, 사학),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국제학, 정치외교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부설 연구소와 연구센터로는 대표적으로 ①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② 동서의학연구소, ③ 동서간호학연구소 등이 있다. 경희대학교는 이 세 가지 연구기관들이 세계시민교육과 포괄적으로 관련된 지구촌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들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세부 활동은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들의 갖추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학문적, 실무적 교류가 경희대학교가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현재 ‘동티모르 커피공정무역 자립화를 통한 빈곤퇴치 모델구축’ 프로젝트, ‘베트남 광찌성 행복프로그램’, ‘2015 년도 아카데미 협력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서의학연구소는 전통의학 관련 정부정책과정에 참여하며, ICTM(전통의학국제분류작업)을 포함한 세계보건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전통의학 관련 트레이닝 코스를 제공한다.

동서간호학과는 중국, 대만의 간호학과 관련 기관과 교류해오고 있는데, 중국 중화호리학회, 대만 중국의약대학교 등의 기관들과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집담회 운영, 공동연구 수행 등의 협약 및 교류 활동을 비롯한 학문적, 실무적 교류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마. 학생활동

경희대학교에는 폭 넓은 학생활동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봉사활동으로는 경희지구사회봉사단이 있는데, 자발성 및 지속성, 상호성, 지구시민성, 연구·교육·실천의 창조적 결합, 전공 연계 및 학제 간 융·복합이라는 5대 원칙하에 대학다운 사회공헌 활동을 지향한다. 시민단체, 지자체, 기업 봉사단, 언론, 정부기관과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와 유엔, 한국국제협력단, 국제 시민단체, 해외 대학과의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선 후마니타스 칼리지와의 수업 연계 실천 프로그램인 Global Service Learning Program, 유엔 및 비정부간 국제조직(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과 연계한 해외봉사교육과 학점 교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인 Kyung Hee Global Service Collaborative Program, 대학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구축한 상호 협력 프로그램인 Community Partnership Program 등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모금 운동, 전 세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글로벌 포럼 등을 추진 계획으로 세운 Kyung Hee Global Praxis 60, 해외 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인 Magnolia Global Peace Village,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는 Global Medical Service Corps 등이 있다.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유엔/국제기구 파견 인턴십 프로그램과 WCC(Project to empower World Civic Competence) 프로그램이 있다. 유엔/국제기구 파견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K-MOOC 강좌 “세계시민교육, 지구공동사회의 시민으로 살기”는 세계시민교육 개념과 실체를 비롯해 인권, 다문화, 환경, 자원, 정보화 등에 관련된 지구촌 공동문제를 다룬다.

WCC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해외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희대를 대표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적 이슈, 공정과 정의, 민주시민과 사회참여, 공동체 삶과 문화,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민주 시민적 삶에 대한 동기 및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 방학 중에는 프로젝트 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모의회의나 토론, 캠프 등의 대회 및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뿐 아니라 국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관련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모의유엔사무국’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세계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활동과 이에 대한 대학 차원의 폭 넓은 지원은 재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까지 접근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국제경험을 쌓고 국제시장에 나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시민의식을 갖추고 세계적인 공헌을 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학생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특징

경희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세계평화와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글로벌 관점을 지향하며,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희대학교는 설립자와 총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목표를 설립하고 철학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경희대학교는 전반적으로 top-down 의 형태로 세계시민교육을 지향,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가 구체적으로 교육 방침과 내용에 구현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선 경희대학교는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과정이라는 매우 탄탄한 교육과정의 토대에서 볼 수 있다. 경희대학교는 후마니타스 교양교육 과정에서 시민교육과 배분이수교과영역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요소를 전부 다루고 있는데, 특히 시민교육 교과와 신설과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이론학습과 현장실천의 결합모델을 강조하여 글로벌 관점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책임감 및 문제해결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하나 검토과제가 있다면 바로 경희대학교의 분리된 캠퍼스가 교양교육에 있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희대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캠퍼스 간에 연계하는 의미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경희대학교는 이 탄탄한 교양교육의 토대를 기반으로 전공교육 과정과도 잘 연계하여 방사형 모양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부과정에서는 2009년에 새로 설치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교육과 포괄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교육을 구현하고 있다. 국제대학원에서는 국제화 전공교육 과정 안에 글로벌 리더 전공, 글로벌비즈니스 전공, 국제개발협력 전공 등 다양한 융합교육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희대학교는 체계적인 연계체제 속에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연구기관과 학생활동 프로그램도 매우 탄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된다.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동서의학연구소, 동서간호학연구소를 통해 교육, 연구, 실천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과 포괄적으로 관련된 지구촌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학생활동은 대표적으로 경희지구사회봉사단과 인턴십 등의 현장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모의유엔사무국과 같은 대회 및 행사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가 학생활동과 관련해 세계시민 의식과 역량에 중점을 둔다면,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대학교는 또한 대학발전 전략으로 국제화와 세계시민교육을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경희대학교는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을 통해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요 목적을 두어, 시공간 빅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단과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탐색적인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바로 K-MOOC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하는 것이다. 유엔/국제기구 파견 인턴십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강좌를 운영하여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문제해결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시민교육은 앞으로 K-MOOC 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희대학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을 기반으로 전공 교육과정 그리고 국제화 및 학생활동 프로그램과 잘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한다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양교육의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유교적 접근

1. 개요

618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1398년 조선조 개국 후 설립된 중앙의 최고학부인 성균관을 계승하는 대학교이다. 조선시대에는 전통적인 유학교육을 행해왔으며, 일제 강점기에 명륜학원, 명륜전문학원, 명륜전문학교, 명륜연성소를 거쳤고, 해방 후 명륜전문학교가 다시 부활했고 1946년에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균관대학교는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교시 아래에 설립된 학교이다. 인의예지는 유교의 근본정신을 말해 주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는 마음과 행동과 옳음과 슬기의 본질을 나타내 주고 있는 4가지 덕목이다. 이는 인간의 마음은 모두 착하다는 성선적 본질을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 교육은 결국 이 성선적 마음의 본질을 열고 싹트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이러한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학으로의 발전을 추구하며,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며 글로벌 창의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2. 중점사항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성균관대학교의 건학이념은 수기치인이며, 교육 목표는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적 인재로서 성균 인재를 육성’이다. 목표 및 이념은 교육을 통해 세계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6.6〉 성균관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러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글로벌 창의 리더’이며, 7 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7 대 핵심 역량은 글로벌, 소통, 인문, 학문, 리더, 창의, SW(Smart Way) 역량이며 특히 ‘글로벌 역량’은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초 역량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역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글로벌 역량

- 글로벌 환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 세계무대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 다양한 글로벌 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균관대학교는 글로벌 리딩 대학을 지향하며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어 강의 및 외국인 학생, 교수 비율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성균관대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VISION 2020 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6.7〉 성균관대학교 발전 계획 'VISION 2020'

이러한 VISION 2020에서는 5대 전략과제로 ① 교육혁신, ② 교수 및 연구역량 강화, ③ 대학의 브랜드 파워 제고, ④ 대학 인프라 혁신, ⑤ 경영혁신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표 및 전략 과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ACE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 및 과제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① 교육혁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중장기 교육혁신 전략은 Global Professional Education으로 구체화되며, 이는 전문성, 창의성, 융합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글로벌 창의 리더'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 글로벌 창의 리더

-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인재
- 인성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사고 및 융합 역량을 겸비한 인재
-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리더

한편 이러한 Global Professional Education에 맞춘 대학의 교육 특성화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학과 간 장벽과 편향된 학문적 성장 → 개방형 융합교육 플랫폼 구축
- 교수 중심의 일방적 교육 → 학생 중심의 창의 융합교육
- 교육의 사회적 적실성 부족 → 공유가치 창출과 지역 사회 및 글로벌 사회에 기여

이러한 특성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가치와 이슈를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나. 학부 교육과정

1) 교양 교육과정

성균관대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합리성, 책임성, 도덕성을 겸비한 인성 함양
- 비판적 사고에 기초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
- 지도적 자질의 필수 요건인 공동체 정신 함양
-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판단 능력 함양
- 글로벌 환경과 다원주의 사회문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함양
- 다양한 학문적 요소를 포함하는 융복합적 지식 함양
- 전문 분야에서 지적 수월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그 분야의 광범위한 기초지식과 기초학업능력 함양

교양 교육과정은 이러한 목표 아래에 구성되어 있으며, 성균 인성영역, 중점 교양과목, 균형 교양과목, 기초 학업과목의 4 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중점 교양과목’ 영역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며, ‘균형 교양과목’ 영역에서는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균형 잡힌 안목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점 교양과목 영역과 균형 교양과목 영역에 글로벌 문화 및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양 교과목들이 존재한다. 그밖에 2010 년부터 ‘글로벌 문화 체험 세미나’라는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다문화 분위기에 친숙해지고 국제적 감각을 익힘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전공 교육과정

성균관대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형 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학문 분야별(전공/학과) 교육목표 및 교육역량에 따라 국제어 강의의 의무적 개설 목표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공 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경영교육 인증(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AACSB), 공학교육 인증(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건축학 인증, 서울 어코드(Seoul Accord) 체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름 방학 기간에는 국제 하계 대학(ISS)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관련 연계 전공으로 비교 문화 연계전공, 글로벌 문화 콘텐츠 연계전공, 국제 통상학 연계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 대학원 교육과정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국제대학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동아시아학과,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등 동아시아학술원 산하 학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학과들이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관련 활동의 여부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계체제가 달라질 것이다.

라. 주요 조직

성균관대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조직 및 사업단으로는, 대학교육혁신센터, 국제처, 학부대학, ODA 연구소, 동아시아 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등이 있다.

1) 대학교육혁신센터

대학교육혁신센터는 2014 년 8 월에 설립되어, 글로벌 창의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학생중심 개방형 융합교육 플랫폼 구축, 학부교육 패러다임 질적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균관대형 대학교육 혁신모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대학교육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세계시민교육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프로그램 : ACE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팀 기반으로 해결할 문제를 찾아서 도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결과물 산출

- 창의리더 올림피아드 : ACE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팀 기반 문제 해결 콘테스트
- 융합기초 프로젝트 : CK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팀 기반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 글로벌 인텐시브 워크숍 프로그램

이 외에도 개발도상국 및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제 2 세계 및 제 3 세계 국가로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7+1 글로벌지역전문가프로그램, 인바운드 프로그램과 아웃바운드 프로그램 및 해외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각종 교환학생 제도, 국제하계학기(International Summer Semester), 기타 학생교환 프로그램(Erasmus, 캠퍼스 아시아 등) 등을 대학교육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2) 국제처

국제처는 대학의 해외대학 및 기관과의 일반 학술교류 협정 및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환교수, 교환학생 파견 및 공동 연구를 실행하는 등 대학의 국제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핵심부서는 국제처 국제교류팀이다.

3) 학부대학

학부대학은 성균관대 교양기초 교육을 총괄하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적응 프로그램 및 학사 지도 업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담 교강사 임용 및 운용, 학사 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대학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의사소통,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며 세계시민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ODA 연구소

성균관대 ODA(국제개발협력) 연구소는 ODA 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0 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5) 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학교는 유학사상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학을 포함한 동아시아학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2000년 3월 설립되었다. 동아시아학술원에는 그 산하에 4개의 연구소(유교문화연구소, 대동문화연구원, 성균중국연구소, 서베이리 서치센터)가 있으며, 교육조직으로 일반대학원의 동아시아학과,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을 운영하고, 자료정보센터로 존경각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성균중국연구소는 한국의 중국 연구의 전문 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연구의제를 개발하고 탄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관학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한글과 중문으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중국 연구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출판 사업을 통해 중국연구의 대중화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마. 학생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학생활동으로는 GSN HI-Club(Help and Information Club), 한온(HAN ON), 글로벌 버디, 기타 각종 해외봉사 등이 있다.

먼저 GSN HI-Club은 국제처 소속의 학생단체로서 대학의 국제화 업무를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교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기마다 기획하고 제공하는 단체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버디 프로그램(SG MAPLE), HI-Day Tour, Global Night, International DAY, Korean Movie Night, World Food Festival 등이 있다.

한온(HAN ON)은 2010년 설립되어 매년 국제 포럼 및 국제 교류 행사를 운영하는 학생단체로, Everything on Korea라는 모토 아래 한국 학생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멋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버디는 학부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참여 한국인 재학생의 글로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신입생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스터디그룹 활동, 외국학생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경험 축적 등 자유로이 활동 분야를 선택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타 해외봉사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글로벌 봉사단 블루버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에 참여하고 만달고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몽골해외봉사단, 미얀마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리더십 과목 연계 해외봉사활동,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등이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과 교육으로는 얻지 못했던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3. 특징

성균관대학교는 인의예지라는 유교의 근본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는 마음과 행동과 옳음과 슬기의 본질을 나타내 주고 있는 네 가지 덕목을 21 세기 인재상과 세계화를 위한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글로벌 역량과 글로벌 창의 리더를 내세워 대학의 교육 방향이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발전 전략으로 대학 랭킹 중심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 성균관대학교는 전반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으로 추구하고, 하향식 형태의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살펴본다면, 성균관대학교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7 대 핵심역량의 하나로 글로벌 역량을 선정하고 이에 알맞은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교양 교육과정은 글로벌 관점과 이해를 추구하는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보이나, 전공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은 불분명하다. 성균관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의 연계체제를 보완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특히 대학교육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ACE 사업과 CK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 프로그램과 창의리더 올림피아드 그리고 융합기초 프로젝트 등이 존재한다. 성균관대학교이 ACE 사업과 CK 사업을 세계시민교육과 더욱 더 잘 연결하여 운영한다면, 성균관대학교의 유교적인 교육 방침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화여자대학교 : 글로벌 여성지도자를 지향하는 체계적 세계시민교육

1. 개요

1886년 5월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부선교사 메리 f.스크랜튼 여사가 한 명의 학생으로 수업을 개시하면서 시작된 이화학당은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로 설립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21세기를 맞아 이화의 캠퍼스는 차세대 여성 리더를 양성을 위한 최고의 지성공동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동서양을 잇는 여성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성리더십 관련 활동과 다양한 국제화 활동을 해왔다(이화여자대학교, n.d.). 이화여자대학교는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지도성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중점사항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 목적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 및 진·선·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학술의 깊은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밀한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여성을 양성함’이다. 또 다른 교육 목적으로 ‘건전한 인격과 교양 및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진취적인 학문 연구와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 함’으로 설정해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교육목표를 설정했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융합적인 전문 지식을 갖추고 미래 세계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인격과 교양을 갖춘 ‘지혜로운 인재’ 양성
개인과 사회, 세계 속에서의 다양한 실제 경험과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하는 인재’ 양성

미국인 선교사 메리 F.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1886 년에 창립된 본교의 영어 표기는 ‘Ewha Womans University’인데, ‘Womans’라는 표기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꾸어 인재로 기른다는 교육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래적 인재상, 즉 ‘THE 인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T: 주도하는 인재; Telos 는 목적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로서, 뚜렷한 목적 의식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전문 지식을 학습, 설계, 확장하여 세계를 주도하는 인재를 함의

H: 지혜로운 인재; Hokma 는 지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로서,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크마(HOKMA) 교양대학을 상징. 폭넓은 교양 지식과 성찰을 통해 인격을 함양하고 공동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인재를 함의

E: 실천하는 인재; Experience 는 사회적 경험과 실천 중심의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봉사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실천적 인재를 함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실천하는 인재의 핵심역량에서 볼 수 있다.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5 대 핵심역량은 바로 지식탐구역량, 창의융합역량, 문화예술역량, 공존공감역량, 세계시민역량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시민역량을 ‘국제 사회에서 소통하는 시민의식과 언어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국제문제를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역량’이라고 설명하며, 또 세계시민역량과 관련된 세부역량을 ‘외국어 소통 능력, 문화적 포용력, 국제적 시각’으로 규정하여 세계시민의식과 그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의 중요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화정신에 뿌리를 두고, 20 세기 말부터 세계화, 정보화 흐름의 본질과 특징을 분석하여 교육목표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화 21 세기 발전계획(1994)’, ‘새천년 발전계획(2000)’, ‘이화 VISION 2020(2014)’로 진행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창조적인 인재,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인재상 설정에 있어서 계속 일관성 있게 발전되어온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의 발전계획인 ‘이화 VISION 2020(2014)’는

글로벌 융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조직, 인재, 인프라 혁신 뿐만 아니라 이화 DNA(Dream & Achievement) 네트워크 구축, 이화 글로벌 브랜드 파워 제고 등 국제화 활동을 더욱 더 추진하고 있다.

나. 학부 교육과정

1) 교양 교육과정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은 ① 기초교양, ② 핵심교양, ③ 일반교양으로 나뉜다. 2013 년 이후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대폭 증가하면서 5 대 핵심역량 중 하나인 세계시민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도 개설되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양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기초교양과목은 주로 외국어 과목으로, 대학영어, Writing and Discussion,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등의 교과목이 있다.

핵심교양과목은 국제이해 교육의 과목으로, 글로벌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 글로벌 사회변동과 쟁점지역 연구,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 여성, 현대 중국의 사회와 문화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은 융복합적 토대위에서 세계시민역량의 계발을 추구하고 있고, 국제진출형 세계시민역량의 개발을 강조한다. 전공영역의 교과와 연결이 느슨한 편이다.



〈그림 6.8〉 교양 교육과정 체계와 특징

2) 전공 교육과정

이화여자대학교의 전공 교육과정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융합적인 전문지식을 갖추고 미래세계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 특성화로 T 트랙제를 도입, 인턴십 제도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공 교육과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국제진출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직 교양영역의 교과와 연결이 느슨한 편으로, 부채살 모양의 교양과

① 국제·국내 교육과정 인증

-미국경영교육인증(AACSB), 공학교육인증(ABEEK), 건축학인증 등 국제교육인증 에 맞는 전공 교육과정

②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62 개국 808 개 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을 통해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

③ 외국어문학 전공생의 7+1 Abroad Program

-외국어문학전공 학생들을 8 개 학기 중 한 학기 동안 해당언어 사용 국가의 대학 에 파견하여 18 학점 이수

-7+1 해외연수 장학금으로 지원

④ Faculty-Led 프로그램

-전공별로 지도교수 인솔하에 해외 교육기관에서 체험 학습

⑤ 영어강의 확대개설 및 이수 강화

-전공과목에서의 영어강의 확대

⑥ EGPP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개발도상국 여성들을 선발해 전액장학금과 생활비 제공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양성

-2006 년부터 운영하여 지금까지 39 개국 193 명의 개발도상국 여학생들이 입학하여 98 명의 졸업생 배출

또 이화여자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전공의 방식으로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부 수준에서는 국제학부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001 년 3 월 국내 대학 최초로 설립된 국제학부는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며, 국내 최초의 영어 전용 학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제학 분야에서 선두적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학부의 세부전공으로는 국제학전공과 글로벌한국학전공이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Globalization and Cultu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Governance, Global Challenge I&II, Contemporary Issues in East Asia 등이 있다.

3) 비교과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은 크게 미래설계 영역, 봉사 영역, 글로벌 영역의 3 개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공 및 교양과목과의 연계, 확장을 통하여 이화인의 다면적 성장에 기여한다.

미래설계 영역: 학년별 경력개발 책임지도 교수제, 취,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화 커리어 르네상스 인증, 커리어 역량 CQ 측정 등

봉사 영역: 국내외 교육, 건축, 의료 봉사와 외국인 학생의 한국 적응 도우미, 장애학생 교육 복지 최우수 대학(2014년)으로서의 활동

글로벌 영역: 학생 자기주도형 해외 탐사 프로그램, Ewha-HCAP(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 프로그램, 자기 설계 해외 탐사, 통합 설계 해외 탐사

글로벌 영역 관련 비교과 교육과정은 바로 세계시민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세계시민의식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대학원 교육과정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은 1997년 3월에 출범하였으며 각종 평가에서 국내 최고의 국제대학원으로 공인되어 왔다. 국제대학원은 국제통상, 국제경영, 개발협력, 국제관계 등 국제학 분야와 한국문화, 한국어교육 등 한국학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연구소, 국제경력개발센터 등 산하기관과 국제교류처, 국제정보센터 등 교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및 해외의 교육·연구·정보자료를 연결하는 인적·물적 연계조직을 구축하여 국제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여성을 배출하고 있다.

1) 국제학과

국제대학원 소속의 국제학과에서는 다학제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제학과의 세부전공은 네 가지로, 국제통상, 국제경영, 개발협력, 국제관계이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대학원의 학생들은 다음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 International Conflict Management
-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 International Legal Studies
- Women and HRD

국제학과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 외에도 세계적인 기업과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운영되는 세미나 Distinguished Global Lecture Series,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리더십 관련해 Academic Writing and

Presentation Workshop 과 Professional Leadership Workshop 을 필수과정으로 제공한다. 또 장기 및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한국학과

한국학과는 1982 년 3 월 국내의 정규대학 가운데 최초로 한국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학과로, 한국학과에서는 한국학에 관한 자료 연구, 한국 문화와 사회,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한국학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며 이와 관계되는 제반 학문을 학제 간 접근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하여 폭넓게 공부하게 된다. 한국학과와 세부전공으로는 한국문화 전공과 한국어교육 전공이 있다.

3. 특징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학교육의 전통과 문화, 즉 섬김·배움·나눔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자산이 세계시민교육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목표, 교육의 방향, 인재상에서 명시적으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이를 위한 교육을 설정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하향식이고 체계적이며 초학문적인 연계체제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설계 및 운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을 하기 위해 국제학과와 국제대학원 등 매우 강한 조직적 지식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양과 전공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운영방침 또한 훌륭하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국제화 프로그램은 세계시민교육과 체계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세계시민교육이 대학이 지향하는 리더십의 중요한 의식적인 기초로 만들어졌다. 세계시민교육을 바탕으로 해외진출형 글로벌 인재 육성, 특히 글로벌 여성리더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EGPP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의 지도자급 여성을 불러 글로벌 여성리더로 교육하는 세계의 여성교육의 허브라는 전략과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 자기주도형 해외 탐사 프로그램, 자기·통합 설계 해외 탐사 등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의 기초가 되는 지(知), 정(情), 의(意)의 인성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명확히 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교육 운영 그리고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화여자대학교의 본부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보인다.

경인교육대학교 : 다문화시대의 세계시민 교사교육

1. 개요

1945 년 일제강점기의 끝으로 식민주의적 잔재와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교육을 정립하기 위해 1946 년에 설립된 교원 양성소가 경인교육대학교의 전신인 개성사범학교이다.¹⁵ 21 세기의 경인교육대학교는 세계시민이라는 새로운 교양인을 목표로 하는 국립 초등교원양성대학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인교대는 대학교가 위치한 상황과 교육대학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교육대학교는 다문화 학생들과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모여 있는 경기도의 지역특성에 맞게, 대학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 조직, 학생활동과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 그리고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거점대학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한국의 국제화에 특화된 다문화교육이 중심이 되는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시민교육의 접근을 보여준다.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차원에서 세계시민의식을 지향하고 한국의 초등교원 양성에 특화된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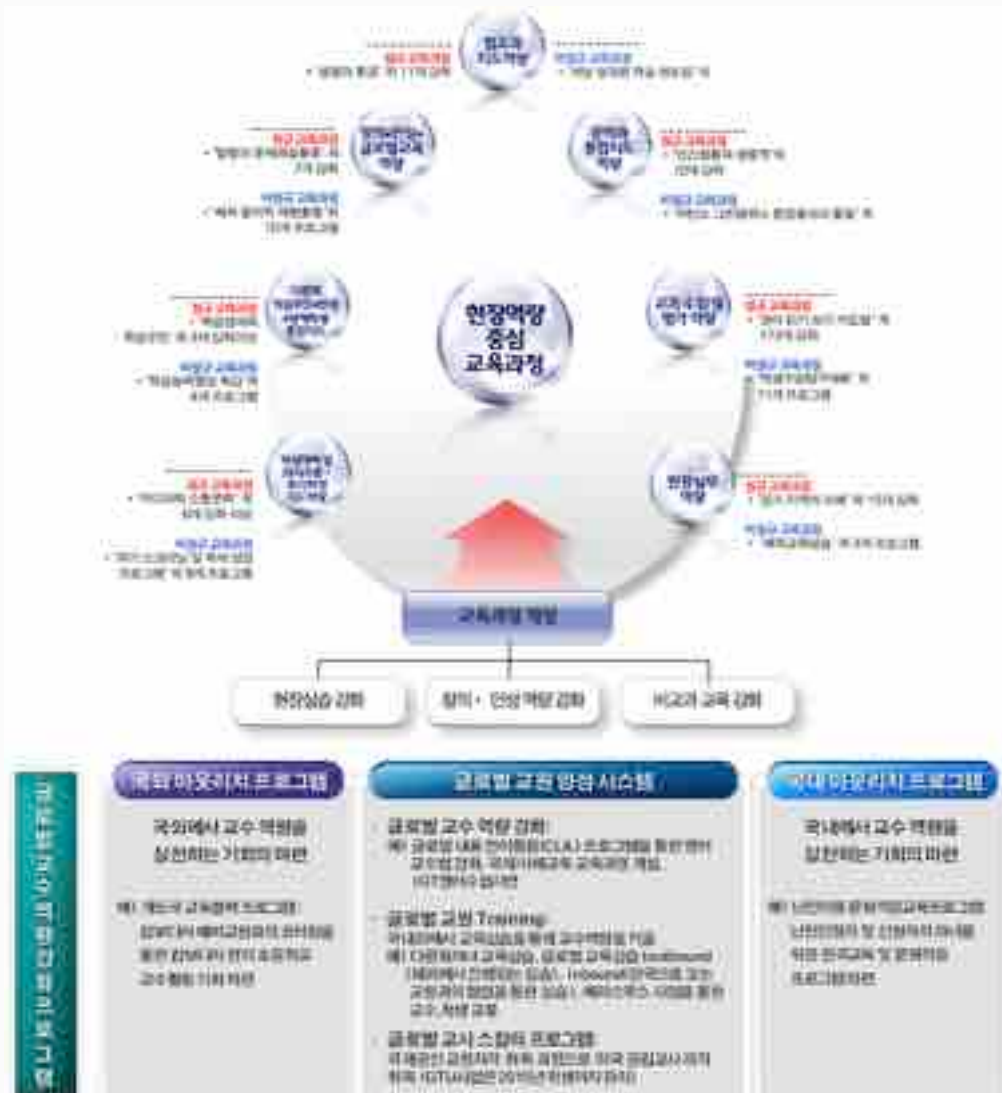
2. 중점사항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¹⁵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96903>

경인교육대학교는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세계시민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창의·인성을 갖춘 초등교원 양성’이며, 이것은 ‘글로벌 사회에 걸 맞는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하고 글로벌 교수 역량을 겸비한 초등교원’이라는 인재상과 연결된다. 또 이 인재상의 핵심역량으로 ‘교직수행역량’, ‘인성역량’, ‘글로벌 교수역량’을 설정했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글로벌 사회를 준비하는 글로벌 창의·인성 교육의 허브 구축’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품성, 지역사회·국가·지구촌이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가치와 글로벌 역량을 겸비하는 초등교원을 양성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인교육대학교는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차원에서 세계시민의식을 지향하고 한국의 초등교원 양성에 특화된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지구촌에 필요한 다문화/평화/통일교육이 중심이 되는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워크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10〉 경인교육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나. 학부 교육과정

경인교육대학교의 교육목표와 학부 교육과정과의 연결고리는 명확하다. 교양교육과정은 전인적 인격과 폭넓은 교양 발달에 기여하고, 그 다음 교직 및 심화 등 전공과정에서 전문성을 발달시키며, 문화와 언어강좌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운영된다. 교육과정 구조는 좋지만, 세계시민교육을 관련한 내용적인 주제로서의 연결성은 약해 보인다.

1) 교양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은 총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는 ① 기초 소양과정, ② 핵심 과정, ③ 경인 중점 과정, ④ 간학문적 융합과정이다. 학생들은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양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경인교육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언어, 문화, 환경, 사회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어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간의 연계는 불분명해 보인다.

- 기초 소양과정은 자기 능력 개발과 인성 발달에 중점을 두고, 교과목으로는 문학과 예술 읽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현대 사회와 윤리 문제, 생활과 컴퓨터, 영어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 핵심 과정은 지식의 융합 및 탐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대중문화의 이해, 미디어와 소통 문화, 인간생활과 생물학 등의 교과목을 제공한다.
- 경인 중점과정은 초등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 및 경험 중심으로, 아동 물리 여행, 놀이 과학, 놀이 공작 여행 등의 교과목이 준비되어 있다.
- 간학문적 융합과목은 시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지구촌 생존 전략, 다문화 교육의 이해, 다문화 사회와 종교 등을 포함한다.

다. 대학원 교육과정

경인교육대학교의 교육전문대학원에서는 글로벌융합인재교육이라는 석사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전공 아래에는 다양한 세부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 다문화교육 전공이 눈에 띈다. 다문화교육 전공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연구자와 실천가를 양성하고,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면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도 수여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 전공의 주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교육 전공의 주요 교과목: 다문화교육론, 다문화교육의 철학적 이해, 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연구, 다문화교육 국제비교연구, 다문화가정 생활문화비교론, 다문화교육과정개발, 이중언어교육론, 예술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콘텐츠개발, 다문화연구방법론, 다문화교육정책론, 다문화교육연구 세미나, 이민정책법제론 등

이와 같이 경인교육대학교가 교육전문대학원에서 대학교육의 중점 주제인 다문화교육을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부 교육과정이 세계시민교육 중심으로 체계화된다면 교육전문대학원에서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맞춘 세계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보인다.

라. 주요 조직

경인교육대학교의 대표적인 세계시민교육 관련 조직은 네 가지로, ① 국제교류센터, ②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 ③ GTU 사업단, ④ 연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인교육대학교의 조직 인프라는 훌륭해 보이며,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은 대학이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1)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센터는 경인교육대학교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추진 및 학생 교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인교대의 국제화 활동은 다양하나, 국내 다른 대학들과 대동소이하다. 이는 즉 global exposure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교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은 국내 재학생과 외국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국내 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자매대학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하/동계 방학 기관 중 해외교육실습 프로그램, 단기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외국어 학습 동아리 등이 있고, 외국 학생을 위해 자매대학의 인바운드 교환학생 프로그램,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의 사범대학 재학생을 위한 국내 교육실습 프로그램, 외국 교환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 운영 등 다양한 한국에서의 수학 및 문화 경험 중점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교류센터는 세계 각국의 교원양성대학 및 교육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위와 같은 학생 교류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공동개발, 연구 협력 등 전략적 제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의 자료에 의하면 총 12 개국의 40 여개 기관과 협력을 체결하고 있다고 한다. 주요 국외 교육 협력 기관으로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캄보디아 등 폭 넓은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2)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

경인교대의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은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아래와 같다.

- 다문화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 부모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
-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및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 주류사회 학생들을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주류사회와 다문화가정 연계 사업
- 다문화교육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언
- 다문화교육 공모 사업 추진
- 다문화교육 저서 및 교재 개발 사업
-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연구 진행 등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은 다문화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교육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등을 통해 경인교육대학교의 중심인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인교대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 및 네트워크의 기반은 훌륭하고,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3) GTU 사업단

경인교육대학교는 2012 년 7 월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3 년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GTU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GTU 사업단 조직의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 GTU 사업단: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 추진
- 사업추진위원회: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 지원
- 사업추진팀
 - 교육전문대학원 해외복수학위 운영팀: 대학원 중심 글로벌 교원 체제구축,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
 - 국제교류센터: 해외교육실습, TIE 연수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GTU 사업단: 다문화 교육봉사, 각종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행정지원팀
 - 기획팀: 세부 사업의 계획 및 운영 총괄
 - GTU 사업단: 세부 사업의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 관리
- 산학협력단: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 교내협력기관
 - 교무처: ‘국제이해 및 다문화교육’ 강의 개설 및 학사관리 제반 사항
 - 국제교류센터: 해외교육실습, 해외교육봉사 및 난민적응교육 추진 및 운영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해외 대학과 연계한 온라인 강좌 지원

GTU 사업단의 협력체제 간의 활동 또한 다양하다. 사업단은 지역·국가 교육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교원양성 사업 평가 및 효과 증진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와 난민적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자매 학교와 글로벌 교육과정 및 교육실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 교육기관과도 해외교육실습 및 교육봉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학 교육연구기관과 글로벌 교육 선진화 사업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며, 지역 연구소와는 세부사업 공모 및 공동 추진에 힘쓰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다문화 특화 대학으로서 GTU 사업을 통해 교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에 중심을 두는 것은 좋으나, 세계시민의식 차원에서의 활동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경인교육대학교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좋은 협력활동을 보여줄 수 있어 보인다.

4) 연수원

경인교육대학교의 연수원의 활동은 국내 다른 교육대학원과 비슷하다. 교원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교사 학습연구년제 연수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세계시민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는 현직 교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점이 있다.

마. 학생활동

1) 실습 프로그램과 체험 및 봉사활동

경인교육대학교는 글로벌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 우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워크숍, 현지 초등학교 교육실습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체험 및 봉사활동으로는 대표적으로 해외교육봉사,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 호교교대 대학생 단기 교류, GTU 글로벌 멘토링 등이 있다. 이러한 학생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받고 문제해결역량까지 기를 수 있어 보인다.

2) 국내외 아웃리치 프로그램

경인교육대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 난민, 유렵권 및 개도국 대학생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는 <경인교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 적응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기초 교수 역량: GTU CLIL(Content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프로그램: 내용 영어 통합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글로벌 다문화 교수역량 강화사업>이 있고, 해외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경인교대-캄보디아 씨엠립 교육대학교 예비 교원들 간의 교육 협력 코칭 워크숍>, <ERASMUS 재단의 지원을 통한 유렵권 교원 양성 대학과의 글로벌 학생 및 교원 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교원 자격 과정: 글로벌 교사 스칼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특징

경인교대는 대학이 위치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교육대학교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에서 세계시민의식이 바탕이 되는 초등교원 양성을 비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 전체로 봐서는 하향식이나 상향식도 아닌 형태로, 모든 교육내용과 교육활동, 학생활동의 프로그램에 있어 상호체계적인 연관성은 약해 보인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대학의 입장정리나 관점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다문화 교육에 초점을 둔 글로벌 프로그램과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해 연수원,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이 훌륭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위주의 봉사활동과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경인교대는 다문화 특화 대학으로서 GTU 사업을 통해 교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역량 중점을 두는 것은 좋으나 세계시민의식 차원에서의 활동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경인교대의 GTU 사업단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프론티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

경인교대의 실제와 특징을 고려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대학의 시스템이 다문화교육 속에 세계시민교육으로 초점이 잡혀진다면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관성과 유기성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학교 : 인성중심 · 지역기반 · 문화매개형 세계시민교육

1. 개요

조선대학교는 호남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학이며, 지역민의 성금으로 1946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서 그만큼의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청년 유출, 소외계층 증가, 낙후된 지역발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선대학교는 인성중심, 지역기반, 문화매개형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구촌사회에 추구하는 인재양성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2. 중점사항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조선대학교는 ‘화합과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학’이라는 비전을,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건학이념 아래에 다음과 같은 4대 교육목표를 갖고 있다.

- ① 개성을 중시하는 창조적 인재양성
- ② 국제적 식견을 겸비한 전문인재 양성
- ③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회지도자 양성
- ④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인재 양성

이러한 목표 아래에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은 ‘함께형 인재양성’이다. 이러한 ‘함께형’ 인재는 3C 핵심역량(자기주도, 창의융합, 배려봉사)을 갖춘 인재이다. 이러한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인재상으로 볼 때에 조선대학교의 교육은, 세계시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봉사 정신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화합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함께형 인재양성’은, 기존의 많은 대학들이 추구해온 ‘홀로형’ 교육과 문화만으로는 세계시민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제시된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대학교의 인재 육성 교육의 핵심은 5149 교육정책인데, 이는 49%의 전공 교육도 중요하지만 51%의 기초교양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기반하여 함께형 인성프로그램과 다문화

융합지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인성함양을 위해 공감과 시민사회, 인간과 인성, 함께형 리더십, 삼국지 인간학 등의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과목의 이론 수업과 연계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인 함께형 Co-Building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 타인배려 및 윤리의식 함양을 지향하여 세계시민으로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호남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화 전략으로 글로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컬은 ‘Global’+‘Local’의 합성어로, 변화하는 시대에 전공별 특성을 살리면서 진취적인 세계관을 함양하고 자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타지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국제화를 추구하는 조선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 방향과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컬 전략의 일환으로 지구화와 문화의 정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중국시장조서론, 다문화사회의 이해, 국제문화와 영화 등의 글로컬 전공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통교육과 문화콘텐츠 문화탐방팀, 문화예술사업 트렌드 알기 문화탐방팀 등의 글로컬 현장학습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선대학교 장기발전계획 2020’에서 나타났듯이, 특성화 전략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고령화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친화 및 봉사 중심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계속 전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사회정서적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학부 교육과정

조선대학교는 교양교육과정은 ‘함께형’ 인재의 3C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추구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풀이하는’ 기초역량을 배양하며, 교양기초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및 다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함양 교육프로그램을 재편하여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은 총 4 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초 교양교육 강화, 기초학문 중심 교양교과 편성과 운영, 함께형 인성프로그램 내실화, 교양교육 시스템 정립의 4 가지 방향인데, 여기서 함께형 인성프로그램 내실화는 인문학적 소양 및 외국어 능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이러한 역량을 세계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역량 및 논리적 사고, 글쓰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국어 및 영어 교과목도 교재 개발 등을 진행했으며, 동서양고전강독 교과목 및 각종 제 2 외국어와 관련된 교과목 역시 글로벌 시대에 갖춰야 할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양교육과정 이외에 전공 영역에서도 문화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학부에는 아시아문화 연계전공이 있는데, 이 전공은 역사문화학과, 각종 제 2 외국어 전공, 경영학부 등의 총 10 개 학과가 참여하는 연계전공으로서,

문화프로그램기획자과정 모델과 아시아문화융복합 전공 모델이 융합된 전공이다. 이는 아시아문화 기획, 콘텐츠, 예술 공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학부 교육과정을 통해 조선대학교는 인성중심, 문화매개 측면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하여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좀 더 전략적인 연결이 필요할 수 있다.

다. 대학원 교육과정

조선대학교의 대학원에는 문화학도가 존재하며 이 역시 10 개 학문단위가 협동 과정으로 운영되는 통섭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인턴십 의무화, 국내외 유수문화기관과 업무협력 및 인적교류 사업 병행을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을 견인하고 연구 및 교류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학원 교육에서는 세계시민의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문화매개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학부 교육과 연계되고, 세계시민의식이 좀 더 잘 드러나도록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주요 조직

조선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은 기초교육대학이 전담하고 있다. 기초교육대학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규정하고, 학부교육과 교양교육을 통해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질 관리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그 하부조직으로 학부교육선진화센터를 두고 학부교육 선진화 방안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학력, 리더십역량, 글로벌교양, 의사소통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교육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CU Honors Program 이 있는데, 이는 다문화적 환경을 갖춘 글로벌 하우스(Global House)에서 실시하는 ESL 과 CSL(영어와 중국어) 강좌이다. 일상생활공간에서 2L(Living & Learning)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외국어 몰입 교육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국제화 역량 향상을 추구한다.

또 다른 조직으로는 국제문화연구원이 존재하는데, 이는 국제문화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국제문화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움, 강연회 등의 학술행사 개최, 국제문화연구, 외국문화연구 등 정기간행물, 단행본, 총서 등 학술지 발간, 국제문화관련 학연산 협동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국제문화연구원은 하부에

5 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러시아 및 CIS 지역 문화연구소, 다문화연구소, 문화콘텐츠연구소, 서양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소이다. 이러한 국제문화연구원에서는 2009 년부터 1 년에 2 회씩 국제문화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문화 이해 교육 및,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문화와 세계문화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기반 및 문화매개가 조선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의 개발협력사업단은 국내외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먼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은 개도국 대학 내 필요한 학과 구축과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선대학교의 경우 2014 년부터 몽골 민족대학의 간호학 및 보건복지전공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취약계층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은 문화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에 대한 체계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통섭적, 융합적 교육연구모형을 제시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연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산업체의 사업 다각화에 기여하여 관련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주요 사업 중 하나로 ACE(Asia Content & Entertainment) 컨퍼런스 & 아카데미 개최가 있다. 이 사업 역시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문화 교류도시로서의 역량강화 방안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브릿지 인재 양성사업단은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의 복지와 문화 자원들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해의 폐교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팀을 이루어 마을 주민들과 지역공동체를 재설계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남해 폐교 살리기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팀을 이루어 국내 소외지역에서 교육결합형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내외 마을 공동체 재설계 BEST(Bridge Education Self-directed Training) 캠프 등을 운영한다. 이는 국내 소외지역뿐만 아니라 대만과 방글라데시에서도 문화공감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지역활동가로서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대외협력처 국제협력팀은 국가별 안배를 통해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ISS(International Summer School), 셀프디자인, 국제봉사 등 다양한 외국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8 개국 164 개 대학과의 학생교류협정을 통해 교환학생, 복수학위,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활동으로는 해외체험연구 및 해외인턴십, 국제봉사,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일본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 밖에 유학생 모집의 체계화를 위해 현지에서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청도유학사무소나, 베트남 유학생 유치 및 홍보, 베트남 내 대학교·고등학교와의 교류 확대 등을 지원하는 베트남교류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각종 사업을 통해, 조선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계시민의식 강조 및 교과-비교과 간의 세계시민교육연계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마. 학생활동

조선대학교 역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각종 학생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우수학생 및 비교과 우수학생에 대해서 매년 30 명씩 해외 봉사현장 탐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초교육대학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 NGO 단체와 협력 하에 필리핀 부족마을 및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베트남 빈증대학과도 매년 30 명씩 협동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역시 기초교육대학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과의 일대일 멘토링 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도모를 위해 내국인 학생이 일대일로 멘토링을 진행하며, 주 1 회 평가회 및 간담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연말연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배려봉사 실천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한다.

방학 기간에는 Global Self Challeng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4 인 이상이 한 팀을 이루어 도전 국가에 10 일 이상의 도전 목표를 가지고 가서 목표를 달성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고 자기주도역량 향상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또한 도전 국가에서 직,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현지 학생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목표 달성 이외의 학습효과 및 역량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2014 년 이후에 현재 15 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 역시 기초교육대학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학교 안의 작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핵심 3C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기존에 야학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5 개 분야(장애인, 노인복지, 아동복지, 다문화가정)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각종 지역친화형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는 광주광역시와의 협약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3. 특징

조선대학교는 지역의 특성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이질적인 가정배경과 학업능력,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학교이다. 또한 지방의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나 배타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질성을 다양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역량 육성이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조선대학교에서는, 명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언급되지 않음에도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인정중심·기억기반·문화매개형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인 인정중심 측면을 보자면, 각종 인정프로그램 및 교과목을 통하여 세계시민에게 요구되는 타인에 대한 배려, 성실성, 윤리의식, 공동체 의식 함양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건학이념 및 추구하는 인재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프로그램은 세계시민으로서의 공감과 연대의식, 다양성 존중, 책임감 공유를 강조하는 사회정서적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있는 행동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인 기억기반 측면을 보면, 조선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지역적 특수성 및 기억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대학교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글로벌을 추구하며, 브릿지 특성화 사업,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초대석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기억기반의 세계시민교육을 단순히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상으로도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인 문화매개 측면에서는, 조선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문화를 콘텐츠로 삼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이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할 경우 이는 자칫 규범적, 교훈적으로 흐를 수 있다. 하지만 문화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교류하며 새로움을 창조하는 교육활동은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문화연구원,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 등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 호남의 지역적 특성과도 맞아 떨어진다.

조선대학교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대가 잘 갖춰진 만큼 이러한 토대 위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동대학교 : 인성교육과 융합교육의 토대 위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

1. 개요

한동대학교는 1995년 개교 이래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육과 캠퍼스의 국제화를 추진한 개신교계 사립 대학교이다. 한동대학교는 “배워서 남 주자”라는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인성교육과 창의융합교육 그리고 영성교육을 추구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한다. 한동대학교는 대학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명시적으로 체계적인 연계체제 속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엔 아카데미임팩트가 선정한 회원대학과 한국 최초 유네스코 지정 유니트윈 주관대학 등으로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동대학교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으로 지향하지만,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그리고 국제화 사업 차원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인성교육과 융합교육의 토대 위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2. 중점사항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한동대학교는 1995년 개교 이래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슬로건과 “배워서 남 주자”라는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I’자형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개교 시부터 국제화, 특히 국제개발 및 협력 분야에서 섬김과 나눔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했다. 이에 알맞게 대학의 발전계획으로는 VISION 2020를 수립하여 기독교대학, 교육중심대학/창의융합대학, 글로벌 대학, 인성영성 통합교육, 사회봉사, 재정행정 시스템이라는 총 여섯 가지 항목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한동대학교는 국제화 비전으로 ‘2020년, 국제개발 및 협력 분야에서 섬김과 나눔을 구현하는 글로벌 허브대학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화 교육의 목표를 ‘졸업 후 학생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취업, 창업, 진학’

등을 시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현장에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국제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세계시민 함양 교육이다. 이와 같이 한동대학교는 국제화 전략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핵심요소 중 하나로 설정했다.

현재상	대학 특성화 목표	VISION 2020 10대 사업	학부別に 특성화
	글로벌 대학	- 국제화 인프라 확충사업 - Global Friends Network 구축사업	- 세계시민교육 함양 - 국제거점협력
	- 창의융합 학제형 대학 - 학부교육 중심 대학	-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시스템 개발사업 - Global 특성화 연구역량 강화사업 -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 주수민재 선발 및 입시전략 개발사업	- 스마트 - 그린 - 글로벌비즈니스창업 - 문화콘텐츠
	기독교 대학	- 기독교대학 핵심 기반 강화사업 - 형식적이고 유보한 전통을 위한 영성교육 사업 - 교직원 핵심역량 강화사업 - 발전가능 모금사업	후원, 캠퍼스

〈그림 6.11〉 한동대학교의 교육철학과 특성화 방향

나. 학부 교육과정

1)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

한동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리더십학부에서 제공하는 글로벌시민소양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사업단 소속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글로벌 전문가교육으로 심화된다. 한동대학교는 특성화 사업인 “ICT 기반 글로벌 Creatinnovation(창조혁신) 인재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융합교육원 학부에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은 명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계를 보이고 있어 국내 다른 대학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지만, 한동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본 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방사형 구조의 교육과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은 총 5 개의 융합트랙에 10 개의 모듈로 운영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의 융합트랙과 모듈:

- 국제개발 융합트랙 - 국제개발, 국제경제개발 모듈
- 문화 간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 융합트랙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ICC 국제지역 모듈
- 글로벌 금융회계 융합트랙 - 글로벌 금융경제, 글로벌 재무/투자, 글로벌 회계 모듈
- 글로벌 ICT 전략 융합트랙 - 글로벌 ICT, 글로벌 전략마케팅 모듈
- ICT 국제 경영(Global Management) 융합트랙 - ICT GM 모듈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의 교과과정은 대표적으로 ① 코어과목, ② 융합설계 과목, ③ c-Lab 으로 나뉜다.



〈그림 6.12〉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 교육과정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 교육과정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① 세계시민교육 ② 개방형 과정 ③ 협동 과정 ④ 분야 특정을 말한다.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바로 세계시민교육이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은 전공 필수 과목인 ‘코어과목’으로 글로벌 코어와 ICT 코어 교과목을 제공하며 글로벌 코어에서 바로 글로벌 시민소양과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한동인성교육, 사회봉사, Developing Leadership for a Global World, 세계문화의 이해, Global Engagement Project, 외국인인을 위한 글로벌 문화체험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개방형 과정을 통해 정규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비정부기구·국제기구·지역 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들과 개방적으로 협력하여 MOOC 등 온라인 과정을 오프라인 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과정 속에서 융합설계 과목은 제 1 전공과 연계하여 융합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학생들이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 전공이 지향하는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를 위한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c-Lab 이라는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협동 과정이다. 학기 중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문제 식별, 해결, 대안 등을 모색하고, 방학 중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학기 동안 준비한 내용을 접목시킬 수 있다.

네 번째의 특징은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이 활동지역의 공간 개념과 활동영역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핵심 분야를 식별하여 그에 알맞은 역량 개발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c-Lab 에서와 같이, 이 전공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중 한동대학교가 이미 교류사업을 다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는 몽골, 네팔,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4 개국에 집중하고 있다. 활동영역은 4 개국 모두에 적합한 ① ICT 활용 ② 현장기반 창업 ③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총 세 가지의 영역에 집중한다.

이와 같이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은 세계시민교육을 명시적으로 운영하는 전공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세계시민교육과 ICT 그리고 현장기반에 초점을 두어 국내 대학들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2) 글로벌기업가정신 전공¹⁶

한동대학교는 2005 년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Global E.D.I.S.O.N Academy, GEA) 학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D.I.S.O.N 은 바로 Enlarg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Dynamic and Creative transdisciplinary academic curricula, Ingenuity and innovation, Synergistic outcome through cooperation, Open and borderless global educational partnership, Nuturing of the whole person 을 나타낸다. 이 학부는 즉

¹⁶ 한동대학교 원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한동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토대 중 중요요소이기 때문에 포함했다. (<https://admissions.handong.edu/major/edison/guide/>)

세계시민교육, 융합교육과정, 혁신, 생활관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인성 교육, 개방 협력 파트너십 국제 교육, 지성·인성·영성의 전인교육을 하는 종합교육원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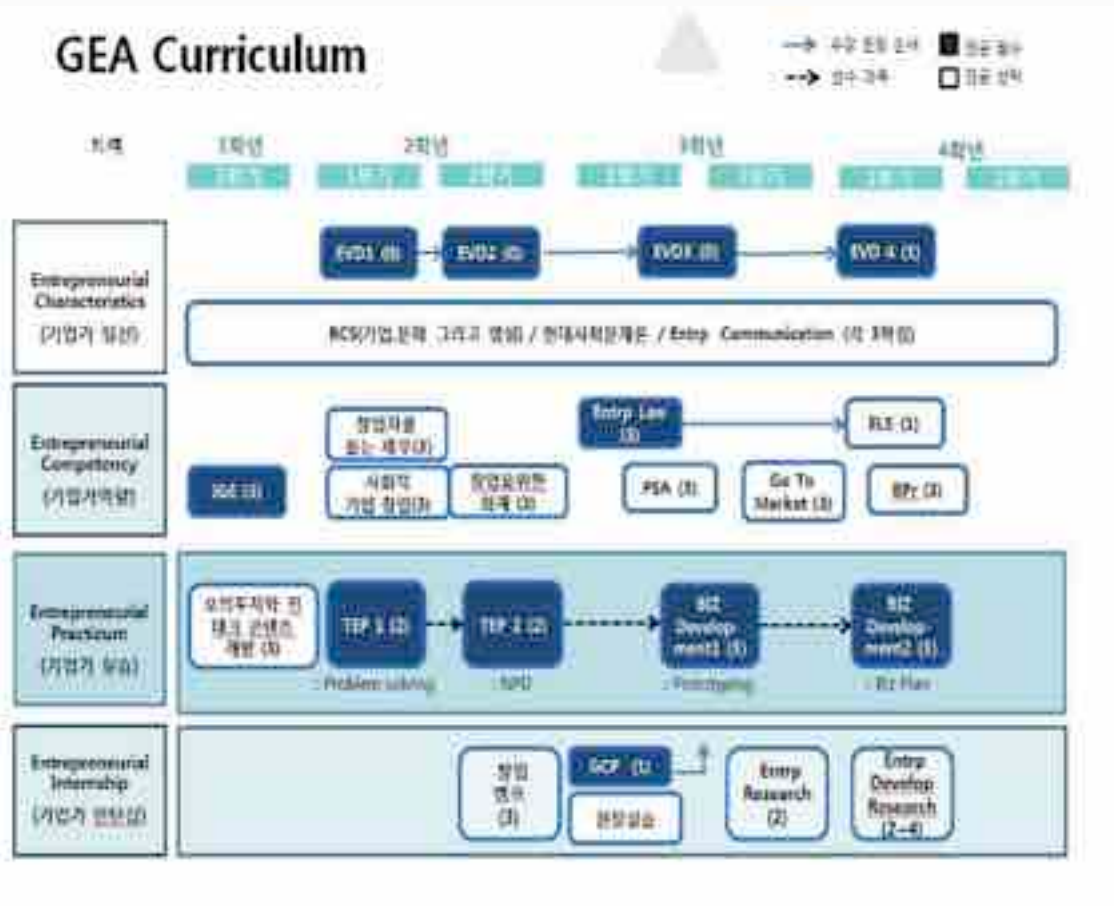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교육과 글로벌기업가정신의 함양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여 융합교육을 토대로 한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지성교육을 지향한다. 이 학부 소속의 글로벌기업가정신 전공(Global Entrepreneurship, GE)은 ① 기업가 정신, ② 기업가 역량, ③ 기업가 실습, ④ 기업가 인턴십인 총 4 가지의 트랙으로 운영된다.¹⁷

이 전공 교육과정의 이수체계는 다음과 같이 매우 체계적이다.

- 첫 번째 트랙 ‘기업가 정신’에서 개인의 비전과 소명을 확인하고 준비 하게 한다(교과목: 비전개발, 기업, 문화 그리고 영성, 현대사회 문제론, 기업가 커뮤니케이션).
- 두 번째 트랙 ‘기업가 역량’은 기업가정신에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을 한 번에 개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국제적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 지식을 전달함으로 차후 특정한 제목들을 개별적으로 심화하는 과목들을 택할 수 있게 해주는 전공 개론 과목(마케팅 실무, 문제해결방법론, 창업을 위한 회계·법)을 제공한다.
- 세 번째 트랙 ‘기업가 실습’에서는 시장과 사용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이 결과물을 토대로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플랜 작성과정을 교육한다(교과목: 창의종합설계 1,2, 모의투자과 핀테크 콘텐츠 개발).
- 마지막 트랙 ‘기업가 인턴십’은 사업화를 위한 연구나 현장실습을 제공한다(교과목: 개별현장과제, 개별응용 프로젝트, 창업캠프, 현장실습).

¹⁷ 한동대학교 16-1 학기 수강편람 (<http://ibook.handong.edu/Viewer/16-1suganko/71>)

GEA Curriculum



〈그림 6.13〉 글로벌기업가정신 전공의 권장이수체계

이와 같이 글로벌기업가정신 전공의 교육과정은 국제적 기업가로서의 정신과 역량을 함양하고 필요한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토대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전공과정이 세계시민교육의 틀에서 운영된다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국제적 기업가를 충분히 양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 대학원 교육과정

한동대학교는 다양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으로 KOICA 장기석사학위 연수과정,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 등이 있다. KOICA 장기석사학위 연수과정과 해외 대학과의 공동 운영 학위과정은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한동대학교가 융합교육을 뚜렷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KOICA 장기석사학위 연수과정은 총체적 역량을 갖춘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과정인 1~3 기 그리고 전기전자 및 ICT 융합기반 창업역량강화 과정인 4 기로 나뉜다. 한동대학교는 2012 년부터 제 1 기의 연수과정을 실시하여 올해는 4 기에 접어들었고, 해외에서 매년 13 명씩 선발하여 총 39 명의 석사 학위 졸업생을 배출했다.

KOICA 장기석사학위 연수과정의 두 가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역량강화 과정: 현장중심의 지역개발과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능력, 국내외 네트워킹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지역개발사업 모니터링능력, 컨설팅능력, 중소기업 창업·경영능력 등 총체적 역량을 갖춘 개발도상국 공무원 양성
- 전기전자 및 ICT 융합기반 창업역량강화 과정: 기술 중심의 전기전자 및 ICT 융합산업의 육성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육성에 필요한 통합적 역량을 갖춘 개발도상국 공무원 인력 양성, 전기전자 및 ICT 융합산업의 기술전수, 산업 육성 능력 강화, 창업활성화 능력 강화, 한국 전기전자 및 ICT 융합산업의 발전 모델 전수와 한국에 우호적인지도자 양성

한동대학교는 유네스코 유니트윈 주관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협력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 운영에 있다. 한동대학교는 캄보디아, 네팔,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대학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실시하여 개도국 대학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몽골 Institute of Finance and Economics 와 MBA 프로그램 공동 운영 (1999 년 MOU 체결)
- 캄보디아 Pannasastra University of Cambodia 에 창업학위과정 설립 (2013 년 12 월 MOU 체결)
- 네팔 Tribhuvan University, Ace Institute of Management, Pokhara University 에 기업가정신 학부 설립 중 (2013 년 12 월 MOU 체결)

라. 주요 기관

한동대학교는 대학 내 기관 활동으로도 세계시민교육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국내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동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센터를 추진 중에 있고, 한국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지정 유니트윈 주관대학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주는 의의가 크다.

1) 유엔 아카데미믹팩트와 세계시민교육센터

한동대학교는 유엔 아카데미믹팩트 한국협의회와¹⁸ 함께 세계시민교육센터(Center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세계시민교육센터는 ①창의적 시민교육, ②포괄적 기업가 정신, ③기술기반지식, ④지속 가능한 환경 등의 지향점을 추구하며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려고 한다. 한동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파트너십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

한동대학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니트윈(UNITWIN, University Twining and Networking) 주관대학로서 2007년부터 유니트윈 프로그램을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개도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동대학교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 역량강화중점 대학으로서 활동하고 있다.¹⁹

이 사업의 주요 사업은 ① 국제기업가정신훈련사업(Global Entrepreneurship Training, GET) ② 총체적 지역공동체개발사업, ③ 개발도상국 도시환경 개선 사업, ④ OCW/OER 교육자료²⁰ 축적 및 공개사업, ⑤ 개발도상국 협약대학과 공동교육과정사업, ⑥ 유네스코 유니트윈 지업강화사업, ⑦ 유엔 아카데미믹팩트 주관대학

¹⁸ 제 1 장 서론에서 유엔 아카데미믹팩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¹⁹ 유네스코 유니트윈 주관대학 관련 자료 (<https://goo.gl/Kzf0eN>)

²⁰ OCW 은 MIT OpenCourseWare, OER 은 Open Education Resource 의 줄임말이다.

활동을 포함한다. 국제기업가정신훈련사업은 개도국 협력대학과 공동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총체국 지역공동체개발사업은 개도국 내 지역공동체 지도자 대상인 장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개발도상국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개도국의 자연, 문화, 경제, 지역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해당 기술의 자체 확산을 유도하여 해당 지역 정부 및 공동체가 자립적 경제력을 갖출 수 있게 하고 또 개도국 주민의 도시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OCW/OER 교육자료 관련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발도상국 내 고등교육자료 개방운동을 추진하고, 유네스코 유니트윈 지원강화사업은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 기획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한동대학교는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을 통해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면의 세계시민교육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들이 세계시민교육에 초점을 두고 발전될 수 있다면 한동대학교는 고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 학생 활동

한동대학교이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생 활동은 ① Handong Global Challenger ② GTR(Global Training and Research) 프로그램 ③ 국제화 관련 멘토 프로그램 ④ OECD 인턴 프로그램 ⑤ GEM(Global Engagement and Mobilization, 해외전공봉사) 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Handong Global Challenger 과 GTR 프로그램은 현장 학습 프로그램으로, 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창업에 대한 조사 및 제안서를 쓰게 함으로써 글로벌 창업 및 경력개발을 촉진하고, 후자는 유럽과 미국에 위치한 주요 국제 기관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국제적 소양을 기르고 국제문제와 국제기구에 관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국제화 관련 멘토 프로그램은 International Buddy System,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 I-Helpers,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을 포함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인턴 프로그램은 2008 년 협약을 통해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6 개월간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인턴 선발자는 OECD 내부의 Information Technology and Network 에서 IT 전문가들과 다문화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내용은 국내 다른 대학들과 대동소이하지만, 교과과정 밖에서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또 실천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GEM(해외전공봉사) 프로그램은 2010 년부터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현지의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또한 실천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활동이 얼마나 세계시민교육의 틀에서 잘 이루어지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

3. 특징

한동대학교는 교육목표나 인재상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으로 지향하고 있지만, 대학의 발전계획이나 교육과정 면에서는 명시적으로 하향식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 및 운영하고 있다.

교양 교육과정에서 글로벌리더십학부에서 글로벌시민소양교육을 맡고,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전공에서 보다 심화된 글로벌 전문가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접목시켜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 전공은 기업가 정신과 역량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토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는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개발도상국의 세계시민교육까지 추진할 수 있다. 한동대학교는 유네스코 유니트윈 주관대학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폭넓은 방면에서의 글로벌 섬김을 구현하고 있다.

한동대학교는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명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국내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또한, 한동대학교가 현장 중심의 학생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어 실천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이 보인다.

한동대학교는 대학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국과 개발도상국 인재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과제

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토대(Platforms)

1) 대학의 토대

대학 안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주요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이종재, 심희정, 김민지, 2016). 먼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대학교육의 규범을 규정하는 규범적 토대이다. 이 규범적 토대는 ① 대학의 비전과 사명, ② 대학의 교육목표, ③ 교육목표로서의 인재상, 그리고 ④ 총장 등의 대학경영진이 인식하는 대학의 인재교육의 목표와 대학의 발전전략 등이다.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위에 세계시민교육이 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나름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세워져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대학교육의 한 유형이 될 수는 없다.

대학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대학의 두 번째 토대는 프로그램/담당기관(institutes) 차원에서의 토대이다.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토대는 교양과정의 구조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의 구조이다. 세계시민교육과 직결된 교과나 프로그램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교과의 구조가 있을 경우에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구조를 세울 수 있다. 관련 교과를 인증하여 연결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혹은 활동 센터가 있을 경우에 강력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세 번째 토대는 학생활동 차원의 토대이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주도의 프로젝트 활동이나 콘테스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 토대는 대학문화 차원으로서 대학 그 자체가 마치 세계시민이 된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관행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이 대학의 기풍(ethos)과 핵심가치로 이루어진 대학문화 속에 스며 들었을 때, 눈에 띄지 않지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2)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접근법(Governance approach)

거버넌스 접근법은 수평적 차원에서 의사소통과 협력, 그리고 수행기관의 역량개발과 내적책임성을 운영원리로 삼는다.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와 외부기관의 평가와 대학 스스로의 필요를 확인하고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유형을 택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계있는 대학과 정부 그리고 관련 단체 등이 협력적 관계에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거버넌스 접근이라고 규정한다.



〈그림 6.14〉 주요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주요 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협력적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책 형성 그리고 지원에 대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형성해야 하며 또한 정책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② 대학은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한다. 세계시민교육을 사명문과 대학문화에 통합시키고, 관련된 프로그램과 학생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③ NGO 와 관련된 연구소는 세계시민교육을 지지하며 전문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과 함께 세 주체의 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다. 포럼, 컨퍼런스, 워크숍을 만들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할 책임이 있다. 세 주체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더 나은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세계시민대학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전략과제

첫 번째 전략과제는 세계시민 선도대학 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세계시민 선도대학을 다섯 개 정도 선정하여 적어도 5년 동안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이러한 사업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충남대학교는 BK21(Brain Korea 21) 플러스 사업으로 “세계시민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세계시민교육은 더욱 더 견고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여 세계시민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중요한 학생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글로벌문화디자인단”(Korean Global Culture Design Corps, 이하 K-GCDC)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평화봉사단 Peace Corps와 비슷한 개념의 단체가 될 것이다. K-GCDC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활동 제안을 만들어 융합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해외에서 자신들의 제안을 직접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이나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과제는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발표한 정부계획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사회와 더 많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과제는 관련 정부, 대학, 시민단체 등의 기관들이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 포럼”이다. 이 포럼은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일반의 인식과 관심을 확산시키고 그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International center for Global citizenship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를 세우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에 이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세계시민대학교육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연구기회도 확장시키리라 기대한다.

나. 결론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세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세계시민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결할 때, “① 왜 세계시민교육인가? ② 어떤 종류의 세계시민교육인가? 그리고 ③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① 먼저, 왜 세계시민교육인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세계시민교육은 매우 필요한 의식교육임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시대, 즉 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 볼 때, 세계시민교육은 남북한 통일과 통합을 위한 공동의식의 기초가 된다.

세계시민의식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할 때 갖추어야 할 공공의식의 토대가 된다. 이점에서 세계시민의식은 차원 높은 인성 교육이 된다. 즉, 우리 국민의 수준을 높여 우리 국민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은 상층의식 함양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대학생의 시민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세계시민의식수준도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PIAAC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능력 수준은 낮다.

② 어떤 세계시민교육인가? 의식과 역량을 추구한다. 의식과 역량의 두 개의 축이 교차하는 4 개의 가능성 중에서 궁극적으로 양자 통합형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방향이 global 인재육성교육의 길이 될 것이다. 대학차원에서 시민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가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국제진출형 동기도 있을 수 있고 사람됨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의식면에서 나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보편적 원칙과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수용하고, 남을 배려하는 공감의 마음에서 세계적 문제를 바라보고 책임을 느끼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글로벌 인재의 모습이 된다.

역량 면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창의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빛진 자로서 도와주려는 의식과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은 특정의 대학이나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게도 해당된다. 직업교육에서 취업역량에 초점을 두고 국가표준직무능력(NCS)에 급급한 형편이다. 이들에게도 중요한 국제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양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

③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규범적 토대를 구축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 대학교육 목적과 세계시민교육을 연결하는 강한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는 느슨한 연계 체제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자체가 세계시민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하버드대학교처럼 세계시민교육을 표방하지 않고 특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도 세계시민의식이 대학의 문화를 형성하고 교육의 실재를 주도할 때, 세계시민교육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지향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등도 여기에 속하고, 이화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의 체계화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별로 창의적으로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개념 설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맥락 적합성이 필요하다. 조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이 연계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학의 시민교육도 발전적으로 나아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중국 안에서도 북경대학과 홍콩대학의 접근이 다르다.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교육의 규범적 토대가 되는 대학의 비전과 사명, 인재상과 총장을 포함하는 대학경영진의 실천적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 그 자체가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운영에서 세계시민의식과 세계시민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 (2015). 2015 세계교육포럼 공식 폐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 새 시대의 교육협력을 이끄는 글로벌 교육선진국으로 발돋움.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N&boardSeq=59400&mode=view>
- 김명훈 (2016). 상류의 탄생. 서울: 비아북.
- 김영길 (2016). Rol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global citizenship higher education in support of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UNAI)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5 월 30 일. 2016 유엔 NGO 컨퍼런스 발표자료.
- 김영길 (2013. 10.). 글로벌 인재 양성하려면 에디슨(E.D.I.S.O.N)식 융합교육 해야. 나라경제, 22-23.
<http://eiec.kdi.re.kr/nara/contents/include/naradownload.jsp?cid=9022>.
- 김영길, 장순홍 (2015). 세계시민의식 고등교육, 미간행 유인물, 2015.12, 28-32
- 김영길, 장순홍 (2015). Global Citizenship Higher Education with Honesty, Capacity and Responsibility to Transform the World in support of SDGs and UNAI: 세상을 변화시킬 정직, 능력, 책임감을 겸비한 세계시민의식고등교육.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미발간.
- 김진희 (2014). 평화와 협력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2015 세계교육회의(WEF 2015) 의제 형성 연구.
- 김진희 (2015). 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동향과 쟁점 분석. 시민이해교육연구, 47(1), 59-88.
- 김진희, 임미은 (2014). 공정여행 수업활동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탐색. 한국교육, 41(3), 213-239.
- 김진희, 허영식 (2013).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담론과 함의 고찰. 40(3), 155-181.
- 문도운, 민경일, 이소연, 이하늬, 이현아, 전지은 (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http://www.seoulnc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1103
- 박환보, 조혜승 (2016).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54(2), 197-227.
- 배영주 (2013). 세계시민의 역할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재구상. 교육과학연구, 44(2), 145-167.
- 성열관 (2010).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의 보편적 핵심 요소와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 37(2), 109-130.
- 송복 (2016). 특혜와 책임: 한국 상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울: 가디언.

- 심희정 (2016). 국내 시민사회단체 내 세계시민교육 현황. 아시아교육연구, 17, 107-129.
- 심희정, 전인선, 이화진 (2016). 세계시민교육 국내 의제화 과정: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국제교육연구학술대회 발표자료. 10월 13일. 서울: 호암 교수회관. 미간행.
- 어윤일, 심희정 (2016). Global citizenship as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국제교육연구학술대회 발표자료. 10월 13일. 서울: 호암 교수회관. 미간행.
- 오세윤 (2011). 세계시민정신교육의 방향. 인문사회과학연구, 16(2), 5-35.
- 유성상 (2016).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탐색과 가능성. 아시아교육연구, 17, 1-9.
- 이성희, 김미숙, 정바울, 박영, 조윤정, 송수희, 이승진 (2015).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 (연구보고 RR 2015-2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 김민지, 허광영 (2016). Measuring Global Citizenship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국제교육연구학술대회 발표자료. 10월 13일. 서울: 호암 교수회관. 미간행.
- 이종재, 심희정, 김민지 (2016). Governance approach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n higher education: Preparing university graduate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국제교육연구학술대회 발표자료. 10월 13일. 서울: 호암 교수회관. 미간행.
- 이종재, 이화진 (2016).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at selected research universities in Asia. ICER 2016 발표자료. 10월 13일. 서울: 호암 교수회관. 미간행.
- 이철승 (2005). '세계화' 시대 '유교공동체주의'의 의의와 문제. 시대와 철학 2007 제 18 권 3 호.
-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 (2016). UNAI-K GCHE: A Guiding Framework 세계시민 대학교육의 발전방향과 과제 #3. 유엔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UN Academic Impact, UNAI). 1월 6일. 서울. 미발행
- 지속가능발전포털 (n.d.).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상세목표.
<http://ncsd.go.kr/app/sub02/20.do>에서 2016.10.23.에 발췌
- 정범모 (2016). 창의력과 공의식: 선진국의 요건. 서울: 학지사.
- 정용교 (2015). 세계시민교육: 국민을 넘어 세계시민으로. 서울: 교육과학사.
- 한경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 김지현 (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APCEIU (2014).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국외 문헌

- Andreotti, V. (2006). Soft versus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 Practice: A Development Review*, (3), 40-51.
- Boetto, H. & Bell, K (2015).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social work education: An online initiative to encourage global citizenship. *International Social Work*, 58(3), 448-462.
- Chung, B.-M. (2011). *Development and education: A critical appraisal of the Korean case*. Seoul, Korea: SNUPRESS.
- COPION. (2016). *Copion planetary global citizenship school*. Seoul, Korea.
- Davies, L. (2006). Global citizenship: Abstraction o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al Review*, 58(1), 5-25.
- Davis, I., Evans, M., & Reid, A. (2005). Globalizing citizenship education? A critique of 'global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3(1), 66-89.
- Gaudelli, W. (2009). Heuristics of global citizenship discourses towards curriculum enhancement.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25(1), 68-85.
- Jeffrey S. Dill, *The Longings and Limit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Routledge: New York, 2013
- Jorgenson, S., & Shultz, L. (2012).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 in post-secondary institutions: What is protected and what is hidden under the umbrella of GCE? *Journal of Global Citizenship & Equity Education*, 2(1), 1-21.
- Kim, C., & Sim, H.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line information session reading material*. Retrive
- Kim, Y.-G. (2005). Keynote speech on new directions for universities in the 21st century at UNESCO.
- Kim, Y.-G., & Chang, S.-H. (2015). *International centr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in support of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UNAI) [PowerPoint slides]*.
-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5). *Trends and direction of CSO's educ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eoul,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Lagos, T. G. (2002). *Global citizenship-towards a definition*. Retrieved November, 26, 2007.
- Lee, W.O., & Fouts, J. (2005). *Education for Social Citizenship*. Hong Kong University Press.
- Lee, W.O. (2012). Education for future-oriented citizenship: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twenty-first century competencies.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32(4).

- Marshall, H. (2005). Developing the global gaze in citizenship education: Exploring the perspectives of global education NGO workers in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itizenship and Teacher Education*, 1(1), 76-91.
- Thier, M. (2016). *Maturing Measurem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rials of a Measure of Global Citizenship For High School Student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3). Outcomes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Press release]. Retrieved from http://www.mofa.go.kr/ENG/press/pressreleases/index.jsp?menu=m_10_2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engreadboard.jsp%3Fboardid=302%26typeID=12%26tableName=TYPE_English%26seqno=312751
- Pak, S.-Y. (2013).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oals and challenges in the new millennium.
- Schattle, H. (2008).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llustrations of ideological pluralism and adaptation.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13(1), 73-94.
- Shultz, L. (2007).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Conflicting agendas and understandings. *The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3), 248-259.
- Shultz, L. (2013). Public engagement and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What do we risk by focusing on “the empowered individual”? Retrieved <http://www.cgcer.ualberta.ca/en/Publications.aspx>
- Skirbekk, V., Potančoková, M., & Stonawski, M. (2013). *Measuremen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ckground Paper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ESCO Education Sector.
- Sung, Y., Lee, H., & Kim, M. (2014). *Evaluation study of World Vision’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Seoul, Korea: Kyung Hee University.
- Tawil, S. (2013).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framework for discussion*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Working Papers Series No. 7). Paris: UNESCO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 Torres, C. A. (2015). Global citizenship and global universities: The age of global interdependence and cosmopolitanism.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50(3), 262-279.
- Totmeyer, R. & Gieeson, J. (2012). The gendering of global citizenship: findings from a large-scale quantitative study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xperiences, *Gender and Education*, 24(6), 627-645.

- UNESCO (2013).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 Outcome document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oul, South Korea.
- UNESCO Bangkok (2013).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 UNESCO (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 United Nations (n.d.).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trieved from <http://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 Weick, K. E. (1976).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Loosely Coupled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1, No. 1, (Mar., 1976), pp. 1-19.
- World Vision (2016). World Vision'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oul, Korea.

뉴스

조선닷컴 (2016.4.26). "많이 질문하세요, 아이가 당신의 선생님 되도록".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6/2016042600157.html 에서 2016.10.23. 인출.

중앙일보경제연구소 (2016.7.28). 한국 경제, '사회적 자본'의 고갈이 더 큰 문제.

http://jforum.joins.com/viewissues/view_view.asp?Idx=321&c_id=&cate_id=&list_page=에서

2016.10.23. 인출.

중앙일보 (2016.10.14.). "Blowin' in the wind" 밥 딜런 노벨상 시인 되다.

http://ap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ctg=mobile_A1&total_id=20722277 에서

2016.10.23. 인출

웹사이트

경희대학교 (n.d.-a). 경희정신. <http://www.khu.ac.kr/university/khumind/index.do>

경희대학교 (n.d.-b). 경희와 인류평화. <http://www.khu.ac.kr/exchange/index.do>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원 홈페이지 <http://cklc.smu.ac.kr/>
상명대학교 기초교양대학 홈페이지 <http://smgs.smu.ac.kr/>
상명대학교 대외협력처 홈페이지 <http://oia.smu.ac.kr/>
상명대학교 대외교류본부 홈페이지 <http://fund.smu.ac.kr/>
상명대학교 동아리안내 홈페이지 <http://www.smu.ac.kr/life/>
상명대학교 ACE 사업단 홈페이지 <http://smu-ace.ac.kr/>
상명대학교 (n.d.). 상명소개 https://www.smu.ac.kr/mbs/smu/subview.jsp?id=smu_010204040000
영남대학교 (n.d.-a). 연혁/현황. http://www.yu.ac.kr/_korean/about/index.php?c=about_04
영남대학교 (n.d.-b). 박정희 새마을 대학원 - 원장 인사말.
<http://psps.yu.ac.kr/subPage.php?lang=Ko&main=about&sub=01&thrd=01>
이화여자대학교 (n.d.). 캠퍼스 역사.
http://www.ewha.ac.kr/mbs/ewhakr/subview.jsp?id=ewhakr_010603000000
UNAI (n.d.). UN Academic Impact. <https://academicimpact.un.org/>

부 록

Appendix A.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조사 결과

Appendix B. 국내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유형과
토대

가천대, 가톨릭대, 한국폴리텍대, 한양대

Appendix C. 세계 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유형
토론토대학교, 하버드교육대학원, 리하이대학교, 유엔대학교, 츠쿠바대학교,
베이징 사범대학교, 상하이대학교, 난양공과대학교 & 싱가포르 사범대

Appendix D.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영남대, 상명대

Appendix A.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수준 조사 결과

1. 세계시민의식 조사를 위한 척도의 구조와 조사시행

가. 질문지

조사에 실제로 사용된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해외 대학의 경우, 질문지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에 이를 다시 현지어로 번역 후 현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A.1〉 국내대학 질문지

세계시민의식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UN에서는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지속적 발전이라는 UN 헌장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UN Academic Impact(UNAI)/Korea 라는 조직의 구성과 활동입니다. 이 조직은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 간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UN의 이상을 추구하자는 취지하에 구성된 UN 내의 조직으로서 우리나라도 중요한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전 세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의식 교육의 시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 세계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상태를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질문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생들 중 일차적으로 한국과 아시아 국가 대학생 여러분의 세계시민의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본 질문지는 모두 47 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묻는 것으로,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문항 한 문항 잘 읽어 보신 후 여러분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UN의 고귀한 이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시고 모든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_____ 또는 _____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6 년 9 월 한국행동과학연구소 UN Academic Impact/ Korea

다음은 기초조사를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내용을 작성하거나 까맣게 칠해 주십시오.

학교	대학교	학년	1 ○	2 ○	3 ○	4 ○
단과대	대학	이름				
전공		성별	남 ○	여 ○		

나이	만 _____ 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당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시간 차원' 중에서 어느 차원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거
	②	현재
	③	미래
2. 당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유형' 중 어느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②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③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3. 당신은 다음과 세 가지 '인간(대인)관계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②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③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 관계 유형

4. 당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관점 중 어느 유형의 관점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②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③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5.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행동 동기' 중 어느 유형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②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③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오른쪽 번호 란에 까맣게 칠하십시오.

[응답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표시 했을 때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우고 다른 칸에 표시하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기회를 똑같이 보장할 수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돕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세계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문화들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생태의 보존보다는 산업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한 행동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국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국제적인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국제 문제를 다루는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반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려움에 처한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를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세계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문화들은 선진문화도 있고 후진문화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소외된 사람이나 지역을 위한다고 알려진 상품이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구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집단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이벤트(학술포럼, 음악공연, 연극공연 등)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풍요롭게 소비하며 사는 것보다는 절약하며 검소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분리수거 활동을 철저히 실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지구촌 난민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나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지구의 환경 위기 문제를 다루는 단체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공동체 전체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세계의 난민을 돕는 자선 단체에까지 기부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지구를 계속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전 세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지구적 차원의 자원 고갈 현상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9	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0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환경오염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세계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나 조직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세계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세계평화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할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지구촌의 빈곤문제와 양극화 현상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기회가 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1	민주주의는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유보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나의 책임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해외대학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현지어로 번역 후 진행하였다. 현지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 A.1> 해외대학 질문지 중 일부(1)

ဝိသုဒ္ဓါဝိသုဒ္ဓါ	လိင်	ကျား/Male	မိန်းမ/Female
အသက်			
အသက် (Age)			

1. Which of the following three time dimensions is the most important?	①	Past ပီတိဝိသုဒ္ဓါ
ဘေးအန္တရာယ်ရှိသော အချိန်ကာလကုန်ဆုံးသောအချိန်	②	Present ပါတိဝိသုဒ္ဓါ
ပစ္စုပ္ပန်	③	Future ဖုတုပီတိဝိသုဒ္ဓါ
2. Which of the following three models of human-environment relations is the most desirable?	①	Human-dominated nature ကျား၊ လူ၊ စီးပွားရေး၊ စားနပ်ရိက္ခာ
ဘေးအန္တရာယ်ရှိသော အချိန်ကာလကုန်ဆုံးသောအချိန်	②	Human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ကျား၊ လူ၊ စီးပွားရေး၊ စားနပ်ရိက္ခာ၊ ပတ်ဝန်းကျင်
စီးပွားရေး၊ စားနပ်ရိက္ခာ၊ ပတ်ဝန်းကျင်	③	Human worshipping and submitting to nature ကျား၊ လူ၊ စီးပွားရေး၊ စားနပ်ရိက္ခာ၊ ပတ်ဝန်းကျင်
3. Which of the following three models of human interpersonal relations is the most desirable?	①	Vertical and dependent relations with clear and strict hierarchy and respect for authority. ကျား၊ လူ၊ စီးပွားရေး၊ စားနပ်ရိက္ခာ၊ ပတ်ဝန်းကျင်
ကျား၊ လူ၊ စီးပွားရေး၊ စားနပ်ရိက္ခာ၊ ပတ်ဝန်းကျင်	②	Horizontal and equal relations with mutual respect and cooperation. ကျား၊ လူ၊ စီးပွားရေး၊ စားနပ်ရိက္ခာ၊ ပတ်ဝန်းကျင်
ကျား၊ လူ၊ စီးပွားရေး၊ စားနပ်ရိက္ခာ၊ ပတ်ဝန်းကျင်	③	Individualistic and competitive relations with self-interest and competition. ကျား၊ လူ၊ စီးပွားရေး၊ စားနပ်ရိက္ခာ၊ ပတ်ဝန်းကျင်

〈그림 A.2〉 해외대학 질문지 중 일부(2)

No. ລ/ດ	Items ເລື່ອງສຳຄັນ	Strongly Disagree ບໍ່ເຫັນດີ ແກ່	Disagree ບໍ່ເຫັນດີ ຫຼາຍ	Neither agree nor disagree ບໍ່ເຫັນດີ	Agree ເຫັນດີ	Strongly agree ເຫັນດີ ຫຼາຍ
10	I am not particularly interested in domestic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that deal with global problems / ຂ້ອຍບໍ່ສົນໃຈເທົ່າໃດໃນ ບັນດາໜ້າທີ່ປະຊາກອນທີ່ ສະຖານະທີ່ແກ້ໄຂບັນຫາຕ່າງ ໆຂອງໂລກ.	①	②	③	④	⑤
11	I feel responsible for the uniformity in this world / ຂ້ອຍຮູ້ສຶກມີຄວາມຮັບຜິດ ຊອບຕໍ່ຄວາມເໝາະສົມໃນໂ ລກນີ້.	①	②	③	④	⑤
12	I think democracy in which citizens elect their leader is the most democratic political system / ຂ້ອຍຄິດວ່າ ຄຳວ່າປະຊາທິປະໄຕ ທີ່ພົນລະເມືອງເລືອກເອົາຜູ້ ນຳ	①	②	③	④	⑤

〈그림 A.3〉 해외대학 질문지 중 일부(3)

나. 조사척도

가치관 지향은 5 개 차원에 걸쳐서 각각 3 개의 지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A.2〉 가치관 지향 분포

1. 시간차원 당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시간 차원' 중에서 어느 차원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거
	②	현재

	③	미래
2. 자연과의 관계차원 당신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유형' 중 어느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②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③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3. 인간관계차원 당신은 다음과 세 가지 '인간(대인)관계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②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③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 관계 유형
4. 인간의 본성 당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관점 중 어느 유형의 관점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②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③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5. 동기 요인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행동 동기' 중 어느 유형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②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③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세계시민의식의 척도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A.3〉 세계시민의식 척도의 구조

영역	요인	문항개수
I . 지구적 인식 (Global Awareness) A domain	1. 세계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인식 (Global Problems, Issues, & Challenges) (A-I factor)	5
	2. 세계의 여러 문제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Global Perspectives: Inter-connectedness, Inter-dependency, One-ness) (A-P factor)	5
II . 지구적 보편 가치 (Global Principles & Sustainability) P domain	1. 보편적 원칙 (Global Principles) (P-P factor)	9
	2.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P-Sd factor)	3
III . 지구적 책임의식 (Global Responsibility) R domain	1.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Global Identity, Networking & Responsibility) (R-I factor)	5
	2. 공감과 이타 (Empathy and Altruism) (R-E factor)	5
IV .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Global Engagement and Commitment)	1. 지구적 실천예의 관심 (Concern for Global Practices) (C-C factor)	5

영역	요인	문항개수
C domain	2.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Intention for Global Practices) (C-P factor)	5

다. 조사대상

조사 참여대학은 다음과 같다.

〈표 A.4〉 국내 조사 참여대학

연번	참여대학	특징
1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교원양성)
2	경희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3	고려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4	상명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5	성균관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6	영남대학교	ACE 사업교
7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화지수 상위교
8	조선대학교	ACE 사업교
9	한동대학교	ACE 사업교

〈표 A.5〉 해외 조사 참여대학

연번	참여대학	나라
1	NGUYEN TAT THANH UNIVERSITY	베트남
2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캄보디아
3	University of Yangon	미얀마

4	Souphanouvong National University	라오스

2. 조사결과

〈표 A.6〉 국가별 가치관의 지향 분포

구분	가치관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전체	
		n	%	n	%	n	%	n	%
시간차원	과거	18	1.6	-	-	1	1.0	19	1.5
	현재	881	80.5	50	62.5	58	58.0	989	77.6
	미래	195	17.8	30	37.5	41	41.0	266	20.9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19	1.7	1	1.3	12	12.0	32	2.5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057	96.6	78	97.5	85	85.0	1220	95.8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17	1.6	1	1.3	3	3.0	21	1.6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14	1.3	3	3.8	7	7.0	24	1.9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686	62.7	74	92.5	71	71.0	831	65.2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391	35.7	3	3.8	22	22.0	416	32.7

구분	가치관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전체	
		n	%	n	%	n	%	n	%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178	16.3	17	21.3	8	8.0	203	15.9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813	74.3	63	78.8	82	82.0	958	75.2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02	9.3	-	-	10	10.0	112	8.8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160	14.6	6	7.5	5	5.0	171	13.4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566	51.7	48	60.0	31	31.0	645	50.6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368	33.6	24	30.0	64	64.0	456	35.8

가. 가치관 지향 분포

〈표 A.7〉 국내대학의 가치관 지향분포(1)

구분	가치관	K 대(1)		K 대(2)		S 대	
		n	%	n	%	n	%
시간차원	과거	4	2.2	3	1.4	1	0.6
	현재	147	82.1	163	77.3	138	81.2
	미래	28	15.6	45	21.3	31	18.2
인간과 차원과의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3	1.7	4	1.9	6	3.5

구분	가치관	K 대(1)		K 대(2)		S 대	
		n	%	n	%	n	%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72	96.1	207	98.1	156	91.8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4	2.2	0	0.0	7	4.1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2	1.1	3	1.4	6	3.5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96	53.6	135	64.0	117	68.8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80	44.7	72	34.1	46	27.1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22	12.3	43	20.4	27	15.9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140	78.2	153	72.5	118	69.4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7	9.5	15	7.1	24	14.1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25	14.0	35	16.6	23	13.5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100	55.9	103	48.8	77	45.3

구분	가치관	K 대(1)		K 대(2)		S 대	
		n	%	n	%	n	%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54	30.2	73	34.6	69	40.6

〈표 A.8〉 국내대학의 가치관 지향분포(2)

구분	가치관	Y 대		E 대		C 대	
		n	%	n	%	n	%
시간차원	과거	3	1.5	3	1.8	4	2.4
	현재	169	82.0	131	79.9	133	81.1
	미래	34	16.5	30	18.3	27	16.5
인간과 차원과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1	0.5	1	0.6	4	2.4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202	98.1	161	98.2	159	97.0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3	1.5	2	1.2	1	0.6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1	0.5	0	0.0	2	1.2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130	63.1	90	54.9	118	72.0

구분	가치관	Y 대		E 대		C 대	
		n	%	n	%	n	%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75	36.4	74	45.1	44	26.8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29	14.1	25	15.2	32	19.5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158	76.7	129	78.7	115	70.1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9	9.2	10	6.1	17	10.4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32	15.5	21	12.8	24	14.6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108	52.4	88	53.7	90	54.9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67	32.5	55	33.5	50	30.5

나. 국가별 영역·요인별 세계시민의식 수준
〈표 A.9〉 국가별 영역·요인별 세계시민의식 점수 (총점, a: 한국, b: 베트남, c: 캄보디아)

영역	요인	한국 (n=1,096)		베트남 (n=80)		캄보디아 (n=100)		전체 (N=1276)		사후분석 (Scheffé)
		m	sd	m	sd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21.64	2.39	22.38	3.05	22.08	2.39	21.72	2.45	b>a

	지구적 관점	18.45	2.65	16.99	3.25	18.54	2.69	18.37	2.72	a, c>b
	전체	40.09	4.24	39.36	5.13	40.62	4.19	40.09	4.30	-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2.80	3.56	34.01	4.44	32.64	3.28	32.87	3.61	b>a,c
	지속 가능성	10.49	1.64	12.64	1.85	9.92	1.62	10.58	1.74	b>a>c
	전체	43.29	4.45	46.65	5.21	42.56	3.83	43.44	4.54	b>a,c
지구적 책임의 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17.03	2.54	18.93	2.88	19.57	2.20	17.35	2.66	b,c>a
	공감과 이타	17.19	2.70	18.98	2.71	19.49	2.42	17.48	2.77	b,c>a
	전체	34.22	4.83	37.89	4.83	39.06	4.03	34.83	5.00	b,c>a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15.37	2.92	17.23	2.39	19.30	2.41	15.79	3.06	c>b>a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17.29	2.69	19.34	2.44	19.81	2.40	17.61	2.77	b,c>a
	전체	32.65	5.00	36.57	4.22	39.11	4.25	33.40	5.26	c>b>a

〈표 A.10〉 국가별 영역·요인별 세계시민의식 점수
(5 점 척도, a: 한국, b: 베트남, c: 캄보디아)

영역	요인	한국 (n=1,096)		베트남 (n=80)		캄보디아 (n=100)		전체 (N=1276)		사후분석 (Scheffé)
		m	sd	m	sd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3	0.48	4.48	0.61	4.42	0.48	4.34	0.49	b>a

	지구적 관점	3.69	0.53	3.40	0.65	3.71	0.54	3.67	0.54	a, c>b
	전체	4.01	0.42	3.94	0.51	4.06	0.42	4.01	0.43	-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4	0.40	3.78	0.49	3.63	0.36	3.65	0.40	b>a,c
	지속 가능성	3.50	0.55	4.21	0.62	3.31	0.54	3.53	0.58	b>a>c
	전체	3.61	0.37	3.89	0.43	3.55	0.32	3.62	0.38	b>a,c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1	0.51	3.79	0.58	3.91	0.44	3.47	0.53	b,c>a
	공감과 이타	3.44	0.54	3.80	0.54	3.90	0.48	3.50	0.55	b,c>a
	전체	3.42	0.48	3.79	0.48	3.91	0.40	3.48	0.50	b,c>a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7	0.58	3.45	0.48	3.86	0.48	3.16	0.61	c>b>a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6	0.54	3.87	0.49	3.96	0.48	3.52	0.55	b,c>a
	전체	3.27	0.50	3.66	0.42	3.91	0.42	3.34	0.53	c>b>a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8	0.37	3.82	0.39	3.84	0.30	3.61	0.37	b,c>a

다. 국내 대학별 세계시민의식 영역·요인별 점수 비교

〈표 A.11〉 국내 대학별 세계시민의식 영역·요인별 점수 비교(1)

영역	요인	K 대(1)	K 대(2) (n=212)	S 대	Y 대

		(n=180)		(n=169)		(n=207)			
		m	sd	m	sd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5	0.41	4.37	0.48	4.11	0.58	4.35	0.45
	지구적 관점	3.76	0.51	3.67	0.56	3.62	0.59	3.65	0.50
	전체	4.05	0.37	4.02	0.46	3.86	0.50	4.00	0.40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5	0.43	3.64	0.38	3.54	0.43	3.64	0.37
	지속 가능성	3.48	0.53	3.48	0.59	3.46	0.57	3.47	0.57
	전체	3.61	0.39	3.60	0.37	3.52	0.41	3.60	0.35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1	0.53	3.42	0.51	3.38	0.52	3.31	0.51
	공감과 이타	3.43	0.57	3.46	0.51	3.39	0.49	3.34	0.57
	전체	3.42	0.51	3.44	0.46	3.39	0.46	3.32	0.50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6	0.59	3.09	0.56	3.17	0.56	2.89	0.60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3	0.51	3.45	0.56	3.47	0.51	3.35	0.57
	전체	3.25	0.48	3.27	0.50	3.32	0.48	3.12	0.52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8	0.36	3.58	0.37	3.52	0.39	3.51	0.35

〈표 A.12〉 국내 대학별 세계시민의식 영역·요인별 점수 비교(2)
a : K 대(1), b : K 대(2), c : S 대, d : Y 대, e : E 대, f : C 대

E 대 (n=164)		C 대 (n=164)		전체 (N=1,096)		F	p	사후분석 (Scheffé)
m	sd	m	sd	m	sd			
4.40	0.41	4.38	0.47	4.33	0.48	8.927	<.001	a,b,d,e,f>c
3.76	0.49	3.70	0.50	3.69	0.53	2.197	.053	-
4.08	0.36	4.04	0.41	4.01	0.42	5.561	<.001	a,b,e,f>c
3.71	0.37	3.69	0.38	3.64	0.40	3.657	.003	e,f>c
3.54	0.48	3.56	0.53	3.50	0.55	.985	.426	-
3.67	0.35	3.66	0.36	3.61	0.37	3.302	.006	e,f>c
3.47	0.48	3.47	0.49	3.41	0.51	2.734	.018	-
3.49	0.52	3.54	0.56	3.44	0.54	3.156	.008	f>d
3.48	0.46	3.50	0.49	3.42	0.48	3.407	.005	f>d
3.12	0.59	3.15	0.56	3.07	0.58	6.036	<.001	b,c,e,f>d
3.56	0.49	3.51	0.54	3.46	0.54	3.546	.003	e>d
3.34	0.48	3.33	0.50	3.27	0.50	5.592	<.001	c, e, f>d
3.64	0.33	3.63	0.37	3.58	0.37	3.909	.002	e>d

라. 개별 문항별 점수 비교

* 세계시민의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응답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문항 중에서 평균점수가 4 이상인 경우와, 3 이하인 경우는 음영 처리를 하였다. 평균점수가 4 이상인 경우는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높다고 나타난 문항, 3 이하인 경우는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낮다고 나타난 문항이다.

〈표 A.13〉 개별 문항별 점수 및 응답의 빈도(%) (전체 응답)

	N	평균	표준편차	응답 빈도수(%)				
				1	2	3	4	5
문항 1	1276	2.13	0.850	18.6	60.3	12.5	7.0	1.6
문항 2	1274	3.69	0.751	0.5	5.6	28.7	54.7	10.5
문항 3	1275	3.85	0.816	1.1	3.7	24.2	51.1	19.9
문항 4	1276	4.22	0.786	0.6	2.5	10.9	45.8	40.2
문항 5	1274	4.61	0.596	0.2	0.2	4.0	29.2	66.4
문항 6	1275	3.80	0.889	1.2	7.8	21.0	50.0	20.0
문항 7	1273	3.43	0.913	2.0	13.2	35.4	39.1	10.3
문항 8	1273	3.16	0.937	3.1	20.5	41.4	27.6	7.5
문항 9	1275	3.21	0.982	2.6	22.0	37.2	28.2	10.1
문항 10	1273	3.18	0.995	2.0	26.0	33.6	28.4	9.9
문항 11	1274	3.17	0.917	3.2	19.8	39.1	32.4	5.5
문항 12	1274	3.94	0.828	0.9	4.0	19.5	50.8	24.7
문항 13	1276	3.20	0.869	2.3	16.5	46.1	28.8	6.3
문항 14	1275	3.07	0.965	4.4	25.3	34.6	30.8	4.9
문항 15	1275	2.89	1.147	7.8	38.1	20.6	23.5	9.9

문항 16	1274	3.48	0.848	2.0	8.6	37.8	42.6	8.9
문항 17	1274	4.36	0.820	1.5	1.9	7.5	37.4	51.8
문항 18	1276	3.44	0.938	1.6	13.4	38.0	33.5	13.6
문항 19	1276	3.23	0.989	3.4	19.4	38.6	28.2	10.5
문항 20	1273	4.14	0.740	0.5	0.9	15.8	50.0	32.8
문항 21	1275	4.17	0.690	0.5	0.9	11.3	55.9	31.5
문항 22	1275	3.43	0.972	2.1	16.5	29.9	39.4	12.2
문항 23	1274	3.14	0.845	2.0	18.3	49.2	25.0	5.4
문항 24	1273	3.19	0.960	2.9	21.8	36.1	31.6	7.7
문항 25	1272	3.66	0.932	1.6	9.9	26.7	44.3	17.6
문항 26	1275	4.30	0.695	0.3	0.5	10.4	46.8	42.0
문항 27	1274	4.35	0.672	0.2	1.0	7.2	47.1	44.5
문항 28	1275	4.42	0.643	0.2	0.4	6.4	43.2	49.9
문항 29	1274	4.26	0.697	0.3	0.9	10.2	49.8	38.8
문항 30	1274	3.55	0.886	1.1	10.6	33.4	41.9	13.0
문항 31	1275	3.80	0.911	1.3	8.0	22.1	47.1	21.6
문항 32	1275	4.15	0.706	0.2	1.0	14.0	52.9	31.8
문항 33	1270	2.81	0.878	6.0	29.1	44.8	17.6	2.4
문항 34	1274	3.22	0.934	2.8	17.7	42.9	27.9	8.8
문항 35	1275	3.93	0.796	0.5	2.8	23.5	49.1	24.1
문항 36	1270	4.49	0.650	0.3	0.3	5.7	37.2	56.5
문항 37	1272	3.26	0.858	2.3	14.2	45.3	32.1	6.2
문항 38	1271	3.27	1.040	5.1	19.4	29.0	36.9	9.6
문항 39	1268	4.16	0.667	0.2	0.3	13.0	55.8	30.7
문항 40	1271	3.92	0.785	0.6	3.1	22.1	52.2	21.9

문항 41	1271	3.31	0.994	3.1	17.5	37.0	30.5	11.9
문항 42	1270	2.79	0.888	5.4	34.1	39.0	19.5	2.0

〈표 A. 14〉 개별 문항 내용과 응답 평균점수 (전체 응답)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 평균점수
문항 1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기회를 똑 같이 보장할 수는 없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2.13
문항 2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	3.69
문항 3	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돕고 싶다.	3.85
문항 4	세계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문화들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4.22
문항 5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61
문항 6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생태의 보존보다는 산업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3.80
문항 7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한 행동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3.43
문항 8	국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3.16
문항 9	국제적인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3.21
문항 10	나는 국제 문제를 다루는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3.18
문항 11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3.17
문항 12	일반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다.	3.94

문항 13	어려움에 처한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를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3.20
문항 14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한다.	3.07
문항 15	세계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문화들은 선진문화도 있고 후진문화도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2.89
문항 16	소외된 사람이나 지역을 위한다고 알려진 상품이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구입할 것이다.	3.48
문항 17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집단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	4.36
문항 18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이벤트(학술포럼, 음악공연, 연극공연 등)에 관심이 많다.	3.44
문항 19	풍요롭게 소비하며 사는 것보다는 절약하며 검소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3.23
문항 20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분리수거 활동을 철저히 실천할 것이다.	4.14
문항 21	지구촌 난민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17
문항 22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나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3.43
문항 23	지구의 환경 위기 문제를 다루는 단체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3.14
문항 24	공동체 전체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3.19
문항 25	세계의 난민을 돕는 자선 단체에까지 기부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3.66
문항 26	지구를 계속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전 세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4.30
문항 27	지구적 차원의 자원 고갈 현상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35
문항 28	나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42

문항 29	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4.26
문항 30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환경오염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55
문항 31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3.80
문항 32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4.15
문항 33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2.81
문항 34	세계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나 조직에 참여하고 싶다.	3.22
문항 35	나는 세계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3.93
문항 36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4.49
문항 37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편이다.	3.26
문항 38	세계평화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할 뿐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3.27
문항 39	지구촌의 빈곤문제와 양극화 현상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16
문항 40	기회가 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3.92
문항 41	민주주의는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유보될 수도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3.31
문항 42	나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나의 책임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2.79

〈표 A.15〉 개별 문항 내용과 응답 평균점수 (국가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응답 평균점수	
문항 1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기회를 똑 같이 보장할 수는 없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2.07
		베트남	2.74
		캄보디아	2.24
문항 2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한다.	한국	3.68
		베트남	3.73
		캄보디아	3.75
문항 3	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돕고 싶다.	한국	3.77
		베트남	4.26
		캄보디아	4.44
문항 4	세계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문화들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	4.15
		베트남	4.68
		캄보디아	4.64
문항 5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4.60
		베트남	4.75
		캄보디아	4.65
문항 6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생태의 보존보다는 산업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3.85
		베트남	4.35
		캄보디아	2.78

문항 7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한 행동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한국	3.41
		베트남	3.60
		캄보디아	3.46
문항 8	국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	3.03
		베트남	3.68
		캄보디아	4.12
문항 9	국제적인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3.10
		베트남	3.59
		캄보디아	4.11
문항 10	나는 국제 문제를 다루는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3.05
		베트남	3.74
		캄보디아	4.18
문항 11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	한국	3.11
		베트남	3.55
		캄보디아	3.50
문항 12	일반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다.	한국	3.94
		베트남	4.06
		캄보디아	3.87
문항 13	어려움에 처한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를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한국	3.07
		베트남	4.13

		캄보디아	3.89
문항 14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한다.	한국	3.08
		베트남	2.93
		캄보디아	3.08
문항 15	세계의 서로 다른 종류의 문화들은 선진문화도 있고 후진문화도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2.83
		베트남	2.83
		캄보디아	3.71
문항 16	소외된 사람이나 지역을 위한다고 알려진 상품이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구입할 것이다.	한국	3.47
		베트남	3.36
		캄보디아	3.69
문항 17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집단도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	한국	4.39
		베트남	4.03
		캄보디아	4.34
문항 18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이벤트(학술포럼, 음악공연, 연극공연 등)에 관심이 많다.	한국	3.32
		베트남	4.04
		캄보디아	4.26
문항 19	풍요롭게 소비하며 사는 것보다는 절약하며 검소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	3.12
		베트남	4.41
		캄보디아	3.50
문항 20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분리수거 활동을 철저히 실천할 것이다.	한국	4.14

		베트남	4.15
		캄보디아	4.10
문항 21	지구촌 난민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4.15
		베트남	4.14
		캄보디아	4.38
문항 22	세계의 문제를 이해하나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3.34
		베트남	3.81
		캄보디아	4.14
문항 23	지구의 환경 위기 문제를 다루는 단체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	3.04
		베트남	3.38
		캄보디아	3.95
문항 24	공동체 전체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3.10
		베트남	3.78
		캄보디아	3.78
문항 25	세계의 난민을 돕는 자선 단체에까지 기부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3.57
		베트남	4.33
		캄보디아	4.18
문항 26	지구를 계속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전 세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한국	4.25
		베트남	4.55
		캄보디아	4.59

문항 27	지구적 차원의 자원 고갈 현상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4.33
		베트남	4.60
		캄보디아	4.37
문항 28	나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4.39
		베트남	4.69
		캄보디아	4.60
문항 29	세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한국	4.25
		베트남	4.49
		캄보디아	4.19
문항 30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환경오염과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한국	3.52
		베트남	3.88
		캄보디아	3.64
문항 31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3.79
		베트남	3.36
		캄보디아	4.24
문항 32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4.19
		베트남	3.90
		캄보디아	3.96
문항 33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한국	2.79
		베트남	2.98

		캄보디아	2.93
문항 34	세계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나 조직에 참여하고 싶다.	한국	3.13
		베트남	3.25
		캄보디아	4.21
문항 35	나는 세계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한국	4.00
		베트남	3.20
		캄보디아	3.80
문항 36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	4.49
		베트남	4.48
		캄보디아	4.54
문항 37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편이다.	한국	3.22
		베트남	3.52
		캄보디아	3.49
문항 38	세계평화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할 뿐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3.32
		베트남	3.33
		캄보디아	2.59
문항 39	지구촌의 빈곤문제와 양극화 현상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4.17
		베트남	4.20
		캄보디아	4.08
문항 40	기회가 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	한국	3.86

		베트남	4.13
		캄보디아	4.33
문항 41	민주주의는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유보될 수도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3.37
		베트남	3.38
		캄보디아	2.52
문항 42	나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나의 책임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이 문항에 동의함)	한국	2.83
		베트남	2.51
		캄보디아	2.53

마.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모든 점수는 5 점 척도로 변환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p < .05$ 인 셀에 대하여 음영 처리하였다.

〈표 A. 16〉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2 학년 (n=527)		3~4 학년 (n=731)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29	0.52	4.39	0.46	3.621	<.001
	지구적 관점	3.64	0.54	3.70	0.54	2.090	.037
	전체	3.96	0.45	4.04	0.41	3.388	.001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3	0.40	3.67	0.40	1.950	.051
	지속 가능성	3.52	0.56	3.52	0.60	-.011	.991

	전체	3.60	0.37	3.63	0.38	1.536	.125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5	0.53	3.48	0.53	1.065	.287
	공감과 이타	3.47	0.56	3.52	0.55	1.601	.110
	전체	3.46	0.50	3.50	0.50	1.471	.142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3	0.59	3.18	0.63	1.436	.151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50	0.56	3.54	0.55	1.096	.273
	전체	3.32	0.52	3.36	0.53	1.418	.156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9	0.38	3.63	0.37	2.317	.021

〈표 A.17〉 베트남 대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35)		3 학년 (n=45)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29	0.78	4.62	0.38	2.493	.015
	지구적 관점	3.21	0.62	3.55	0.64	2.398	.019
	전체	3.74	0.60	4.08	0.38	3.091	.003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1	0.50	3.91	0.45	2.843	.006
	지속 가능성	4.10	0.60	4.30	0.62	1.512	.135
	전체	3.73	0.44	4.01	0.40	2.982	.004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69	0.63	3.86	0.53	1.286	.202
	공감과 이타	3.70	0.63	3.87	0.45	1.334	.186
	전체	3.70	0.55	3.86	0.41	1.549	.126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43	0.41	3.46	0.53	.277	.783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71	0.53	3.99	0.42	2.668	.009

전체	3.57	0.43	3.73	0.41	1.659	.101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69	0.44	3.92	0.32	2.823	.006

〈표 A.18〉 캄보디아 대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2 학년 (n=33)		3,4 학년 (n=67)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48	0.39	4.38	0.51	-1.013	.314
	지구적 관점	3.71	0.49	3.71	0.56	-.014	.989
	전체	4.10	0.33	4.04	0.46	-.584	.561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9	0.33	3.60	0.38	-1.228	.222
	지속 가능성	3.28	0.39	3.32	0.60	.309	.758
	전체	3.59	0.27	3.53	0.34	-.920	.360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4.06	0.28	3.84	0.49	-2.390	.019
	공감과 이타	3.99	0.45	3.85	0.50	-1.307	.194
	전체	4.02	0.29	3.85	0.44	-2.093	.039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91	0.38	3.84	0.52	-.713	.478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4.04	0.43	3.93	0.50	-1.087	.280
	전체	3.97	0.35	3.88	0.46	-1.020	.310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90	0.22	3.81	0.33	-1.484	.141

〈표 A.19〉 한국 대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2 학년 (n=459)		3~4 학년 (n=619)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27	0.50	4.37	0.46	3.367	.001
	지구적 관점	3.66	0.53	3.71	0.53	1.461	.144
	전체	3.97	0.44	4.04	0.41	2.809	.005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2	0.40	3.66	0.39	1.585	.113
	지속 가능성	3.50	0.54	3.49	0.56	-.254	.800
	전체	3.59	0.37	3.62	0.37	1.165	.244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9	0.50	3.42	0.51	.911	.363
	공감과 이타	3.41	0.54	3.46	0.54	1.342	.180
	전체	3.40	0.48	3.44	0.48	1.241	.215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5	0.57	3.09	0.60	1.052	.293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5	0.55	3.46	0.53	.420	.674
	전체	3.25	0.50	3.28	0.50	.845	.398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5	0.37	3.59	0.36	1.772	.077

〈표 A.20〉 K 대(1)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94)		3 학년 (n=79)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3	0.40	4.39	0.40	1.014	.312
	지구적 관점	3.75	0.48	3.78	0.55	.434	.665
	전체	4.04	0.36	4.09	0.36	.847	.398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8	0.44	3.63	0.41	-.747	.456
	지속 가능성	3.49	0.59	3.47	0.48	-.211	.833
	전체	3.63	0.39	3.59	0.38	-.693	.489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9	0.50	3.43	0.56	.613	.541
	공감과 이타	3.40	0.57	3.47	0.57	.818	.414
	전체	3.39	0.50	3.46	0.52	.792	.429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0	0.56	3.11	0.62	1.168	.245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4	0.53	3.42	0.49	-.171	.865
	전체	3.22	0.48	3.27	0.48	.626	.532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7	0.36	3.60	0.35	.474	.636

〈표 A.21〉 K 대(2)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50)		3,4 학년 (n=161)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22	0.49	4.42	0.48	2.645	.009
	지구적 관점	3.52	0.52	3.71	0.57	2.064	.040
	전체	3.87	0.44	4.06	0.46	2.683	.008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50	0.37	3.68	0.37	3.025	.003
	지속 가능성	3.35	0.61	3.52	0.58	1.802	.073
	전체	3.46	0.36	3.64	0.36	3.065	.002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2	0.54	3.42	0.50	.092	.927
	공감과 이타	3.40	0.51	3.48	0.51	1.041	.299
	전체	3.41	0.49	3.45	0.45	.624	.533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3	0.53	3.10	0.58	.777	.438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37	0.59	3.48	0.55	1.173	.242
	전체	3.20	0.51	3.29	0.49	1.099	.273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48	0.39	3.61	0.37	2.175	.031

〈표 A.22〉 S 대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78)		3 학년 (n=90)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3.98	0.65	4.24	0.47	2.927	.004
	지구적 관점	3.63	0.62	3.64	0.52	.163	.871
	전체	3.80	0.57	3.94	0.40	1.802	.073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52	0.41	3.56	0.45	.602	.548
	지속 가능성	3.48	0.51	3.46	0.61	-.264	.792
	전체	3.51	0.38	3.54	0.42	.388	.699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7	0.49	3.41	0.53	.462	.645
	공감과 이타	3.37	0.43	3.41	0.53	.585	.559
	전체	3.37	0.41	3.41	0.49	.584	.560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5	0.52	3.18	0.59	.348	.728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8	0.51	3.48	0.50	-.087	.931
	전체	3.32	0.46	3.33	0.49	.155	.877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0	0.39	3.55	0.38	.867	.387

〈표 A.23〉 Y 대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2 학년 (n=79)		3,4 학년 (n=124)		t	p
		m	sd	m	sd		
지구적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1	0.48	4.37	0.43	.959	.339

인식	지구적 관점	3.59	0.50	3.67	0.51	1.111	.268
	전체	3.95	0.42	4.02	0.39	1.237	.218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0	0.36	3.67	0.38	1.331	.185
	지속 가능성	3.54	0.53	3.42	0.59	-1.375	.171
	전체	3.58	0.35	3.61	0.36	.499	.618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1	0.51	3.30	0.52	-.155	.877
	공감과 이타	3.32	0.56	3.35	0.58	.318	.751
	전체	3.32	0.50	3.32	0.51	.104	.917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2.88	0.62	2.89	0.60	.171	.865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36	0.58	3.34	0.57	-.258	.797
	전체	3.12	0.52	3.11	0.53	-.037	.971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0	0.35	3.52	0.36	.464	.643

〈표 A.24〉 E 대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2 학년 (n=59)		3,4 학년 (n=102)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43	0.33	4.37	0.45	-.801	.424
	지구적 관점	3.87	0.46	3.69	0.49	-2.294	.023
	전체	4.15	0.33	4.03	0.37	-2.033	.044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7	0.43	3.72	0.33	.783	.435
	지속 가능성	3.59	0.47	3.50	0.48	-1.125	.262
	전체	3.65	0.40	3.67	0.31	.240	.811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52	0.48	3.43	0.48	-1.184	.238

	공감과 이타	3.54	0.53	3.45	0.50	-1.027	.306
	전체	3.53	0.48	3.44	0.45	-1.183	.239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6	0.62	3.10	0.57	-.538	.591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63	0.48	3.52	0.50	-1.361	.175
	전체	3.39	0.51	3.31	0.47	-1.013	.313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68	0.35	3.61	0.32	-1.197	.233

〈표 A.25〉 C 대 학생의 학년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1 학년 (n=99)		3 학년 (n=63)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6	0.46	4.42	0.51	.752	.453
	지구적 관점	3.62	0.50	3.84	0.48	2.792	.006
	전체	3.99	0.41	4.13	0.42	2.108	.037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70	0.36	3.67	0.41	-.472	.637
	지속 가능성	3.52	0.50	3.61	0.59	1.067	.287
	전체	3.65	0.34	3.65	0.39	-.001	.999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8	0.50	3.61	0.45	2.990	.003
	공감과 이타	3.46	0.56	3.66	0.54	2.181	.031
	전체	3.42	0.49	3.63	0.45	2.790	.006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9	0.53	3.24	0.60	1.640	.103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44	0.56	3.62	0.50	2.021	.045
	전체	3.27	0.49	3.43	0.50	2.012	.046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9	0.36	3.71	0.37	2.088	.038

바. 한국 대학생의 계열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표 A.26〉 한국 대학생의 계열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교육계열 (n=582)		비교육계열 (n=514)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5	0.46	4.30	0.50	1.916	.056
	지구적 관점	3.76	0.50	3.62	0.55	4.358	<.001
	전체	4.05	0.40	3.96	0.45	3.790	<.001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5	0.40	3.64	0.39	.759	.448
	지속 가능성	3.52	0.53	3.47	0.57	1.537	.125
	전체	3.62	0.37	3.59	0.37	1.154	.249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4	0.51	3.37	0.50	2.059	.040
	공감과 이타	3.47	0.55	3.40	0.53	2.042	.041
	전체	3.45	0.49	3.39	0.47	2.219	.027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08	0.58	3.07	0.59	.255	.799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50	0.53	3.41	0.54	2.894	.004
	전체	3.29	0.50	3.24	0.50	1.704	.089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60	0.36	3.55	0.37	2.640	.008

대학별로 계열별 비교 결과 (모두 교육계열인 대학의 경우는 이 비교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A.27〉 K 대(2) 학생의 계열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교육계열 (n=112)		비교육계열 (n=100)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9	0.50	4.35	0.46	.699	.486

	지구적 관점	3.75	0.55	3.57	0.57	2.246	.026
	전체	4.07	0.47	3.96	0.44	1.750	.082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9	0.37	3.58	0.39	2.136	.034
	지속 가능성	3.56	0.56	3.39	0.61	2.076	.039
	전체	3.66	0.36	3.53	0.37	2.489	.014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8	0.51	3.36	0.51	1.621	.107
	공감과 이타	3.56	0.50	3.35	0.50	2.996	.003
	전체	3.52	0.45	3.36	0.46	2.545	.012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3	0.56	3.03	0.56	1.317	.189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53	0.54	3.36	0.57	2.233	.027
	전체	3.33	0.49	3.20	0.50	2.001	.047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65	0.37	3.51	0.36	2.614	.010

〈표 A.28〉 S 대 학생의 계열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교육계열 (n=60)		비교육계열 (n=109)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15	0.51	4.09	0.62	.590	.556
	지구적 관점	3.72	0.56	3.57	0.60	1.625	.106
	전체	3.93	0.44	3.83	0.53	1.268	.206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46	0.38	3.59	0.45	-1.801	.073
	지속 가능성	3.49	0.53	3.45	0.59	.465	.642
	전체	3.47	0.36	3.55	0.43	-1.264	.208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1	0.54	3.37	0.51	.559	.577
	공감과 이타	3.30	0.53	3.43	0.47	-1.652	.100
	전체	3.36	0.49	3.40	0.44	-.566	.572
지구적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0	0.56	3.20	0.56	-1.073	.285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51	0.49	3.45	0.52	.729	.467
	전체	3.31	0.49	3.33	0.47	-.232	.817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1	0.36	3.53	0.41	-.212	.832

〈표 A.29〉 Y 대 학생의 계열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교육계열 (n=65)		비교육계열 (n=142)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42	0.44	4.31	0.45	1.728	.086
	지구적 관점	3.71	0.46	3.62	0.52	1.300	.195
	전체	4.07	0.37	3.96	0.40	1.803	.073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9	0.39	3.62	0.36	1.206	.229
	지속 가능성	3.55	0.61	3.44	0.54	1.340	.182
	전체	3.66	0.39	3.58	0.33	1.480	.140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32	0.53	3.30	0.50	.300	.765
	공감과 이타	3.33	0.61	3.34	0.55	-.121	.904
	전체	3.33	0.53	3.32	0.48	.069	.945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2.83	0.59	2.91	0.61	-.858	.392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34	0.64	3.35	0.54	-.012	.990
	전체	3.09	0.55	3.13	0.51	-.489	.626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54	0.38	3.50	0.34	.745	.457

〈표 A.30〉 E 대 학생의 계열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교육계열 (n=91)	비교육계열 (n=73)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9	0.41	4.40	0.41	-.119	.905
	지구적 관점	3.83	0.46	3.67	0.51	2.115	.036
	전체	4.11	0.36	4.04	0.36	1.355	.177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72	0.40	3.69	0.34	.455	.650
	지속 가능성	3.55	0.45	3.53	0.53	.309	.758
	전체	3.68	0.36	3.65	0.33	.473	.637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9	0.52	3.44	0.43	.681	.497
	공감과 이타	3.53	0.52	3.43	0.51	1.319	.189
	전체	3.51	0.49	3.43	0.43	1.083	.280
지구적 참여와 실천 의지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0	0.61	3.15	0.56	-.513	.609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62	0.48	3.50	0.50	1.515	.132
	전체	3.36	0.50	3.32	0.47	.450	.653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67	0.34	3.61	0.33	1.006	.316

〈표 A.31〉 C 대 학생의 계열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및 요인 점수 비교

영역	요인	교육계열 (n=74)		비교육계열 (n=90)		t	p
		m	sd	m	sd		
지구적 인식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	4.36	0.51	4.40	0.45	-.420	.675
	지구적 관점	3.73	0.42	3.68	0.56	.569	.570
	전체	4.05	0.39	4.04	0.43	.099	.921
지구적 보편 가치	보편적 원칙	3.65	0.37	3.72	0.38	-1.340	.182
	지속 가능성	3.53	0.48	3.59	0.57	-.697	.487
	전체	3.61	0.34	3.69	0.36	-1.348	.180
지구적 책임의식	집단적 정체성, 연대감, 책임감	3.49	0.45	3.45	0.52	.435	.664
	공감과 이타	3.59	0.50	3.49	0.60	1.135	.258
	전체	3.54	0.43	3.47	0.52	.878	.381

지구적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3.18	0.48	3.13	0.62	.609	.543
참여와 실천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3.61	0.51	3.43	0.55	2.194	.030
의지	전체	3.40	0.45	3.28	0.54	1.519	.131
4 개 영역 점수의 평균		3.65	0.33	3.62	0.40	.427	.670

사. 세계시민의식 요인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0.4 이상인,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 음영처리하였다.

〈표 A.32〉 세계시민의식 요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2	.418***						
3	.451***	.270***					
4	.119***	.249***	.122***				
5	.393***	.415***	.206***	.361***			
6	.183***	.238***	.274***	.221***	.297***		
7	.195***	.297***	.172***	.317***	.320***	.337***	
8	.3336***	.404***	.175***	.325***	.452***	.316***	.428***

*** p<.001

1 : 세계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인식, 2 : 세계의 여러 문제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3 : 보편적 원칙, 4 : 지속 가능성 5 :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연대감/책임감, 6 : 공감과 이타, 7 : 지구적 실천에의 관심, 8 : 지구적 실천에의 의지

아.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p < .05$ 인 결과에 대해서 음영 처리하였다.

〈표 A.33〉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대학생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1274)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19	3.837	3.390	3.300	3.268
	현재	988	4.019	3.641	3.470	3.324
	미래	266	3.981	3.561	3.541	3.405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32	3.694	3.258	3.359	3.366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220	4.016	3.633	3.488	3.341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21	4.000	3.397	3.352	3.243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24	3.896	3.517	3.525	3.600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831	4.020	3.655	3.544	3.376

구분	가치관	n (N=1274)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416	3.990	3.559	3.357	3.257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203	4.020	3.673	3.546	3.363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958	4.007	3.620	3.480	3.345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12	4.001	3.530	3.391	3.259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171	3.914	3.574	3.301	3.178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645	4.075	3.696	3.572	3.393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456	3.951	3.531	3.424	3.326

〈표 A.34〉 베트남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80)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0	-	-	-	-
	현재	50	4.017	3.940	3.823	3.665

구분	가치관	n (N=80)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미래	30	3.800	3.800	3.733	3.645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1	4.100	3.583	3.200	3.800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78	3.933	3.893	3.784	3.652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1	4.000	3.750	4.800	3.900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3	4.300	4.056	3.667	4.033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74	3.916	3.877	3.783	3.628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3	4.067	3.972	4.067	4.000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17	4.069	3.922	4.025	3.820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63	3.900	3.878	3.725	3.614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0	-	-	-	-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6	3.783	3.597	3.383	3.467

구분	가치관	n (N=80)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48	3.951	3.943	3.907	3.731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24	3.988	3.875	3.696	3.588

〈표 A.35〉 캄보디아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100)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1	3.600	3.750	3.200	3.500
	현재	58	4.076	3.567	3.871	3.897
	미래	41	4.054	3.512	3.973	3.941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12	3.900	3.417	3.858	3.975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85	4.076	3.560	3.901	3.902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3	4.300	3.694	4.233	3.900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7	3.871	3.345	3.871	3.886

구분	가치관	n (N=100)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71	4.061	3.555	3.939	3.917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22	4.127	3.583	3.809	3.900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8	3.925	3.646	3.913	3.825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82	4.054	3.545	3.876	3.905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0	4.240	3.483	4.150	4.030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5	3.780	3.583	3.700	3.660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31	4.161	3.626	3.958	3.910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64	4.036	3.505	3.897	3.931

〈표 A.36〉 한국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1093)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18	3.850	3.370	3.306	3.256

구분	가치관	n (N=1093)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현재	880	4.015	3.629	3.424	3.267
	미래	195	3.993	3.535	3.421	3.255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19	3.542	3.140	3.053	2.958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057	4.018	3.620	3.433	3.273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17	3.947	3.324	3.112	3.088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14	3.821	3.488	3.321	3.364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686	4.028	3.641	3.477	3.292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391	3.981	3.555	3.326	3.215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178	4.020	3.651	3.484	3.298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813	4.010	3.608	3.421	3.268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02	3.978	3.535	3.317	3.184

구분	가치관	n (N=1093)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160	3.923	3.573	3.285	3.152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566	4.081	3.679	3.523	3.336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368	3.934	3.513	3.324	3.204

〈표 A.37〉 K 대(1) 학생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179)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4	3.975	3.042	3.125	3.325
	현재	147	4.053	3.626	3.424	3.258
	미래	28	4.068	3.592	3.443	3.162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3	3.600	3.000	2.867	2.933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72	4.060	3.618	3.443	3.258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4	4.125	3.604	2.875	2.900

구분	가치관	n (N=179)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2	3.850	3.208	3.300	3.400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96	4.081	3.672	3.485	3.268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80	4.030	3.545	3.348	3.220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22	3.986	3.519	3.514	3.305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140	4.074	3.629	3.419	3.260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7	3.976	3.544	3.312	3.037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25	4.004	3.510	3.460	3.208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100	4.099	3.700	3.492	3.294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54	3.993	3.481	3.269	3.170

〈표 A.38〉 K 대(2) 학생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211)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3	3.800	3.472	3.067	3.067
	현재	163	4.047	3.632	3.483	3.284
	미래	45	3.924	3.488	3.318	3.231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4	3.050	2.896	3.000	2.775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207	4.036	3.613	3.450	3.279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0	-	-	-	-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3	3.967	3.528	3.567	3.400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135	4.027	3.613	3.481	3.280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72	4.000	3.578	3.356	3.247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43	3.937	3.638	3.426	3.319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153	4.062	3.605	3.459	3.276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5	3.793	3.426	3.307	3.060

구분	가치관	n (N=211)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35	3.989	3.607	3.331	3.177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103	4.117	3.687	3.543	3.347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73	3.890	3.471	3.352	3.205

〈표 A.39〉 S 대 학생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169)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1	1.000	2.667	2.200	2.200
	현재	137	3.863	3.543	3.369	3.306
	미래	31	3.965	3.452	3.497	3.419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6	3.500	3.139	3.050	2.983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56	3.876	3.552	3.404	3.331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7	3.914	3.167	3.257	3.357

구분	가치관	n (N=169)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6	3.750	3.597	3.383	3.500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117	3.873	3.521	3.402	3.330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46	3.859	3.513	3.344	3.270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27	3.807	3.543	3.449	3.400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118	3.853	3.521	3.372	3.282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24	3.989	3.497	3.379	3.417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23	3.615	3.428	3.191	3.278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77	3.926	3.606	3.502	3.427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69	3.880	3.458	3.320	3.214

〈표 A.40〉 E 대 학생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206)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3	4.000	3.500	3.000	2.833
	현재	169	4.003	3.623	3.323	3.120
	미래	34	3.950	3.514	3.344	3.129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1	3.900	3.667	2.700	2.500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202	4.001	3.604	3.330	3.125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3	3.567	3.278	2.900	2.667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1	3.900	3.583	2.700	2.500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130	3.991	3.637	3.392	3.167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75	4.002	3.544	3.208	3.039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29	4.093	3.718	3.402	3.052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158	3.975	3.590	3.326	3.138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9	4.032	3.531	3.176	3.042

구분	가치관	n (N=206)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32	3.961	3.542	3.139	2.965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108	4.071	3.666	3.432	3.168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67	3.892	3.527	3.233	3.106

〈표 A.41〉 Y대 학생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164)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3	4.033	3.667	3.900	3.667
	현재	131	4.093	3.678	3.463	3.342
	미래	30	4.017	3.619	3.492	3.317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1	4.100	3.750	3.500	3.300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61	4.079	3.671	3.481	3.347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2	4.000	3.375	3.100	3.100

구분	가치관	n (N=164)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0	-	-	-	-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90	4.162	3.738	3.603	3.405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74	3.975	3.581	3.323	3.269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25	4.216	3.817	3.616	3.380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129	4.049	3.641	3.470	3.352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0	4.100	3.633	3.220	3.150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21	4.076	3.766	3.352	3.181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88	4.113	3.686	3.557	3.406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55	4.022	3.601	3.396	3.305

〈표 A.42〉 C 대 학생의 가치관 유형별 세계시민의식 영역 점수 비교

구분	가치관	n (N=164)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시간차원	과거	4	4.225	3.479	3.725	3.600
	현재	133	4.027	3.677	3.496	3.330
	미래	27	4.093	3.580	3.500	3.296
인간과 차원과의 관계 유형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사는 관계 유형	4	3.825	3.208	3.225	3.150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관계 유형	159	4.045	3.669	3.508	3.337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에 종속되어 사는 관계 유형	1	4.500	3.333	3.700	3.200
인간(대인) 관계 유형	분명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수직적 인간(대인) 관계 유형	2	3.750	3.333	3.100	3.300
	구성원들이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지위를 누리는 수평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대인) 관계 유형	118	4.076	3.700	3.537	3.342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중시하는 개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인간관계 유형	44	3.965	3.552	3.427	3.305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32	4.113	3.658	3.544	3.341
	인간의 본성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이 혼재되어 있다	115	4.030	3.660	3.497	3.335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17	3.994	3.623	3.459	3.288

구분	가치관	n (N=164)	지구적 인식	지구적 보편가치	지구적 책임의식	지구적 참여와 실천의지
			m	m	m	m
행동 동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	24	3.854	3.601	3.263	3.158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	90	4.133	3.719	3.629	3.427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50	3.969	3.569	3.390	3.242

Appendix B. 국내 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유형과 토대

가천대학교

1. 현황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가천대학교는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비전으로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박애, 봉사, 애국을 중심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어렵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인류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가천대학교의 이러한 교육목적은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내용들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비전과 대학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특성화 분야(G2N3+GL)²¹에 대한 투자의 선택과 집중, 능동적인 대학경영체계 구축 및 정량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프로젝트의 경제적 운영관리, ‘글로벌 명문대학 달성’을 위한 실용적이고

²¹ G2N3+GL 은 Global Top (G2), National Top (N3), Global Leader 를 뜻한다. 2 개 학과를 세계 최고수준, 3 개 학과를 국내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나타낸다.

유연한 실행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검토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인재 육성의 내용과 방향이 대학의 교육활동을 관통할 수 있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상의 기본 방향을 통해 가천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보면, 박애·봉사·애국과 같은 덕성을 함양한 인재를 육성하여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직접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세계시민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천대학교의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은 미래 사회에 경쟁력이 있는 학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교육과정: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liberal arts college)의 경우에도 ‘글로벌 문화’와 같은 자유전공학부의 핵심균형교양 과목들을 중심으로 융합교과로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교과목구성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은 불분명하다.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는 기초교양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과목을 운영한다. 자유전공학부의 핵심균형교양 과목들은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융합교과로 구성되는데, ‘글로벌 문화’와 같은 경우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양의 토대위에서 전공 심화과정으로의 연결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방사형으로 다양하게 전공분야를 심화하여 융합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 국제화 프로그램

가천대학교는 외국학생을 위한 ‘가천인터내셔널센터’, ‘한국어교육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부설기관을 개설하여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교환학생, 방문학생, 단기해외수업, 가천 인터내셔널 굿윌 앰배서더(International Goodwill Ambassador) 등과 같은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학습을 포함하여 전문성 함양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1)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와 가천인터내셔널센터

부속기관으로 전략적인 해외진출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를 두었고 가천인터내셔널센터를 두었다. 가천대학교는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를 통해 재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권 국가 내에서 영어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서 2011-동계방학부터 매 동계 및 하계 방학마다 약 100 명의 학생들을 파견하였으며, 2012-1 학기부터 매 학기마다 약 50 명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는 학생들의 어학 역량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실제로 전문분야별로 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세계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려웠다. 다만, 가천대학교가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하와이가천글로벌센터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천인터내셔널센터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센터이며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학생들의 한국어학습에 도움을 제공하는 센터이다. 가천인터내셔널센터는 ① 외국인 유학생 학교생활 상담 (학습법, 출석률 파악 및 성적 관리) ② 비자 등 출입국 관련 및 법률적 자문 제공 ③ 보험 및 기숙사 관련 상담 ④ 생활지도 및 문화체험 자문 ⑤ 교내·외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 지원 ⑥ 기타 외국인유학생 관련 전반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센터들과 세계시민교육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해 보이지만, 가천대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할 경우 이와 같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활동 프로그램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과 사회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교류프로그램으로 ① 교환학생 ② 방문학생 ③ 단기해외수업 ④ 가천 인터내셔널 굿윌 앰배서더 등과 같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 년간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23,300 여명 정도 되고, 사회봉사단의 사회봉사 프로그램과 총학생회 및 봉사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도 4,500 여명에 이르는 등 봉사활동 참여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5-1 학기 포함).

또한 가천대학교는 사회봉사단과 총학생회 및 봉사동아리 외에도 세살마을연구원에서 영·유아 지원프로그램인 ‘세살마을’ 프로그램을, 학생복지처에서 KOICA 와 공동으로 저개발국 협력·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가천대학교는 교육이념 중 하나인 ‘봉사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런 활동들이 세계시민교육의 큰 틀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가천대학교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사회봉사활동에 넣어 운영할 수 있다.

2. 특징과 시사점

가천대학교는 교육목표와 대학발전의 비전 그리고 인재상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점에서 가천대학교는 넓은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상,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은 개발,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자유전공학부의 핵심균형교양 과목들 중 글로벌 문화를 다루는 과목들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 간의 연계가 불분명하여, 교육과정의 시스템을 방사형 형태로 발전시켜 체계적인 세계시민교육을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보인다.

가천대학교의 가천자유전공학부와 함께, 가천인터내셔널센터가 세계시민교육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천인터내셔널센터가 현재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다루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센터는 센터가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외국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1. 현황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가톨릭대학교의 ‘인간 존중의 대학’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가톨릭대학은 대학의 교육 목적을 ①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인 양성, ②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균형 잡힌 사회인 양성, ③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인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인류사회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인은 문화다양성, 세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봉사,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역량을 요구한다. 가톨릭대학교의 이러한 교육 이념, 목적, 비전 등은 세계시민교육과 포괄적으로 연결된다.

가톨릭대학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기 ACE 사업을 통해서 학부교육 선도학교로서 인프라를 정착하고 ELP (Ethnic Leaders Rearing Program) 학부대학의 설립을 토대로 교양교육의 질적 성숙을 이끌어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2기 ACE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학 특성화 및 학문분야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학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톨릭대학의 국제화 사업은 물적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INBOUND 전략은 기존의 대학들이 국제화사업을 학생을 해외로 보내고, 외국교수 및 외국 학생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으로 이해했던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제화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대학의 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대학발전 전략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과제가 있다.

나. 교육과정: 국제학부

교육과정에서는 5개 과정으로 구조화하고, 자유전공학부제, 이론과 실제간의 통합형 운영의 추구, 수료증의 발급으로 과정이수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인성분야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인성과 문제해결능력 등 인증교과목 체계로 운영한다.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연계하고, 선택과정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인 교과들이 교양교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 속에서 명시적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특히 가톨릭대학교의 국제학부는 주요 특징으로 ① 해외현장수업 실시로 더욱 생생한 현장교육 ② 어학실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어학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미국학, 중국학, 국제관계학의 복수전공을 통한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학실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어학프로그램으로 어학실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학부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과목들이 국제정세, 특정 국가의 정치 및 경제, 통상이론 및 실무 등과 같은 이론 수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다만, 가톨릭대학교는 장기현장실습을 개설하여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해외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드러내놓고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다. 국제화 프로그램

가톨릭대학의 국제화 전략은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국제적 경험확충과 대학 평판도 및 이미지 강화를 주요목표로 삼고 있다. 대학특성화 전략은 윤리적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제해결능력 교육과정과 인간존중 인성교육과정을 운영을 지향한다. 전공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수요 변화를 반영한 학문분야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화 관련 학생활동으로는 인바운드 국제화, 인터내셔널 허브(International Hub), 기숙사 학교(Residential College), 교수학습센터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학습센터는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K-CESA)’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전담부서이다. 2013 년도에는 “가톨릭대학교 학생 핵심역량 진단 도구 연구위원회”를 통해 “CUK-COCA: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ore Competencies Assessment”라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핵심역량을

인성윤리역량, 세계시민역량, 문제해결역량, 학문역량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 세계시민역량의 하위 요소로 ‘문화적 개방성’, ‘글로벌 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등을 제시하였다.

2. 특징과 시사점

가톨릭대학교는 대학의 목적과 비전 등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세계시민교육과 포괄적으로 연결된다. 교육목표와 세계시민교육 간의 연결고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톨릭대학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의 교육과정, 국제화 활동, 대학 특성화 전략을 살펴본다면, 가톨릭대학이 세계시민교육을 중시하여 방침을 정하고 제도를 만들 경우에 세계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가톨릭대학교 교육과정의 체계구조의 기반이 훌륭한데, 이는 바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연계되고 선택과정이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학부의 경우에 학생들의 언어 역량과 문제해결 역량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데 좋은 인프라 중 하나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다음으로 가톨릭대학교는 대학의 국제화 활동을 관련해서 세계시민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토대를 이미 구축하였다. 대학특성화 전략은 윤리적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제해결능력 교육과정과 인간존중 인성교육과정 운영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전략방향은 세계시민교육과 포괄적으로 연결된다.

가톨릭대학교가 앞으로 윤리적 리더를 위한 교양교육을 강화한다면, 세계시민교육과 접목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부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ACE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 중 세계시민교육에 초점을 둔다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이 이런 윤리적 리더 육성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국제화 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과 세계시민 역량이 중점이 되는 실천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또한 가능할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교

1. 현황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한국폴리텍대학교는 ‘평생직업능력개발 리더 K-폴리텍’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학의 미션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메카’가 되는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K-폴리텍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의 국가대표이자 글로벌 리더를 뜻하는 폴리텍의 새로운 브랜드를 정립해 가고자 한다. 즉 대학의 인재상은 직업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학교는 목표 상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비명시적으로 다루며 글로벌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글로벌 역량에 대한 대학의 기본적인 관점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세계시민의식 차원에서의 글로벌 역량을 얼마나 생각하는 지 알 수 없다.

한국폴리텍대학교의 발전계획 중점 과제들은 ① 생애전주기 평생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제공, ② 미래산업을 향한 지역균형능력개발 허브 구축, ③ 글로벌 스탠다드 직업능력개발 솔루션 창달, ④ 능동적 조직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다. 이 대학은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과의 연계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과정은 일반대학과 달리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① 2년제 과정, 4년제 과정 등 학위과정 ② 기능사 과정, 기능장 과정 등 비학위직업훈련과정 ③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과 같은 구직자과정 ④ 재직자향상과정, 일학습병행제인력양성사업 등 재직자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폴리텍대학교는 기능대학이라는 특성상 세계시민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시민교육과 연관성이 있는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전문대학으로서 운영하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직업교육과정에 알맞게 차별화된 세계시민교육 구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 국제화 전략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국제화사업은 공적개발원조사업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은 개도국 및 저개발국 대상 직업교육훈련 롤 모델을 전수하여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한국폴리텍대학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04년부터 8년 이상에 걸친 19개의 이상의 ODA 프로젝트 완료하거나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폴리텍대학교는 ① 정부기관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한 개도국 및 저개발국 대상 직업교육훈련 롤 모델을 전수하고, ② ODA 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한국폴리텍대학 글로벌 브랜드 파워 및 위상을 제고하며, ③ 한국형 직업교육훈련 ODA 프로그램의 수출 및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자립 및 성장 지원으로 국가 차원의 대외 개발협력에 기여하고자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운영해 오고 있다.

2. 특징과 시사점

한국폴리텍대학교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세계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맥락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이 점은 5장에서 다른 다른 대학들과의 큰 차이점으로, 한국폴리텍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이 다른 전문대학들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크다.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아직 세계시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전문직업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에 중점을 둔다면, 대학의 세계시민교육이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교는 전문대학으로서 운영하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직업교육과정에 알맞게 차별화된 세계시민교육 구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의 국제화사업은 현재 공적개발원조사업 중심으로, 국제화 사업이 세계시민교육에 초점을 갖게 된다면, 이를 통해 개도국 및 저개발국 대상 직업교육훈련 활동 속에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나라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널리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고등교육 내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양대학교

1. 현황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한양대학교는 대학의 교육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양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교양인, 전문인, 실용인, 세계인, 봉사인 등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양대학교의 교육목표는 세계시민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연결되어 있다.

New Hanyang 2020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 과제로 ① 교육경쟁력 강화 ② 학사 시스템 혁신 ③ 연구 수월성 제고 ④ 국제화 수준 향상 ⑤ 책임경영 강화 ⑥ 행정역량 향상 ⑦ 성과주의 강화 ⑧ 핵심 자산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화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는 ① 국제교육 확대 ② 국제화 인프라 확충 ③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④ 우수 외국인 교수 확보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양대학교는 국내 공학 분야를 선도하여 온 대학으로서, 주로 공학 분야에서 다양한 융합 전공 개설을 활성화하여 왔다. 이런 부분은 세계시민교육을 대학의 주요 교육방침으로 도입하였을 때,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1) 국제학부

한양대학교의 교육과정 측면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단과대학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대학의 교육방침과 대학교육의 실제 간의 연계성은 낮아 보인다.

한양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제학부의 경우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측면을 찾을 수 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의 교육 목적은 ① 국제적 이해와 관점의 형성, ② 영어소통능력과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③ 글로벌 리더십 함양 등 즉, 국제학부의 주된 목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조직에서 미래 글로벌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세계시민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국제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한양국제여름학교와 사회봉사단

한양대학교는 비정규프로그램으로 한양국제여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양국제여름학교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은 대학에서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되는데, 이런 내용이 세계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제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도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사회봉사단의 비전은 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② Social Insight ③ Sharing Insight ④ Solution Design ⑤ Social Innovation ⑥ Social Impact Evaluation ⑦ Social Change 등을 추구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와 관련하여 한양대학교는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감능력과 참여의지, 해결역량을 갖춘 글로벌 리더임을 분명히 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랑의 실천자 양성을 위해 모든 사회공헌 활동을 SDGs 와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봉사활동의 실체가 그 뜻을 구현하기에는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봉사단 프로그램은 일반교양과목으로 1 학점 단위의 ‘사회봉사’과목을 정규학과와 계절학기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총 4 시간 이상의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봉사활동기관 혹은 단체의 일정에 맞춰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총 30 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2016 년 현재 운영 중인 사회봉사교과 프로그램은 ‘양질의 교육’, ‘지구촌 협력’, ‘기아종식’, ‘깨끗한 물’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한양대학교는 사회봉사단을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 국제화 전략: 국제처

한양대학교는 국제처를 중심으로 국제화사업을 운영한다. 이런 기관을 통해 한양대는 ‘최고의 국제화대학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① 다양한 해외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국제교육 인프라 구축, ③ 대규모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을 제시하였다. 이런 세부 방안들은 대학의 국제화에 방점을 두고 국제처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글로벌프론티어 프로그램은 21 세기 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형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외 현지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문화,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학습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 특징과 시사점

한양대학교는 교육목표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기본적인 방향과 연결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운영함에 있어서는 느슨한 연계관계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학부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한양대학교 국제학부는 세계시민교육과 느슨한 연계관계 속에서 독자적으로 넓은 의미의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국제학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국가들의 역사, 국제 경제, 국제 정치 등에 대한 이론적 과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이외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은 사회봉사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관련 프로그램들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단의 주요 비전은 사회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으로, 한양대학교는 학생들이 지구가 처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이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봉사 프로그램이 아직 다양하게 활성화된 것은 아니므로 활성화의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한양대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틀과의 연계성과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현재 사회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들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세계시민교육의 프레임 속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탄탄한 운영체제를 마련한다면, 한양대학교는 느슨한 연계관계 속에서 더욱 더 다양한 형태의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ppendix C. 세계 주요대학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유형

토론토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

1. 개요

캐나다에 위치한 토론토 대학교는 우수한 연구 대학교로 폭넓은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지녔다. 온타리오 교육 연구 기관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OISE)와 비교, 국제, 개발 교육 센터 (Comparative, International & Development Education Centre, CIDE)가 세계시민교육 및 관련 이슈를 다루는 주요 부서이며 기타 부서 또한 국제 학습 및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시민이 교내 비전이나 이념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으나, 2015 년 총장 발표문 (Three Priorities: A Discussion Paper)에서 대학의 3 대 우선순위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국제 교류 강화가 포함되었다. 국제 교류는 학생들에게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을 쌓게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전문성 양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주요 우선 과제의 전략적 실천 계획 중 하나는 학생의 유동성 증대다.

3 대 우선순위: 토론 논문 (2015) 에서 발췌

2.2. 학생 유동성 - 전략적 실행 계획: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형태의 국제 경험을 쌓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교환학생 (Study Abroad) 및 여름 해외 인턴 (Summer Abroad) 기회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동시에 여러 형태의 국제 경험 기회를 모색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를 맞춰야 한다.

2. 중점사항

- **국제 경험 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Experience, CIE):**

위와 같은 학교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국제 경험 기회뿐만 아니라, 교내 및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볼 기회도 마련했다. 국제 경험 센터는 해외 교육,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를 오가는 학생들을 위한 센터이다. 글로벌 라운지 (Global Lounge)와 학생들이 주도해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는 것 또한 토론토대의 강점이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Intercultural Learning Program)의 다양한 워크숍, 견학, 토론을 통해 학부생들은 토론토 내에서도 다문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멍크 국제학부 (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세계시민과 관련된 주요 조직이 소속된 학부이다. 멍크 국제학부는 “글로벌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학제간 학부”로서 글로벌 이슈와 필수 인턴십을 포함하는 과정인 국제학 마스터 프로그램 (Master of Global Affairs program)을 제공한다. 교내 시민 연구소 (Citizen Lab)은 ICT, 인권, 세계 안보를 아우르는 흥미진진한 다학제간 연구소다.

- **온타리오 교육 연구소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비교 교육, 개발 교육, 민주 시민권, 민주 교육 과목을 통해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다룬다. OISE 하의 비교, 국제, 개발 교육 센터 (Comparative, International & Development Education Centre, CIDECE)는 비교 및 국제 교육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CIDE 협력 프로그램 (CIDE Collaborative Program)은 OISE 참가 학부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필수 과목 몇 개, 정치학, 사회학, 지리학 연계 과목을 타교에서 이수하고 프랙티컴 요건을 맞추면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비교 및 국제 교육 협회 이사회 (Board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의 부의장인 카렌 먼디 (Karen Mundy)가 전 CIDECE 총장직을 수행했고, OISE 에서 국제학과 세계시민 전공인 마크 에반스 (Mark Evans)는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전문 자문단 소속이다. 2004 년 OISE 는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세계시민 교육 - 교수 핸드북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in a Changing World - A Teacher's

Resource Handbook)을 발간해 고등부 교사들이 10 학년 시민 교과 (Civic course) 수업 중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했다. 개념, 주요 주제, 사례 및 수업 중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더불어 학교 차원에서의 적용법과 학습 평가 방안도 수록돼 있다. 이는 캐나다 공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는 초기 교재다.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세계시민 교육 - 교수자 핸드북 목차

도입: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세계시민 교육: 시각과 수업 실습

- 1 장: 세계시민의식 차원에 대해 알아보기
- 2 장: 세계적인 시각을 띤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수업 환경 만들기
- 3 장: 사회적 정의와 우리의 인권 살펴보기: 비평적 탐구 역량 개발
- 4 장: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공 이슈 탐구
- 5 장: 학생들의 삶과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덕적 이슈 연결 짓기
- 6 장: 세계시민의식 속에서 질문과 참여를 위한 협업 파트너십 형성하기
- 7 장: 세계시민으로서 참여하기: 변화를 위한 행동
- 8 장: 교내 행사에 세계시민의식 심기
- 9 장: 학생 학습 및 세계시민 평가하기
- 10 장: 수업 중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

3. 특징

토론토대학은 총장 토론 논문에도 명시돼 있듯 국제적 관점이 강하나,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의 전략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토론토대학에서의 세계시민은 세계를 잘 아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필요하다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나이다. 토론토의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국제경험센터도 있는 반면 대학전략에서는 학생의 유동성을 강조하며 토론토 현지나 교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의 실제 경험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강조한다.

세계시민에 대한 표면적 개념은 OISE 의 세계시민교육 초기 연구 및 토론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세계시민 교육 - 교수 핸드북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in a Changing World - A

Teacher's Resource Handbook, 2004)에서는 10 학년 학생들에게 비평적이고 대화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이끌었다. 스스로 세계시민의 정의를 내리게 하고, 교내에서 학생주도 인권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시민에 대한 대학의 비전과 학부 수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은 느슨하게 연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주요 기관은 바로 명크 국제학부로, 세계이슈에 대한 인턴십 경험을 포함한 다학제간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시민 연구소 또한 인권과 세계안보에 ICT 를 접목한 좋은 사례다.

하버드교육대학원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 개요

1920 년 설립된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 창출 및 모범 사례 공유뿐만 아니라 교사의 훈련에도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연구기반의 교육 정책 및 관행을 강조하고, 이는 박사학위가 실질적 훈련 중심인 Ed.D 가 아닌 연구 중심의 Ph.D.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석사, 박사, 전문 학위 프로그램은 세계시민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자주 언급되지 않으며 글로벌 교육, 글로벌 역량, 21 세기 역량을 더 강조한다.

2. 중점사항

- **교육 정책과 관리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교육 이슈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석사 과정 중 하나로, 교육 정책과 관리는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정의의 이슈를 다루고 비영리단체 및 정부 기관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학업 과정에 연계한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국내 이슈를 다루지만, 개별 수업은 세계화 세상 속에서 미국의 맥락과 위치를 다룬다 (H-110 G Learning in a Globalizing World: Language Acquisition, Cultural Awareness, and Cognitive Justice (세계화 속에서의 교육: 언어 습득, 문화적 의식, 인지적 정의) 수업 참고).

- **국제 교육 정책 (International Education Policy):**

국제 교육 정책 과정은 21 세기의 국제 교육과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개발도상국의 정치 기관 및 시민 사회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세계시민 주제를 다루고 (A-826 과목), SDG 의 교육의 질을 다룬다 (A-833Y 과목).

- **글로벌 교육 혁신 이니셔티브 (Global Education Innovation Initiative, GEII):**

GEII는 페르난도 레이머스 (Fernando Reimers)의 주도하에 글로벌 교육의 리더십 개발을 선도하는 연구 기관이다. GEII는 21세기 역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 양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한다.

이니셔티브는 21세기의 역량 중 “금융에 대한 이해, 기업가적 역량, 시민 및 리더십 역량,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역량, 세계시민 역량”을 꼽는다.

- **글로벌 교육 싱크탱크 (Think Tank on Global Education):**

국제 교육 정책 과정의 수장인 페르난도 레이머스가 이끄는 전문 교육 과정으로, 글로벌 교육 싱크탱크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세계시민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본 과정에서는 글로벌 교육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이에 참가자는 그룹으로 등록해 과정 중 배우고 토의한 내용을 지역사회에 직접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프로그램은 글로벌 교육을 이해하고 자신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교육 종사자가 온라인 및 3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역량의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조사 및 글로벌 교육의 실천”을 증진한다. 디지털 기술, 해외연수, 글로벌 역량,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단위 역량 강화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

글로벌 교육 싱크탱크 - 프로그램 개요

(글로벌 교육 싱크탱크 홈페이지에서 발췌)

학생들이 다면적인 글로벌 도전 과제와 기회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교육자는 학생들이 다문화 의식, 지식, 글로벌 이슈와 외국어에 대한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글로벌 교육은 이런 역량을 배양시키는 특수한 지식과 실천 방안으로 상호 연결성이 증대되는 오늘날 중요한 분야이다.

세션 주제

- 글로벌 교육이 필요한 이유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 형성
- 새로운 교과목 프레임워크 검토
- 해외 체류 경험 프레임워크

- 교사 개발 및 글로벌 역량
- 프로그램 개발 및 자격증 수여
- 지역 내 다차원적 역량 강화
- 글로벌 교육 선도
- 예술, 대중문화, 글로벌 교육

3. 특징

하버드 교육대학원은 세계시민을 설립 이념에 명기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유능한 리더를 배출하겠다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에 학술 및 연구 분야의 세계화가 들어있다. 학교는 글로벌 시각과 21 세기 역량을 지닌, 세계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 프로그램과 학부는 폭과 깊이가 고차원적이고 독립적인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글로벌 교육 혁신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이슈를 연구해 21 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는 연구 기관으로, 여기에 세계시민역량도 포함돼 있다. 글로벌 교육 싱크탱크는 독특한 단기 훈련 과정으로 글로벌 교육과 글로벌 역량 과정을 본인의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개발하려는 교육 리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그룹으로 등록하고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 또한 특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상위 체제와 느슨한 연계체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성이 보인다.

리하이대학교 (Lehigh University)

1. 개요

1865년 철도 사업가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리하이대학교는 “펜실베이니아 베들레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대학교다. 리하이는 세계시민과정을 도입하는 미국 내 중소규모 대학의 사례다. 리하이는 4개의 학부에서 학, 석박사 과정을 제공한다.

2. 중점사항

UN DPI의 비영리단체 등록: 리하이의 특징은 바로 UN 공보부 산하 NGO 단체라는 점이다. UN이 NGO로 공식 인정하는 6번째 대학이다. 덕분에 UN에서의 인턴십 및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다.

- **UNAI 회원:**

리하이가 UN 산하 NGO이자 고등교육 기관 간의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유엔아카데믹임팩트의 회원으로서 UN 프로그램 참여 기회 및 캠퍼스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리더를 초빙하는 등의 다양한 기회를 더 많은 학생에 제공한다.

-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 (Interdisciplinary Studies Program):**

인문과학대 (College of Arts & Sciences)의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 (Interdisciplinary Studies) 내의 글로벌 연구 전공 (Global Studies majors)이 특히 네트워크를 활용해 워크숍, 현장학습, 인턴십을 통한 해외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속가능개발 부전공생 또한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며 케냐 및 버뮤다에서 현장학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 **세계시민 프로그램 (Global Citizenship Program):**

리하이의 세계시민 프로그램은 인증제도로 교과목 이수, 해외 경험, 특별활동으로 구성됐다. “다방면으로 학생의 글로벌-의식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됐다. 세계시민과 관련된 연구 주제로는 “도덕적 책임, 인간 가치, 문화적/종교적/기관 차원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있다. 학생의 해외연수 비용은 대학에서 일부 부담한다. 또한, 캠퍼스 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각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게끔 장려한다. 정치학부 하의 지속가능개발 전공의 디렉터인 마크 오어스 (Mark Orrs)가 임시 수장을 맡고 있다.

- **국제개발교육(International Development in Education):**

교육학과 하에 국제개발교육 인증 과정은 이론, 정책, 실습 측면에서 교육 개발을 다루는 12 학점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다. 리하이가 UN 산하 비영리단체라는 점이 본 프로그램의 4 개 수업 중 하나인 ‘CIE 405: UN 경험하기: 교육 정책 및 실제에서의 비영리단체’에서도 빛을 발한다. 본 과정은 “구조화된 실질적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NGO 대사로써 리하이를 대표해 정책 브리프 작성 및 교육 분야 분석을 실습해본다.

- **국제관계실 (International Affairs):**

리하이의 국제관계실은 아이아코카 기관 (Iacocca Institute)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를 다지고 인턴십을 통해 기업가적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

- **글로벌 연합 (Global Union, GU):**

GU 는 인터내셔널 위크와 같은 행사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와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 학생 클럽 및 단체 연합이다. GU 는 국제관계실 산하 단체이며 40 개국 이상에서 온 천여 명 이상의 회원이 소속되어있다. 교내 다양성 및 포용성 이니셔티브도 GU 와 연계해 진행된다.

3. 특징

리하이대학교의 사례는 중소규모 대학교의 국제 파트너십 형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UN 공보부 산하 NGO 인 동시에 UNAИ 의 회원이라는 점이 국제기관 및 개발 프로젝트 인턴십을 통한 세계시민 교육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경쟁적 우위가 있다. 이런 기회는 글로벌 연구의 다양한 학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해 제공된다.

학교 차원에서 세계시민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세계시민프로그램 (Global Citizenship Program)은 학교의 금전적 지원으로 학생이 글로벌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돕는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경험을 교내 자원봉사 기회와 연계해 학생이 세계시민 의식을 지속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한다.

리하이대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은 국제학전공 또는 지속가능개발 부전공을 통한 학제간 연구 속에 포함돼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깊은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학습, 워크샵, 현장 연구를 통한 경험으로부터 얻는 폭넓은 실질적 역량을 제공한다.

유엔대학교 (United Nations University)

1. 개요

1975년 설립된 유엔대학교는 “일본에 본부가 위치한 글로벌 싱크탱크이자 대학원 교육기관”으로 유엔대학교센터와 참여 대학, 연구 센터 및 기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UN 헌장의 원칙과 목표를 발전”이라는 유엔대학교 헌장에 따라 설립된 독특한 글로벌 기관으로 UN 과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으로서 학계와 UN 사이의 가교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역량 개발에도 도움을 준다.

유엔대학교의 목표와 목적은 한 마디로 글로벌 지속가능성이다.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은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관련 연구 주제가 세계시민의식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 거버넌스, 이주, 도시화, 물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구 활동은 초학문적 도전과제를 다루며 UN 과 교류하며 진행한다.

UNU 의 주요 목적과 목표는?

(UNU 소개, 자주 묻는 말에서 발췌)

협업 연구, 교육, 역량 개발 및 자문 서비스를 통해 인간 생존, 개발, 복지와 같이 UN, 회원국 및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일조한다. 유엔대학교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주제로 삼아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 현재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요구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구 및 훈련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유엔대학교의 현 활동은 평화, 안보, 및 인권; 인간 및 사회경제적 개발과 거버넌스; 세계 보건, 인구, 지속가능한 생계; 세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과학, 기술, 혁신과 사회를 포함하는 5 개의 상호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주제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2. 중점사항

- **공동 국제 학술 프로그램 (Joint international academic program):**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은 전 세계 파트너 대학에서 제공되며 때로는 공동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환경 리스크의 지리학 및 인간 안보 (Geography of Environmental Risks and Human Security)”라는 이학석사 프로그램은 유엔대학교와 본대학교 (University of Bonn)이 공동 주관해 학생들이 양 기관의 학위를 모두 받고, 국제기구나 정부 부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경제 협업 Ph.D. 또한 공동 학위 과정이다. 유엔대학교세계 개발 경제 연구소 (UNU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 Research, 헬싱키)와 가나대학교 (University of Ghana)가 공동 주관하며 학위는 가나대에서 수여한다.

3. 특징

UNU는 UN 헌장의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UNU는 연구 중심 기관으로 세계 지속가능개발 이슈에 대한 글로벌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고 있다. UNU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지닌 국제 대학이긴 하나, 본부는 일본에 있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유엔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더 자주 언급한다. 세계시민에 대한 깊은 교육 또는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으나, UN 원칙과 일치하는 설립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어 세계시민의식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 및 깊이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1) 평화, 안보, 인권; (2) 인간 및 사회경제적 개발과 굿 거버넌스; (3) 세계 보건, 인구, 지속가능한 생계; (4) 세계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5) 과학, 기술, 혁신과 사회”와 같이 주요 UN 어젠다에 포함된 주제를 주로 연구한다. 이에 따른 4개의 주요 연구 분야는 거버넌스, 이민, 도시화, 물이다.

학술 기관으로서의 독특한 특징은 교육 및 연구 대학과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다.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공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유엔대학교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교직원과 전문가를 채용하며, 학생들이 국제기구 및 정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츠크바대학교 (University of Tsukuba)

1. 개요

과학 연구소 허브로 계획 설립된 츠크바 과학 도시에 위치한 츠크바대학은 풍부한 연구 환경을 자랑한다.

대학의 설립 이념은 “미래 리더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이다.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국제적 이동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화 전략과 글로벌 우수 대학교 프로젝트(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and the Top Global University Project)에서 엿볼 수 있다. 프로젝트의 미션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창출 및 글로벌 리더 양성”이다. 프로젝트는 교육, 연구, 거버넌스 역신을 추구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캠퍼스 속 캠퍼스 교과목 주크박스 시스템(Campus in Campus (CiC) Course Jukebox System)으로, CiC 파트너 대학이 참가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과목을 개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동하는 학생의 수와 전임 외국인 교수진 수로 평가 받는다.

2. 중점사항

- **국제학부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교양과목과 글로벌 발전 해법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학을 접목하는 다학제간 교육을 추진한다. 국제관계와 국제개발로 나뉘어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글로벌 이슈를 탐색한다. 국제사회학 프로그램 학사 과정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보유한” “세계의 시민을 배출한다”고 설명돼 있다.

- **교육학과 (College of Education):**

교육학과는 태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국제 인턴십을 제공한다. 국제교육학 석사 과정(M.A. i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은 2017 년 4 월 설립 예정으로 졸업생들에게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자 인증(International Baccalaureate Educator Certificate)을 수여한다. 츠쿠바 하계 협회 (Tsukuba Summer Institute)와 스포츠를 통한 국제 개발과 평화 공동 석사 과정 (Joint Master's progra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Peace through Sport, IDS)은 체육과 국제 교류를 아우른다. IDS 는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과정으로 강의, 세미나, 실습수업 및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타 학술 과정:**

국제경영 MBA 와 국제 농업 연구소(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의 전문인 양성 과정은 해외 인턴십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2011 년 출범한 통합 및 글로벌 전공 학부(School of Integrative and Global Majors, SIGMA)는 인간 생물학, 임파워먼트(empowerment) 정보과학, 생명과학 혁신의 3 가지 박사 과정과 같은 다학제적 학위 과정을 수여한다.

- **인문학 및 사회과학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문학 및 사회과학 대학원은 국제 공공 정책(International Public Policy) 석사 학위뿐만 아니라 국제학생이 수강 가능한 다수의 특수 과정을 제공한다. 국제관계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 in International Relations)은 매년 개발도상국에서 10 명의 젊은 공무원을 초청해 국제관계 연구 분야의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중앙아시아 국제 관계 및 공공 정책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 for Central Asian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ublic Policy)은 매년 10 명의 중앙아시아 학생을 모집해 1 년간 진행되는 과정이다. 인문 사회과학부 산하 세계 발전을 위한 범유럽-동아시아 교육 프로그램(TRANS Europe-East Asia Education Program for Global Development, 일본어로만 정보가 제공됨), TAG/AIMS 프로그램 (범아세안(ASEAN) 글로벌 아젠다 교육 / 아세안 학생 국제 이동성)도 있다. AIMS 는 2010 년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업으로 시작되어 후에 일본 정부가 후원하며 파트너 대학으로부터 학생을 모집하는 TAG 와 연계됐다. TAG-AIMS 는 해외 학생을 초대해 1 학기 동안 글로벌 사회 및 글로벌 인턴십 수업을 듣게 해준다.

- **지역연구 혁신 프로그램 (Area Studies Innovation Program, ASIP)**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대학원 산하 5년 과정이며 글로벌 노동 시장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학사 석사 통합과정이다. ASIP는 글로벌 시각을 지녔으나, 특정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에 최적화된 글로벌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ASIP 소개: “지역에 최적화된 글로벌 인적 자원”이란?

국제 사회란 지역적 다양성이 유지되지 않는 통일화 된 사회를 뜻하지 않는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지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사회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용어에만 집중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적 공간을 나누고 세계적인 시각을 지닌 채 실용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역적으로 특화된 글로벌 인적 자원이다. ASIP는 학생들이 세계의 신흥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조직 내의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길 희망한다.

3. 특징

츠쿠바대학교는 세계라는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이슈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국제화 전략은 학생 이동성, 해외 학생 및 교직원 모집, 타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교과목 공유를 장려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학교의 공식 문서 및 학부 수준의 이니셔티브는 대부분 대학의 발전과 글로벌 인적 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학부의 국제 사회학 학사 과정은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여기에서 시민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 인권과 사회적 정의에의 정치적 참여라는 의미의 세계시민은 언급되지 않는다.

츠쿠바대학의 특징은 스포츠를 통해 국제 개발과 평화 교육을 접목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하는 국제 학생은 단기 또는 공동 석사 과정을 들으며 체육교육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다뤄보는 기회를 갖는다. 전반적으로, 츠쿠바대의 국제화 전략은 개별 학부가 대학 전체의 이니셔티브에 딱 맞춰져 일치하지 않으나, 큰 틀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되어 느슨한 연계체제에 있다.

베이징 사범대학교 (Beijing Normal University)

1. 개요

베이징사범대학교 (Beijing Normal University: BNU)는 100 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의 사범대학이다. 중국 내 최초의 사범대학으로 1902 년에 설립되었다. 또한, BNU 는 일반적인 연구 대학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기술혁신 관련 학부와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BNU 소개에서는 “애국심, 진보, 정직성, 성실성, 진리탐구 및 혁신”이라는 전통을 강조한다. BNU 가 국제관계를 맺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BNU 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웹사이트에는 대학 목적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나열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대학 및 연구센터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학생과 유학생에게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중, 공동 설립된 공자학당(Confucius Institutes)이 특히 눈에 띈다.

2. 중점사항

- **교육학부:**

교육학부 소속 학생 2,199 명 중 119 명이 유학생이며, 2013 년 국제화 계획 이후 외국인 교수의 수를 늘리고 있다. 교육리더십과 정책 석박사 과정(Master's and Ph.D. in Education Leadership and Policy)은 다른 공동 과정과 함께 영어로 수업하는 두 개의 주요 과정이다. 베이징과 시드니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세계화 시대에서 도덕적인 시민을 교육하는 법(Educating Moral Citizens in a Globalizing World)”이라는 과정은 전세계적 맥락에서의 시민의식을 논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을 도덕성과 연결하여 탐구한다(“동아시아에서 ‘모범 시민’이라는 말은 종종 ‘도덕적인 시민’이라는 뜻이다”).

- **국제교류 및 협력 사무실:**

국제교류 및 협력 사무실(The Offic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은 주로 국제 중국어 학습(International Chinese Learning)과 지역개발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유럽 내 중국어 센터(European Chinese Centre for Education and Research in Regional Development (ECER))라는 두 개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는 주로 공자학당에 대한 것이며, 해외에서의 중국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보다는 국가 중심적이다. ECER은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루므로 세계시민의식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ECER은 중국의 생태학, 사회학 및 재해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Trier 시와 협력하여 만든 도시 및 지역개발에 대한 학문적 교육, 작업, 연구 과정이다. ECER은 3년 간의 시범시행 후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다룬 주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보다는 재해관리, 그리고 환경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과정의 보다 나은 소개를 위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3. 특징

베이징사범대의 좌우명은 學爲人師, 行爲世範(다른 이를 가르치고자 배우라. 모두에게 귀감이 되도록 행동하라)이다. 이 연구 대학의 주요 목표는 교육분야에서 국가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 BNU는 국가시민의 덕목과 도덕교육에 기반하여 글로벌 문제를 다룬다. 또한, 공자학원의 공동 설립을 통해, 해외에서의 중국어 학습으로 인한 국제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온라인 상의 영문자료에는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신 대부분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시민의식 및 국가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협력의 주된 목적은 글로벌 개발보다는 국가증진과 개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전 하에 각 학부와 사무실은 국제화 과정을 느슨한 연계체제 속에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대학교 (Shanghai University)

1. 개요

상하이 대학교에서는 학제간 개발과 연구협력을 위한 여러 우선순위 중 국제화를 전략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전략은 인재를 배출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연구 대학이 되고자 하는 설립 이념을 달성하게 해준다. 유학생 대상으로 제작된 웹사이트에 나온 SHU의 비전과 이념은 “글로벌화된 캠퍼스” 설립이라는 조금 다른 면을 보인다. 요컨대, SHU의 국제화 전략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글로벌화된 캠퍼스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대학이 되는 것이다.

SHU의 학기는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 주 단위의 학기가 3 개 있고 실습교육을 위한 4 주의 여름학기가 있다. 여름학기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해외 또는 과외활동 경험을 하게 된다.

2. 중점사항

- **외국어학부:**

글로벌적인 면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학술프로그램은 외국어학부에 있다. 학부 영어 과정은 영어기술 훈련뿐 아니라 “비판적 및 창의적 사고의 역량을 위한 글로벌적인 시각 부여, 특출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다양한 인문학 학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학부의 “언어, 문화 그리고 세계문명(Language, Culture and World Civilization)” 박사과정에는 세계사, 중국어와 문학, 언론학 및 커뮤니케이션 등 타 부서 교수진들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상기 3 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계문화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한다.

- **국제교류대학:**

국제교류대학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또는 장기 과정을 운영한다. 과정의 대부분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관한 것이다. 이 학부는 모든 유학생의 등록과 행정처리를 담당한다.

- **국제학 과정:**

국제학 박사과정은 정확히 세계시민의식의 요소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본 과정은 환경, 빈곤, 의료, 이민 등에 대한 글로벌 딜레마를 통해 관련 글로벌 현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문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글로벌 인식 조성 및 지리학적, 문화적, 언어 그리고 정치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소외감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센터에 대한 영문 웹사이트와 설명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국제학 과정과 연계된 국제학센터(Center for Global Studies)는 글로벌 관계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해 글로벌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한다. 웹사이트는 2014 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지만, 이러한 센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계속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특징

SHU 는 유학생 모집을 통한 국제화를 우선시한다. 본 대학은 세계로 진출을 목적으로 대학의 글로벌적인 면을 강조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다수의 학위 및 비학위 과정 중 일부는 세계시민교육 가치와 부합한다.

외국어학부의 학부 영어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글로벌 관점을 심어주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는 비판적 사고,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초학문적 학습범위 측면에서 글로벌시민의 요소와 부합한다. 국제학 과정은 정확히 문화간 이해와 글로벌 인식을 다룬다.

전반적으로 SHU 의 정책과 과정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글로벌 캠퍼스를 지향하는 대학의 비전과 일반적인 비전에 부합하는 학과별 프로그램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난양공과대학교 & 싱가포르 사범대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1. 개요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는 역사가 길지 않은 상위권 연구 대학으로 6 개 학부와 4 개의 관련 독립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사범대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IE)가 그 중 하나이다.

NTU 교육(NTU Education) 청사진은 학사 및 석사 커리큘럼뿐 아니라 국제 전략의 근간이 된다. 5C(학생의 핵심 자질)는 국제적인 캠퍼스의 학습 환경으로 함양된다. 이러한 자질을 바탕으로 21 세기형 기술을 가르치는 NTU 교육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대학 발체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는 고유의 방식으로 공식 및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국제화를 교육환경에 접목시킨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새로운 NTU 교육 청사진의 비전에 따라 커리큘럼 내외적으로 경험을 한다. 이와 함께, 아래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특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진실성과 높은 도덕수준을 지닌 CHARACTER(인격)
- 평생 동안의 통제된 학습을 통해 달성한 COMPETENCE(능력)
- 리더십, 협업기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통한 COMMUNICATION(커뮤니케이션) 능력
- 기업가적인 재능, 혁신성 그리고 학제간 통합을 통한 CREATIVITY(창의력)
- 전문성을 수용하고 공익을 위하여 사회참여와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을 가진 CIVIC-MINDEDNESS(공중도덕성)

NTU2020의 5개년 전략계획은 지속가능 개발과 기타 글로벌 차원의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지구, 글로벌 아시아, 안전한 지역사회, 건강한 사회, 미래 학습을 다섯 개의 주요 연구 부문으로 명시한다.

싱가포르 사범대학교는 싱가포르의 주요 사범대학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과정과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교육부의 정책과 철저하게 맞닿아 있다. 싱가포르 사범대학교는 세계시민의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우선순위이다. 또 중요한 것은 도덕적 가치와 21세기 기술의 교육,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 싱가포르 사범대학교가 추구하는 방식 등에 대한 강조이다.

싱가포르 사범대학교의 21세기형 사범교육모델 (Teacher Education Model for the 21st Century: TE21))은 2009년에 교육문제와 관련한 6가지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 기본적인 가치에서부터 교수 레퍼토리, 평가 프레임워크 및 전문성 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 모델은 “21세기 교직의 자질(Attributes of the 21st Century Teaching Professional)” 중에서 “다양성 존중,” “다문화 이해 능력,” “사회적 책임감과 참여의식”으로 행동하기, “글로벌 인식” 갖추기 등을 기본 가치, 기술, 지식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사범교육모델은 싱가포르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인식과 능력 등 21세기형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사범대학교는 교육학 대학원과정, 문학사/공학사(BA/BSc), 교육 학위, 특수분야 교원교육 석박사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교원교육 및 연수 과정을 제공하며, 모두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장학금이나 급여를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사와 교육분야 책임자들도 싱가포르 사범대학교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커리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중점사항

- **NTU 글로벌 교육 및 모빌리티(Global Education and Mobility: GEM):**

GEM은 현재 10명 중 6명 이상의 NTU 학생에게 주어지는 해외 연수,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2020년까지 이 비율을 10명 중 8명으로 늘리고자 한다.

- **NTU MOOC:**

NTU 는 최초로 코세라(Coursera)의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의 학점을 허용한 대학이다. 8,000 명의 NTU 학생이 MOOC 과정을 이수했다.

- **NTU 학제간 대학원(Interdisciplinary Graduate School: IGS):**

현재 IGS 에는 5 개 중 4 개의 주요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4 개의 박사 프로그램이 있다: 지속 가능한 지구, 안전한 지역사회, 건강한 사회 그리고 글로벌 아시아이다. 프로그램은 예술과 과학을 조합하여 글로벌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 특히 글로벌 아시아 연구 박사과정은 싱가포르의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NIE 교육 연구 사무실(Office of Education Research):**

교육 연구 사무실(Office of Education Research)은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세계화와 시민의식에 관하여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나열해 놓았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교실에서의 글로벌 콘텐츠, 특히 싱가포르의 인성과 시민의식 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CCE)에 관한 것이다. 2015 년에는 “21 세기 교육의 리더, 가치, 그리고 시민의식(Leaders, Values and Citizenship in 21st Century Education)”이라는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전세계의 시민의식, 인성, 가치 교육”과 도덕교육, 가치교육, 공중도덕 및 시민의식 교육,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다문화간 대화의 장려를 논의했다.

- **NIE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관을 기르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다. NIE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Global Exchange Program)의 국제 학교 파트너십(International School Partnerships: ISP) 부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율을 2020 년까지 80%로 증대”하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전략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유럽, 미국, 홍콩, 호주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내는 것이 있는데, 이를 통해 “세계관을 길러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여러 해외 자매대학에서 5 주 간 경험하게 되는 교사 조교과정(Teaching Assistantship)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제도 및 문화를 경험하게 되고 “교육에 대해 글로벌 시각을 갖게 한다.” 전반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교육자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 **NTU-NIE 교사 장학금 프로그램(TSP):**

NTU-NIE 교사 장학금 프로그램(Teaching Scholars Programme (TSP))은 특별 선발된 학부생의 집단으로, “교육분야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적 정확성, 강한 리더십, 범세계적인 시각을 가진 졸업생”으로 양성된다. TSP 는 선발된 학생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대학원 과정까지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TSP 학생들은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3. 특징

난양공학대학교의 5 가지 학생 핵심 자질을 포함한 교육 모델은 특히 능력과 공중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시민의식의 속성과 부합한다. 이러한 자질은 21 세기 글로벌 환경에 필요한 기술과 외부 요인으로 나열된 사회변혁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함양된다.

글로벌 차원이 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유학생 모집, 해외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문제를 다루는 학제간 학문 과정 등을 포함하는 전략을 내세운다. GEM 과 기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범세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념에 기여한다.

싱가포르 사범대학교는 세계적인 사범대학으로 교육부와 협업하여 정책과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등, 긴밀히 연결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21 세기형 사범교육모델(TE21)은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한 정교한 프레임워크로, 지향하는 교사 자질 중 “글로벌 인식”이나 “사회적 책임과 참여”가 세계시민의식과 부합한다. TE21 과 기타 설립이념에 기반하여, 해외에서의 학습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범세계적인 시각 및 문화적 감수성 등 세계시민의식 가치를 키운다. 범세계적인 시각이라는 면모는 사실 시민의식의 이상이라기 보다는 인성, 가치, 도덕 교육과 더 맞닿아 있는 듯하다. 하지만 CCE 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21 세기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가치와 시민의식을 연결할 수도 있다.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은 글로벌 마인드와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주요 플랫폼이다. 해외유학/연수 및 교사 조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된다.

Appendix D.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 영남대, 상명대

영남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1. 개요

영남대학교는 1967년에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두 사학인 대구대학교와 청구대학교를 합병하여 설립된 종합대학이다. 이 두 대학이 해방 직후 진정한 민족독립의 정신을 배경으로 당시 지역민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민립대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영남대학교, n.d.-a). 영남대학교는 넓은 의미의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초점을 둔 세계시민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2. 중점사항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영남대학교는 ‘인간교육과 생산교육을 통한 민족중흥의 새 역사 창조’라는 창학정신을 바탕으로 지도적 인격자, 민족역사의 창조자, 주체적, 창조적 실천자 그리고 능동적 적응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또 대학의 비전을 세계화를 선도하는 가치중심의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인재의 역량으로 어학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타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성을 제시하였다. 세계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것이 바로 대학의 세계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라 볼 수 있다.

영남대학교의 인재상은 ‘Y형 인재’로, 이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고,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성과 야성을 겸비하며, 리더십과 조직융화력이 뛰어난 인재를 말한다. 영남대의 Y형 인재의 핵심역량은 총 네 가지로, 화합적 인성역량, 융복합적 창의역량, 글로벌 진취역량, 실용적 전문역량으로 나뉜다. 영남대학교는 Y형 인재 육성이 바로 YU Global Initiative 구현과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세계화의 도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 부분에서 영남대학교는 글로벌 역량과 세계시민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지만, 대학 차원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서는 비명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남대학교의 발전계획으로는 2013 에 세운 ‘YU the Future 미래를 만드는 대학’이 있다. 이 발전계획은 총 세 단계인 기초체력강화기(2013-2017), 대학가치상승기(2018-2021), 확대·발전기(2022-2030)를 거쳐 추진된다. 영남대학교는 우선 기초체력강화기동안 ‘새로운 가치 창조’, ‘미래인재양성’, ‘세계수준의 지역거점사립대학’ 등 3 대 목표의 달성과 장기적으로 국내 10 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 전반의 기초 체력강화 중심의 대학 역량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그 다음 대학가치상승기 때에는 대학의 행·재정 시스템 및 캠퍼스 인프라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성과와 가치를 생산해내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확대·발전기는 영남대학교가 국내 10 대 명문대학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21 세기 미래 창조형 인재 양성과 한국의 대학교육을 리드하는 세계로 향하는 지역거점사립대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영남대학교의 발전계획은 해외 진출형이나, 대학의 인프라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충분히 세계시민교육의 토대가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나. 학부 교육과정

1) 교양 교육과정

영남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필수 아래 핵심교양과 전공교양, 그리고 교양선택 아래에 중핵교양과 자유교양으로 나뉜다. 핵심교양은 대학생활설계, 명저읽기와 글쓰기, 영어 및 중국어 교과목이 있으며, 중핵교양은 총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인문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사회과학영역, 예술체육영역, 세계문화와 외국어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영남대학교는 Y 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양 교과목을 핵심역량별로 개편한 후 균형적인 핵심역량을 위해 교과목을 보완하였다. 영남대학교는 교양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균형적인 핵심역량을 위한 교과목 재구조 및 신설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세계시민교육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인다.

- ① 화합적 인성역량 관련 교양교과목은 공동체 의식, 자기성찰, 도덕적 판단능력, 정서적 공감능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 주요 교과목으로는 대학생활설계, 독서와토론, 인간관계의철학, 삶의기술, 인간관계와적응, 민주주의와리더십의이해, 사회봉사 등이 있다.
- ② 융복합적 창의역량 관련 교과목은 지식분석력, 문제해결력, 통찰력, 비판적 사고능력에 초점을 두어 명저읽기와글쓰기, 융합인문학, 협대대중문화의이해 등의 교과목에서 다룬다.
- ③ 글로벌 진취역량 관련 교과목은 세계문화이해, 외국어 의사소통기술, 리더십 중심으로, Practical English, Academic English, 세계문화사,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의이해, 지식사회의리더십, 국제문화의이해와 같은 수업을 포함한다.
- ④ 실용적 전문역량 관련 교과목은 전문기초소양과 협력소통능력과 관련된 학술적글쓰기, 의사소통기술, 영어프레젠테이션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전공 교육과정

영남대학교의 학부 전공 교육과정 역시 핵심역량별 육성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 ① 화합적 인성역량과 관련해 팀빌딩 적용 교과목, 토론식 수업 운영 교과목, 전공윤리 함양 교과목, 전공연계 봉사 등이 있고,
- ② 융복합적 창의역량에는 학제간 융복합 교과목, 전공학점 상호인정 교과목, PBL 적용 교과목, 신지식/신성장 동력 창출 교과목 등이 포함된다.
- ③ 글로벌 진취역량은 전공 외국어 강의, 외국인교원 담당 교과목, 해외대학 복수학원 인정 교과목, Study Abroad 에서 다뤄지고,
- ④ 실용적 전문역량과 관련해 현장학습 교과목, Capstone Design, 산업체 경력교원 강의, 사회(산업체) 연계 운영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영남대학교의 핵심역량 연계 전공 교육과정은 세계시민 보다는 ‘기업의 선호 인재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전공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불분명해 보일 수 도 있어 보인다.

3) 비교과 교육과정

영남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사회수요 및 산업체 선호 인재상 분석을 통해 계획되고, 학생의 사회진출 성공 가능성 향상을 위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다. 주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성 함양캠프’, 학생이 선호하는 기업과 직무를 학생 스스로 분석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무능력과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YU Futures League’, 외국어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직무역량면접 트레이닝 솔루션 프로그램, 소통리더십 챌린지 캠프 등이 있다. 영남대학교의 주요 비교과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 사회진출형으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보인다.

다. 대학원 교육과정

영남대학교의 주요 대학원 중 하나로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대학원은 개발도상국을 포함, 세계 각국으로부터 매년 청년들을 선발하여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성공전략과 경험,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통치리더십, 각종 공공정책의 내용과 집행과정,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경험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영남대학교, n.d.-b). 이와 같이 영남대학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총 3 가지의 학과, ① 새마을국제개발학과, ② 공공정책리더십학과, ③ 지속가능발전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국제개발학과에는 새마을지역개발전공과 국제개발협력전공이 있고, 공공정책리더십학과에는 공공정책 및 리더십전공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학과에는 산림자원 및 생태복원전공과 환경관리 및 정책전공으로 두 가지 전공이 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목으로 공통교과목에는 공동체사회와문화, 환경정책과지속가능발전 등이 있고, 전공교과목으로는 글로벌환경이슈, 기후변화정책, 다문화와개발협력, NGO와국제개발협력, 기후변화적응:이론과실제 등이 있다.

라. 주요 조직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조직은 두 가지로, ① 국제개발협력원, ② 새마을연구센터, ③ 지구촌상생인재양성사업단이 있다. 국제개발협력원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지구촌상생인재양성사업단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DREAM’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국제개발협력원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저개발국가와 공유함으로써 지구촌 빈곤퇴치와 인류공영에 기여함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국제선도사업단, 국제교육연수단, 컨설팅해외사업단, 국제협력지원단의 1 실, 4 단 체제를 갖추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교육 추진 등이 있고,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국제교육연수사업이 있다. 국제교육연수사업의 Outbound 프로그램은 새마을국제개발 분야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 인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고, Inbound 프로그램은 새마을운동과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초청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개도국 인재들에게 제공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교육연수사업은 또 특강, 학술대회, 국제포럼 등으로 빈곤퇴치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까지 확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새마을연구센터는 2010 년에 설치되어 새마을운동을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의 설립 목적으로 개발연대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발전경험을 세계와 공유,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한 연구와 교육 추진 등을 제시한다. 새마을연구센터의 주요 활동은 세 가지로 나뉘어 국가발전정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학문화, 국제개발협력 선도대학으로서의 활동 등을 실행하고 있다. 더 자세한 연구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새마을연구센터를 통해 영남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점을 더 살펴 볼 수 있다.

지역선도대학 사업을 위한 지구촌상생인재양성사업단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공동 유치 및 역량 제고를 위한 ‘DREA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치 및 입학(Recruitment & Admission), 지원 및 관리(Management), 취업(Employment) 그리고 기숙사 및 인프라(Dormitory & Infrastructure) 단계를 거쳐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남대학교는 대학의 인프라(경북글로벌교류센터, 박정희새마을대학원, 국제개발협력원)와 협력대학의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선도대학 사업의 성공모델로 정착했다.

마. 학생활동

국제활동과 관련된 학생활동으로는 해외자원봉사대가 있다. 해외자원봉사대는 ‘나눔과 배려의 봉사마인드를 정착하고 지성과 인성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함’을 목표로 설정하여 학기별로 재학생과 교직원을 개발도상국 등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파견하여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자원봉사활동은 2001 학년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1 회에 걸쳐 시행되었고, 2,431 명의 인원이 방학기간을 활용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파견 전 교육훈련으로 오리엔테이션, 영남대학 역사 바로알기,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보인다.

3. 특징

영남대학교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에서 넓은 의미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며, 대학 차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의지는 YU Global Initiative 구현과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 설정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지만, 직접적인 의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영남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 현황은 Top-down 유형에,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남대학교는 교양 교육과정을 핵심역량별로 체계화하였는데, 전공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불분명하였다. 하지만 영남대학교는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통해 관련 대학원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국제개발협력원과 새마을연구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와 연구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영남대학교는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구촌상생인재양성사업단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인재 및 개도국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영남대학교의 여건을 분석한다면, 국제개발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이 보인다.

상명대학교 : 체계화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여건

1. 개요

상명대학교는 1937년 일제 강점기에 민족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상명고등기예학원이 모태가 되어 탄생하였다. 그 이후 상명여자사범대학(1965), 상명여자대학교(1986)로 발전하였고 1996년에는 남녀공학으로 제 2의 창학을 하여 상명대학교로 거듭나게 되었다. 올해로 남녀공학 18년째이며 성공적인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상명대학교, n.d.).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명대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한 체계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인다.

2. 중점사항

가. 교육목표, 인재상, 발전계획

상명대학교는 1937년 설립된 상명고등기예학원이 모태가 되어 탄생한 민족대학으로, ‘진리, 정의, 사랑을 바탕으로 문화 창조와 인류 복지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이념 아래 ‘신뢰받는 지성인’, ‘창의적인 전문인’, ‘정의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상명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조화로운 인격을 함양하는 교양교육
- ② 협동과 봉사를 중시하는 시민교육
- ③ 창의와 실용을 지향하는 전공교육
- ④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화교육

이러한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지성과 전문성, 민주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창조와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유능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3 년 취임한 현 총장은 ‘21 세기를 창조하는 역동적 글로벌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에, 이 비전의 구체적인 구현 모습으로서 ‘글로벌 상명’, ‘다이내믹 상명’을 설정하였다. 이는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대학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명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5 대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 전문지식 탐구 역량
- 다양성 존중 역량
- 융복합 역량
- 윤리실천 역량
-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이러한 5 대 핵심역량 중에서, ‘다양성 존중 역량’, ‘융복합 역량’, ‘윤리실천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은 모두 세계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상명대학교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계시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교육에 대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수준 반영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명대학교의 발전 전략을 보면, (1) 창의적 융합으로 특성화된 대학, (2) 진리, 정의, 사랑에 기반한 행복한 교육 공동체, (3) 최적의 전문 인재 교육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라는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발전계획 SMART 2025 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3 대 발전 전략으로 특화(교육-산학 중심의 실용적 가치 창출), 소통(모두의 행복을 위한 소통), 내실(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설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SMART 2025 는 (1) 대외적으로는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융복합 지식을 겸비한 혁신형 인재양성,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산학연계형 교육을, (2) 대내적으로는 특성화(ICT) 분야의 집중교육, 산학협력 촉진, 상명인의 소통 및 글로벌 역량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상명대학교의 국제화 및 특성화 전략은 소통 및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소통’이라는 발전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교내 구성원의 소통 역량 신장’,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류 강화’라는 3 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 조직 의사 결정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역산업 활성화 관-학-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화 및 복지교육 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확대하였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교육연구 및 봉사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확대하고자 했다. 성공적인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화 및 특성화 전략들이 세계시민의식 아래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학부 교육과정

상명대학교는 교양 교육목표를 ‘조화로운 인격을 함양하는 교양교육’으로 정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① 상명 핵심역량중심 교양교육
- ② 인성함양 기반 교양교육
- ③ 전공교육과 연계한 교양교육
- ④ 진로탐색 기반 교양교육
- ⑤ 교양교육 지원/환류 체계 구축

교양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나뉘며 교양필수는 기초교양, 상명핵심역량교양으로 나뉘고 교양선택은 균형교양과 일반교양으로 나뉜다. 교양필수는 20 학점, 교양선택 16 학점으로 총 36 학점 이상의 교양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인문학적 소양 및 외국어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서 인성 교양교과목을 내실화하고 인문학 기반의 신규 인성 교양교과목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과목으로는 ‘교양과 인성’, ‘사회봉사’, ‘명인 특강’, ‘인문학 특강’, ‘명저 읽기’가 있다. 그 밖의 기초 교양교육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 등 교과 연계의 클리닉과 대회, 캠프를 확대 시행하고 윤리 실천 프로젝트를 통한 윤리적 글쓰기 캠페인을 확대 전개하고 있으며, 영어 능력 평가를 통해 수강생의 수준을 파악하며 수강지도하고 튜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 강좌에서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도록 콘텐츠를 새로이 구성하여 현장체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봉사활동 졸업인증제를 연구하여 도입하였다.

교과 교육과정 이외에 비교과 교육과정은, 상명 인재상, 교육목표 및 중장기 발전계획 SMART 2025 와 연계하여,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 실천되고 있다. SM-IN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대학생활 주기(기초단계: 1 학년, 발전단계: 2-3 학년, 성숙단계: 4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구축 및 지도함으로써 효율적 비교과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비교과 교육으로서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진행이 되어온 해외봉사가 있다.

이러한 비교과 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라는 인재상 아래에서 비교과교육 환류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 및 심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과 활동 지원센터를 창설하였고, SM Challenge e-포트폴리오 개발 및 활용으로 개인별 비교과 계획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교과 교육은 단순 지식 이외에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며, 세계시민 양성에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에 상명대학교는 그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된 토대를 어느 정도 갖추고 교과교육 및 비교과 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갖춰진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

다. 대학원 교육과정

상명대학교 대학원은 상명교육이념을 발전적으로 추구하여 정보화 사회 및 고도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최신의 지식과 학문을 심오하게 탐구하고, 창의적 연구와 교수를 통해 사회 및 국가발전과 더불어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전문 학술인력의 배양을 그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교육 목표를 설정했다.

- ① 선도적이고 자주적인 연구능력 개발
- ② 이론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
- ③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지도자 배양
- ④ 인류에 봉사하는 인격 함양

이러한 대학원의 교육 목표를 볼 때에 인류발전에 이바지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부 교육과정에서의 교양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성이 좀 더 보인다.

라. 주요 조직

상명대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크게 기초교양대학과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가 있으며, 그 밖에 대외협력처 국제협력팀과 학생처 사회봉사센터가 존재한다.

먼저 교양교육을 총괄하는 전문조직으로 교양대학을 2012년 9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10월에 기초교양대학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양대학 내의 '연구위원회'는 교양 교육과정 편성, 개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교양교육 로드맵을 개발하고 교양 교육의 4대 발전 방향('기초역량', 'SM-IN 핵심역량', '융복합형', '체험형' 교양교육)을 위한 전문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 기초교양대학에서는 기초교육센터를 신규로 설립하여 기존의 교양교육혁신위원회와 인문교양실크로드위원회 등의 기능을 흡수하였다. 이러한 기초교육센터는 기초교양, 인성, 인문학 관련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그 밖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는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혁신연구평가센터를 통해 교양교육을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환류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는 비교과 교육과정의 체계적, 통합적, 효율적(비교과프로그램의 중복 및 누락 방지) 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기구로서, 환경을 분석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전략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또한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는 비교과통합지원센터,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교수학습개발센터(CTL) 등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취업진로팀과 창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나열식 제공이 아닌, PDCA(계획-시행-평가-환류) 시스템을 통해, 사전조사(①인재상 및 발전방향, ②학생요구, ③산업체의 요구, ④학부모 요구, ⑤신입생핵심역량진단)를 통해 실제 교과 보완(학습역량신장)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상명대학교의 대외협력처 국제협력팀은 국가별 안배를 통해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총 40개국 233 자매기관과의 학생교류 협정을 통해 교환학생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국제관계위원회 관련 업무, 외국인 교·강사 초빙에 따른 출입국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다.

학생처 사회봉사센터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봉사활동의 지도 및 교육,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회봉사단 및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봉사기관 섭외 및 홍보 등도 진행하며, 대외기관 해외봉사 프로그램 진행시에도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마. 학생활동

상명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관련 학생활동으로는 굿네이버스, 위상(WeSang), 시소(Siso), SEDA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 방지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국제활동 단체로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가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빈곤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위상(WeSang)은 하계해외봉사(교육봉사), 동계해외봉사(노력봉사)를 진행하는 단체로서 해외봉사를 목적으로 글로벌 시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봉사하는 대학문화와 봉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시소(Siso)는 전통음식교류, 각국 문화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간의 친목도모를 통한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자 하는 단체이다. 마지막으로 SEDA는 외국 문화 체험, 영어 토론, 특히 parliamentary debate 형식의 토론을 통해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학생활동을 통해 상명대학교 학생들은 봉사의식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있다.

3. 특징

상명대학교는 ‘진리, 정의, 사랑을 바탕으로 문화 창조와 인류 복지에 이바지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이념 아래 지성과 전문성, 민주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 창조와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유능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핵심 역량 중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다양성 존중 역량’, ‘윤리실천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명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비록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명대학교는 ‘기초교양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해 각종 교양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교양대학은 그 아래에 연구위원회, 기초교육센터,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교육혁신연구평가센터 등을 두면서 각종 교양교육을 운영 및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교양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교양 교육 및 외국어 교양 교육 등을 통해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있다. 그 밖에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서 각종 비교과 교육을 관장하고 있으며, SM Challenge e-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해 비교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명대학교의 모습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기반들을 세계시민교육 의식 아래에 하나로 묶어주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하다.

그 밖에 대외협력처 국제협력팀, 학생처 사회봉사센터 등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굿네이버스, 위상, 시소, SEDA 등의 학생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명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을 통해 문화 창조와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유능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상명대학교의 사례는 체계화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국제화 사업 그리고 학생활동 프로그램이 체계화된다면, 그 체계화의 과정이 국내 대학들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UNA-IK

Sharing
a Culture
of Intellectual
Social
Responsibility

The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Korea
www.unaikorea.org